대통령 탄핵 관련 TV방송 내용 분석

2004년 5월 29일

한 국 언 론 학 회

대통령 탄핵 관련 TV방송 내용 분석

연 구 진

책임연구원	이민웅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윤영철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윤태진 (연세대 영상대학원 교수)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김경모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제목 차례】

제 1 장 서 론 ····· 1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 1

2. 방송 저널리즘 환경의 변화 ····· 3
 1) 정치적 환경과 매체의 양극화 ····· 3
 2) 경제적 환경과 상업주의의 심화 ····· 4
 3) 기술적 환경 ····· 4
 4) 문화적 환경과 공론장의 분화 ····· 5

3. 연구 문제 및 연구방법 ····· 6
 1) 저녁 종합 뉴스 ····· 7
  (1) 연구 문제 ····· 7
  (2) 연구방법 ····· 9
 2)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 ····· 10
  (1) 연구 문제 ····· 10
  (2) 연구방법 ····· 12
 3) 프레임 분석 ····· 13
  (1) 연구 문제 ····· 13
  (2) 연구방법 ····· 14
 4) 담화분석 ····· 15
  (1) 연구 문제 ····· 15
  (2) 연구방법 ····· 15

4. 연구 참여 배경 ····· 18

제 2 장 이론적 배경 ····· 20

1. 사회 갈등론 ····· 20

2. 할린의 3 가지 이슈 영역 모델 ····· 21

3. 공정성 이론 ····· 22

4. 한국 방송사의 공정성 실천 규칙 ····· 23
5. 좋은 저널리즘의 조건 ····· 24

1) 진실성 ····· 24
2) 독립성 ····· 25
3) 책임성 ····· 25
4) 권력 감시 ····· 25
5) 심층성 ····· 26

6. 편향 보도 기법 ····· 26
1) 기사의 선택 과정 ····· 26
2) 처리 과정 ····· 27
3) 영상 처리 ····· 29

제 3 장 연구 결과 ····· 30

1. 저녁 종합 뉴스 분석 ····· 30
1) 연구방법 ····· 30
(1) 분석 대상 ····· 30
(2) 분석 유목 ····· 31
(3) 코딩 절차 및 코더 간 신뢰도 ····· 35
2) 분석 결과 ····· 35
(1) 뉴스 주제 ····· 35
(2) 기사의 갈등성 ····· 37
(3) 기사의 심층성 ····· 40
(4) 크로마키와 자막 ····· 42
(5) 화면과 기사의 일치 ····· 45
(6) 인터뷰의 수와 길이 ····· 46
(7) 인터뷰 대상과 성격 ····· 49
(8) 기자의 리포팅 ····· 52

2.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 분석 ····· 53
1) 연구방법 ····· 53
(1) 분석 대상 프로그램 ····· 53
(2) 코딩 절차 ····· 54
(3) 분석틀 및 유목 ····· 57
(4) 고도의 불공정 편향 판정 ····· 58
2) 연구 결과 ····· 60
(1) 주제 분포 ····· 60
(2) 프로그램 구성 형태 ····· 61
(3) 자료 화면의 구성 ····· 63
(4) 앵커 멘트의 편향성과 편향 기법 ····· 65

(5) 리포트의 편향성과 편향 기법 ····· 68
(6) 출연자의 편향성 ····· 71
(7) 인터뷰의 편향성 ····· 72

3. 프레임 분석 ····· 78
1) 연구방법 ····· 78
(1) 분석 대상 ····· 78
(2) 프레임 분석 개요 ····· 79
(3) 프레임 분석틀 ····· 82
2) 연구 결과 ····· 85
(1) 주요 정치 행위자의 이미지 프레임 ····· 85
(2) 주요 정치 쟁점의 경쟁 프레임 ····· 104
(3) 주제(맥락) 프레임의 유형과 변화 ····· 111
(4) 방송사의 정치 쟁점에 대한 프레임 요소 분석 ····· 112

4. 담화분석 ····· 117
1) 연구방법 ····· 117
(1) 비판적 담화분석 방법 채택의 배경 ····· 117
(2) 분석 대상 및 분석 유목 ····· 119
(3) 발언권 관리 형태 분석 ····· 121
(4) 연구 절차 ····· 123
2) 연구 결과 ····· 125
(1) 표현 방식에 따른 구분 ····· 125
(2) 언어적 표현 기법의 방송사별 비교 ····· 130
(3) 언어적 표현 기법의 프로그램 장르별 비교 ····· 134
(4) 언어적 표현 기법의 시기별 비교 ····· 136
(5) 언어적 표현 방식의 행위 주체별 비교 ····· 137
(6) 언어적 표현 방식의 탄핵 관련 주제별 비교 ····· 143
(7) 토론 진행자의 발언권 관리 양식 분석 ····· 146

제 4 장 요약 및 논의 ····· 151

1. 연구 결과 요약 ····· 151
1) 저녁 종합 뉴스 분석 ····· 151
(1) 뉴스 주제 ····· 151
(2) 기사의 갈등성 ····· 151
(3) 기사의 심층성 ····· 152
(4) 크로마키와 자막 ····· 152
(5) 화면과 기사의 일치 ····· 153

(6) 인터뷰의 수와 길이 ····· 153
(7) 인터뷰 대상과 성격 ····· 154
(8) 기자의 리포팅 ····· 154

2)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 분석 ····· 154
(1) 프로그램의 주제 분포 ····· 154
(2) 프로그램의 구성 형태 ····· 155
(3) 자료 화면의 구성 ····· 155
(4) 앵커 멘트의 편향성 ····· 155
(5) 리포터의 편향성 ····· 156
(6) 출연자 발언의 편향성 ····· 156
(7) 인터뷰의 편향성 ····· 156
(8) 보도의 심층성과 공정성 ····· 157

3) 프레임 분석 ····· 157
(1) 주요 정치 행위자의 이미지 프레임 ····· 157
(2) 주요 정치 쟁점의 경쟁 프레임 ····· 158
(3) 주제(맥락) 프레임의 유형과 변화 ····· 160

4) 담화분석 ····· 161
(1) 표현 방식에 따른 구분 ····· 161
(2) 언어적 표현 기법의 방송사별 비교 ····· 162
(3) 언어적 표현 기법의 프로그램 장르별 비교 ····· 163
(4) 언어적 표현 기법의 시기별 비교 ····· 163
(5) 언어적 표현 방식의 행위 주체별 비교 ····· 163
(6) 언어적 표현 방식의 탄핵 관련 주제별 비교 ····· 164
(7) 토론 사회자의 발언권 관리 양식 ····· 164

2. 연구 결과에 관한 논의 ····· 165

■ 참고문헌 ····· 172

▷ 부록 1(저녁 종합 뉴스 분석용 코드북) ····· 175
▷ 부록 2(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 분석용 코드북) ····· 179
▷ 부록 3(프레임 분석용 코딩 가이드) ····· 187
▷ 부록 4(비판적 담화분석용 코딩 가이드) ····· 192

【표 차례】

〔표 3-1-1〕 뉴스 정략적 표집 결과 ····· 30
〔표 3-1-2〕 저녁 종합 뉴스의 일별 뉴스 아이템 수의 변화 ····· 31
〔표 3-1-3〕 뉴스 주제 ····· 36
〔표 3-1-4〕 뉴스 주제 2(주제별 재분류) ····· 37
〔표 3-1-5〕 갈등적 이슈로 다룸 ····· 38
〔표 3-1-6〕 갈등적 이슈로 다룸: 탄핵 정치과정 주제 ····· 39
〔표 3-1-7〕 갈등적 이슈로 다룸: 시민 여론 반응 주제 ····· 39
〔표 3-1-8〕 기사 묶음에 대한 갈등성 분석 ····· 40
〔표 3-1-9〕 탄핵 관련 기사의 심층성 ····· 41
〔표 3-1-10〕 탄핵 관련 기사의 심층성: 시민 여론 반응 주제 ····· 42
〔표 3-1-11〕 크로마키의 내용 ····· 43
〔표 3-1-12〕 크로마키의 내용: 시민 여론 반응 주제 ····· 43
〔표 3-1-13〕 시점에 따른 크로마키 사용 ····· 44
〔표 3-1-14〕 자막의 내용(복수 코딩) ····· 45
〔표 3-1-15〕 화면과 기사의 일치 ····· 46
〔표 3-1-16〕 화면 처리 통계표(복수 코딩) ····· 46
〔표 3-1-17〕 인터뷰의 수(기사당 평균 인터뷰 수) ····· 47
〔표 3-1-18〕 인터뷰의 수(기사당 평균 인터뷰 수) ····· 48
〔표 3-1-19〕 인터뷰의 길이(기사당 평균 인터뷰 길이) ····· 49
〔표 3-1-20〕 인터뷰 대상(복수 코딩) ····· 50
〔표 3-1-21〕 인터뷰가 제공하는 정보 성격(복수 코딩) ····· 50
〔표 3-1-22〕 인터뷰 대상과 인터뷰 성격 간의 관계 ····· 51
〔표 3-1-23〕 기자 리포팅의 분석 및 논평 여부 ····· 52
〔표 3-1-24〕 기자 리포팅의 분석 및 논평 여부 ····· 53
〔표 3-2-1〕 방송3사 탄핵 관련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 ····· 55
〔표 3-2-2〕 방송사별 탄핵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 ····· 56
〔표 3-2-3〕 탄핵 방송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 ····· 56
〔표 3-2-4〕 날짜별 탄핵 시사·교양·정보 방송 ····· 57
〔표 3-2-5〕 방송사별 주제 분포 ····· 61
〔표 3-2-6〕 프로그램의 구성 형태: 방송3사 비교 ····· 62
〔표 3-2-7〕 프로그램의 구성 형태: 프로그램별 비교 ····· 63
〔표 3-2-8〕 자료화면 구성 방식: 방송사별 비교 ····· 64
〔표 3-2-9〕 앵커 멘트의 편향성: 방송3사 비교 ····· 65
〔표 3-2-10〕 앵커 멘트의 편향 기법: 방송사별 ····· 66
〔표 3-2-11〕 앵커 멘트의 편향성: 프로그램별 ····· 67
〔표 3-2-12〕 앵커 멘트의 편향 기법: 프로그램별 ····· 68
〔표 3-2-13〕 리포트의 편향성: 방송사별 ····· 69

〔표 3-2-14〕 리포트의 편향 기법: 방송사별 ····· 69
〔표 3-2-15〕 리포트의 편향성: 프로그램별 ····· 70
〔표 3-2-16〕 리포트 편향 기법: 프로그램별 ····· 71
〔표 3-2-17〕 출연자 발언의 편향성: 방송3사 비교 ····· 72
〔표 3-2-18〕 출연자 발언의 편향성: 프로그램별 비교 ····· 72
〔표 3-2-19〕 탄핵 찬반 인터뷰 수: 방송사별 비교 ····· 73
〔표 3-2-20〕 탄핵 찬반 인터뷰: 프로그램별 비교 ····· 74
〔표 3-2-21〕 보도의 심층성: 방송3사 비교 ····· 75
〔표 3-2-22〕 보도의 심층성: 프로그램별 비교 ····· 76
〔표 3-2-23〕 인터뷰 내용의 수준: 방송사별 비교 ····· 77
〔표 3-3-1〕 프레임 분석을 위한 분석 대상 아이템 수 ····· 79
〔표 3-3-2〕 정치 행위자 이미지 프레임: 열린우리당 ····· 86
〔표 3-3-3〕 정치 행위자 이미지 프레임: 한나라당 ····· 88
〔표 3-3-4〕 정치 행위자 이미지 프레임: 민주당 ····· 90
〔표 3-3-5〕 정치 행위자 이미지 프레임: 촛불 시위 참여자 ····· 92
〔표 3-3-6〕 정치 행위자 이미지 프레임: 노 대통령/청와대 ····· 94
〔표 3-3-7〕 정치 행위자 이미지 프레임: 대통령 권한대행 ····· 96
〔표 3-3-8〕 정치 행위자 이미지 프레임: 야3당 ····· 97
〔표 3-3-9〕 정치 행위자 이미지 프레임: 시민/국민 ····· 99
〔표 3-3-10〕 정치 행위자 이미지 프레임: 헌법재판소 ····· 100
〔표 3-3-11〕 정치 행위자 이미지 프레임: 국회 ····· 101
〔표 3-3-12〕 정치 행위자 이미지 프레임: 국회의장 ····· 102
〔표 3-3-13〕 정치 행위자 이미지 프레임: 행정 관료 ····· 103
〔표 3-3-14〕 정치 행위자 이미지 프레임: 보수 단체 ····· 104
〔표 3-3-15〕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경쟁 프레임 ····· 106
〔표 3-3-16〕 촛불 시위(집회)에 대한 경쟁 프레임 ····· 109
〔표 3-3-17〕 편향 방송 시비에 대한 경쟁 프레임 ····· 111
〔표 3-3-18〕 탄핵안 가결 이슈에 대한 정의·원인·결과·입장 ····· 114
〔표 3-3-19〕 촛불 집회 이슈에 대한 정의·원인·결과·입장 ····· 115
〔표 3-3-20〕 편향 방송 시비 이슈에 대한 정의·원인·결과·입장 ····· 116
〔표 3-3-21〕 주제(맥락) 프레임의 방송사별 비교 ····· 117
〔표 3-4-1〕 토론 프로그램의 진행자 및 출연자 ····· 123
〔표 3-4-2〕 사회자 멘트의 표현 기법 상 문제점 ····· 130
〔표 3-4-3〕 언어적 표현 기법의 방송사별 비교 ····· 131
〔표 3-4-4〕 각 방송사별 언어적 표현 기법 상 특성 비교 ····· 133
〔표 3-4-5〕 언어적 표현 기법의 프로그램 장르별 비교 ····· 134
〔표 3-4-6〕 프로그램 장르별 언어적 표현 기법 상 특성 비교 ····· 136
〔표 3-4-7〕 언어적 표현 기법의 프로그램 방송 시기별 비교 ····· 136
〔표 3-4-8〕 방송 시기별 언어적 표현 기법 상 특성 비교 ····· 137

〔표 3-4-9〕 언어적 표현 기법의 행위 주체별 분석 요약 ····· 142
〔표 3-4-10〕 언어적 표현 기법의 주제별 분석 요약 ····· 146
〔표 3-4-11〕 토론 진행자의 발언권 관리 양식(발언권 부여) ····· 147
〔표 3-4-12〕 토론 진행자의 발언권 관리 양식(발언권 박탈) ····· 148
〔표 3-4-13〕 발언권 박탈 방식의 유령 ····· 149

제 1 장 서 론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2004년 3월 12일 16대 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다. 정치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건이었으므로 모든 언론 매체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에 시선을 집중시켰다. 특히 방송은 3월 12일 정규 방송 프로그램을 중단한 채 탄핵 관련 프로그램을 긴급 편성하여 대통령 탄핵안 가결 과정과 그 반응을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방송하였다.

그러나 탄핵 관련 방송이 전파를 탄지 하루도 못되어 탄핵 관련 방송의 공정성과 균형성에 관해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탄핵을 주도했던 야당은 탄핵 관련 방송이 자신들을 불리하게 혹은 부정적으로 묘사한 편향 방송이라고 주장하고 그런 뜻을 전달하기 위해 방송사를 방문하여 방송사 측과 설전을 벌이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다. 탄핵에 반대한 열린우리당은 이러한 방송사 방문을 정치권의 부당한 언론 간섭으로 간주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했다. 3월 12일 이후 계속되었던 탄핵 관련 방송 뉴스, 토론 그리고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공정성 논란은 그치지 않았으며, 이 사안은 방송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탄핵 관련 방송에 관한 공정성 논란은 방송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정치적 쟁점을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 질문은 비단 방송의 공정성의 문제뿐 아니라 방송 저널리즘의 질적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상파 방송 3사의 탄핵 관련 방송이 얼마나 공정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추상적이고 규범적 수준의 개념인 공정성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기초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결과를 통해 탄핵 관련 방송 전반이 어느 정도 공정했는지, 또한 탄핵 방송은 어떤 프레임을 어느 정도 부각시켰는지, 그리고 탄핵 방송은 '질 좋은 저널리즘'의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시켰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탄핵 관련 방송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권력 집단 간의 정치 갈등이 사회 전반적인 갈등으로 확산되어가는 과정을 다루었던 대표적 보도 사례였다. 이미 양극화된 한국 사회의 권력 구조가 충돌하는 국면이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재확인되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방송의 탄핵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편향성이 논란의 대

상으로 떠올랐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에 대한 국론이 분열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방송의 편향성 시비는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방송의 편향성 혹은 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과학적인 연구가 없었다. 공정성 판정을 인상적인 관찰이나 부분적인 사례에 의거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공정성에 관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논란은 크게 보아서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첫째, 공정성의 기준의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하나의 쟁점에 대해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할 때 각각의 시각을 반영하는 내용을 어떤 비율로 다룰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여론조사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찬성과 반대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공정 보도인가, 아니면 중요한 의견들을 동등하게 다루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논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공정성을 특정 프로그램 내의 문제로 파악하는가, 아니면 특정 채널 내의 전반적인 분포의 문제로 보는가 하는 논란이다. 바꿔 말해서, 방송사가 제작한 모든 프로그램이 공정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동일 채널 내의 프로그램들이 각각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도록 허용하여 채널 내의 전반적인 수준에서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지의 문제라고 하겠다. 단일 프로그램 내의 공정성보다는 프로그램 간의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탄핵 반대의 시각을 보인 프로그램과 탄핵 찬성의 시각을 드러낸 프로그램의 비율을 비교함으로써 공정성을 평가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셋째, 한 편을 옹호하는 채널과 다른 편을 옹호하는 채널이 공존한다면,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이 엇비슷하다면, 이를 거시적인 수준에서 공정한 상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다.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어 방송 채널의 수가 거의 무한대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방송에게 공정 보도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보수적 신자유주의자들은 방송에게 특정 성향의 정치적 목소리를 자유롭게 공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에서는 방송이 자유롭게 특정한 정치적 시각을 대변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진보를 내세우고 있는 진영에서 나오고 있다.

이 연구는 탄핵안 가결 이후 지상파 방송 3사의 9일 치 방송 내용 전반을 분석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모든 차원에 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개별 프로그램의 공정성뿐 아니라 채널 내의 공정성 그리고 채널 간의 공정성 문제도 점검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가 지니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양적 분석 방법 뿐 아니라 질적 분석 방법을 동시에 사용했기 때문에 단일 연구방법에 의존함으로써 감수해야 하는 연구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계량적 내용 분석과 프레임 분석 그리고 담화 분석 및 영상 분석을 동원함으로써 각각의 분석 결과를 확인, 점검할 수 있는 이른바 3각 측정(triangulation)이 가능하였다.

대통령 탄핵 문제는 정치 갈등이 극적인 형태로 드러난 한 사례이다. 아직도 권력 구조 내의 갈등이 엄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이념적, 정치적 쟁점을 놓고 방송의 공정성 논란이 얼마든지 다시 재현될 수 있을 것이고, 공정성 여부를 신속하게 가려야 할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연구가 제공하는 분석틀과 연구 결과는 향후 다른 쟁점적 사례와 관련된 방송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기준과 잣대를 제공하는 데 공헌할 수 있다고 본다.

2. 방송 저널리즘 환경의 변화

1) 정치적 환경과 매체의 양극화

대통령 탄핵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논란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급격하게 변화해 온 방송 저널리즘의 정치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는 1980년대 후반부터 민주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지만 민주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고, 사회 갈등과 분열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민주화를 거치면서도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기 어려웠던 것은 1990년대 이후 한국의 특수한 정치 상황 때문이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정권 획득을 위해 여러 정파들의 공조나 통합을 이루어냈지만, 그것은 그다지 견고한 것은 아니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어느 정파 세력도 안정적인 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권력 구조는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분산화와 양극화의 길을 걸었다.

특히 1997년과 2002년의 정권교체는 권력 구조의 투쟁 전선이 양극화하고 있음을 재확인 시켜 주었다. 언론 매체들은 그들이 대리하는 권력과의 공조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정파적 성향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른바 빅 3으로 불리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한나라당의 후원자로서, 진보·좌파 이념에 동조적인 한겨레신문과 공영방송은 집권 여당의 후원자로서 각각 활동하면서 권력 투쟁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른바 권력 투쟁의 전선이 언론 매체에까지 확대되었던 것이다.

권력 투쟁의 대리전에 뛰어든 언론 매체들 간의 대립은 두 가지 유형의 전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하나는 개별 언론사가 대리하는 권력의 입지를 강화함으로써 자기편에 유리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정치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또 하나의 전선은 어느 편의 언론 보도가 '좋은 저널리즘'의 표상인지를 놓고 벌이고 있

는 논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양측은 지면이나 매체 비평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상대측 매체의 보도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비난했다. 이념적 쟁점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달리하는 언론 매체들은 공방전을 벌이는 가운데 정치적 지형과 언론 지형 양자 모두가 양극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저널리즘의 덕목 가운데 하나인 공정성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

2) 경제적 환경과 상업주의의 심화

경제적인 측면에서 방송 채널의 폭증으로 인한 시장 경쟁의 심화는 방송으로 하여금 시장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프로그램 편성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텔레비전 시청 가구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신료 징수도 한계상황에 봉착해 있다.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국가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다원화된 시민사회를 대표하기보다는 소수의 방송 엘리트 집단에 의해 방송의 내용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이미 공영방송의 영역에까지도 시장 논리가 확산되어 상업방송과의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공영방송이 다양한 정치적 취향과 견해를 지닌 시민사회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편향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의 디지털化가 방송 상업주의를 심화한다는 우려는 방송 저널리즘에도 중요한 과제를 던진다. 상업성의 심화는 오락적, 선정적 프로그램의 양산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낳고 있으며 이는 방송 저널리즘의 형식과 내용에도 영향을 미쳐 인포테인먼트(infortainment)와 인포머셜(informercial)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상업주의의 심화가 저널리즘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시청률 경쟁에 사로잡힌 제작 관행으로는 수준 높은 방송 저널리즘을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력 탄핵안 가결과 같은 갈등 지향적 사건은 시청자의 눈을 귀를 붙잡을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으므로 선정주의적 방송으로 흐를 가능성이 컸던 방송 소재였다.

3) 기술적 환경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각종 인터넷 매체의 점증하는 뉴스 시장 잠식과 커뮤니케이션 압력[1]의 증대는 방송 저널리즘의 제작 방식과 보도 내용에 영향을 미

1) 커뮤니케이션 압력은 정보의 양, 속도, 밀도가 증대함으로서 받는 압력을 말하는데, 1) 폭발적인 정보의 양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점점 더 “건너뛰기(zapping)”와 같은 조급한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유발하고, 2) 정보의 속도는 뉴스의 순환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언론인으로 하여금 정보의 선택과 가공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키며, 더욱이 즉각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야 하고, 정치인들도 TV를 통해 공중에 접근하고, 공중도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정치인에 접근함으로써 공공 이슈의 생명을 짧게 만든다. 3)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하면서 접근 가능한 정보의 밀도(사람들의 관심을 끌게끔 포장된 자극적 정보의 범람 또는 과부하)를 더 높이고 더 집중하게 만든다. 이에 따라 언론인은 공공 정보 영역에서 점점 더 공중의 관심을 끌기가 어려워짐을 알게 되고 스스로도 공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정보를 점점 더 자극적으로, 다시 말해 밀도 있게 포장함으로써 선정주의로 빠져들게 된다.

치고 있다. 특히 뉴미디어 기술의 상호작용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시청자들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방송 내용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획득한 정보나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었던 사안이 방송의 소재로 등장하는 경향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방송의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질수록 좋든 싫든 방송에서도 인터넷의 특성이 반영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인터넷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될 경우 인터넷 매체가 강조하고 있는 오락성과 주창 저널리즘이 지상파 방송 내용에도 스며들 수 있다고 하겠다.

4) 문화적 환경과 공론장의 분화

문화적 다원주의와 다원적 공론장의 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이론가들은 방송을 통해 공론장을 작동시키려는 정책적 시도의 타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Fiske 1993; Melucci 1989). 비슷한 맥락에서 방송을 통해 한 사회의 공공선(public good)을 이끌어내고 국가의 이해를 반영하는 하나의 공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임을 지적하면서, 킨(Keane 1995)은 공론장이 수많은 소영역의 공론장들로 분산화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방송이 디지털化 되면서 다양한 문화적 취향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송 채널들이 생겨났으며, 이들이 자유롭게 개별 집단의 이해를 반영하는 변론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공정성 원칙을 간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미시적 공론장들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사회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론장과 접목되어 보다 거시적인 수준에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 형성이나 정책 결정에 투영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간햄(Garnham 1992)은 지상파 방송이 국가의 통합적 공론장을 제공하는 역할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간햄에 따르면, 미시적 공론장들이 민주적 숙의를 보장해 주지 않으므로 지상파 방송이 제공하는 통합적 공론장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통합적 공론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다루는 공정 보도의 원칙이 강조되어야 한다.

5) 분단 환경과 저널리즘 규범의 혼란

남북한 간의 화해와 공존을 강조하는 보도 규범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기존의 자유주의 보도 규범과 현실 세계에서 충돌할 우려가 있다. 전통적인 자유주의 보도의 관점에서 볼 때 뉴스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남북 관계의 화해와 공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이나 정보를 접한 언론인들은 어느 준칙을 따라야할지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남북 간 언어, 문화, 생활의 차이와 상호 이질감을 우리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는다”거나 “남북의 차이점보다는 같은 점을 부각시킨다”는 내용의 준칙은 ‘새로움’과 ‘다름’에 뉴스 가치를 부여하는 기존의 보도 규범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다.

사실에 기초하고 사실을 철저히 확인하는 객관 보도 관행에 충실해야 한다는 취재 및 보도 규범을 따르다 보면 공존과 화해 분위기를 훼손할 수 있는 북한 정보를 입수하게 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규범과 공존, 화해 분위기를 유지할 필요성이 충돌할 경우 언론인으로서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주창윤(2000)도 이런 맥락에서 '저널리즘의 실천윤리'를 지키는 보도와 '민족 이념 지향성' 보도로 구분하고 신문의 남북문제 보도는 사안에 따라 두 기준을 다른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북한에 관한 보도의 규범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모순은 두 개의 대립적 이데올로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현상이다. 그러므로 북한 보도의 경우 '좋은 저널리즘'의 기준에 관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어떤 보도가 공정한 것인지도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는다.

3. 연구 문제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탄핵안 가결 이후 지상파 방송 3사의 9일 치 방송 내용 전반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개별 프로그램의 공정성뿐 아니라 채널 내의 공정성 그리고 채널 간의 공정성 문제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송 3사의 탄핵 관련 방송 전반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기초하여 연구를 설계하였다.

첫째, 방송 3사는 탄핵에 관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방송했는가? 방송사별, 프로그램 유형별, 시기별 탄핵 관련 방송의 기본 구성은 어떠했는가?

둘째, 방송 3사의 탄핵 관련 방송(저녁 종합 뉴스와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은 양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공정했는가? 방송사별, 프로그램 유형별, 시기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방송 3사는 공정성 이외의 좋은 저널리즘의 기준을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가? 방송사별, 프로그램 유형별, 시기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넷째, 탄핵 관련 방송이 활용한 프레임은 어떤 것들인가? 프레임 활용 면에서 행위자나 쟁점에 대해 얼마나 공정했는가? 프레임 활용 방식은 방송사별로, 프로그램 유형별로, 시기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다섯째, 탄핵 관련 시사·교양·정보 및 토론 프로그램의 사회자는 어떤 유형의 멘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멘트의 사용 기법은 방송의 공정성에 어

떤 영향을 미쳤는가? 행위자나 쟁점에 대해 방송사별로, 프로그램 유형별로, 시기별로 멘트 유형의 사용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여섯째, 탄핵 관련 시사·교양·정보 및 토론 프로그램 진행자는 어떤 방식을 토론자들의 발언권을 관리하는 방식은 무엇이며, 출연자의 성향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발언권 관리 방식은 방송의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질문에 기초하여 세부적인 연구 문제를 도출했다. 따라서 연구 문제는 연구 영역에 따라 크게 4개의 부분, 즉 ① 저녁 종합 뉴스 분석을 위한 연구 문제, ②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 분석을 위한 연구 문제, ③ 프레임 분석을 위한 연구 문제, 그리고 ④ 담화분석을 위한 연구 문제로 분류되었다.

각 영역별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적 분석 방법 뿐 아니라 질적 분석 방법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단일 연구방법에 의존함으로써 감수해야 하는 연구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저녁 종합 뉴스와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은 양적인 내용 분석 방법이 적용되었으며, 프레임 분석은 토론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프로그램의 분석에 적용되었다. 또한 시사·교양·정보·프로그램과 토론 프로그램의 사회자 및 진행자의 발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담화분석 방법을 도입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연구 영역별 연구 문제를 개괄하고, 이들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간략히 살펴보겠다. 각 영역별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된 구체적인 분석 방법과 절차 및 분석 유목에 관한 사항은 제3장의 각 부문별 분석 결과에서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1) 저녁 종합 뉴스

(1) 연구 문제

뉴스 프로그램이 대통령 탄핵과 같이 사회적 갈등성을 반영하는 정치 사안을 다룰 경우에 공정성의 준수는 핵심적인 가치가 된다. 따라서 탄핵 정국에서 방송 뉴스의 공정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공정성'이란 개념을 지표로 사용하였다. 공정성이란 개념은 정치적으로 균형적인 보도, 사회 각층의 의견을 정당하게 대변하는 보도, 편견의 배제 등과 같은 다양한 실천적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가치로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여기서는 BBC가 채택한 '정당한 불편부당성(due impartiality)'의 개념을 공정성을 위한 조작적 개념으로 삼을 수 있음을 지

적하고자 한다.

BBC의 '정당한 불편부당성'이란 ① 사회적으로 갈등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다양한 사회 계층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보도해야 하며, ② 특히 어떤 의견이 상당한 정도로 국민들 사이에 지지를 받고 있으면 정당하게 이를 다루어야 하며, ③ 비록 지지의 정도는 약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의견은 균형있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당한 불편부당성'의 개념은 특히 뉴스가 갈등적인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에 대해 무엇을 우선순위로 다룰 것인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이는 탄핵 정국과 같은 갈등 국면에서 합법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정치적 쟁점 사항에 대한 뉴스의 보도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된다. 이러한 이론적 개념을 근거로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했다.

[연구 문제 1]: 뉴스 주제

[연구 문제 1-1] 탄핵 정국에서 방송 뉴스는 주로 어떤 주제로 뉴스를 다루었는가?

[연구 문제 1-2] 탄핵 정국의 방송 뉴스 주제는 방송사 별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 문제 2]: 기사의 갈등성

[연구 문제 2-1] 탄핵 관련 방송 뉴스의 개별 아이템은 탄핵 관련 사안을 얼마나 '사회적 갈등 이슈'로 다루었는가?

[연구 문제 2-2] 탄핵 관련 방송 뉴스에서 하나의 주제 아래 흐름을 이루는 '기사 묶음'은 탄핵 관련 사안을 얼마나 '사회적 갈등 이슈'로 다루었는가?

[연구 문제 2-3] 탄핵 관련 뉴스의 '갈등적 이슈' 처리는 방송사 별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 문제 3]: 기사의 심층성

[연구 문제 3-1] 방송 뉴스는 탄핵 관련 주제를 얼마나 심층적으로 보도했는가?

[연구 문제 3-2] 탄핵 관련 뉴스의 '심층성'은 방송사 별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 문제 3-3] 탄핵 관련 뉴스의 '심층성'은 뉴스 주제별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 문제 4]: 크로마키와 자막의 사용

[연구 문제 4-1] 탄핵 관련 방송 뉴스에서 크로마키와 자막의 사용은 탄핵 반대 진영의 주장과 탄핵 찬성 진영의 주장을 얼마나 균형 있게 다루었나?

[연구 문제 4-2] 탄핵 관련 방송 뉴스의 크로마키와 자막 사용의 균형성은 방송사별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 문제 5]: 화면과 기사의 일치

[연구 문제 5-1] 탄핵 관련 방송 뉴스에서 화면(시각적 정보 제공)과 기사 내용(청각적 정보 제공)은 얼마나 적절하게 일치했는가?

[연구 문제 5-2] 탄핵 관련 방송 뉴스에서 화면(시각적 정보 제공)과 기사 내용(청각적 정보 제공)의 일치성은 방송사별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 문제 6]: 인터뷰의 수와 길이

[연구 문제 6-1] 탄핵 관련 방송 뉴스에서 탄핵 찬성 진영에 대한 인터뷰의 수와 탄핵 반대 진영에 대한 인터뷰의 수에 차이가 있었는가?

[연구 문제 6-2] 탄핵 관련 방송 뉴스에서 탄핵 찬성 진영에 대한 인터뷰와 탄핵 반대 진영의 인터뷰의 수의 차이는 방송사별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 문제 6-3] 탄핵 관련 방송 뉴스에서 탄핵 찬성 진영에 대한 인터뷰와 탄핵 반대 진영에 대한 인터뷰의 길이에 차이가 있었는가?

[연구 문제 6-4] 탄핵 관련 방송 뉴스에서 탄핵 찬성 진영에 대한 인터뷰와 탄핵 반대 진영의 인터뷰의 길이 차이는 방송사별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 문제 7]: 기자의 논평

[연구 문제 7-1] 탄핵 관련 방송 뉴스에 기자의 논평은 얼마나 사용되었는가?

[연구 문제 7-2] 탄핵 관련 방송 뉴스에 사용된 기자의 논평은 방송사 별로 차이를 보이는가?

(2) 연구 방법

저녁 종합 뉴스 분석에는 양적 내용 분석 방법이 적용되었다. 2004년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한국방송(KBS 뉴스 9), 문화방송(MBC 뉴스 데스크), 서울방송(SBS 8시 뉴스)의 저녁 종합 뉴스 탄핵 관련 뉴스와 3월 12일과 13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편성된 뉴스 특보·속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방송사별로 표집된 뉴스 아이템은 문화방송이 3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방송1이 318개였으며, 서울방송은 304개로 전체 977개였다. 이 가운데 저녁 종합 뉴스가 471개로 전체의 48.2%를 차지하였으며, 뉴스 특·속보는 506개로 전체의 51.8%를 차지하였다.

전체 977개의 뉴스 아이템에 대한 분석 유목은 뉴스 주제, 기사의 갈등성, 기사의 심층성, 크로마키와 자막, 화면과 기사의 일치, 인터뷰 수와 길이, 기자의 리포팅 등이다. 분석을 위해 4명의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코딩 전문 요원을 고용했으며, 이들은 미리 준비된 분석 대상과 분석 유목에 대한 코딩 지침을 근거로 뉴스 내용 분

석에 필요한 개념을 가장 우선적으로 숙지하도록 하였다. 특히 내용 분석 초기에는 코딩 전문 요원 4명이 함께 공동으로 종합 뉴스에 대해 애벌 코딩을 하면서 코더 간 공통의 인식 틀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분석 유목에 대한 코더 간 인식이 공유되었다고 판단된 시점에서 코더 2명이 한 조가 되어 10개의 뉴스 아이템에 대해 별도로 코딩한 결과 분석 유목에 대한 평균 신뢰도(단순 일치도 기준)가 .85수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신뢰도가 낮게 나온 유목에 대해 코더 간 토론을 통해 코딩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코더 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코더 간 불일치를 해소한 후 수행한 신뢰도 검증에서 코더 간 신뢰도(단순 일치도 기준)가 최소 .88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코더 간 신뢰도가 확립된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 분석에서 2인 1조로 팀을 나누어 코팅을 진행했다. 그런데 저녁 종합 뉴스에 대한 코딩을 진행하던 중, 2인 1조 2개 팀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진행상에 불편함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녁 종합 뉴스에 대해서는 4인의 전문 코딩 요원이 1개의 조가 되어 함께 코딩을 수행했다. 뉴스 특·속보는 원래대로 2인 1조, 2개 팀이 코딩을 수행했다.

2)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

(1)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저녁 종합 뉴스라는 장르와는 별도로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을 분석했다.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은 탄핵과 같은 국가적인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뉴스라는 장르와는 다른 차원에서 심층적인 보도와 신축적인 여론 형성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의 느슨한 장르적 특성과 주관적 저널리즘 속성으로 인해 사실 전달을 위주로 하는 뉴스 보다 편향적 방송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이 장르를 별도로 분석하게 된 주요 원인이다.

여기서는 방송3사의 탄핵 관련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이 얼마나 공정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① 논쟁적인 탄핵 이슈를 어떤 방식으로 보도했는지, ② 앵커 멘트, 리포트, 출연자, 인터뷰 등에서 편향성이 없었는지, 그리고 ③ 좋은 방송 저널리즘의 기준의 하나인 심층적 보도 측면에서 탄핵 방송이 어떠했는지 등을 집중 분석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 문제 1]: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의 주제 분포

[연구 문제 1-1] 탄핵 관련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은 어떤 주제를 얼마나 공정하게 다뤘나?

[연구문제 1-2] 탄핵관련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의 주제는 방송사별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프로그램의 구성 형태

[연구 문제 2-1] 탄핵 관련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의 구성 형태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2] 탄핵 관련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의 구성 형태는 방송사별로, 프로그램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 문제 3]: 자료 화면의 이용

[연구 문제 3-1] 탄핵 관련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은 자료 화면을 어떻게 이용했나?

[연구문제 3-2] 탄핵관련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의 자료화면 이용은 방송사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 문제 4]: 앵커 멘트의 편향성과 편향 기법

[연구 문제 4-1] 탄핵 관련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의 앵커는 얼마나 공정한 발언을 하였는가?

[연구 문제 4-2] 탄핵 관련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 앵커의 편향성은 방송사별로, 프로그램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 문제 4-3] 탄핵 관련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의 앵커가 편향적인 멘트를 사용할 경우 어떤 편향 기법에 의존했는가?

[연구 문제 4-4] 탄핵 관련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 앵커의 편향 기법은 방송사별로, 프로그램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 문제 5]: 리포트의 편향성과 편향 기법

[연구 문제 5-1] 탄핵 관련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의 리포트는 얼마나 공정한 보도를 했는가?

[연구 문제 5-2] 탄핵 관련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 리포트의 편향성은 방송사별로, 프로그램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 문제 5-3] 탄핵 관련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의 리포트가 편향적일 경우 어떤 편향 기법에 의존했는가?

[연구 문제 5-4] 탄핵 관련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 리포트의 편향기법은 방송사별로, 프로그램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 문제 6]: 출연자 발언의 편향성

[연구 문제 6-1] 탄핵 관련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의 출연자 발언은 얼마나 공정했는가?

[연구 문제 6-2] 탄핵 관련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의 출연자 발언의 편향성은

방송사별로, 프로그램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 문제 7] 인터뷰의 편향성

[연구 문제 7-1] 탄핵 관련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의 인터뷰는 얼마나 공정했는가?

[연구 문제 7-2] 탄핵 관련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의 인터뷰의 편향성은 방송사별로, 프로그램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 문제 8]: 방송의 심층성

[연구 문제 8-1] 탄핵 관련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은 얼마나 심층적으로 방송했는가?

[연구 문제 8-2] 탄핵 관련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의 심층성은 방송사별로, 프로그램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 문제 8-3] 탄핵 관련 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의 심층성과 공정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연구방법

탄핵 주제를 다룬 시사·교양·정보 방송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위해 국회가 탄핵을 가결한 2004년 3월12일(금)부터 3월20일(토)까지 9일간 한국방송, 문화방송, 서울방송에서 방송된 탄핵 관련 프로그램 가운데 뉴스를 제외한 종합 구성 형식의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분석 대상 프로그램은 특집, 시사 다큐멘터리, 아침 방송 등 방송 3사의 15개 종류의 프로그램으로, 그 가운데 탄핵을 주제로 방송한 부분을 수집해 28 건의 방송분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 프로그램의 전체 방송 시간은 892분(14시간 52분)이었다.

분석 단위는 개별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 아이템으로 선정하였다. 아이템을 분석 단위로 선정한 것은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 제작자가 통상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제작하는 단계에서 전체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구성시켜주는 소주제 아이템의 집합을 생각한다는 점을 참작하였다.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 내용에서 분석 단위인 아이템을 추출하는 기준은 뉴스 프로그램에서 “리포트 거리”로 선별되는 보도 아이템의 기준과 상응하도록 했다. 분석 대상 프로그램에서 분리해낸 총 아이템 수는 256개였다. 분석 대상 28건의 방송분을 기준으로 보면 건당 평균 9.2개의 아이템이 수집됐다.

탄핵 관련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을 보면 방송사별로, 한국방송이 1,2 채널 합쳐 505분(56.5%)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문화방송이 246분(27.6%), 서울방송이 142분(15.9%) 순이었다. 프로그램별로 방송 시간을 보면, 탄핵 이튿날 방송된 한국방송의 특별 기획 <탄핵 정국 국민에게 듣는다.>(164분,

18.4%)와, 특집 <대통령 탄핵-대한민국 어디로 가나>(115분, 12.9)가 전체 분석 대상 프로그램의 3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한국방송 2채널 <세상의 아침>(11.3%)과 문화방송의 <아주 특별한 아침>(9.2%), 서울방송의 <모닝와이드>(7.3%) 등 아침 방송들이 탄핵을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과 관련한 28개 프로그램 중에서 256개의 아이템을 분석하기 위해 4명의 대학원생을 코딩 전문 요원으로 고용했다. 코딩 요원들은 분석 유목에 대한 코딩 지침을 숙지한 뒤 분석 대상 프로그램을 코더들이 같이 시청하며 코딩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합의를 조성했다.

먼저, 분석 단위인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의 아이템을 신뢰성 있게 추출하기 위해 “뉴스거리”를 기준으로 한 아이템 방식에 대해 토의한 뒤 아이템을 분리하는 훈련을 하였다. 이어 4명의 코딩 요원은 시청한 적이 없는 한 프로그램에서 10개의 아이템을 분리해 냈다. 10개 아이템 추출에 관한 코더 간 평균 신뢰도는 .90 수준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유목별 신뢰도 검증은 10개 아이템을 가지고 코더 간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최소 신뢰 수준 .83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 유목별 코더 간 신뢰도는 평균 .97로 나타났다.

3) 프레임 분석

(1) 연구 문제

이상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한 양적 내용 분석 방법과 별도로 여기서는 각 방송사가 탄핵소추안 가결을 어떠한 프레임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질적 분석 방법의 하나인 프레임 분석을 적용, 방송 3사가 구성한 미디어 텍스트에 나타난 프레임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프레임 분석을 위하여 설정한 연구 문제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연구 문제 1] 탄핵 정국이라는 정치 갈등 현실을 구성하는 주요 정치 행위자와 정치 쟁점을 보도하는 텔레비전의 미디어 프레임(하위 프레임)은 어떤 유형이 있으며, 방송사별·시기별·프로그램별로 그 현저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1-1] 탄핵 관련 갈등 행위자들은 어떤 프레임들로 묘사되었으며 프레임의 현저성 차원에서 각각의 행위자들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 문제 1-2] 탄핵 관련 쟁점들은 어떤 프레임들로 구성되었으며, 경쟁 프레

임들 간에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 문제 1-3] 탄핵 관련 방송이 활용하고 있는 영상 이미지와 영상 기법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1-4] 갈등 행위자와 쟁점의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프레임들(프레임 장치와 프레임 요소)은 무엇이며 이들의 빈도 분포는 행위자나 쟁점별로 어떻게 다른가?

[연구 문제 2] 탄핵 정국이라는 정치 갈등 현실의 맥락을 제시하는 텔레비전의 미디어 프레임(거대 프레임)은 어떤 유형이 있으며, 방송사별·시기별·프로그램별로 그 현저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연구 방법

탄핵 관련 보도에서 방송 3사가 구축한 프레임을 도출해 내기 위하여 프레임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004년 3월12일(금)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부터 3월 20일(토)까지 방송된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 KBS2)의 뉴스 특보·속보, 저녁 종합뉴스, 시사 교양 정보 등 세 유형의 프로그램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다음, 탄핵소추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아이템 전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프레임을 도출하기 위하여 뉴스 특보·속보와 저녁 종합뉴스의 경우 개별 기사(news story)를,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의 경우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한다고 판단되는 에피소드(episode)나 소재를 각각 1차 분석 단위로 삼았다.

본 연구는 프레임 분석을 위하여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탄핵 정국이 초유의 정치 갈등이라는 점에서 준거로 삼을만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명확하게 정의된 프레임 유형을 사전에 설정하기 곤란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귀납적 방법은 프레임에 대한 다소 느슨한 개념 정의에 기반 하여 열린 관점에서 추출 가능한 프레임을 모두 드러내려는 접근 방식을 말한다. 프레임 장치(프레임 요소)와 프레임 추출의 전 과정은 질적 연구의 특성상 철저하게 연구 팀원들의 합의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진행하였다.

한편 본 연구가 초점을 둔 프레임은 크게 두 가지, 즉 주요 정치 행위자와 정치 쟁점에 대한 미디어 프레임으로, 각 프레임을 담는 프레임 장치(프레임 요소)도 함께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프레임 분석팀의 연구자 4명이 방송 녹화 테이프와 대본을 직접 분석하면서 여러 차례의 토론을 통해 수정을 거친 뒤 합의해 가는 방식으로 프레임 장치(프레임 요소)를 추출하였다. 그런 다음, 분석 프로그램별로 1차 분석 단위인 매 아이템마다 해당하는 프레임 장치(프레임 요소)와 관련된 내용의 언급(utterance)이나 영상의 발생(occurrence)이 얼마나 빈번하게 관찰되는지 분석하고 정리하는 과정과 절차를 거쳤다. 분석팀 합의를 통해 구성한 프레임 분석 유목은 1차로 프레임 분석팀과 담화 분석팀으로 이루어진 질적 연구팀에서 토

론과 수정을 거친 뒤 양적 분석팀을 포함한 연구진 전체 회의에서 再토론과 재수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확정된 프레임 분석 유목에 따라 로그북 유목 및 작성 가이드와 세부 지침서(부록 참조)를 완성하였다. 프레임 분석팀의 연구자를 포함한 신문방송학 전공 대학원생 코더 9명이 로그북 기입을 담당하였다. 로그북 기입을 위한 훈련 단계부터 로그북 작성 및 프레임 장치(프레임 요소) 관련 유목의 빈도 측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은 코더 간 합의제를 원칙으로 삼았다.

완성된 로그북 입력 자료는 엑셀(Excel) 파일로 옮겨 프레임 장치(프레임 요소)별로 세부 유목으로 재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든 세부 유목 역시 일일이 연구자 4인의 합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확정된 세부 유목은 다시 기초 기술 통계 분석을 위하여 코딩 지침서에 따라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SPSS)에 입력되었다. 이 과정에는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9명과 학부생 1명이 신뢰도 일치를 위한 훈련을 받으면서 직접 코딩 작업에 참가하였다. 프레임 장치(프레임 요소)의 세부 유목은 해당 아이템에서 언급되거나 발생할 때 마다 그 빈도를 측정하였다. 약 1주일간의 코딩 과정에서 모두 세 차례의 신뢰도 검사를 거쳤으며 최종 코더 간 신뢰도(단순 일치도 기준)는 최소 .83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정치 행위자의 이미지 프레임이나 정치 쟁점의 경쟁 프레임을 결정하였다.

4) 담화분석

(1) 연구 문제

비판적 담화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을 통한 뉴스 텍스트 분석은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기 보다는 분석을 통해 얻어진 자료들을 깊게 읽고 해석함으로써 귀납적인 결과물을 얻는 방식을 따른다. 따라서 구체적 수준의 연구 문제를 미리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연구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의 범주를 명료하게 제한하는 의미에서 추상적 수준의 연구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사회자가 탄핵 관련 멘트를 할 경우, 어떤 경우에 어떠한 언어적 활용 장치들을 사용하며, 그 결과적 의미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의 사회자는 어떤 방식으로 토론자의 발언권을 관리하는가? 발언권 관리 방식은 출연한 토론자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

(2) 연구방법

가. 분석 대상 및 유목

위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비판적 담화분석이라는 질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만 비판적 담화분석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앞에서 제시된 프레임 분석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논의를 거쳐 분석의 틀에서 제외하였다.

비판적 담화분석의 대상은 조사 대상 기간(3/12~3/20) 중 방송된 보도물, 심층 분석 보도물, 교양 정보물, 토론물의 '사회자' 멘트에 한하기로 하였다. 분석 대상 프로그램은 3개 주요 방송사의 정규 뉴스 및 특보와 17개 정규 프로그램들로서, 심층 분석 보도물로는 한국방송의 〈취재 파일4321〉, 〈추적 60분〉, 〈미디어 포커스〉, 문화방송의 〈시사 매거진2580〉, 〈PD수첩〉, 〈신강균의 뉴스 서비스 사실은〉, 서울방송의 〈생방송 세븐데이즈〉, 〈뉴스 추적〉 등 8개, 교양 정보물은 한국방송의 〈생방송 세상의 아침〉, 문화방송의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과 〈생방송 화제 집중〉, 서울방송의 〈생방송 모닝와이드〉와 〈생방송 투데이〉 등 5개, 그리고 토론 프로그램은 정규 프로 4개 (〈100인토론〉, 〈생방송 심야 토론〉, 〈100분토론〉, 〈SBS대토론〉)와 특별 편성된 2개 프로그램 (한국방송과 문화방송 각 한 개)이었다. 이 기간 중 1회 이상 방송된 프로그램의 경우 조사 대상 기간에 포함된 보도물, 심층 분석 보도물, 교양 정보물, 토론물 전체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들 프로그램에 대하여 파울러(Roger Fowler)가 제시한 네 가지 요소를 활용하여 사회자 멘트를 분석하되, 연구 목적에 부합되도록 일부를 수정하였다. 수정한 내용은 먼저, 타동성 분석에 있어서는 수동태 활용 방식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둘째, 어휘 구조 분석은 프레임 분석에서 상당 부분 소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분석에서는 제외시켰으며 셋째, 양태 분석은 네 가지 유형, 즉 ① 진실 양태, ② 의무 양태, ③ 허용 양태, ④ 호의 양태는 모두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행 분석을 통하여 화자의 주장이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비판적 담화분석과 별도로 발언권 관리 형태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여 토론 프로그램에 한하여 진행자의 역할에 대한 보조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토론 프로그램은 형식상 각각의 토론자에게 할당된 토론 시간이 정해져 있고, 토론의 소주제로 미리 구성한 뒤 소주제별로 자연스럽게 진행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토론자의 발언 회수나 시간을 체크하여 분석하는 것은 표면적인 결과만을 산출하여 큰 의미를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토론 진행자의 공정성이나 프로그램 구성의 기저에 깔린 이데올로기를 살펴보는 데에는 보다 심도 있는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 방법 중의 하나로 채택한 것이 바로 진행자의 토론 발언권 관리 형태 분석이다. 사회언어학의 도구를 활용하여 진행자의 발언권 관리 양식을 분석함으로써 토론자에 대한 진행자의 태도와 치우침의 여부 등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세부적

으로는, 토론 프로그램 진행자의 발언권 관리 양식 중 토론자에게 발언권을 주고 빼앗는 양식을 살펴봄으로써 진행자의 언어를 분석하였다. 또한 발언권 관리 양식은 발언권을 주는 행위와 뺏는 행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나. 분석 절차

비판적 담화분석을 위하여 12일과 13일의 모든 특집 프로그램 및 17개 정규 프로그램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서 메인 사회자 이외의 출연진이 발언하는 내용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특별 진행을 위해 방송 시간의 상당 부분을 제3의 사회자가 진행하는 경우는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분석 대상을 정한 다음, 보다 세밀하고 엄밀한 분석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언론학 관련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분석 대상 프로그램의 스크립트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여 모든 프로그램의 사회자 멘트 전체를 문자화하였다.

이어서, 해당 프로그램의 사회자 멘트 중 앞서 언급한 여섯 가지 요소가 하나라도 포함된 문장을 별도로 뽑아내어 정리하였다. 준비된 스크립트를 근거로 정리하였으나, 발언의 문맥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동영상을 참고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작업에는 연구의 취지와 분석 틀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 2인이 담당하였다. 엄밀한 기준에 근거하여 통계적 처리를 위한 코딩작업을 하는 절차는 아니었으므로 코더 간 신뢰 계수를 측정할 필요나 방법은 없었으나, 일관된 작업을 위해 일부 프로그램은 공동 작업으로 정리를 하였고 나머지 프로그램도 연구자 간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환하며 자료를 정리하였다.

자료는 ① 프로그램 제목, 방송사, 방송 시간 ② 화자(사회자) ③ 멘트(문장) ④ 해당 사항(6개 항목 중 하나 이상) ⑤ 기타 주요 사항의 틀로 정리하였다. ‘기타 주요 사항’에는 언어적 표현의 구체적 도구가 명확할 경우 메모하였고 (예를 들어, ‘강조 순접 연결사 사용’), 간단한 함의 (예를 들어, ‘근거가 불분명한 단정’)를 함께 기록하였다. 정리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문장이었으나, 분석 단위의 일관성보다는 의미의 파악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 개 이상의 문장을 하나의 케이스로 간주하기도 했다. 반대로, 한 문장에 두 개 이상의 언어 표현 방식이 활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케이스의 수와 활용 항목의 총계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 결과 사례 수는 총 609개, 활용 항목의 누계는 900개로 집계되었다.

담화 방식의 정리 내용은 크게 3 단계로 나뉘어 분석되었다. 먼저, 여섯 개 항목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찾아냄으로써 전체적 윤곽을 그리는 작업이다. ‘타동성’이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판단 표현’은 언제 주로 사용되는지 등을 요약함으로써 탄핵 관련 프로그램 사회자 멘트의 전반적 성격을 정리하는 작업이다. 둘째, 제도적 구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는 작업이다. 방송사별 차이, 프로그램 유형(장르)별 차이, 그리고 방송

시기별 차이를 비교하였다. 셋째, 표현 방식의 결과, 즉 내용상의 특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는 다시 행위 주체별 비교와 이슈별 비교로 구분되는데, 예컨대 '노무현 대통령'에 관한 언급에서는 주로 어떤 항목이 활용되고 어떤 함의를 드러내는지 찾는 작업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앞서 언급한 대로 토론 프로그램 진행자의 발언권 관리 양식을 분석하였는데, 이 과정은 비교적 단순하였다. 화면을 직접 보면서 발언권과 관련된 진행자의 멘트나 제스처를 기록하였고, 누구에게 발언권을 주는지, 혹은 누구로부터 발언권을 뺏는지 정리하였다. 출연한 토론자들은 탄핵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로만 구분하였다. 그 결과 7개 프로그램을 통틀어 발언권 부여 발언은 총 187회, 발언권 박탈 발언은 총 33회 활용되었다. 프로그램 당 평균 30회 이상의 발언권 관리 발언이 행해진 셈이다. 한편, 빈도의 확인 이외에, 발언권 박탈의 이유도 함께 메모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 진행자가 토론자의 발언을 중지시켰는지도 살펴보았다.

4. 연구 참여 배경

연구팀은 2004년 4월 6일 한국언론학회로부터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이후 대통령 탄핵 문제에 관한 지상파 TV방송의 보도 경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언론학회에 따르면 방송위원회는 "탄핵 정국과 관련한 방송 내용에 대해 공정성, 객관성, 여과되지 않은 진행자의 멘트 등에 문제가 있어 개선, 시정, 사과 등을 요구한다는 시청자 민원이 제기되어"(제2004-10차,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참고) 보도 교양 제1심의위원회가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제재 여부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평결'을 내리기 전에 방송 내용에 대한 언론학회 전문가 집단의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하였고(제2004-11차,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 회의록 참고), 방송위원회는 이를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언론학회에 연구를 의뢰했다는 것이다.

언론학회로부터 연구 의뢰를 받은 연구진은 당초 방송위원회 보도 교양 제1심의위원들이 모두 그 방면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방송법의 관련 규정과 그들의 양심에 따라 '평결'을 내리지 않고 언론학회에 넘긴다는 것은 그들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의미가 있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민감한 문제의 평결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언론학회의 연구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언론학회로부터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관한 한국 TV방송의 전반적인 보도 경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학문적인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

고, 또 만약 연구 결과 어떤 문제가 드러난다면 앞으로 국가적인 중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방송하는 것이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귀감이 될 수도 있다고 간곡하게 요청하여, 이미 방송위원회의 연구 의뢰를 수락한 언론학회의 대외적 권위와 권능을 고려하여 언론학회의 연구 의뢰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음을 밝혀둔다.

연구팀이 언론학회로부터 의뢰받은 연구 주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지상파 방송 3사의 "탄핵 관련 방송의 경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연구팀은 먼저 의뢰받은 연구 주제의 성격에 관해 논의한 결과,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국회통과를 둘러싸고 벌어진 정치 집단 간의 분쟁으로 '합법적 논쟁의 영역(sphere of legitimate controversy)'(Hallin, 1986)에 속하는 정치적 갈등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둘러싼 정치 집단 간의 갈등, 다시 말해 사회 갈등(social conflict)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판단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의 적법성은 5월 1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적법한 절차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더구나 국정 현안을 둘러싼 의회 내의 정당 간 쟁론, 선거에서의 정당 간 경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법적 논쟁의 영역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회 갈등으로 지적되고 있다(Hallin, 1986; Cohen, et al. 1990; Wolfsfeld, 1997; Riff, et al. 1998).

제 2 장 이론적 배경

국내외 문헌을 검토한 결과 '합법적 논쟁의 영역'에 속하는 이슈는 '합의 영역(sphere of consensus)'이나 '일탈의 영역(sphere of deviance)'에 속하는 이슈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공정성 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 영역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연구팀은 주제 문제에 접근하는 이론적 틀로서 ① 사회 갈등 이론, ② 할린이 개념화한 이슈 성격의 3분법(tripartite) 모델, 그리고 ③ 공정성 이론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1. 사회 갈등론

사회 갈등(social conflict)은 인간 사회의 본유적 현상으로 사회 변동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Dahrendorf, 1959) 뉴스 소재로도 중요하게 취급되어 왔다(Lee, 1986; Wolfsfeld, 1997; Mander, 1998). 사회 갈등은 사회 집단 사이의 양립할 수 없는 이익에 대한 투쟁을 지칭하는데 "두 개 이상의 집단 또는 그 대표자가 양립할 수 없는 목적, 또는 같은 목적이라도 상이한 성취 방법을 놓고 벌이는 투쟁"으로 정의할 수 있다(Lee, 1986). 어떤 사회적 행위가 사회 갈등에 속하는지 그 조작적(operational)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사회 갈등은 희소한 자원, 지위, 권력, 정책 그리고 기타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둘러싼 양립할 수 없는 이해관계로부터 발생한다(원인 또는 목적).

▶ 사회 갈등은 이해 당사자(opponents or antagonists) 사이의 행위와 대항 행위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다(과정).

▶ 사회 갈등 행위는 상대방의 파괴, 손상, 무력화, 좌절화를 통해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희생 위에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행위를 포함하는데, 이러한 행위에는 폭력의 행사, 고소, 고발과 같은 행동뿐만 아니라 분노의 표시, 비난, 고함과 같은 표현적 행위도 포함된다(행위의 특성).

▶ 사회 갈등은 항상 사회적 영향을 수반한다(사회적 영향력).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 갈등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 갈등이 TV뉴스 보도에서 갈등 기사로 취급되느냐의 여부이다. 산업사회의 대표적인 갈등은 노사

갈등과 정치 집단 사이의 권력(선거) 및 공공 정책을 둘러싼 정치 갈등이다. 물론 노사 갈등이 정치 갈등 기사로도 취급된다. 따라서 TV뉴스가 정치적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당사자들(opponents)의 찬반 주장을 보도함으로써 이슈를 갈등적으로 처리했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어떤 정치적 이슈가 갈등적으로 처리되며, 어떤 이슈가 전혀 갈등이 없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처리되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갈등 기사가 어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보도되는 지도 알 수 있다. 지금 한국의 경우 TV뉴스는 정치적 갈등 기사의 처리에 있어서 편향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가장 많이 받아왔다. 다시 말해 정치 기사 처리의 공정성 문제인 것이다.

2. 할린의 3 가지 이슈 영역 모델

다니엘 할린(Hallin, 1986)은 보도 소재가 어떤 보도 영역으로 분류되는가에 따라 각각 다른 공정성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보았다. 할린은 보도 영역을 '합의 영역'(sphere of consensus), 합법적 논쟁 영역(sphere of legitimate controversy), 일탈 영역(sphere of deviance)으로 나누었다. 보도 소재가 합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고 있는 영역의 뉴스를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정성은 논란의 대상으로조차 떠오르지 않는다. 사회 구성원이 합의하고 있는 시각으로 뉴스를 보도하면 어느 누구도 공정성에 관해 문제 삼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독도의 영유권 문제로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국내 언론 매체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다'이라는 시각으로 보도한다고 해서 어느 누구라도 보도의 공정성에 관해 시비를 걸지 않는다. 2002년 월드컵 당시 한국의 언론 매체가 한국의 응원단 '붉은 악마'를 옹호하는 시각에서 당시 응원 상황을 보도했다고 해서 이를 나무라는 국민들은 없었다. 보도의 소재가 일탈 영역에 속했을 때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뉴욕의 무역 센터를 무너뜨린 테러가 일탈 행위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따라서 그런 시각으로 테러 행위를 보도한다고 해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그러나 현실 사회에서는 합의와 일탈의 경계 영역이 항상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일탈도 합의도 아닌 영역, 즉 논쟁의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정성 문제는 보도 소재가 바로 이 논쟁 영역에 속할 때 나타난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사안이란 사회 갈등을 수반하기 마련이며, 이 경우 객관성, 균형성, 그리고 공정성 등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겠다. 할린은 미국 언론의 베트남 전쟁 보도를 분석한 결과 전쟁 초기에는 이 사건이 합의의 영역에 놓여 있었으나 미국 정치권에서 베트남 전쟁 명분에 대한 합의가 깨진 후에는 논쟁의 영역으로 이동했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할린이 논쟁의 주체로서 미국 사회의 정치 엘리트를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엘리트 간에 논쟁이 벌어졌을 경우

언론 매체는 공정 보도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독자나 시청자들이 충분한 정보와 식견을 지닌 시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3. 공정성 이론

공정성 문제에 관한 우리 사회의 담론은 몇 가지 측면에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공정 보도가 거의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3·4·5 공화국 시절에는 정작 공정성에 관한 논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TV 뉴스는 언론의 규범에 비추어 공정성은 고사하고 과연 이것을 '언론(journalism)'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에 관해서도 회의가 있을 정도였다. 이른바 '땡 전 뉴스'를 생각해 보라. 참으로 부끄러운 과거였다. 5공 정권이 무너진 이후 방송사 내부에서조차 '정권의 나팔수' 또는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선전 도구'라는 자체 비판이 있었을 정도로 '어용 방송'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뉴스의 불공정 보도 문제를 논의할 수조차 없었던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역사적으로 TV방송은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언제나 정권의 이익에 봉사하는 역할을 해온 것도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정권의 성격이 폭압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했던 쿠데타 정권이든, 자유로운 선거에 의해 정통성을 갖춘 이른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또는 '참여 정부'이든 TV방송은 변함없이 살아있는 권력(power that be)의 편을 드는 방송을 해왔다.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나, 그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이 연구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를 생략한다.

셋째, '언론(journalism)'이라는 용어는 1830년대 서구에서 대중 신문 시대가 열림에 따라 신문이 그 동안의 후견자였던 정파로부터 독립을 유지하여 정치권력을 비판할 수 있게 된 이후에 비로소 영어 사전에 등재된 신조어였다(Newhagen & Levy, 1998). 이 시기에 비로소 나름대로 독자성을 갖춘 공공 영역으로서 이른바 '언론의 장(the field of journalism)'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현실에 관한 자율적 담론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Stein & Paterr, 1998). 즉,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권력의 행위를 포함한 현실을 비판할 수 있는 저널리즘이 역사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권력을 비판하지 못하는 신문, 방송은 저널리즘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TV방송은, 언론의 으뜸가는 가치인 진실 추구보다는 특정 정파의 대리인(agent of power) 또는 이데올로기적 도구 역할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정파 언론' 시대로 회귀하는 퇴영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러한 모습은 방송사 스스로가 지키겠다고 스스로 만든 공정성 규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간결하게 정의하면, ‘공정 보도란 편들지 않는 보도’이고, ‘편향 보도란 편드는 보도’를 말한다. 그래서 공정 보도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영국 BBC가 "우리는 편들지 않는다(We don't take side)"를 공정 보도의 경구(catch phrase)로 삼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또한 워싱턴포스트가 “기자와 편집자는 기사를 마무리할 때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공정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고 주문한 것도 만약 기자가 어떤 정파를 편드는 마음이 있으면 공정성 규칙을 드러나게 어기지 않으면서도 교묘하게 편향 보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BBC(1987)는 정치 보도에 관해서는 'Due Impartiality' 규칙을 따로 두고 있는데 정치적 견해를 보도함에 있어서 다양성의 의미는 ① 사회적으로 갈등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다양한 사회 계층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보도해야 하며, ② 특히 어떤 의견이 상당한 정도로 국민들 사이에 지지를 받고 있으면 정당하게 이를 다루어야 하며, ③ 비록 지지의 정도는 약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의견은 균형 있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BBC가 개발한 이 이론은 정치적 갈등을 보도함에 있어서 소수 의견의 처리에 귀중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4. 한국 방송사의 공정성 실천 규칙

공정성의 개념적 의미와 실천 규칙에 관해서는 수많은 국내외 학자들이 연구한 학문적 성과도 있고,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유수한 언론사가 스스로 마련한 자체의 공정성 규범과 실천 규칙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분석과 해석 작업 과정에서 있을지도 모를 자의성을 탈피하기 위해, 다시 말해 분석과 해석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한국방송, 문화방송, 서울방송이 스스로 지키겠다고 스스로 만든 공정성 실천 규칙을 준거로 삼기로 했음을 밝혀둔다.

1998년 9월 3일부터 시행된 한국방송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방송 보도의 핵심 지침으로서 공정성과 진실성을 들고 있다. 공정성은 “어떤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과 생각이 같은 취재원이나 사례만을 편향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용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제작자의 편견이 개입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 사항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의도적으로 어떤 사실을 생략하거나 의견을 마치 사실인 양 위장하는 행위, 앵글의 조작 등 교묘한 방법으로 내용의 정확성,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명시하고 있다. 제작자의 입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지침에 의하면 제작자의 신중하지 못한 현실 참여는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진실성에 대해서는 그것을 산술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개념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진실 추구를 위한 방송 제작자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의 다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선거 정국의 보도에서는 소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야 하며 때로는 소수가 보다 참되고 진실할 수 있음을 환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선거 등의 정치적 사안의 경우 특별히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방송은 또한 용어 사용에 관해서도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 지침은 “정치는 주로 글의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현대 정치는 말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만큼 방송에서는 정치와 관련된 용어의 사용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또한 가치 판단이나 가치 개입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어느 사안 대해 한 편의 당사자나 한 정당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다면 중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특정 사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공평하게 수렴하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균형 잡히고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2003년 12월 2일 개정한 문화방송 방송 강령에서도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의 덕목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이 강령에서 “표현은 객관성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우호적이나 적대적인 태도로 오해될 수 있는 말은 가능한 피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는 공정 보도의 조건을 세 가지로 구별하여 서술하고 있다. 첫째 균형 보도로서 사회적으로 논란거리를 다룰 때 대립적인 견해를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 둘째, 지지의 정도는 약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의견도 전달함으로써 다양한 사회 계층의 견해를 폭넓게 제시하도록 한다. 셋째, 보도와 논평은 엄격히 구분한다. 취재원의 의견임을 가장하여 기자 개인의 의견을 보도에 삽입할 수 없다. 논평과 해설은 시·청취자 스스로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확한 사실의 바탕 위에서 합리적 설명이 되도록 한다. 문화방송은 균형성, 다양성, 그리고 가치 개입 배제의 원칙을 엄격히 지키는 보도 원칙을 공정 보도의 기준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좋은 저널리즘의 조건

방송사의 제작 지침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정성이나 균형성 등의 덕목 이외에도 좋은 방송 저널리즘이 준수해야할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1) 진실성

좋은 저널리즘의 으뜸 조건으로서 진실성을 들 수 있다. 저널리즘의 존재 가치는

바로 진실 추구에 있기 때문이다. 1947년 언론의 책임을 강조했던 허친스 위원회의 보고서에 드러나 있듯이, 저널리즘은 '사실에 대한 진실'을 말해야 한다. 즉 사실이 진실에 도달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사실만으로는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실로서는 정확하지만 실제로는 '허위'를 보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취재원이 기자에게 거짓을 말했다면, 취재원이 한 말은 사실이지만 그런 사실에 기초한 보도는 진실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사실이나 편견에 근거한 방송 토론은 별로 유익하지 않다.

저널리즘의 또 다른 덕목인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이 진실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이런 덕목들은 좋은 저널리즘을 위한 장치들이지만 이들이 진실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총체적으로 완벽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저널리스트는 진실 추구를 포기할 수 없다. 진실에 보다 가까운 보도를 하는 것이 보다 좋은 저널리즘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매체가 확산됨에 따라 정보의 사실성과 정확성을 검증하기가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근거 없는 소문, 추측, 거짓 등을 진실과 구분해 내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네티즌들은 정보의 바다로 비유되는 인터넷상에서 일일이 개별 정보를 스스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매체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진실성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중재자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2) 독립성

언론인은 독립적이어야 하며, 뉴스 판단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개별 언론인에게 있어야 한다. 언론인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요인은 정치권력, 소유주, 광고주, 이익단체, 노동조합, 사회운동 집단 등 다양하다. 언론인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종종 가치판단을 내려야 할 경우가 있지만, 그럴 때에도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해야 한다. 기사 내용에서 정치적 함의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특정 당파에만 의존하거나 그 당파를 옹호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당파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책임성

언론인은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 정치권력이나 경제 권력도 아닌 독자·시청자, 즉 시민에게 책임져야 한다. 유권자인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하고 풍부한 정치 정보를 전해줄 책임이 언론인에게 부여된다. 언론인은 특정 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공선을 위해 활동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 의무가 주어진다.

4) 권력 감시

민주주의는 언론에게 파수견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권력이 남용 혹은 오용되지 않도록 권력을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인의 사명은 “고통 받는 자를 위로하고, 안락을 누리는 자를 감시하는 것이다(이민웅, 76쪽에서 재인용)”. 도덕적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탐사 보도(investigative reporting)의 사명 또한 권력 감시라고 하겠다.

5) 심층성

사건의 실체를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보도해야 할 것이다. 사건의 표피만을 다루는 데 그치지 말고 사건의 원인, 배경, 사건의 결과 등을 지역 사회, 광역 사회, 국가 차원, 그리고 글로벌 수준에서 다차원적으로 분석해야 총체적인 진실에 가깝게 보도할 수 있다.

6. 편향 보도 기법

TV뉴스의 정치 보도에서 주로 사용되는 편향 보도 기법을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기사의 선택 과정, 처리 과정, 그리고 영상 처리 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1) 기사의 선택 과정

▶ 보도 누락(absence)

특정 정파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또는 특정 정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중요한 정보를 전혀 보도조차 하지 않는 것. 이러한 봉쇄 전략(strategy of containment)은 원천적인 불공정 행위임으로 반드시 추적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을 보도하지 않고 그 발언에 대한 사과만 보도하는 행위.

▶ 맞불 보도

중요한 정보를 희석시키는 대응 정보의 보도.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날, 노무현 대통령 기자회견(민주당을 죽이려는 맞불 이벤트라는 비난이 일자 결국 취소).

▶ 형식적(ritual) 객관 보도 유도

보도 내용의 타당성 또는 정확성보다는 형식적 객관성을 중시하는 언론 관행을 활용(ritual objectivity over accuracy).

“A당 후보가 통일교 자금을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B당 대변인이 성명을 발

표했을 때, 성명 내용의 타당성, 즉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B당 대변인의 성명을 인용하는 형식적 객관성만 갖춘 보도.

▶ 발생된 이벤트의 활용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의미 해석.

광화문 촛불 집회를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보도하는 행위, 또는 가변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물신화하여 특정 정파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연계시키는 보도.

▶ 이벤트의 창출

특정 정파가 창출한 이벤트를 그 정파에게 유리하게 의미 해석.

▶ 안정 희구 논리를 확산하는 방송의 기획물과 특별 편성

반공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Killing Field 방송.

요즘은 개혁 논리의 확산을 겨냥한 방송의 기획물과 특별 편성: 한국방송, 문화방송의 보도 비평, 문화방송의 박정희 폄하 프로그램 등.

2) 처리 과정

▶ 양적 균형, 질적 불균형

시간상으로는 대체적인 균형을 이루되 질적으로 대표적인 정보 및 논지와 불필요한 정보 및 주변부적 주장의 포함 여부가 관건이 됨.

▶ 인식의 틀(frame) 제공

객관 보도의 규범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강조, 희석, 풍자, 윤색적 부사/형용사의 사용, 부정적/긍정적 암시의 제공 등을 통해 인식의 방향을 틀짓기(framing)할 수 있다.

“B당 대표는 A당 대표의 주장을 날카롭게 반박했다”에서처럼 날카롭게라는 부사는 A당 대표의 반박을 정당화 시킨다.

▶ 현실의 중화(中化; 얼버무리기)

탄핵 정국의 현상만 보도하고 그 원인과 과정에 대한 보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언행과 정권의 실정(失政)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차단하는 효과를 줄 수도 있다.

▶ 사건의 단편화 내지 고립화

상호 관련 정보를 고립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사건의 전모를 외면하는 기법.

▶ 내부 갈등 조장 보도

민주당, 한나라당 내홍 확대 보도하고, 열린우리당 내홍을 축소 보도하는 행위.

과거에도 야당(신민당, 평민당, 국민회의) 내 파벌 갈등을 확대하는 보도가 많았다.

▶ 주체의 은폐

수동태의 사용

이번 파업(노사분규 대신)으로 하청 기업이 입은 손실과 한국 경제에 미친 타격은… 이번 탄핵으로 한국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운운…

▶ 사소화(些少化) 및 대서특필

특정 정파에 불리한 정보의 사소화 및 그 정파에 유리한 정보의 대서특필(trivialisation or featuring): 축소 보도 및 의미 희석.

▶ 특정 정당의 주변부화

일탈 그룹으로 몰기, 수구 반동/급진 좌파, 빨갱이/수구 꼴통, 비대표성/대표성 강조, 지지 세력의 평가절하, 대세에의 영향력 평가절하, 열린우리당의 싹쓸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은근히 조장하는 것도 포함된다.

▶ 특정 정당 후보의 비합리성, 비현실성, 지역성 강조

여론조사 보도에서 지지도의 지역 편중 강조 등.

▶ 보도 언어의 탈정당화

특정 정당의 상징적 정치 구호를 객관적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고 또 구호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반면, 다른 정당의 정치 구호는 그대로 사용하는 보도 행태.

▶ 부정적 이미지 또는 실수에 대한 차별 보도

▶ 특정 정당의 인기 정책 무력화(feebling)

대중의 이해관계나 호응도 보다는 정책 자체의 문제점을 확대 보도.

▶ 특정 정당의 비인기 정책의 중점 보도

특히 대다수 국민 또는 중산층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 보도.

▶ 낮은 투표율이 마치 선진국형인 것처럼 암시함으로써 기권 조장

▶ 양비론적 보도: 쌍방을 모두 비난하는 보도.

추적 취재를 하면 적어도 책임의 선후(先後), 경중(輕重), 완급(緩急)을 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립성을 명분으로 추적을 회피하는 일과성 보도.

▶ 선거의 과열 및 타락을 강조하는 보도

정치 허무주의와 선거에의 무관심을 조장하여 기권에 대한 죄의식을 간접적으로

완화시킨다.

▶ 정부·여당의 선심성 공약 사업 발표를 확대 보도

반드시 선거와 관련 없고, 정책의 시의성(timeliness) 강조.

▶ 노골적 비난(condemnation)

과거에는 급진 좌파 또는 '빨갱이'로 몰아 일반적으로 비난을 가했고, 요즘 탄핵 정국 때는 탄핵안 가결을 '의회 쿠데타'로 몰아 비난하는 것 등.

3) 영상 처리: 촬영 및 편집을 통한 영상 조작

▶ 프레임(frame) 조작

주로 군중 숫자 조작을 위해 사용한다.

▶ 줌(zoom) 렌즈 사용

사실성의 훼손 때문에 뉴스 촬영에서는 불가피하지 않는 한 사용을 자제해야 함에도 사실감/현실감을 훼손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도: 군중을 화면에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도 사용한다.

▶ 앵글(angle)의 조작

low angle은 피사체의 권위 돋보이게 함.
high angle은 피사체를 초라하게 보이게 함.

▶ 조명의 조작

조명의 위치와 밝기에 따라 음산한, 초라한, 화사한, 피곤한, 자신 있는 모습 등 똑같은 피사체라도 그 이미지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 카메라 위치의 조작

현장을 전면(前面)에서 촬영하느냐 후면(後面)에서 촬영하느냐에 따라 청중의 밀도에 큰 차이가 있다.

▶ 편집: 시간상 순서의 조작

불리한 행동/모습 뒤에 세우기.
연설에 대한 대중의 호응도(박수 함성) 조작.
몽타주: 예컨대 야당의 고질적인 분파 행동의 몇 가지 특징들을 4초, 3초, 2초, 1초씩 제시함으로써 특정 행위의 문제성과 그 긴박성을 강조하거나, 특정 후보의 행위를 일반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진 대상과 교환하여 보여줌으로써 동일시하는 효과를 주기도 한다.

제 3 장 연구 결과

1. 저녁 종합 뉴스 분석

1)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방송 뉴스를 분석하기 위해 2004년 3월 12일(금)부터 3월 18일(목)까지 한국방송, 문화방송, 서울방송의 저녁 종합 뉴스('뉴스 9', '뉴스데스크', '8시 뉴스')의 탄핵 관련 뉴스를 분석 대상으로 양적 내용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에 덧붙여 탄핵이 가결된 2월 12일(금) 과 13일(토)에 집중적으로 편성된 뉴스 속보의 내용도 방송 뉴스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된다고 보고, 한국방송1, 문화방송, 서울방송의 3개 채널, 12일과 13일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방송된 뉴스 속보도 모두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표 3-1-1> 뉴스 정량적 분석 표집 결과

구 분			방 송 사			전 체
			KBS1	MBC	SBS	
뉴스 종류	저녁 종합 뉴스	빈도	168	180	123	471
		%	52.8	50.7	40.5	48.2
	뉴스 속보	빈도	150	175	181	506
		%	47.2	49.3	59.5	51.8
전 체		빈도	318	355	304	977
		%	100	100	100	100

· $\chi^2(2)=10.9$, $p<.01$

전체 표집된 뉴스 아이템의 개수는 977개였다. 이중 한국방송 1 채널의 뉴스가 318개, 문화방송이 355개, 서울방송이 304개였다. 997개의 뉴스 아이템 가운데 저녁 종합 뉴스가 48.2%인 471개였으며, 뉴스 속보는 51.8%인 506개였다. 아래 표를 보면, 서울방송의 경우 다른 방송사의 뉴스에 비해 저녁 종합 뉴스의 탄핵 관련 기사가 적었지만 뉴스 속보의 량은 오히려 더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chi^2(2)=10.9$, $p<.01$).

저녁 종합 뉴스의 뉴스 아이템 수를 날짜별로 보면, 12일 방송 3사는 표집된 전체 1주일 치의 뉴스 가운데 약 41.2%에 달하는 194개의 뉴스 아이템을 방송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당일 날 저녁 종합 뉴스를 특별 편성해서 한국방송의 경우 78개의 아이템을, 문화방송은 74개의 아이템을, 서울방송은 42개의 아이템을 방송했음을 알 수 있다. 일별 뉴스 아이템의 개수는 12일 194개에서 13일 80개, 14일 53개 등 점점 줄어들다가 분석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방송 3 사 합계 31개 수준으로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2> 저녁 종합 뉴스의 일별 뉴스 아이템 수의 변화

			방 송 사			전체
			KBS1	MBC	SBS	
날짜	12일	빈도	78	74	42	194
		%	46.4	41.1	34.1	41.2
	13일	빈도	25	30	25	80
		%	14.9	16.7	20.3	17.0
	14일	빈도	17	23	13	53
		%	10.1	12.8	10.6	11.3
	15일	빈도	15	20	14	49
		%	8.9	11.1	11.4	10.4
	16일	빈도	12	14	10	36
		%	7.1	7.8	8.1	7.6
	17일	빈도	9	11	8	28
		%	5.4	6.1	6.5	5.9
	18일	빈도	12	8	11	31
		%	7.1	4.4	8.9	6.6
전 체		빈도	168	180	123	471
		%	100	100	100	100

(2) 분석 유목

탄핵 정국의 뉴스의 공정성과 불편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뉴스 주제, 크로마키 및 자막의 사용, 인터뷰의 사용 등과 같은 대상에 대해 내용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대상과 각 대상에 포함된 분석 유목을 정리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뉴스 주제

탄핵 정국의 방송 뉴스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방송 뉴스의 내용적 주제를 확인해 보았다. 탄핵 관련 뉴스를 전체적으로 시청한 후 도출한 분석 유목은 ①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과정, ② 탄핵 가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종합, ③ 탄핵 정국에서의 여권의 반응과 대응, ④ 탄핵 정국에서의 야권의 반응과 대응, ⑤ 정부의 대응과 대책, ⑥ 시민의 반응 ⑦ 외국 언론 및 소식통의 탄핵에 대한 반응, ⑧ 경제계의 반응 및 탄핵이 초래하는 경제적 파급효과, ⑨ 탄핵 정국에서

의 여론의 동향, ⑩ 촛불 시위를 포함한 각종 탄핵 반대 및 찬성 집회, ⑪ 헌법재판소의 진행과 헌재 판결에 대한 전망, ⑫ 탄핵이 총선에 미칠 효과 등이었다.

이러한 탄핵 관련 방송 뉴스의 주제는 세분화된 감이 없지 않으므로 실제 분석에서는 유사한 주제적 영역에 포함되는 것들끼리 묶어서 각 주제 영역별 방송 뉴스의 특성에 대해 후속적인 분석을 수행하려 한다.

나. 기사의 갈등성

이 연구의 중요한 이론적 전제 중의 하나는 '사회 갈등'을 다루는 뉴스는 사안에 대한 갈등하는 당사자의 입장을 정당하게 대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안의 갈등성 자체를 잘 드러내야 하며 각 갈등의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당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탄핵 정국의 방송 뉴스가 충분히 갈등적 속성을 지녔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갈등적 뉴스란 '탄핵 관련 기사를 처리함에 있어서 탄핵 찬성 주장과 탄핵 반성 주장을 동시에 취급하는 뉴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사의 갈등성이 각 개별 기사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방송 뉴스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뉴스를 제시하는데 흔히 1분 10초 내외의 짧은 아이템을 여러 개 묶어서 제시한다. 예를 들어, 간단한 뉴스는 1분 10초 내외의 뉴스 아이템 1개로 처리하는 반면 중요한 뉴스는 사건의 진행, 발생원인, 사회적 반응 등과 같이 3개의 아이템으로 처리하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탄핵 정국의 뉴스와 같이 정치적으로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뉴스에 대해서는 하나의 뉴스 아이템의 갈등성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뉴스 아이템을 묶은 이른바 '기사 묶음'의 갈등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같은 주제 영역에 속하는 뉴스의 연속적인 제시를 '기사 묶음'의 단위로 보고, 각 묶음의 단위 내에서 갈등적인 뉴스 처리가 되었는지 분석하려 한다.

다. 기사의 심층성

정치적 사안에 대한 보도가 심층적으로 처리되었는가의 여부는 뉴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중요한 지침을 제시해 준다. 탄핵 관련 방송 뉴스의 심층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1999년 한국언론재단의 보고서 <TV저널리즘과 뉴스가치(I)>에서 제시한 방송 뉴스의 심층성 분석 유목을 원용했다 (손승혜, 1999). 언론재단의 연구에서 제시된 방송 뉴스의 심층성은 ① '과정/결과에 대한 뉴스', ② '원인+과정/결과에 대한 뉴스', ③ '과정/결과+반응에 대한 뉴스', ④ '원인+과정/결과+반응에 대한 뉴스', ⑤ '원인+과정/결과+반응+대안에 대한 뉴스' 등을 의미한다.

이 중 ‘원인’이란 기사의 보도되는 내용 중에 사건의 원인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지하철 노조 파업’ 사건의 경우, 파업이 일어난 이유가 되는 노사간 쟁점이나 노정간의 대립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과정’은 사건의 진행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로, 예를 들면 파업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지 정부와 경찰의 공권력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에 대해 보도하는 것이다. ‘결과’란 사건의 결과 또는 그로 인해 초래된 현상을 언급하고 있는지 나타낸 것으로, 지하철 노조 파업으로 지하철 운행이 지연 또는 파행 운행되었다는 등의 보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반응’은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나 이에 대한 전문가의 해석 내지 해설이 있는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대안’은 해결 방안 또는 대안의 제시를 나타낸다.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미래를 예측하거나 대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는지의 여부를 말한다.

라. 크로마키와 자막

방송 뉴스에서 크로마키와 자막은 시청자의 뉴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적인 정보 제공 수단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뉴스의 내용을 구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탄핵 관련 방송 뉴스의 크로마키와 자막의 전반적인 공정성과 불편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탄핵 반대 진영의 주장 요지를 담은 크로마키를 이용한 뉴스 아이템의 개수와 탄핵 찬성 진영의 주장 요지를 담은 크로마키를 사용한 뉴스 아이템의 개수를 측정했다. 이 두 가지 유목에 포함하기 어려운 것은 모두 ‘어느 편을 드는지 판단하기 어려움’이라는 별도의 유목에 포함시켰다.

동시에 뉴스 아이템 내부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자막의 내용에 대해서도 동일한 분석 유목을 사용해서 분석했다. 즉 탄핵 반대 요지를 담은 자막과 탄핵 찬성 요지를 담은 자막의 개수를 측정했다.

마. 화면과 기사의 일치

방송 뉴스는 시각적 정보와 청각적 정보를 동시에 다중적 채널을 통해 전달한다. 따라서 시각적 정보(화면)와 청각적 정보(기사 내용)의 일치 여부가 뉴스의 이해와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흔히 시각적 정보(화면)와 기사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방송 뉴스는 시청자의 뉴스 내용에 대한 이해에 혼란을 유발한다. 또한 이러한 화면과 기사 내용의 불일치가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가 아니라 의도된 것이라는 의심을 사면 이는 방송 내용에 대한 편향성 비판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모든 뉴스 아이템에 사용된 자료 화면이 기사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코딩을 수행했다. 예를 들어, 탄핵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뉴스에서 그 뉴스의 내용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탄핵 가결 장면을 자료 화면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 등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화면으로 보았다.

바. 인터뷰의 수와 길이

방송 뉴스의 경우 인터뷰가 뉴스 내용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탄핵 관련 방송 뉴스에 누구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가 얼마나 이용되었는지 분석함으로써 방송 뉴스의 전체적인 의미 구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탄핵과 관련해서 갈등하는 당사자의 인터뷰가 공정하게 수행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탄핵 지지 진영의 인터뷰의 수와 탄핵 반대 진영의 인터뷰의 수를 세었다. 동시에 각 인터뷰의 길이를 초 단위로 측정했다.

사. 인터뷰의 대상과 성격

방송 뉴스의 내용적 구성에 있어서 인터뷰의 수와 길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인터뷰를 수행했는지 여부이다. 이 연구에서는 탄핵 관련 방송 뉴스의 경우 주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 대상을 ① 여당 정치인, ② 야당 정치인, ③ 정부 인사, ④ 정치 전문가, ⑤ 법률 전문가, ⑥ 경제 전문가, ⑦ 검찰 및 검찰, ⑧ 언론인, ⑨ 각종 단체를 포함한 이익집단, ⑩ 일반 시민 등의 분석 유목을 사용해서 측정했다.

동시에 각 인터뷰 대상에 대해 주로 어떤 성격의 인터뷰를 수행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① 주로 정보적 성격의 인터뷰 (사실 관계에 대한 의견), ② 주로 분석적 성격의 인터뷰 (사실 관계에 근거한 인터뷰 대상의 분석을 덧붙인 의견), ③ 주로 평가적 성격의 인터뷰 (사실 관계에 대한 의존보다는 개인의 사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근거한 의견), ④ 주로 감성적 성격의 인터뷰 (정서적 반응) 등으로 분석 유목을 구분해서 측정했다.

아. 기자의 리포팅

마지막으로 탄핵 관련 기사의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자 리포팅 자체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기자의 리포팅이 사건의 발생과 사실 관계에 기초한 정보 제공을 주로 하는 보도인지 아니면 발생과 사실 관계에 덧붙여 기자의 주관적인 논평을 제시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코딩을 수행했다. 또한 특정 정파 (탄핵 반대 진영이나 탄핵 찬성 진영) 한 쪽을 편드는 분석이나 논평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한편을 편들지 않고 양쪽의 견해를 동시에 고려한 리포팅을 하는지도 판단해서 코딩했다.

여기에서 탄핵 반대 진영이나 찬성 진영 어느 한쪽이라도 편드는 리포팅이란 ①

윤색적인 형용사 및 부사의 사용, ② 주관적인 감정이 섞인 표현의 사용, ③ 역사적 사례 및 캐치프레이즈의 사용으로 한 편을 편드는 것, ④ 특정 진영의 사람 말을 인용함으로써 편드는 것, ⑤ 편향적인 규범적 가치에 호소하는 것, ⑥ 기자의 얼굴이나 말에 명백하게 드러나는 표정 등을 포함한 경우를 의미한다.

(3) 코딩 절차 및 코더 간 신뢰도

전체 977개의 뉴스 아이템을 분석하기 위해 4명의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코딩 전문 요원을 고용했다. 코딩 전문 요원은 미리 준비된 분석 대상과 분석 유목에 대한 코딩 지침을 근거로 뉴스 내용 분석에 필요한 개념을 먼저 숙지했다. 특히 내용 분석 초기에는 코딩 전문 요원 4명이 함께 공동으로 종합 뉴스에 대해 애벌 코딩을 하면서 코더 간 공통의 인식 틀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분석 유목에 대한 코더 간 인식이 공유되었다고 판단된 시점에서 2명씩 코더가 10개의 뉴스 아이템에 대해 별도로 코딩한 결과 분석 유목에 대한 평균 신뢰도(단순 일치도 기준)가 .85수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신뢰도가 낮게 나온 유목에 대해 코더 간 토론을 통해 코딩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코더 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코더 간 불일치를 해소한 후 수행한 신뢰도 검증에서 코더 간 신뢰도(단순 일치도 기준)가 최소 .88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코더 간 신뢰도가 확립된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 분석에서 2인 1조로 팀을 나누어 코팅을 진행했다. 그런데 저녁 종합 뉴스에 대한 코딩을 진행하던 중, 2인 1조 2개 팀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진행상에 불편함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녁 종합 뉴스에 대해서는 4인의 전문 코딩 요원이 1개의 조가 되어 함께 코딩을 수행했다. 뉴스 속보는 원래대로 2인 1조, 2개 팀이 코딩을 수행했다. 전체 977개의 뉴스 아이템을 분석하는 데, 일인당 평균 57시간이 소요되었다.

2) 분석 결과

(1) 뉴스 주제

과연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가결 직후 이어진 이른바 '탄핵 정국'에서 우리 방송 뉴스는 이 사태를 어떤 주제로 다루었는가? 탄핵 보도의 공정성이나 불편부당성을 검토하기에 앞서서 탄핵 보도의 전반적인 주제적 내용을 알아보았다. <표 3-1-3>은 탄핵 관련 뉴스를 주제별로 구분해 보여 준다. 전체 기사 중에 탄핵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163건(16.7%)으로 가장 많고 탄핵에 대한 시민 반응이 137건(14.0%)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리고 헌재 판결 관련 보도, 탄핵에 대한 야권의 반응, 탄핵에 대한 외국의 반응 등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 관련 뉴스 주제와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시민의 반응'에 대한 뉴스 아이템의 비율에서 방송사별 차이성이 보인다는 것이다. 즉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은 각각 17.9%와 14.1% 수

준으로 시민의 반응을 보도했지만 서울방송은 9.9% 정도의 비율로 시민 반응을 다룬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1-3> 뉴스 주제

구 분		방송사			전 체
		KBS1	MBC	SBS	
뉴스주제	탄핵 과정	17 (5.3)	21 (5.9)	19 (6.3)	57 (5.8)
	정치권 종합	6 (1.9)	7 (2.0)	4 (1.3)	17 (1.7)
	여권 반응	8 (2.5)	15 (4.2)	11 (3.6)	34 (3.5)
	야권 반응	31 (9.7)	31 (8.7)	27 (8.9)	89 (9.1)
	정부 대책	56 (17.6)	61 (17.2)	46 (15.1)	163 (16.7)
	시민 반응	57 (17.9)	50 (14.1)	30 (9.9)	137 (14.0)
	외국의 반응	24 (7.5)	25 (7.0)	30 (9.9)	79 (8.1)
	경제계 반응	10 (3.1)	19 (5.4)	20 (6.6)	49 (5.0)
	여론 동향	3 (0.9)	4 (1.1)	2 (0.7)	9 (0.9)
	대중 집회	18 (5.7)	16 (4.5)	20 (6.6)	54 (5.5)
	헌재 판결	32 (10.1)	40 (11.3)	38 (12.5)	110 (11.3)
	총선 영향	9 (2.8)	5 (1.4)	2 (0.7)	16 (1.6)
	기타	47 (14.8)	61 (17.2)	55 (18.1)	163 (16.7)
전 체		318 (100)	355 (100)	304 (100)	977 (100)

· $\chi^2(24)=24.0$, $p>.05$

방송사별 탄핵 뉴스 주제의 경향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주제의 유목을 유사한 것들끼리 묶어서 재분석해 보았다. ① 일단 탄핵 과정에 대한 보도와 이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반응을 함께 묶어 '탄핵 정치 과정'이라고 했다. 이는 전체 기사의 2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탄핵 가결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대책에 대한 보도는 별도의 유목으로 취급해서 '정부 대응'이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전체 기사의 16.7%였다. ③ 탄핵 정치과정에 대한 시민의 반응과 대중 집회, 그리고 여론의 향배 등에 대한 뉴스를 묶어 '시민 여론 반응'으로 삼았다. 이는 전체 기사의 20.5%에 해당됐다. ④ 탄핵에 대한 경제계 반응 및 외국 뉴스의 논평 등을 묶어 '전문가 반응'이라고 했는데 이는 13.1%에 달했다. ⑤ 마지막으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지 다룬 뉴스를 모아 '헌재 판결'로 별로도 묶었

으며, 이는 전체 기사의 11.3%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탄핵 관련 보도를 재분류해서 방송사별로 재분석해 보았다. 아래 <표 3-1-4>에 제시되었듯이, 탄핵에 대한 정치적 과정이나 정부의 대응, 그리고 헌재의 판결 등에는 방송사 별로 차이가 없지만 시민 여론 반응과 전문가 반응에서는 방송사별 차이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은 서울방송에 비해 시민 여론 반응 관련 주제를 많이 다룬 반면에 서울방송은 다른 방송에 비해 전문가 반응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chi^2(2)=7.8$, $p<.05$).

<표 3-1-4> 뉴스 주제 2 (주제별 재분류)

구 분		방송사			전체
		KBS1	MBC	SBS	
뉴스 주제	탄핵 정치과정	62 (19.5)	74 (20.8)	61 (20.1)	197 (20.2)
	정부 대응	56 (17.6)	61 (17.2)	46 (15.1)	163 (16.7)
	시민 여론 반응	78 (24.5)	70 (19.7)	52 (17.1)	200 (20.5)
	전문가 반응	34 (10.7)	44 (12.4)	50 (16.4)	128 (13.1)
	헌재 판결	32 (10.1)	40 (11.3)	38 (12.5)	110 (11.3)
	기타	56 (17.6)	66 (18.6)	57 (18.8)	179 (18.3)
전 체		318 (100)	355 (100)	304 (100)	977 (100)

· $\chi^2(10)=10.2$, $p>.05$
· 시민 여론 반응과 전문가 반응(음영 부분) 별도 분석한 결과 $\chi^2(2)=7.8$, $p<.05$.

(2) 기사의 갈등성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대응은 전형적인 사회적 갈등 과정을 구현한다. 즉 탄핵 사태는 이에 대해 지지하는 사회 세력과 반대하는 사회 세력 간에 '탄핵 가결'이라는 사안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과 이해를 지녔으며 결국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에 대한 처방에서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제시했다.

공정한 뉴스란 갈등적인 사안에 대해 어느 한 갈등적 당사자의 입장에 서지 않고 갈등을 갈등 당사자의 시각에서 '갈등적 사안'으로 취급하는 뉴스를 의미한다. 특히 대통령 탄핵과 같이 중대한 정치적 사안을 보도함에 있어서 사태 자체의 갈등적 본질을 파악하고 대립하는 갈등 당사자의 입장을 각자의 시각에서 충분히 보도하는

것이야 말로 공정한 보도의 전제 조건이 된다. 뉴스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 및 비판은 흔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갈등적인 사안에 대해 뉴스가 그 사안의 갈등의 본질과 내용을 충분히 다루지 못함으로써 발생한다. 즉 갈등적 사안에 대해 마치 갈등이 없는 듯이 다루거나 갈등 당사자의 관점과 견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뉴스가 일차적으로 공정성 시비 및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2004년 3월 탄핵 정국에서 방송사의 탄핵 보도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관련 뉴스를 '갈등적 이슈'로 다루었는지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갈등적 이슈로 다루었는지' 여부는 뉴스가 '탄핵 관련 기사를 처리함에 있어서 탄핵 찬성 주장과 탄핵 반성 주장을 취급하고 있는지' 즉 갈등하는 당사자의 관점과 입장이 충돌되고 있음을 분명히 제시했는지 여부를 따져서 결정했다.

먼저 뉴스 아이템이 갈등성을 얼마나 구현했는지 살펴보면, 전체 977개의 탄핵 관련 뉴스 아이템 가운데 약 16.4%인 160건 만이 탄핵을 '갈등적 이슈'로 다루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가결이 갖는 엄청난 정치적 파장과 사건의 갈등적 속성에 비추어 보아 전체 뉴스 아이템의 16.4%만이 '갈등적 이슈'로 다루어졌다는 것은 매우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표 3-1-5> '갈등적 이슈'로 다룸

구 분		방송사			전체
		KBS1	MBC	SBS	
갈등적 이슈	다루었다	66 (20.8)	44 (12.4)	50 (16.4)	160 (16.4)
	다루지 않았다	252 (79.2)	311 (87.6)	254 (83.6)	817 (83.6)
전 체		318 (100)	355 (100)	304 (100)	977 (100)

· $\chi^2(2)=8.56$, $p<.05$

탄핵 관련 뉴스를 '갈등적 이슈'로 다룸에 있어서 방송사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방송의 경우 전체 기사 가운데 20.8%를 갈등적 이슈로 다루어 상대적으로 사태의 갈등성을 가장 잘 드러냈다고 볼 수 있고, 서울방송의 경우 16.4%로 전체 평균 수준이었다. 하지만 문화방송의 경우에는 전체 기사 가운데 '갈등적 이슈'로 다룬 경우가 12.4%에 달해 상대적으로 다른 방송사에 비해 그 비율이 낮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chi^2(2)=8.56$, $p<.05$).

방송사별 '갈등적 이슈'로 다루는 비율의 차이는 특히 탄핵 뉴스의 주제 가운데 '탄핵 정치과정' 관련 뉴스와 '시민 여론 반응' 관련 뉴스의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1-6>이 보여주듯, 탄핵 정치과정 주제, 즉 탄핵 과정에 대한 보도와 그에 대한 정치권 및 정부의 대응과 관련된 뉴스의 경우 한국방송은 45.2%를 갈등적 사안으로 다루었지만, 문화방송과 서울방송은 각각 27.0%와 26.2%로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chi^2(2)=6.6$, $p<.05$).

<표 3-1-6> '갈등적 이슈'로 다룸 : 탄핵 정치과정 주제

구 분		방송사			전체
		KBS1	MBC	SBS	
갈등적 이슈	다루었다	28 (45.2)	20 (27.0)	16 (26.2)	64 (32.5)
	다루지 않았다	34 (54.8)	54 (73.0)	45 (73.8)	133 (67.5)
전체		62 (100)	74 (100)	61 (100)	197 (100)

· $\chi^2(2)=6.6$, $p<.05$

시민 여론 반응 관련 뉴스의 경우, 서울방송이 가장 갈등적으로 사태를 다루었음을 발견했다. <표 3-1-7>에 제시되어 있듯이, 서울방송은 전체 시민 여론 반응 기사의 40.4%를 갈등적으로 다루었지만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은 각각 24.4%와 10.0%밖에 다루지 않았다 ($\chi^2(2)=15.4$, $p<.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방송 뉴스가 전반적으로 개별 아이템에서 갈등 뉴스를 다룬 경우는 16.4%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방송사별로 한국방송은 탄핵 관련 정치 과정을 보도함에 있어서 충분히 갈등적 관점에서 사태를 다룬 반면, 서울방송은 특히 시민 여론 반응을 보도함에 있어서 갈등적 관점을 잘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표 3-1-7> '갈등적 이슈'로 다룸 : 시민 여론 반응 주제

구 분		방송사			전체
		KBS1	MBC	SBS	
갈등적 이슈	다루었다	19 (24.4)	7 (10.0)	21 (40.4)	47 (23.5)
	다루지 않았다	59 (75.6)	63 (90.0)	31 (59.6)	153 (76.5)
전체		78 (100)	70 (100)	52 (100)	200 (100)

· $\chi^2(2)=15.4$, $p<.001$

우리나라의 방송 뉴스는 1분 10초 내외의 짧은 뉴스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요한 사건을 다룰 경우에 같은 길이의 뉴스 아이템을 연속으로 묶어서 (bundling) 제시하는 관행이 있다. 따라서 기사의 갈등성을 파악함에 있어서 개별적인 뉴스 아이템 내부에서 이슈를 갈등적으로 다루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개되는 뉴스의 흐름 속에서 같은 주제로 이어지는 '기사 묶음'이 흐름으로 보았을 때, 갈등적으로 처리되었는지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전체 뉴스 가운데 저녁 종합 뉴스의 경우에만 기사의 흐름을 고려한 코딩을 별도로 수행했다. 같은 주제로 이어지는 '기사 묶음'에 대하여, 각 기사의 내용은 비갈등적으로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하나의 '기사 묶음' 내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의 견해가 갈등적으로 배치된 경우는 갈등적이라고 코딩했다.

기사 묶음을 분석 단위로 뉴스의 갈등성을 살펴 본 결과가 <표 3-1-8>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201개의 '기사 묶음' 가운데 49.8%가 탄핵을 갈등적 이슈로 다루었으며 나머지 50.2%는 갈등적인 관점에서 다루지 않았다. 각 방송사별로 탄핵을 갈등적 이슈로 다룬 '기사 묶음'의 비율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즉 한국방송의 경우에는 전체 기사 묶음의 58.1%를 갈등적으로 다루었으며, 서울방송이 46.7%, 문화방송이 45.6%였다. 하지만 방송사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다.

<표 3-1-8> 기사 묶음(bundle)에 대한 갈등성 분석

구 분		방송사			전체
		KBS1	MBC	SBS	
갈등적 이슈	다루었다	36 (58.1)	36 (45.6)	28 (46.7)	100 (49.8)
	다루지 않았다	26 (41.9)	43 (54.4)	32 (53.3)	101 (50.2)
전체		62 (100)	79 (100)	60 (100)	201 (100)

· $\chi^2(2)=2.4,\ p>.05$

(3) 기사의 심층성

노무현 대통령 탄핵 가결은 그 자체로 복잡한 정치적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이 사안에 대한 정치권 및 시민의 반응의 다원성 그리고 법적, 경제적 파장 등의 복합성을 고려해보면 탄핵 관련 뉴스는 단편적이고 일면적인 뉴스여서는 곤란하며 심층적이고 다면적인 분석과 해석이 부가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 과정이 복잡하며 파장이 광범위할 것이라고 예견되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심층적인 뉴스 제작이 필수적인 것이다.

탄핵 관련 방송 뉴스는 얼마나 심층적이었는가? 탄핵 관련 뉴스 보도의 심층성을 확인하기 위해, 각 뉴스 아이템이 단순한 사건의 발생과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보도인지, 아니면 사건의 발생과 과정의 원인에 대한 분석적인 견해가 덧붙여졌는지, 아니면 사건의 발생과 과정의 원인은 물론 사건의 영향과 함의에 대한 분석을 부가했는지 알아보았다. <표 3-1-9>가 제시하듯이 전체 뉴스 아이템 가운데 단순한 보도가 67.1%인 656건에 해당하고, 보다 심층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을 더한 기사는 8.5%인 83건, 그리고 가장 심층적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과 과정에 대해 원인과 영향에 대한 분석을 부가한 기사가 24.4%인 238개에 달했다.

탄핵 관련 뉴스의 심층성을 각 방송사별로 비교해 보면 문화방송과 서울방송의 경우 전체 뉴스 아이템의 73.0%와 70.4%가 각각 단순한 발생과 과정에 대한 보도였으며 단지 19.4%와 21.1%만이 심층적인 보도였다. 하지만 한국방송의 경우에는 전체 뉴스 아이템의 57.5%가 단순 기사였으며 33.0%가 심층적인 보도였다 ($\chi^2(4)=21.9$, $p<.001$). 즉 한국방송의 경우 다른 방송사에 비해 탄핵 관련 기사를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9> 탄핵 관련 기사의 심층성

구 분		방송사			전체
		KBS1	MBC	SBS	
심층성	사건 과정 및 발생 보도	183 (57.5)	259 (73.0)	214 (70.4)	656 (67.1)
	사건+원인 분석	30 (9.4)	27 (7.6)	26 (8.6)	83 (8.5)
	사건+원인+영향	105 (33.0)	69 (19.4)	64 (21.1)	238 (24.4)
전체		318 (100)	355 (100)	304 (100)	977 (100)

· $\chi^2(4)=21.9$, $p<.001$

이러한 기사의 심층성은 뉴스 주제별로 보아 '시민 여론 반응' 관련 뉴스일 경우와 '전문가 반응' 관련 뉴스일 경우 더욱 강조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아래 <표 3-1-10>에 제시되어 있듯이 시민 여론 반응 관련 뉴스일 경우 한국방송은 전체 시민 여론 반응 관련 뉴스 가운데 37.2%가 심층적인 뉴스였지만, 서울방송과 문화방송은 각각 13.5%와 7.1% 정도만이 심층적인 뉴스였다($\chi^2(4)=23.8$, $p<.001$). 그리고 이러한 탄핵 관련 뉴스의 심층성의 방송사별 차이는 정규 뉴스의 경우, 즉 저녁 종합 뉴스의 경우가 뉴스 속보에 비해 더욱 강조되어 나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chi^2(4) =41.0$, $p<.001$).

<표 3-1-10> 탄핵 관련 기사의 심층성: 시민 여론 반응 주제

구 분		방송사			전체
		KBS1	MBC	SBS	
심층성	사건 과정 및 발생 보도	41 (52.6)	59 (84.3)	40 (76.9)	140 (70.0)
	사건+원인 분석	8 (10.3)	6 (8.6)	5 (9.6)	19 (9.5)
	사건+원인+영향	29 (37.2)	5 (7.1)	7 (13.5)	41 (20.5)
전체		78 (100)	70 (100)	52 (100)	200 (100)

· $\chi^2(4)=23.8$, $p<.001$

(4) 크로마키와 자막

방송 뉴스에서 크로마키와 자막을 시청자의 뉴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하는 보조적인 정보 제공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크로마키와 자막은 전체적인 뉴스의 내용의 해석의 방향을 결정하고 뉴스 내용의 전반적 의미를 공고하게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단순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방송 뉴스 경우 크로마키는 특히 뉴스 전체 내용의 주제적 요점과 해석적 시각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가하면 자막은 앵커와 기자가 전달하는 '구어적 뉴스 내용'을 문어적으로 다시 전달함으로써 뉴스 내용의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고 구체화하는 데 일조한다. 따라서 크로마키와 자막은 시청자가 뉴스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돕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청자의 이해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효과(prime effect)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크로마키와 자막은 뉴스의 이해를 특정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의 공정성과 내용적인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탄핵 뉴스에 대한 크로마키와 자막을 분석함으로써 탄핵 관련 방송 뉴스의 전반적인 의미 구성의 편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크로마키와 자막의 내용적 편향성에 대해 분석했다.

<표 3-1-11>은 크로마키의 내용이 '탄핵 반대 진영의 요지'인지 '탄핵 찬성 진영의 요지'인지 아니면 어느 쪽의 주장을 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크로마키를 담고 있는 뉴스 658 아이템 가운데 탄핵 반대 진영의 주장 요지를 전달하는 크로마키가 13.8%였으며 찬성 진영의 주장 요지를 제시하는 경우는 4.7%였다. 즉 탄핵 관련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방송 뉴스에 전반적으로 탄핵 반대 진영의 목소리가 탄핵 찬성 진영의 목소리보다 거의 3배나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크로마키의 사용은 방송사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문화방송의 경우 탄핵 반대 진영의 주장 요지를 제시한 경우가 19.6%로 다른 방송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한국방송과 서울방송은 각각 11.2%와 10.6%로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chi^2(4)=12.69$, $p<.05$).

<표 3-1-11> 크로마키의 내용

구 분		방송사			전체
		KBS1	MBC	SBS	
크로마키	탄핵 반대 진영의 주장 요지	35 (11.2)	42 (19.6)	14 (10.6)	91 (13.8)
	탄핵 찬성 진영의 주장 요지	10 (3.2)	12 (5.6)	9 (6.8)	31 (4.7)
	판단하기 어려움	267 (85.6)	160 (74.8)	109 (82.6)	536 (81.5)
전 체		312 (100)	214 (100)	132 (100)	658 (100)

· $\chi^2(4)=12.69$, $p<.05$

특히 위와 같은 크로마키 사용에 있어서의 비대칭성은 '시민 여론 반응'관련 주제를 담고 있는 뉴스의 경우 더욱 강조되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2>에 제시되어 있듯이, 문화방송의 경우 시민 여론 반응을 다룬 뉴스의 경우 53.7%가 탄핵 반대 진영의 주장 요지를 담고 있고 단 2.4%만 탄핵 찬성 진영의 주장 요지를 크로마키로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한국방송과 서울방송의 경우 각각 24.7%와 29.2%의 크로마키 사용이 탄핵 반대 진영의 주장 요지를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상대적으로 문화방송에 비해 균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3-1-12> 크로마키의 내용 : 시민 여론 반응 주제

구 분		방송사			전체
		KBS1	MBC	SBS	
크로마키	탄핵 반대 진영의 주장 요지	19 (24.7)	22 (53.7)	7 (29.2)	48 (33.8)
	탄핵 찬성 진영의 주장 요지	1 (1.3)	1 (2.4)	1 (4.2)	3 (2.1)
	판단하기 어려움	57 (74.0)	18 (43.9)	16 (66.7)	91 (64.1)
전 체		77 (100)	41 (100)	24 (100)	142 (100)

· $\chi^2(4)=11.39$, $p<.05$ - 기대 빈도 5이하인 셀 50%

한편 크로마키 사용에 있어서의 비대칭성은 뉴스가 방송된 시점에 따라서도 상이

한 패턴을 보인다. <표 3-1-13>이 제시하듯이, 탄핵안이 가결된 12일(토) 뉴스 속보와 정규 뉴스의 경우에는 탄핵 반대 진영과 찬성 진영의 주장 요지가 11.1%와 3.7%였다. 특히 서울방송의 경우에는 탄핵 반대와 찬성 진영의 주장 요지를 담은 크로마키를 각각 5씩 사용했지만,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은 탄핵 반대와 찬성 요지를 각각 17개와 4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방송사별 크로마키 사용의 차이를 보여준다 ($\chi^2(4)=20.5$, $p<.001$). 그런데 이러한 방송사별 크로마키 사용의 차이는 13일 이후부터는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탄핵 반대 진영과 찬성 진영의 주장 요지의 사용에 있어서 방송사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hi^2(4)=5.5$, $p>.05$). 탄핵 정국이 진행되면서, 전체적으로 탄핵 반대 진영의 주장 요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했으며, 동시에 탄핵 반대와 찬성 주장의 수에 따른 방송사별 차이성이 없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1-13> 시점에 따른 크로마키 사용

구 분		방송사			전체
		KBS1	MBC	SBS	
12일 (금)*	탄핵 반대 진영의 주장 요지	17 (7.6)	17 (19.5)	5 (12.2)	39 (11.1)
	탄핵 찬성 진영의 주장 요지	4 (1.8)	4 (4.6)	5 (12.2)	13 (3.7)
	판단하기 어려움	202 (90.6)	66 (75.9)	31 (75.6)	299 (85.2)
전 체		223 (100)	87 (100)	41 (100)	351 (100)
13-18일 (토-목)**	탄핵 반대 진영의 주장 요지	18 (20.2)	25 (19.7)	9 (9.9)	52 (16.9)
	탄핵 찬성 진영의 주장 요지	6 (6.7)	8 (6.3)	4 (4.4)	18 (5.9)
	판단하기 어려움	65 (73.0)	94 (74.0)	78 (85.7)	237 (77.2)
전 체		89 (100)	127 (100)	91 (100)	307 (100)

* $\chi^2(4)=20.5$, $p<.001$
** $\chi^2(4)=5.5$, $p>.05$

자막의 경우에도 방송사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막 분석을 위해, 한 개의 뉴스 아이템이 최대 4개 이하의 자막을 사용했던 것으로 가정하고 방송된 뉴스 아이템의 모든 자막을 그 내용에 따라서 '탄핵 반대 진영의 주장 요지'를 담고 있는지 '탄핵 찬성 진영의 주장 요지'를 담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쪽의 주장인지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따라 분류했다. 분석 결과, 전체 461개의 뉴스 아이템이 자막을 1개 이상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전체의 약 30.2%가 탄핵 반대 진영의 주장 요지를 담은 자막을 보냈지만 이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전체의 약 19.1%가 탄핵 찬성 진영의 주장 요지를 담은 자막을 제시했다.

<표 3-1-14>가 자막의 사용의 공정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한다. 비록 복수 응답을 이용한 분석을 수행했기 때문에 통계적 검정을 거치지는 못했지만, 방송사별로 자막을 사용하는 데 약간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했다. 즉 자막의 경우 방송사 간 차이는 '탄핵 반대 진영의 주장 요지'를 제시하는 데는 거의 없었던 반면, '탄핵 찬성 진영의 주장 요지'를 전달하는 데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문화방송의 경우 전체 자막을 보낸 뉴스 아이템 중 12.1%의 탄핵 찬성 진영의 주장 요지를 담은 자막을 내보낸 데 반해서, 한국방송과 서울방송은 20.9%와 25.9%가 탄핵 찬성 진영의 주장 요지를 담은 자막을 방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4> 자막의 내용 (복수 코딩)

구 분		방송사			전체
		KBS1	MBC	SBS	
자막	탄핵 반대 진영의 주장 요지	44 (29.7)	52 (29.9)	43 (30.9)	139 (30.2)
	탄핵 찬성 진영의 주장 요지	31 (20.9)	21 (12.1)	36 (25.9)	88 (19.1)
	판단하기 어려움	202 (136.5)	218 (125.3)	244 (175.5)	664 (144.0)
전 체		148 (100)	174 (100)	139 (100)	461 (100)

(5) 화면과 기사의 일치

방송 뉴스는 시각적 정보와 청각적 정보를 동시에 다중적 채널을 통해 전달한다. 따라서 시각적 정보(화면)와 청각적 정보(기사 내용)의 일치 여부가 뉴스의 이해와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반대로 시각적 정보(화면)와 기사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방송 뉴스는 혼란을 유발하며, 특히 이러한 불일치가 부주의나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면 흔히 편향성 비판의 시빗거리가 된다.

예를 들어, 탄핵이 가결되는 순간의 국회 장면을 자료 화면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화면이 뉴스의 전반적인 내용과 일치하면서 시청자의 뉴스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반대로 뉴스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화면을 남발함으로써 뉴스 내용에 대한 이해보다는 오해를 조장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탄핵 관련 방송 뉴스의 경우 후자와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사의 내용과 자료 화면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았다.

전체 뉴스 아이템 가운데 화면이 없이 단신으로 처리되었던 뉴스를 제외한 952

개의 뉴스 아이템 가운데 대부분인 931개의 뉴스 아이템이 화면과 내용이 대체로 일치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21개 아이템에 해당하는 2.2%의 경우에는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화면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방송의 경우 전체 21개의 아이템 가운데 13개 아이템이 해당되었고 문화방송과 서울방송이 각각 4 뉴스 아이템이 화면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chi^2(2)=8.09$, $p<.05$).

<표 3-1-15> 화면과 기사의 일치

구 분		방송사			전체
		KBS1	MBC	SBS	
화면 일치	화면과 기사가 거의 일치	302 (95.9)	344 (98.9)	285 (98.6)	931 (97.8)
	화면과 기사가 다소 일치하지 않는다	13 (4.1)	4 (1.1)	4 (1.4)	21 (2.2)
전 체		315 (100)	348 (100)	289 (100)	952 (100)

· $\chi^2(2)=8.09$, $p<.05$

아래 <표 3-1-16>가 제시하듯이, 화면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뉴스 아이템의 경우 90.5%가 박관용 의장과 한나라당 의원과 관련된 탄핵소추안 국회통과 장면을 자료 화면으로 사용한 것이며, 61.9%가 열린우리당 중심의 탄핵소추안 국회통과 장면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1-16> 화면 처리 통계표 (복수 코딩)

구 분		KBS1	MBC	SBS	전체
화면	탄핵소추안 국회통과 장면 (박관용 의장, 한나라당 중심)	12 (92.3)	3 (75.0)	4 (100.0)	19 (90.5)
	탄핵소추안 국회통과 장면 (열린우리당 중심)	7 (53.8)	3 (75.0)	3 (75.0)	13 (61.9)
전 체		13 (100)	4 (100)	4 (100)	21 (100)

(6) 인터뷰의 수와 길이

방송 뉴스의 경우 인터뷰와 직접 인용(화면과 보이스오버 사용한 인용)은 뉴스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앵커의 소개가 방송 뉴스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기자의 리포트가 내용의 뼈대를 구성한다면, 인터뷰와 직접 인용은 흔히 기사 내용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자료로서 사용된다. 따라서 방송 뉴스

의 경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인터뷰 했는지에 따라 기사 내용의 전반적인 구성이 달라진다.

결국 탄핵 관련 뉴스의 내용이 공정성과 불편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방송 뉴스가 누구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서 뉴스를 구성했는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서가 된다. 뉴스의 전체적인 편향성을 알아보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로서 '탄핵에 찬성하는 인터뷰나 인용'이 많았는지 아니면 '탄핵에 반대하는 인터뷰나 인용'이 많았는지 그 인터뷰의 수를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를 근거로 탄핵 관련 뉴스에 사용된 탄핵 찬성, 반대 및 중립적인 내용의 인터뷰의 수를 측정해 보았다.

먼저 모든 방송사 전체를 대상으로 보면, 탄핵 반대 진영의 인터뷰 개수가 뉴스 아이템 당 평균 .51개, 탄핵 찬성 진영의 인터뷰 개수가 평균 .32개로 탄핵 반대 진영의 인터뷰 개수가 더 많았다($t(976)=5.4$, $p<.001$). 개별 방송사를 기준으로 각각 비교해 보아도, 방송 3사 공히 탄핵 반대 진영의 인터뷰 수가 탄핵 찬성 진영의 인터뷰 수에 비해 더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방송의 경우 기사 평균 .56대 .40개($t(317)=2.6$, $p<.01$), 문화방송의 경우 기사 평균 .55대 .31개($t(354)=3.9$, $p<.001$), 서울방송의 경우 기사 평균 .41대 .24개 인터뷰를 방송한 것으로 나타났다($t(303)=2.9$, $p<.01$). 탄핵 찬반 인터뷰 개수의 차이는 문화방송에서 .24로 가장 컸으며 한국방송과 서울방송은 인터뷰 개수의 차이가 각각 .16과 .17로 같은 수준이었다.

<표 3-1-17> 인터뷰의 수 (기사당 평균 인터뷰 수)

구 분		방송사			전체
		KBS1	MBC	SBS	
인터뷰	탄핵 반대 진영의 인터뷰의 수	.56	.55	.41	.51
	탄핵 찬성 진영의 인터뷰의 수	.40	.31	.24	.32
	편 가르기 어려운 인터뷰의 수	.86	.59	.69	.71
전 체		318	355	304	977

방송사별 탄핵 찬·반 인터뷰의 수의 차이 역시 뉴스의 주제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탄핵 찬성 진영과 반대 진영의 인터뷰 수의 차이는 '시민 여론 반응' 관련 뉴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 반응이나 헌재 판결 관련 뉴스에서는 탄핵 찬성 진영과 반대 진영의 인터뷰의 수가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탄핵 과정과 정치인 반응을 다룬 뉴스는

방송사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즉 한국방송과 서울방송만 탄핵 찬성 진영과 반대 진영 인터뷰 수의 차이가 미약하나마 관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여론 반응' 관련 뉴스의 탄핵 찬성 진영과 반대 진영의 인터뷰 수를 보면 모든 방송사가 탄핵 반대 진영의 인터뷰를 탄핵 찬성 진영의 인터뷰보다 더 많이 방송했음을 알 수 있다. 즉 탄핵 반대 진영의 인터뷰는 평균 1.01개였지만, 탄핵 찬성 진영의 인터뷰는 평균 .26개로 거의 4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성을 방송사별로 보면, 한국방송의 경우 탄핵 반대와 찬성 진영의 인터뷰 수가 각각 .95대 .32개로 3배 차이($t(77)=5.6$, $p<.001$)를, 문화방송의 경우 1.24대 .29개로 약 4배 이상 차이($t(69)=5.8$, $p<.001$)를, 서울방송의 경우 .79대 .15개로 5배 이상 차이($t(51)=4.1$, $p<.001$)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민 여론 반응과 관련된 기사의 경우 방송 3사 모두, 탄핵 반대 진영의 인터뷰 개수가 탄핵 찬성 진영의 인터뷰 개수에 비해 3배 내지 5배나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8> 인터뷰의 수 (기사당 평균 인터뷰 수): 시민 여론 반응

구 분		방송사			전체
		KBS1	MBC	SBS	
인터뷰	탄핵 반대 진영의 인터뷰의 수	.95	1.24	.79	1.01
	탄핵 찬성 진영의 인터뷰의 수	.32	.29	.15	.26
	편 가르기 어려운 인터뷰의 수	.55	.50	.42	.50
전 체		78	70	52	200

방송사별 탄핵 찬반 인터뷰의 수의 차이는 또한 탄핵 정국의 진행에 따라 달리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즉 탄핵이 가결된 12일(금) 방송의 경우 모든 방송사의 뉴스가 탄핵 반대 진영의 인터뷰의 수가 탄핵 찬성 진영의 인터뷰의 수보다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탄핵 반대 진영과 찬성 진영의 인터뷰 수의 차이는 13일 이후 18일까지 뉴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탄핵 정국이 진행되면서 방송 뉴스의 인터뷰 사용이 비대칭적인 패턴에서 보다 대칭적으로 패턴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탄핵 찬반 인터뷰의 기사당 평균 인터뷰의 길이를 확인해 본 결과, 각 방송사별로 탄핵 반대 진영의 인터뷰 길이와 탄핵 찬성 진영의 인터뷰 길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9>에서와 같이 개별 인터뷰

의 길이에 있어서 각 방송사는 거의 동등한 시간을 할당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체적으로 탄핵 반대와 찬성의 인터뷰 시간을 동등하게 사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사당 인터뷰의 길이를 방송사 별로 보면 탄핵 반대 진영의 인터뷰 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F(2, 98)=3.1$, $p<.05$). 즉 서울방송의 탄핵 반대 진영의 인터뷰 길이가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의 인터뷰 길이보다 길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서울방송이 특별히 탄핵 반대 진영의 목소리를 더 오래 담으려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서울방송의 인터뷰가 전체적으로 다른 방송사의 인터뷰에 비해 길었기 때문에 발생한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표 3-1-19> 인터뷰의 길이 (기사당 평균 인터뷰 길이)

구 분		방송사			전체
		KBS1	MBC	SBS	
인터뷰	탄핵 반대 진영의 인터뷰의 길이	10.2	11.3	17.0	11.9
	탄핵 찬성 진영의 인터뷰의 길이	11.4	10.6	14.4	11.7
	편 가르기 어려운 인터뷰의 길이	17.8	21.8	16.8	18.8
전 체		318	355	304	977

(7) 인터뷰 대상과 성격

위에서도 강조했듯이 인터뷰와 직접 인용은 뉴스의 내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누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며, 각 인터뷰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어내느냐에 따라 뉴스 내용의 성격이 달라진다.

먼저 각 방송사별 인터뷰 대상을 알아 본 결과가 위의 <표 3-1-20>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인터뷰를 담고 있는 뉴스 아이템 724개 가운데 여권 정치인을 인터뷰한 경우가 54.4%였으며, 야권 정치인을 인터뷰한 경우가 36.3%였다. 여권은 노무현 대통령과 고건 대통령 직무대행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를 포괄하는 범주이다. 각 정당별 정치인을 따로 구분해서 보면, 열린우리당 관계자 16.0%, 한나라당 관계자 19.8%, 민주당 관계자 13.4%, 민노당 관계자 0.7% 등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 3-1-20> 인터뷰 대상 (복수 코딩)

구 분		KBS1	MBC	SBS	합계
인터뷰 대상	여권	150 (58.4)	125 (51.4)	119 (53.1)	394 (54.4)
	야권	96 (37.4)	96 (39.5)	71 (31.7)	263 (36.3)
	전문가	95 (37.0)	100 (41.2)	89 (39.7)	284 (39.2)
	언론인	23 (8.9)	9 (3.7)	33 (14.7)	65 (9.0)
	시민	130 (50.6)	149 (61.3)	59 (26.3)	338 (46.7)
	기타	57 (22.2)	25 (10.3)	25 (11.2)	107 (14.8)
합 계		257 (100)	243 (100)	224 (100)	724 (100)

<표 3-1-20>에 따르면 여권 정치인 다음으로 많이 인터뷰에 등장한 집단이 시민들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체 인터뷰를 담고 있는 뉴스 아이템 가운데 46.7%에서 시민을 인터뷰하거나 직접 인용했다. 그런데 각 방송사별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시민에 대한 인터뷰이다. 문화방송의 경우 전체 인터뷰를 포함한 뉴스 아이템 243개 가운데 61.3%인 149개 아이템에서 시민 인터뷰를 포함시켰으며, 한국방송의 경우 전체 인터뷰를 포함한 뉴스 아이템 257개 가운데 50.6%인 130개 아이템에서 시민을 인터뷰를 포함시켰다. 이와 대비되게 서울방송의 경우에는 전체 인터뷰를 포함한 뉴스 아이템 224개 가운데 26.3%인 59개의 경우에만 시민 인터뷰를 담았다. 결국 방송사별 인터뷰 대상의 차이는 다름 아닌 시민 인터뷰를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용했느냐에 달려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21> 인터뷰가 제공하는 정보 성격 (복수 코딩)

구 분		KBS1	MBC	SBS	합계
인터뷰 성격	주로 정보적 성격	185 (72.0)	140 (57.6)	202 (90.2)	527 (72.8)
	주로 분석적 성격	99 (38.5)	72 (29.6)	31 (13.8)	202 (27.9)
	주로 평가적 성격	229 (89.1)	250 (102.9)	138 (61.6)	617 (85.2)
	주로 감성적 성격	35 (13.6)	42 (17.3)	23 (10.3)	100 (13.8)
합 계		257 (100)	243 (100)	224 (100)	724 (100)

· 인터뷰가 복수 응답이므로 방송사별 백분율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

다음으로 인터뷰가 주로 어떤 성격의 정보를 제공하는지 알아보았다. <표 3-1-21>에 제시된 전체 뉴스 아이템에 나타난 정보의 성격을 보면, 전체 724개의 인터뷰를 포함한 뉴스 아이템 가운데 85.2%인 617개의 아이템이 평가적인 성격으로 밝혀졌다. 그 다음으로 72.8%인 527개 의 아이템이 정보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적인 성격을 지닌 인터뷰는 27.9%로 202건이었으며 감성적인 인터뷰의 경우도 13.8%인 100건에 이르렀다.

인터뷰의 성격을 방송사별로 보면 먼저 두드러진 차이가 정보적 성격의 인터뷰 비율과 평가적 성격의 인터뷰 비율에나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서울방송의 경우 전제 평균에 비해 정보적 성격의 인터뷰 사용 비율이 높았으며 문화방송은 정보적 성격의 인터뷰 비율이 평균에 비해 낮았다. 하지만 이와 대비되게 평가적 성격의 인터뷰는 문화방송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서울방송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인터뷰 대상에 따른 인터뷰 성격을 보면, 인터뷰 대상에 따라 인터뷰의 내용이 약간씩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 3-1-22>에 의하면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의 경우는 주로 정보적이거나 분석적인 성격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보면, 전체 338개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포함한 뉴스 아이템 가운데 643개의 인터뷰가 평가적이었음을 (즉 1개 뉴스 아이템 당 1.9개의 평가적인 인터뷰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야권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를 보면, 전체 야권 인터뷰를 담은 뉴스 아이템 263개 가운데 398개의 인터뷰가 평가적이었음을 (즉 1개 뉴스 아이템 당 1.5개의 평가적인 인터뷰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언론인, 전문가, 여권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는 주로 정보적 성격을 띠는 반면에 시민이나 야권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는 주로 평가적인 인터뷰를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표 3-1-22> 인터뷰 대상과 인터뷰 성격 간의 관계 (복수 코딩)

구 분		인터뷰 대상						합계
		여권	야권	전문가	언론인	시민	기타	
성격	주로 정보적 성격	407 (103.3)	200 (76.0)	272 (95.8)	95 (146.2)	94 (27.8)	80 (74.8)	527 (72.8)
	주로 분석적 성격	49 (12.5)	57 (21.7)	248 (87.3)	61 (93.8)	27 (8.0)	129 (120.6)	202 (27.9)
	주로 평가적 성격	330 (84.0)	398 (151.3)	129 (45.4)	50 (76.9)	643 (190.2)	74 (69.2)	617 (85.3)
	주로 감성적 성격	42 (10.7)	29 (11.0)	16 (5.6)		191 (56.5)	2 (1.9)	100 (13.8)
합 계		394 (100)	263 (100)	284 (100)	65 (100)	338 (100)	107 (100)	724 (100)

· 인터뷰가 복수 응답이므로 인터뷰 대상별 백분율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시민을 인터뷰 대상으로 삼은 경우(전체 시민 인터뷰를 담은 뉴스 아이템의 56.5%)는 다른 인터뷰 대상에 비해 감성적인 성격의 인터뷰가 된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즉 전체적으로 시민을 인터뷰 대상으로 삼은 경우에는 평가적이거나 감성적인 내용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위에 제시한 <표 3-1-22>의 내용과 같은 인터뷰 대상과 인터뷰 성격 간의 관계를 각 방송사별로 구해 본 결과, 방송사별 눈에 띄는 차이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방송의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가 평가적일 경우가 183.1%, 감정적일 경우가 53.1%였고, 문화방송의 경우에는 각각 196.6%와 64.4%였으며, 서울방송의 경우에는 189.8%와 44.1%였다. 즉 문화방송의 경우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뷰하는 경우 그 내용이 평가적이거나 감성적인 경우가 다른 방송사에 비해 약간 더 많았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8) 기자의 리포팅

탄핵 관련 기사의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자 리포팅 자체에 분석이나 논평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불공정 보도를 하는 가장 눈에 띄는 방식은 기자의 리포팅이 분석이나 논평을 제시하면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따르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자의 리포팅에 분석이나 논평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았다.

아래 <표 3-1-23>이 제시하듯이, 전체 977건의 뉴스 아이템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254개 아이템에서 기자의 논평이 발견되었다. 방송사 별로 기자의 논평 여부의 차이를 보면, 한국방송과 서울방송이 각각 28.9%와 29.6%로 전체 평균에 비해 많은 논평을 제시했으며 문화방송의 경우 20.3%로서 다른 방송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논평을 제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hi^2(2)= 9.5$, $p<.01$).

<표 3-1-23> 기자 리포팅의 분석 및 논평 여부

구 분		방송사			전 체
		KBS1	MBC	SBS	
기자의 논평	있다	92 (28.9)	72 (20.3)	90 (29.6)	254 (26.0)
	없다	226 (71.1)	283 (79.7)	214 (70.4)	723 (74.0)
전 체		318 (100)	355 (100)	304 (100)	977 (100)

· $\chi^2(2)= 9.51$, $p<.01$

그렇다면 기자의 분석과 논평이 특정 정파에 기우는 편향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기자 논평의 방향성을 알아보았다. <표 3-1-2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분석과 논평이 있는 뉴스 아이템 가운데 3.9%인 10건만이 탄핵 반대 진영의 논평을 담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균형적인, 즉 양시양비론적인 논평임을 확인했다. 탄핵 찬성을 주장하는 논평만 담은 경우는 관찰되지 않았다. 방송사별로 보면, 문화방송의 탄핵 반대 진영으로 기우는 기자 논평이 5개 아이템, 한국방송의 기우는 기자 논평이 4개인 반면, 서울방송은 1개에 그쳤지만, 이러한 방송사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음이 확인되었다.

<표 3-1-24> 기자 리포팅의 분석 및 논평 여부

구 분		방송사			전체
		KBS1	MBC	SBS	
기자의 논평	탄핵 반대 논평	4 (4.4)	5 (9.6)	1 (1.1)	10 (3.9)
	균형적인 논평	88 (95.6)	67 (90.3)	89 (98.9)	244 (96.1)
전 체		92 (100)	72 (100)	90 (100)	254 (100)

2.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 분석

1)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프로그램

탄핵 주제를 다룬 시사·교양·정보 방송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위해 국회가 탄핵을 가결한 2004년 3월12일(금)부터 3월20일(토)까지 9일간 한국방송, 문화방송, 서울방송에서 방송된 탄핵 관련 프로그램 가운데 뉴스를 제외한 종합 구성 형식의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토론 프로그램 또는 토론 위주의 프로그램은 내용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방송사가 토론자의 발언을 사전에 통제하기 어렵고 방송사들이 탄핵 관련 찬반 양측의 출연자를 대체로 균형 있게 섭외한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 프로그램은 특집, 시사 다큐멘터리, 아침 방송 등 방송 3사의 15개 종류의 프로그램으로, 그 가운데 탄핵을 주제로 방송한 것을 수집해 28 건의 방송분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 프로그램의 전체 방송 시간은 892분(14시간 52분)이었다.

분석 단위는 개별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 아이템으로 선정하였다. 아이템을 분석 단위로 선정한 것은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 제작자가 통상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제작하는 단계에서 전체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구성시켜주는 소주제 아이템의 집합을 생각한다는 점을 참작하였다. 또한 추후 탄핵 관련 뉴스 분석 결과와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의 분석 결과를 통합 분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따라서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 내용에서 분석 단위인 아이템을 추출하는 기준은 뉴스 프로그램에서 “리포트 거리”로 선별되는 보도 아이템의 기준과 상응하도록 했다. 분석 대상 프로그램에서 분리해낸 총 아이템 수는 256개였다. 분석 대상 28건의 방송분을 기준으로 보면 건당 평균 9.2개의 아이템이 수집됐다.

탄핵 관련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을 보면 방송사별로, 한국방송이 1,2 채널 합쳐 505분(56.5%)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문화방송이 246분(27.6%), 서울방송이 142분(15.9%) 순이었다. 프로그램별로 방송 시간을 보면, 탄핵 이튿날 방송된 한국방송의 특별 기획 <탄핵 정국 국민에게 듣는다.>(164분, 18.4%)와, 특집 <대통령 탄핵-대한민국 어디로 가나>(115분, 12.9)가 전체 분석 대상 프로그램의 3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한국방송 2채널 <세상의 아침>(11.3%)과 문화방송의 <아주 특별한 아침>(9.2%), 서울방송의 <모닝와이드>(7.3%) 등 아침 방송들이 탄핵을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날짜별로는 탄핵 이튿날 4시간 39분 동안 탄핵 관련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방송됐으며(279분), 이후 3월14일(일)부터 17일(수)까지 매일 1백분 안팎으로 꾸준히 방송되다가 18일(목)부터는 최소 하루 39분 방송하는 등 시사·교양·정보 형태의 탄핵 방송이 크게 감소했다.

(2) 코딩 절차

28건의 탄핵 관련 프로그램의 256개의 아이템을 분석하기 위해 4명의 대학원생을 코딩 전문 요원으로 고용했다. 코딩 요원들은 분석 유목에 대한 코딩 지침을 숙지한 뒤 분석 대상 프로그램을 코더들이 같이 시청하며 코딩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합의를 조성했다.

먼저, 분석 단위인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의 아이템을 신뢰성 있게 추출하기 위해 “뉴스거리”를 기준으로 한 아이템 방식에 대해 토의한 뒤 아이템을 분리하는 훈련을 하였다. 이어 4명의 코딩 요원은 시청한 적이 없는 한 프로그램에서 10개의 아이템을 분리해 냈다. 10개 아이템 추출에 관한 코더 간 평균 신뢰도는 .90 수준

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유목별 신뢰도 검증은 10개 아이템을 가지고 코더 간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최소 신뢰 수준 .83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 유목별 코더 간 신뢰도는 평균 .97로 나타났다.

<표 3-2-1 > 방송3사 탄핵 관련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

방송날짜	방송사	프로그램	아이템수	시간(분)	시간(%)
3월12일(금)	MBC	화제집중_M	12	13	1.4
3월13일(토)	KBS1	기획국민_K	14	164	18.4
		특집_어디로_K	19	115	12.9
3월14일(일)	KBS1	취재파일_K1	4	36	4.0
	MBC	매거진2580_M	3	37	4.1
	SBS	세븐데이즈_S	9	22	2.4
3월15일(월)	MBC	특별한아침_M	9	16	1.8
		화제집중_M	4	5	.6
	SBS	모닝와이드_S	1	1	.1
	KBS2	세상의아침_K2	37	101	11.3
3월16일(화)	MBC	특별한아침_M	7	16	1.8
		PD수첩_M	13	44	5.0
		화제집중_M	6	12	1.3
	SBS	모닝와이드_S	13	18	2.0
3월17일(수)	MBC	특별한아침_M	3	8	.9
		화제집중_M	7	9	1.0
	SBS	모닝와이드_S	9	13	1.5
		뉴스추적_S	7	55	6.2
	KBS2	추적60분_K2	15	52	5.8
3월18일(목)	MBC	특별한아침_M	6	25	2.9
		화제집중_M	1	3	.3
	SBS	모닝와이드_S	7	11	1.2
	KBS2	시사투나잇_K2	3	7	.8
3월19일(금)	MBC	특별한아침_M	7	15	1.7
		신강균의_M	14	42	4.7
	SBS	모닝와이드_S	8	12	1.3
3월20일(토)	KBS1	미디어포커스_K1	9	29	3.2
	SBS	모닝와이드_S	9	11	1.2
전 체			256	892	100.0

<표 3-2-2> 방송사별 탄핵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

방 송 사	아이템 수	방송 시간(분)	시간(%)
KBS1	46	344	38.6
MBC	92	246	27.6
SBS	63	142	15.9
KBS2	55	160	17.9
전 체	256	892	100.0

<표 3-2-3> 탄핵 방송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

프로그램	아이템 수	방송시간	시간(%)
세상의 아침_K2	37	101	11.3
특별한 아침_M	32	82	9.2
모닝와이드_S	47	65	7.3
미디어포커스_K1	9	29	3.2
신강균의_M	14	42	4.7
취재파일_K1	4	36	4.0
매거진2580_M	3	37	4.1
뉴스추적_S	7	55	6.2
추적60분_K2	15	52	5.8
PD수첩_M	13	44	5.0
세븐데이즈_S	9	22	2.4
화제집중_M	30	41	4.6
기획국민_K	14	164	18.4
특집_어디로_K	19	115	12.9
시사투나잇_K2	3	7	.8
전 체	256	892	100.0

<표 3-2-4 > 날짜별 탄핵 시사·교양·정보 방송

방 송 날 짜	아이템 수	방송시간	시간(%)
3월12일(금)	12	13	1.4
3월13일(토)	33	279	31.3
3월14일(일)	16	94	10.6
3월15일(월)	51	123	13.8
3월16일(화)	39	91	10.2
3월17일(수)	41	138	15.5
3월18일(목)	17	46	5.1
3월19일(금)	29	69	7.8
3월20일(토)	18	39	4.4
전 체	256	892	100.0

(3) 분석틀 및 유목

탄핵 관련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① 프로그램의 구성 방식, ② 방송 내용의 편향성, 그리고 ③ 좋은 방송 저널리즘 등 세 가지 차원에서 내용 분석을 수행했다. 이를 구체적인 분석 변인을 보면, 첫째 '프로그램의 구성' 차원에서는 아이템의 주제, 프로그램의 처리 방식, 화면구성 등 분석 변인을 중심으로 내용 분석을 수행했다. 둘째로 '보도의 편향성' 차원은 앵커 멘트, 리포트, 출연자의 발언, 인터뷰의 편향성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방송 저널리즘 차원은 탄핵 방송이 얼마나 배경적 설명과 분석이 담긴 깊이 있는 방송을 했는지 방송의 심층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방송의 공정성 조건과 연결시켜 논의했다. 각 분석 대상에 대한 분석 유목은 뉴스 프로그램의 분석과 동일 또는 유사한 유목을 사용했다.

분석은 방송사별 그리고 프로그램별로 공정성을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수행했다. 방송사는 한국방송 1, 2 채널을 통합 코딩하여 한국방송, 문화방송, 서울방송 등 방송3사별로 비교 분석했다. 프로그램은 15개 종류의 상이한 프로그램별로 비교분석했다.

(4) 보도의 불공정 편향 판정

이 연구는 방송의 편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방송사들이 스스로 제시한 방송 강령과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원용했다. 특히 한국방송의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1998년)과 문화방송의 방송 강령(2003년)이 제시한 공정성 개념을 불공정 편향 보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삼았다. 방송사들이 시청자-시민에게 약속한 보도의 공정성과 정확성 등에 관한 강령 조항을 검토한 뒤,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추정하여 불공정 편향 보도의 판정 기준을 도출했다. 내용 분석 결과 방송사들이 스스로 정의한 공정 보도, 좋은 보도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배했을 경우 해당 방송사 또는 해당 프로그램은 불공정 편향 방송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가. 내부 출연자의 편향성

먼저, 내부 출연자의 편향성은 방송사 조직의 내부 인사인 앵커나 리포터가 갈등 관계에 있는 어느 한편을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두둔 또는 비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일방을 두둔하는 논평은 사실 보도나 분석 보도의 범주를 벗어나 자칫 비방, 선전 방송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방송의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은 “어느 사안에 대해 한 편의 당사자나 한 정당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다면 중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특정 사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공평하게 수렴하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균형 잡히고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화방송의 방송 강령도 보도의 공정성을 위한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① 균형 보도 :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다룰 때에는 대립된 견해를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 균형성은 양적인 균형과 질적인 균형을 동시에 요구한다. 문제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대표적인 모습과 입장이 정리되어야 하며, 관련된 주요 사실의 의도적 누락이나 은폐 등으로 내용이 편향되지 않도록 한다.

② 다양한 정보 제공 : 지지의 정도는 약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의견도 전달함으로써 다양한 사회 계층의 견해를 폭넓게 제시하도록 한다.”

나아가 문화방송 방송 강령은 다음과 같은 보도와 논평의 분리 원칙을 천명, 논평 방송이 아닌 일반 방송에서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는 논평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④ 보도와 논평의 구분 : 보도와 논평은 엄격히 구분한다. 취재원의 의견임을 가장하여 기자 개인의 의견을 보도에 삽입할 수 없다. 논평과 해설은 시·청취자 스스로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확한 사실의 바탕 위에서 합리적 설명이 되도록 한다.”

요컨대, 앵커나 리포터가 논평 방송이 아닌 일반 방송에서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발언을 하거나, 특히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논평을 통해 일방을 두둔하는 행위는 방송사가 스스로 규정한 보도의 공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일방을 두둔하는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명확한 선을 긋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언론사의 언론 자유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언론의 규범적 판단의 자유를 허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핵과 같은 갈등적인 사안에 대해 언론사가 어느 편이 옳다 그르다는 양심적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른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것이 방송의 공정성, 균형성 원칙에 부응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탄핵 관련 방송에서 탄핵 찬성이든 반대이든 엄연히 사회나 상당한 합리적 여론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어느 한쪽의 의견과 판단을 “전혀 또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대신 다른 한쪽을 두둔하는 방송을 할 경우 “불공정 편향 방송”이라 판단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방송이 논쟁적 사안을 보도할 때 어느 한편의 입장을 무시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한편을 공격하는 언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방송사의 윤리 기준은 명시하고 있다. 문화방송 방송 강령은 “표현은 객관성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우호적이나 적대적인 태도로 오해될 수 있는 말은 가능한 피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방송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비유로 앵커나 리포터가 편향적인 표현으로 인해 보도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과거 정치는 주로 글의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현대 정치는 말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만큼 방송에서는 정치와 관련된 용어의 사용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말했다, 밝혔다, 설명했다’는 모두 다른 말이다. A는 밝히고, B는 주장했다고 한다면 이미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판명 난 셈이 된다(KBS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

이 연구는 이같이 방송사가 제시한 객관적인 표현 원칙에 비추어 방송사 또는 프로그램별로 편향성을 띈 방송을 할 경우, 편향 기법에는 어떤 규칙적인 패턴이 있는지를 비교분석했다. 분석 유목으로는 윤색적인 형용사, 주관적인 감정 표현 등이었다.

나. 외부 출연자의 편향성

방송사의 윤리 기준은 앵커나 리포터의 내부 출연자의 편향성 외에도 외부 출연자의 섭외나 인터뷰의 취사선택 과정에서의 편향성도 경계하고 있다. 한국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은 “어떤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과 생각이 같은 취재원이나 사례만을 편향적으로 선택”하면 불공정한 보도가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진영의 출연자를 섭외하고 인터뷰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한편의 의견을 극단적으로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방식으로 출연자와 인터뷰를 구성하는 경우는 불편부당성의 훼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 연구 결과

(1) 주제 분포

탄핵 관련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먼저 탄핵 방송의 주제 분포를 분석한 결과 방송사별로 탄핵 관련 주제를 다루는데 상당한 차이성을 보였다. 방송 3사는 공통적으로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의 4분 1 정도를 탄핵 가결 과정과 쟁점에 관한 아이템으로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탄핵 가결 이후 시민 반응과 여론 동향을 보도하는 비중에서 방송사별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다.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은 탄핵 가결 이후 시민의 반응과 여론 동향에 많은 아이템을 할애한 반면에 서울방송은 야권 등 정치권의 대응 보도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은 시민 반응과 여론 동향에 25건 (24.7%), 문화방송은 21건 (22.9%)을 구성한 반면에 서울방송은 5건 (7.9%)의 아이템만이 탄핵에 대한 시민 여론의 반응을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탄핵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 제도권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시각과 이와는 대조적으로 탄핵은 국민의 반대 의견을 무시함으로써 국회의 정당성 문제를 야기했으며 시민 의견의 再수렴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대립되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방송은 전자의 시각을,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은 후자의 시각을 따른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이 탄핵 관련 보도 비평에 각각 11건 (10.9%)과 12건 (13%)의 아이템을 편성해 상당 부분 탄핵의 합법성을 주장한 영향력 있는 신문사의 보도 태도를 비판하는데 할애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해 볼 수 있다. 반면에 서울방송의 탄핵 보도 비평은 2건(3.2%)에 머물렀다.

탄핵 반대와 찬성 시위의 구성 분포 면에서 방송 3사 모두 편향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3사는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 시위를 모두 16건의 아이템에 걸쳐 취급한 반면에 탄핵 찬성 시위는 문화방송의 1건을 제외하고는 아이템 단위에서 전혀 방송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5 > 방송사별 주제 분포

구 분		방송 3사			전 체
		KBS	MBC	SBS	
아이템 주제	탄핵 과정 및 쟁점	24 (23.8)	24 (26.1)	17 (27.0)	65 (25.4)
	정치권 반응	6 (5.9)	2 (2.2)	5 (7.9)	13 (5.1)
	여권 대응	1 (1.0)	0 (0.0)	1 (1.6)	2 (0.8)
	야권 대응	1 (1.0)	9 (9.8)	10 (15.9)	20 (7.8)
	정부 대응	0 (0.0)	2 (2.2)	3 (4.8)	5 (2.0)
	시민 반응	17 (16.8)	11 (12.0)	4 (6.3)	32 (12.5)
	경제계·외국 반응	4 (4.0)	2 (2.2)	0 (0.0)	6 (2.4)
	여론 동향	8 (7.9)	10 (10.9)	1 (1.6)	19 (7.4)
	촛불 시위	2 (2.0)	7 (7.6)	7 (11.1)	16 (6.3)
	탄핵 찬성 시위	0 (0.0)	1 (1.1)	0 (0.0)	1 (0.4)
	헌재 판결	9 (8.9)	1 (1.1)	4 (6.3)	14 (5.5)
	총선 영향	9 (8.9)	3 (3.3)	6 (9.5)	18 (7.0)
	탄핵 보도 비평	11 (10.9)	12 (13.0)	2 (3.2)	25 (9.8)
	기 타	9 (8.9)	8 (8.7)	3 (4.8)	20 (7.8)
전 체		101 (100.0)	92 (100.0)	63 (100.0)	256 (100.0)

(2) 프로그램의 구성 형태

프로그램의 구성 형태를 검토하기 위해서 ① 단순한 리포트, ② 리포트 후 대담, ③ 리포트 없는 대담과 논평 등 분류 유목에 따라 프로그램 내 아이템들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방송사별 프로그램 구성 형태가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은 전체 아이템의 약 절반 정도의 아이템을 '리포트 후 대담'과 '리포트 없는 대담과 논평'으로 처리했다. 반면에 서울방송은 두드러지게 '리

포트’ 형식(90.5%)에 의존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대담과 논평의 비중이 높은 것은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표 3-2-6> 프로그램의 구성 형태: 방송 3사 비교

구 분		방송 3사			전 체
		KBS	MBC	SBS	
처리 형식2	리포트	52 (51.5)	55 (59.8)	57 (90.5)	164 (64.1)
	리포트+대담	8 (7.9)	12 (13.0)	0 (0.0)	20 (7.8)
	대담+논평	39 (38.6)	25 (27.2)	6 (9.5)	70 (27.3)
	기타	2 (2.0)	0 (0.0)	0 (0.0)	2 (0.8)
전 체		101 (100.0)	92 (100.0)	63 (100.0)	256 (100.0)

· $\chi^2(6)=32.8$, $p<.01$

우선은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의 신축적인 장르적 특성은 대담과 논평 형식의 프로그램 전개를 통해 방송 내용의 심층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대담과 논평은 주관적 저널리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방송의 편향성의 구조적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한 방송의 심층성과 공정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마지막 절에서 분석, 논의한다.

프로그램 별로 구성 형태를 비교해 보면, 문화방송의 <신강균의 뉴스 서비스 사실은>이 14건의 아이템 가운데 11건(78.5%)을 ‘리포트 후 기자들 간 대담’과 ‘대담과 논평’ 형식으로 처리하는 특성을 보였다. 한국방송의 언론 비평 프로그램인 <미디어 포커스>는 9건의 아이템 가운데 6건(66.7%)을 ‘리포트 없는 대담과 논평’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7> 프로그램의 구성 형태: 프로그램별 비교

구 분		처리 형식2				전 체
		리포트	리포트+대담	대담+논평	기타	
프로그램 유형	세상의 아침_K2	18 (48.6)	7 (18.9)	12 (32.4)	0 ① (0.0)	37 (100.0)
	특별한 아침_M	19 (59.4)	1 (3.1)	12 (37.5)	0 ② (0.0)	32 (100.0)
	모닝와이드_S	42 (89.4)	0 (0.0)	5 (10.6)	0 ③ (0.0)	47 (100.0)
	미디어포커스_K1	2 (22.2)	0 (0.0)	6 (66.7)	1 (11.1)	9 (100.0)
	신강균의_M	3 (21.4)	8 (57.1)	3 (21.4)	0 (0.0)	14 (100.0)
	취재파일_K1	4 (100.0)	0 (0.0)	0 (0.0)	0 (0.0)	4 (100.0)
	매거진2580_M	3 (100.0)	0 (0.0)	0 (0.0)	0 (0.0)	3 (100.0)
	뉴스추적_S	7 (100.0)	0 (0.0)	0 (0.0)	0 (0.0)	7 (100.0)
	추적60분_K2	10 (66.7)	0 (0.0)	5 (33.3)	0 (0.0)	15 (100.0)
	PD수첩_M	8 (61.5)	0 (0.0)	5 (38.5)	0 (0.0)	13 (100.0)
	세븐데이즈_S	8 (88.9)	0 (0.0)	1 (11.1)	0 (0.0)	9 (100.0)
	화제집중_M	22 (73.3)	3 (10.0)	5 (16.7)	0 (0.0)	30 (100.0)
	기획국민_K	6 (42.9)	1 (7.1)	6 (42.9)	1 (7.1)	14 (100.0)
	특집_어디로_K	10 (52.6)	0 (0.0)	9 (47.4)	0 (0.0)	19 (100.0)
	시사투나잇_K2	2 (66.7)	0 (0.0)	1 (33.3)	0 (0.0)	3 (100.0)
전 체		164 (64.1)	20 (7.8)	70 (27.3)	2 (0.8)	256 (100.0)

(3) 자료 화면의 구성

탄핵 방송이 자료 화면을 공정하게 구성했는지 비교 검토하기 위해 탄핵 가결 장면과 촛불 시위, 탄핵 반대 및 찬성 시위 장면 등을 분석 유목으로 삼아 내용 분석 수행했다. 분석 결과, 방송사별로 탄핵 가결 장면의 사용 빈도와 탄핵 반대와 찬성 시위 장면의 구성 비율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방송 3사는 탄핵 관련 총 방송 아이템 256건 가운데 74건 (28.9%)에서 탄핵 가결 장면을 사용하였다. 특히 문화방송은 전체 분석 대상 아이템의 41%에 해당하는 38건의 아이템에서 탄핵 가결 장면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은 19건(18.8%), 서울방송은 17건(27%)의 아이템에서 탄핵 가결 장면을 사용했다.

<표 3-2-8> 자료화면 구성 방식: 방송사별 비교

구 분	방송 3사			합 계
	KBS	MBC	SBS	
가결 야당 모습	10 (9.9)	21 (22.8)	10 (15.9)	41 (16.0)
가결 열린우리당	9 (8.9)	17 (18.5)	7 (11.1)	33 (12.9)
국회 기타	3 (3.0)	1 (1.1)	6 (9.5)	10 (3.9)
촛불 시위	14 (13.9)	14 (15.2)	13 (20.6)	41 (16.0)
탄핵 반대 시위	13 (12.9)	9 (9.8)	3 (4.8)	25 (9.8)
탄핵 찬성 시위	3 (3.0)	5 (5.4)	4 (6.3)	12 (4.7)
탄핵 반대 회견	3 (3.0)	3 (3.3)	9 (14.3)	15 (5.9)
탄핵 찬성 회견	2 (2.0)	6 (6.5)	10 (15.9)	18 (7.0)
취재원 건물	1 (1.0)	2 (2.2)	3 (4.8)	6 (2.3)
화면 없음	54 (53.5)	34 (37.0)	5 (7.9)	93 (36.3)
노무현 화면	1 (1.0)	1 (1.1)	0 (0.0)	2 (0.8)
합 계	101 (39.5)	92 (35.9)	63 (24.6)	256 (100.0)

탄핵 반대와 찬성 시위 장면의 구성 비율을 보면 방송3사 모두 눈에 띄게 탄핵 반대 시위 장면을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방송 3사들은 촛불 시위와 탄핵 반대 시위 장면을 66건 (25.8%)의 아이템에서 사용한 반면에 탄핵 찬성 시위 장면은 12건 (4.7%)의 아이템에서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특기할 점은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이 공통적으로 자료화면 없이 아이템을 처리한 경우가 서울방송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다는 사실이다. 한국방송은 자료화면 없

이 진행된 아이템이 전체의 53.5%, 문화방송은 37%에 달했다. 반면에 서울방송의 화면 없는 아이템은 5건, 전체 아이템의 7.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방송 구성 형식의 분석 결과에서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이 대담과 논평 형식의 비중이 높고 서울방송이 리포트 의존도가 높았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4) 앵커 멘트의 편향성과 편향 기법

탄핵 관련 시사·교양·정보 방송의 편향성은 내부 출연자의 편향성과 외부 출연자의 편향성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 가운데 내부 출연자의 편향성은 시사·교양·정보 장르에서 판단과 시각 등을 말할 수 있는 앵커와 리포터의 탄핵 반대 또는 찬성 두둔 발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탄핵의 찬반 발언의 균형성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편향 발언을 할 때 사용하는 편향 기법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앵커나 리포터가 “지나치게” 윤색적인 형용사나 부사 등을 사용하거나 주관적인 감정이 섞인 표현을 사용했는지 측정했다.

<표 3-2-9 > 앵커 멘트의 편향성: 방송3사 비교

구 분		방송 3사			합 계
		KBS	MBC	SBS	
앵커멘트 편향	탄핵 반대 두둔	4 (7.8)	20 (47.6)	3 (5.9)	27 (18.8)
	탄핵 찬성 두둔	0 (0.0)	0 (0.0)	1 (2.0)	1 (0.7)
	방향성 없음	47 (92.2)	22 (52.4)	47 (92.2)	116 (80.6)
합 계		51 (100.0)	42 (100.0)	51 (100.0)	144 (100.0)

· $\chi^2(4)=34.1$, $p<.01$

앵커 멘트는 방송 3사를 통틀어 모두 114건이 있었다. 그 가운데 중립적인 앵커 멘트가 116건 (80.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탄핵 반대를 두둔한 멘트는 27건(18.8%)이었다. 반면에 탄핵 찬성을 두둔하는 앵커 멘트는 서울방송 프로그램에서의 단 한 건을 제외하고는 전혀 없었다.

방송사별로는 문화방송이 두드러지게 탄핵 반대를 두둔하는 앵커 멘트를 자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방송의 전체 앵커 멘트 42건 가운데 탄핵 반대를 두둔하는 발언은 20건(47.6%)이었고 탄핵 찬성 두둔 발언은 전혀 없었다. 앵커 멘트의 편향 기법을 알아보기 위해 '윤색적 형용사 사용', '주관적 감정 표현' 등 편향 기법을 복수 코딩 하였다. 그 결과 문화방송이 편향적인 앵커 멘트를 할 때 윤색적 형용사와 주관적인 감정 표현을 자주 사용(70%)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0> 앵커 멘트의 편향 기법: 방송사별

구 분	방송 3사			합 계
	KBS	MBC	SBS	
윤색적 형용동사	1 (25.0)	13 (35.1)	3 (30.0)	17 (33.3)
주관적 감정	1 (25.0)	13 (35.1)	1 (10.0)	15 (29.4)
역사 교훈	0 (0.0)	2 (5.4)	2 (20.0)	4 (7.8)
인용	0 (0.0)	2 (5.4)	0 (0.0)	2 (3.9)
규범적 가치	2 (50.0)	6 (16.2)	3 (30.0)	11 (21.6)
얼굴 표정	0 (0.0)	1 (2.7)	1 (10.0)	2 (93.9)
합 계	4 (7.8)	37 (72.5)	10 (19.6)	51 (100.0)

프로그램별로는 문화방송의 <신강균의 뉴스 서비스 사실은>이 앵커 멘트 11건 모두를 탄핵 반대를 두둔하는데 할애하고 탄핵 찬성에 관한 멘트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앵커 멘트의 편향 기법에서도 편향적인 멘트 80%가 윤색적인 형용사를 사용하거나 주관적인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표 3-2-11 > 앵커 멘트의 편향성: 프로그램별

구 분		앵커 멘트 편향			합 계
		탄핵 반대 두둔	탄핵 찬성 두둔	방향성 없음	
프로그램 유형	세상의 아침_K2	1 (5.3)	0 (0.0)	18 (94.7)	19 (100.0)
	특별한아침_M	2 (15.4)	0 (0.0)	11 (84.6)	13 (100.0)
	모닝와이드_S	0 (0.0)	1 (2.1)	46 (97.9)	47 (100.0)
	미디어포커스_K1	0 (0.0)	0 (0.0)	6 (100.0)	6 (100.0)
	신강균의_M	11 (100.0)	0 (0.0)	0 (0.0)	11 (100.0)
	뉴스추적_S	0 (0.0)	0 (0.0)	1 (100.0)	1 (100.0)
	추적60분_K2	1 (20.0)	0 (0.0)	4 (80.0)	5 (100.0)
	PD수첩_M	2 (50.0)	0 (0.0)	2 (50.0)	4 (100.0)
	세븐데이즈_S	3 (100.0)	0 (0.0)	0 (0.0)	3 (100.0)
	화제집중_M	5 (35.7)	0 (0.0)	9 64.3%	14 100.0%
	기획국민_K	1 (14.3)	0 (0.0)	6 (85.7)	7 (100.0)
	특집_어디로_K	0 (0.0)	0 (0.0)	11 (100.0)	11 (100.0)
	시사투나잇_K2	1 (33.3)	0 (0.0)	2 (66.7)	3 (100.0)
합 계		27 (18.8)	1 (0.7)	116 (80.6)	144 (100.0)

<표 3-2-12 > 앵커 멘트의 편향 기법: 프로그램별

구 분	앵커 편향기법					합 계
	윤색적	주관적	역사 교훈	인용	규범적	
세상의 아침_K2	0 (0.0)	0 (0.0)	0 (0.0)	0 (0.0)	1 (100.0)	1 (2.0)
특별한아침_M	0 (0.0)	2 (66.7)	0 (0)	1 (33.3)	0 (0.0)	3 (5.9)
모닝와이드_S	1 (33.3)	1 (33.3)	0 (0.0)	0 (0.0)	1 (33.3)	3 (5.9)
신강균의_M	9 (45.0)	7 (35.0)	2 (10.0)	0 (0.0)	1 (5.0)	20 (39.2)
추적60분_K2	0 (0.0)	1 (100.0)	0 (0.0)	0 (0.0)	0 (0.0)	1 (2.0)
PD수첩_M	2 (66.7)	0 (0.0)	0 (0.0)	0 (0.0)	1 (33.3)	3 (5.9)
세븐데이즈_S	2 (28.6)	0 (0)	2 (28.6)	0 (0.0)	3 (42.9)	7 (13.7)
화제집중_M	2 (18.2)	4 (36.4)	0 (0)	1 (9.1)	4 (36.4)	11 (21.6)
기획국민_K	0 (0)	0 (0)	0 (0)	0 (0)	1 (100.0)	1 (2.0)
시사투나잇_K2	1 (100.0)	0 (0.0)	0 (0.0)	0 (0.0)	0 (0.0)	1 (2.0)
합 계	17 (33.3)	15 (29.4)	4 (7.8)	2 (3.9)	11 (21.6)	51 (100.0)

(5) 리포트의 편향성과 편향 기법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에 포함된 리포트는 대부분 방향성이 없이 사실을 전달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방송3사의 프로그램에 포함된 총 187건의 리포트 가운데 167건(87.7%)이 탄핵 반대나 찬성을 두둔하지 않은 중립적인 성격을 띄었다. 그러나 편향적인 리포트 23건은 모두 탄핵 반대를 두둔하는 것이었고, 탄핵 찬성 두둔은 한 건도 없었다.

방송사별로는 문화방송은 14건(21.5%)의 리포트, 한국방송은 9건(12.7%)의 리포트가 탄핵 반대 입장을 두둔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두 방송사는 탄핵을 찬성하는 경향의 리포트를 단 한편도 방송하지 않았다. 서울방송은 탄핵 찬성 또는 반대를 두둔하는 리포트를 전혀 보내지 않고, 51건의 리포트 모두 방향성 없이 보도했다. 편향성 기법에서는 문화방송의 편향적인 리포트의 70%가 윤색적 형용사를 사용하고 주관적 감정을 드러내는 특성을 보였다. 문화방송이 다른 방송사에 비해 리포트의 편향성과 편향적 기법의 경향이 두드러진 것은 상당 부분 <신강균의 뉴스 서비스 사실은>의 편향성과 편향 기법의 비중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방송의 <신강균의 뉴스 서비스 사실은>은 탄핵 찬성 리포트는 전무 하였고 11개 리포트 모두 탄핵 반대를 두둔하는 논평을 포함시키는 편향성을 드러냈다. 이 프로그램의 리포트는 편향 기법에서 72%가 윤색적인 형용사나 주관적인 감정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3> 리포트의 편향성: 방송사별

구 분		방송 3사			합 계
		KBS	MBC	SBS	
리포트 방향성	탄핵 반대 두둔	9 (12.7)	14 (21.5)	0 (0)	23 (12.3)
	탄핵 찬성 두둔	0 (0.0)	0 (0.0)	0 (0.0)	0 (0.0)
	방향성 없음	62 (87.3)	51 (78.5)	51 (100.0)	164 (87.7)
합 계		71 (100.0)	65 (100.0)	51 (100.0)	187 (100.0)

<표 3-2-14> 리포트의 편향 기법: 방송사별

구 분	방송사		합 계
	KBS	MBC	
윤색적 형용동사	3 (20.0)	10 (35.7)	13 (30.2)
주관적 감정	0 (0)	10 (35.7)	10 (23.3)
역사 교훈	0 (0)	2 (7.1)	2 (4.7)
인용	3 (20.0)	3 (10.7)	6 (14.0)
규범적 가치	8 (53.3)	1 (3.6)	9 (20.9)
얼굴 표정	0 (0)	2 (7.1)	2 (4.7)
기타	1 (6.7)	0 (0)	1 (2.3)
합 계	15 (34.9)	28 (65.1)	43 (100.0)

<표 3-2-15> 리포트의 편향성: 프로그램별

구 분		리포트 방향성		합 계
		탄핵 반대 두둔	방향성 없음	
프로그램 유형	세상의아침_K2	5 (14.7)	29 (85.3)	34 (100.0)
	특별한아침_M	2 (10.0)	18 (90.0)	20 (100.0)
	모닝와이드_S	0 (0.0)	39 (100.0)	39 (100.0)
	미디어포커스_K1	1 (16.7)	5 (83.3)	6 (100.0)
	신강균의_M	11 (100.0)	0 (0.0)	11 (100.0)
	취재파일_K1	0 (0.0)	4 (100.0)	4 (100.0)
	매거진2580_M	1 (33.3)	2 (66.7)	3 (100.0)
	뉴스추적_S	0 (0.0)	6 (100.0)	6 (100.0)
	추적60분_K2	0 (0.0)	13 (100.0)	13 (100.0)
	PD수첩_M	0 (0.0)	10 (100.0)	10 (100.0)
	세븐데이즈_S	0 (0.0)	6 (100.0)	6 (100.0)
	화제집중_M	0 (0.0)	21 (100.0)	21 (100.0)
	기획국민_K	3 (42.9)	4 (57.1)	7 (100.0)
	특집_어디로_K	0 (0.0)	5 (100.0)	5 (100.0)
	시사투나잇_K2	0 (0.0)	2 (100.0)	2 (100.0)
합 계		23 (12.3)	164 (87.7)	187 (100.0)

<표 3-2-16> 리포트 편향 기법 : 프로그램별

구 분	윤색적	주관적	역사 교훈	인용	규범적	합 계
세상의 아침 K2	3 (37.5)	0 (0.0)	0 (0.0)	0 (0.0)	5 (62.5)	8 (18.6)
특별한 아침 M	0 (0.0)	2 (100.0)	0 (0.0)	0 (0.0)	0 (0.0)	2 (4.7)
미디어포커스 K1	0 (0.0)	0 (0.0)	0 (0.0)	0 (0.0)	0 (0.0)	1 (2.3)
신강균의 M	10 (40.0)	8 (32.0)	2 (8.0)	2 (8.0)	1 (4.0)	25 (58.1)
매거진 2580 M	0 (0.0)	0 (0.0)	0 (0.0)	1 (100.0)	0 (0.0)	1 (2.3)
기획국민 K	0 (0.0)	0 (0.0)	0 (0.0)	3 (50.0)	3 (50.0)	6 (14.0)
합 계	13 (30.2)	10 (23.3)	2 (4.7)	6 (14.0)	9 (20.9)	43 (100.0)

(6) 출연자의 편향성

외부 출연자의 편향성은 프로그램 제작자가 출연자 섭외와 인터뷰를 취사선택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불균형 편향은 없었는지 분석했다. 물론 방송제 작자가 출연자나 인터뷰이의 발언 내용까지 사전에 통제하기 어렵지만 제작자는 출연자나 인터뷰이의 발언을 예상하여 출연자와 인터뷰이를 선정할 수 있고, 또한 편집 과정에서 발언 내용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출연자와 인터뷰이의 구성의 편향성은 상당 부분 방송제 작자의 재량과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출연자와 인터뷰이의 탄핵 찬성 또는 반대 발언의 비율을 측정하고 “극단적이고 지나치게” 일방의 의견을 전달한 경우 공정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송3사의 탄핵 관련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발언은 모두 96건이 있었다. 그 가운데 61건(63.5%)은 방향성이 없었지만 34건(35.4%)은 탄핵 반대를 두둔하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 찬성을 두둔하는 출연자의 발언은 단 한건 외에는 없었다.

방송사별 탄핵 찬반을 두둔하는 편향적인 출연자 발언을 비교해 보면, 한국방송에서 22명의 출연자가 탄핵 반대를 두둔했고 한 명의 출연자만이 탄핵 찬성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방송은 12명의 출연자가 탄핵 반대를 두둔했고 탄핵 찬성 두둔 발언은 한 건도 없었다. 서울방송은 모두 자사 기자 출연자 4명을 출연시켜 모두 찬성과 반대 어느 쪽도 두둔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프로그램별로는 문화방송의 <신강균의 뉴스 서비스 사실은>의 출연자 8명이 모두 탄핵 반대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탄핵 이튿날 한국방송

의 특집 프로그램 <탄핵 정국 국민에게 듣는다>와 <대통령 탄핵 -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에 57명이 출연해 22명(39%)이 탄핵 반대를 두둔하는 경향을 보였고 단 한 명만이 탄핵 찬성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7> 출연자 발언의 편향성 : 방송3사 비교

구 분	KBS	MBC	SBS	합 계
탄핵 반대 두둔	22 (34.9)	12 (41.4)	0 (0.0)	34 (35.4)
탄핵 찬성 두둔	1 (1.6)	0 (0.0)	0 (0.0)	1 (1.0)
방향성 없음	40 (63.5)	17 (58.6)	4 (100.0)	61 (63.5)
합 계	63 (65.6)	29 (30.2)	4 (4.2)	96 (100.0)

<표 3-2-18> 출연자 발언의 편향성: 프로그램별 비교

구 분	탄핵 반대두둔	탄핵 찬성두둔	방향성 없음	합 계
특별한 아침 M	4 (19.0)	0 (0.0)	17 (81.0)	21 (21.9)
모닝와이드 S	0 (0.0)	0 (0.0)	4 (100.0)	4 (4.2)
미디어포커스 K1	0 (0.0)	0 (0.0)	6 (100.0)	6 (6.3)
신강균의 M	8 (100.0)	0 (0.0)	0 (0.0)	8 (8.3)
기획국민 K	13 (48.1)	0 (0.0)	14 (51.9)	27 (28.1)
특집어디로 K	9 (30.0)	1 (3.3)	20 (66.7)	30 (31.3)
합 계	34 (35.4)	1 (1.0)	61 (63.5)	96 (100.0)

(7) 인터뷰의 편향성

방송3사의 탄핵 관련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에 등장한 인터뷰 수는 모두 5백61건이었다. 그 가운데 탄핵 반대 입장의 인터뷰는 245건으로 전체 인터뷰의 43.7%를 차지했고 탄핵 찬성 입장의 인터뷰는 141건(25.1%), 그리고 중립적인 인터뷰는

175건(31.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별로 탄핵 찬성과 반대 인터뷰 구성 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국방송은 탄핵 반대와 찬성 인터뷰를 44.4% 대 15.5%로 구성했고, 문화방송은 45.4% 대 32.2%로 편성했다. 서울방송은 41.8% 대 36.2%로 탄핵 반대와 찬성의 인터뷰를 배합했다.

프로그램 단위로 보면, 한국방송의 특집 <대통령 탄핵-대한민국 어디로 가나>와 <탄핵 정국 국민에게 듣는다>의 인터뷰 구성이 각각 반대와 찬성 31건 대 1건과 29건대 4건으로 심한 편향을 보여 탄핵 사태 초반부 제기됐던 한국방송의 불공정 편향 시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의 <미디어 포커스>는 탄핵 반대와 찬성 인터뷰가 7대 0, 문화방송의 <신강균의 뉴스 서비스 사실은>이 반대와 찬성을 9대 2로 편성해 상대적인 편향성을 보였다.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 가운데 탄핵 반대 인터뷰 보다 찬성 인터뷰가 더 많이 방송된 프로그램도 있었다. 문화방송의 <특별한 아침> <PD 수첩>, 한국방송의 <추적60분>, 서울방송의 <모닝와이드>가 탄핵 찬성 인터뷰를 반대 인터뷰 보다 더 많이 방송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들 프로그램이 탄핵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하는 과정에서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 정치인의 인터뷰를 집중적으로 소개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표 3-2-19> 탄핵 찬반 인터뷰 수: 방송사별 비교

방송 3사	KBS	MBC	SBS	합 계
탄핵 반대 인터뷰 수	115 (43.4)	79 (45.4)	51 (41.8)	245 (43.7)
탄핵 찬성 인터뷰 수	41 (15.5)	56 (32.2)	44 (36.1)	141 (25.1)
중도 인터뷰 수	109 (41.1)	39 (22.4)	27 (22.1)	175 (31.2)
합 계	265 (100.0)	174 (100.0)	122 (100.0)	561 (100.0)

<표 3-2-20> 탄핵 찬반 인터뷰: 프로그램별 비교

프로그램	탄핵 반대 인터뷰수	탄핵 찬성 인터뷰수	중도 인터뷰수	합 계
세상의 아침_K2	23 (43.4)	14 (26.4)	16 (30.2)	53 (100.0)
특별한 아침_M	14 (23.7)	17 (28.8)	28 (47.5)	59 (100.0)
모닝와이드_S	11.0 (29.7)	20 (54.1)	6 (16.2)	37 (100.0)
미디어포커스_K1	7 (77.8)	0 (0.0)	2 (22.2)	9 (100.0)
신강균의_M	9 (64.3)	2 (14.3)	3 (21.4)	14 (100.0)
취재파일_K1	13 (50.0)	3 (11.5)	10 (38.5)	26 (100.0)
매거진2580_M	20 (58.8)	9 (26.5)	5 (14.7)	34 (100.0)
뉴스추적_S	27 (46.6)	13 (22.4)	18 (31.0)	58 (100.0)
추적60분_K2	9 (29.0)	18 (58.1)	4 (12.9)	31 (100.0)
PD수첩_M	20 (44.4)	25 (55.6)	0 (0.0)	45 (100.0)
세븐데이즈_S	13 (48.1)	11 (40.7)	3 (11.1)	27 (100.0)
화제집중_M	16 (72.7)	3 (13.6)	3 (13.6)	22 (100.0)
기획국민_K	29 (76.3)	4 (10.5)	5 (13.2)	38 (100.0)
특집_어디로_K	31 (29.8)	1 (1.0)	72 (69.2)	104 (100.0)
시사투나잇_K2	3 (75.0)	1 (25.0)	0 (0.0)	4 (100.0)
합 계	245 (43.7)	141 (25.1)	175 (31.2)	561 (100.0)

(8) 보도의 심층성과 공정성

탄핵 관련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은 좋은 방송 저널리즘을 구현했는가? 시사·교양·정보의 방송 장르적 특성을 감안한 '좋은 방송 저널리즘'의 기준과 조건은 무엇인가? 좋은 방송 저널리즘의 차원에서 탄핵 방송의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 연구는 먼저 보도의 심층성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내용 분석했다. 심층성은 프로그램의 전개 방식과 인터뷰의 수준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이 같은 보도의 심층성 분석 결과와 앞서 분석한 방송의 편향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심층 보도의 미덕이 반드시 보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원칙과 조건을 논의했다.

방송의 심층성을 분석하기 위해 프로그램 아이템들의 전개 방식을 1) 사건의 발생 과정을 전하는 '보도' 2) 사건의 원인과 영향 등을 분석하는 '보도 분석', 3) 사건의 원인과 영향 분석에 논평을 추가하는 '보도 분석 논평', 그리고 4) 사실이나 분석 없이 주관적인 평가를 제시하는 '논평' 등 네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해 보았다.

<표 3-2-21> 보도 의 심층성: 방송 3사 비교

구 분		방송 3사			합 계
		KBS	MBC	SBS	
보도의 심층성	보도	27 (26.7)	17 (18.5)	20 (31.7)	64 (25.0)
	보도분석	22 (21.8)	29 (31.5)	34 (54.0)	85 (33.2)
	보도분석논평	18 (17.8)	21 (22.8)	1 (1.6)	40 (15.6)
	논평	34 (33.7)	25 (27.2)	8 (12.7)	67 (26.2)
합 계		101 (100.0)	92 (100.0)	63 (100.0)	256 (100.0)

분석 결과, 방송사별로는 서울방송이 보도(31.7%)와 보도 분석(54%)에 주로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고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은 보도 분석 논평(KBS 17.8%, MBC 22.8%)과 논평(KBS 33.7%, MBC 12.7%) 비중이 높아 적극적인 논평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별로 보면, 서울방송의 <세븐데이즈>, 문화방송의 <화제 집중>과 한국방송의 <추적 60분>이 프로그램 아이템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사건 발생의 보도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보도제작국 프로그램인 문화방송의 <신강균의 뉴스 서비스 사실은>과 한국방송의 <미디어 포커스>, 서울방송의 <뉴스 추적> 등은 분석과 논평을 자주 사용하였다.

<표 3-2-22> 보도의 심층성: 프로그램별 비교

구 분		보도의 심층성				합 계
		보도	보도분석	보도분석 논평	논평	
프로그램유형	세상의아침_K2	10 (27.0)	7 (18.9)	7 (18.9)	13 (35.1)	37 (100.0)
	특별한아침_M	1 (3.1)	16 (50.0)	6 (18.8)	9 (28.1)	32 (100.0)
	모닝와이드_S	13 (27.7)	31 (66.0)	1 (2.1)	2 (4.3)	47 (100.0)
	미디어포커스_K1	0 (0.0)	2 (22.2)	3 (33.3)	4 (44.4)	9 (100.0)
	신강균의_M	1 (7.1)	0 (0.0)	10 (71.4)	3 (21.4)	14 (100.0)
	취재파일_K1	0 (0.0)	3 (75.0)	1 (25.0)	0 (0.0)	4 (100.0)
	매거진2580_M	0 (0.0)	1 (33.3)	2 (66.7)	0 (0.0)	3 (100.0)
	뉴스추적_S	1 (14.3)	3 (42.9)	0 (0.0)	3 (42.9)	7 (100.0)
	추적60분_K2	8 (53.3)	4 (26.7)	1 (6.7)	2 (13.3)	15 (100.0)
	PD수첩_M	1 (7.7)	7 (53.8)	0 (0.0)	5 (38.5)	13 (100.0)
	세븐데이즈_S	6 (66.7)	0 (0.0)	0 (0.0)	3 (33.3)	9 (100.0)
	화제집중_M	14 (46.7)	5 (16.7)	3 (10.0)	8 (26.7)	30 (100.0)
	기획국민_K	6 (42.9)	2 (14.3)	2 (14.3)	4 (28.6)	14 (100.0)
	특집_어디로_K	2 (10.5)	3 (15.8)	4 (21.1)	10 (52.6)	19 (100.0)
	시사투나잇_K2	1 (33.3)	1 (33.3)	0 (0.0)	1 (33.3)	3 (100.0)
합 계		64 (25.0)	85 (33.2)	40 (15.6)	67 (26.2)	256 (100.0)

인터뷰의 수준 차원에서 방송의 심층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방송된 인터뷰의 내용이 ① 정보적, ② 분석적, ③ 평가적, ④ 감정적 등 네 가지 유목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비교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코딩된 인터뷰 3백88건 가운데 평가적인 인터뷰가 198건(51%)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다음이 분석적인 인터뷰 128건(33%), 감정적 인터뷰 42건(10.8%), 정보적 인터뷰 20건(5.2%) 순이었다.

방송사별로는 한국방송이 평가적인 인터뷰가 전체 인터뷰의 75.8%를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화방송은 다른 방송사에 비해 감정적인 인터뷰(23.8%)를 자주 사용하는 특성을 보였다. 서울방송은 평가적인 인터뷰(51.7%)와 분석적인 인터뷰(31.0%)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 3-2-23> 인터뷰 내용의 수준: 방송사별 비교

구 분	방송 3사			합 계
	KBS	MBC	SBS	
정보적	3 (1.9)	6 (4.2)	11 (12.6)	20 (5.2)
분석적	32 (20.3)	69 (48.3)	27 (31.0)	128 (33.0)
평가적	119 (75.3)	34 (23.8)	45 (51.7)	198 (51.0)
감정적	4 (2.5)	34 (23.8)	4 (4.6)	42 (10.8)
합 계	158 (40.7)	143 (36.9)	87 (22.4)	388 (100.0)

아이템의 전개 방식과 인터뷰의 수준의 측면에서 보면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은 탄핵 사태에 직면하여 일견 쟁점적 이슈를 분석적이고 심층적으로 접근하는데 상당 부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분석과 논평 위주의 아이템 전개 방식이 자주 등장한 것은 사건이나 현상을 단순히 전달할 뿐만 아니라 원인과 영향 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주관적인 논평도 가능한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을 잘 살린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사회 내 쟁점에 관한 다양한 의견의 표출 통로인 인터뷰의 구성에서도 방송 3사는 분석적이고 평가적인 시민의 목소리를 공론장으로 이끌어내는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의 내용이 반드시 정보적이거나 분석적인 수준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는 없다. 오히려 인터뷰가 평가적일 수록, 또 때로는 감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수록 한 사회의 다양한 의견 표출과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

시사·교양·정보 장르가 형성하는 공론장에서 방송은 객관적인 정보 전달 기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과 논평을 전하고, 또한 언론 스스로의 규범적 판단의 자유도 가진다. 그런 관점에서 시사·교양·정보 장르는 방송의 주관적 저널리즘의 실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방송이 사회적 쟁점과 이슈에 관해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분석적인 시각과 방향을 가지고 사회 이슈를 풀어내는 일은 이슈의 심층적 보도와 의견의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탄핵 방송과 관련해서 방송의 건전한 여론 형성 기능을 방해한 것은 보도

의 심층성의 빈곤이나 결여가 아니었다. 오히려 방송의 공정성 원칙의 궤도에서 벗어나 버린 방송의 심층성이라는 것이 자칫 방송을 주관적 독단의 함정으로 빠뜨려 버릴 수 있음을 탄핵 방송의 사례가 새삼 상기시키고 있다. 방송이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 섣불리 나서서 주관적 판단을 내려 버린 뒤 단호하게 어느 한편을 비방하기 시작하는 그 대목에서 여론의 소통의 경로는 차단된다. 그 순간 시민의 언론 자유를 재현할 책무를 지닌 언론의 역할은 사라지게 되고, 사회적 쟁점에서 다른 편에 선 정치 세력과 시민은 소외되며, 방송은 불공정 편향 시비에 휘말려 신뢰를 상실하고 표류한다.

보도의 심층성은 보도의 공정성의 필요조건이 될지언정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이상적인 주관적 방송 저널리즘은 객관적 저널리즘이 빠지기 쉬운 피상적이고 형식적 균형 보도의 문제를 극복하고 심층적 보도를 실현할 대안적 저널리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주관적 방송 저널리즘은 항상 불공정 편향 보도로 빠져드는 위험한 유혹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방송의 공정성은 규범적 판단에 근거한 방송의 언론 자유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쟁점의 반대편에 선 정치 세력과 시민의 언론 자유도 중요하다는, 그래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인의 의식과 실천에서만이 확보될 수 있다. 방송인들이 때때로 섣부른 정파적 판단이나 소영웅주의에서 비롯된 방송의 비방, 선전, 왜곡 현상의 포로가 되는 것은 방송인들이 스스로의 규범적 판단을 과신한 나머지 시민의 규범적 판단과 언론 자유를 무시한 결과이다. 편향성 시비의 대상이 된 일부 탄핵 방송이 선전 선동에서 동원되는 윤색적인 형용사의 사용과 감정적인 주장 등의 편향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요컨대 규범적 판단과 합리적 분석 비판에 근거한 주관적 저널리즘의 미덕과 정파적 판단과 감상적 비판에서 비롯된 독단적 저널리즘의 폐해를 구분하는 일이야말로 공정한 방송 보도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3. 프레임 분석

1)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프레임 분석의 연구 목적에 따라, 2004년 3월 12일(금)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부터 3월 20일(토)까지 방송된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의 뉴스 특보·속보, 저녁 종합 뉴스, 시사・교양・정보 등 세 종류의 프로그램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뒤 탄핵소추를 직접 다룬 관련 아이템만을 분석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텔레비전 방송 3사에서 내보냈던 9일 동안의 탄핵 관련 보도를 전수조사 하는 것이다.

<표 3-3-1> 프레임 분석을 위한 분석 대상 프로그램 및 아이템 수

방송일자	방송채널	프로그램명	아이템 수
3. 12~3. 13	KBS1	특집	374
3. 12~3. 13	MBC	특집(3.12~13)	247
3. 12~3. 13	SBS	특집(3.12~13)	308
3. 12~3. 20	KBS1	9시 뉴스	172
3. 12~3. 20	MBC	뉴스 데스크	174
3. 12~3. 20	SBS	8시 뉴스	131
3. 13~3. 20	SBS	생방송 모닝와이드 1,2,3부	50
3. 14	KBS1	취재파일 4321	10
3. 14	MBC	시사매거진 2580	4
3. 14	KBS1	KBS 일요스페셜	23
3. 14	SBS	생방송 세븐 데이즈	7
3. 15~3. 19	KBS2	생방송 세상의 아침 1, 2부	13
3. 15~3. 19	MBC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11
3. 16	MBC	PD 수첩	6
3. 17	SBS	뉴스추적	8
3. 17	KBS2	추적 60분	2
3. 19	MBC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	5
3. 20	KBS1	미디어 포커스	5
합 계			1,523 (개)

프레임을 도출하기 위해 뉴스 특보·속보와 저녁 종합 뉴스의 경우 개별 기사(news story)를 1차 분석 단위로 삼았다.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의 경우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한다고 판단되는 에피소드(episode)나 소재를 1차 분석 단위로 삼았다. 분석에 포함된 관련 프로그램의 아이템은 모두 1,523개였다. 위의 <표 3-3-1>은 분석 대상 프로그램의 특성을 요약한 것이며, <표 3-3-2>는 프로그램 장르별 분석 대상 프로그램의 아이템을 나타낸 것이다.

(2) 프레임 분석 개요: 이론, 방법 및 분석 절차

미디어 프레임은 언론이 사회 현안에 대해 의미를 지우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시하는 핵심적인 사고의 조직화라고 할 수 있다(Gamson & Mogdiliani, 1989). 언론의 프레임 구축(frame building)은 선택, 강조, 축소, 배제 등을 통해 대상의 특정 속성이나 현실의 특정 측면을 두드러져 보이게 함으로써 현실 문제를 정의하고 인과 관계를 해석하며 도덕적 평가를 내리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현실의 재구성 과정이다(Entman, 1993; Gitlin, 1980; Tuchman, 1978). 그런 점에서 미디어 프레임은 수용자의 현실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단의 해석적 패키지(a set of

interpretive package) 또는 각종 프레임 장치(framing device)의 조합이나 다양한 프레임 요소(element of frame)의 배열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프레임 장치란 보도 대상(objects)의 이미지를 프레임을 통해 드러내는 과정에서 프레임 대상을 정의할 수 있는 중심 특성(principal defining features)을 현저하게 처리하고자 미디어 보도가 활용하는 서술 방식이나 표현 기법 등을 말한다. 이런 프레임 장치의 조합을 통해 대상의 특정 이미지가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반면에, 프레임 요소란 보도 대상의 의미를 프레임을 통해 규정짓는 과정에서 프레임 대상의 여러 측면(various aspects of object)을 부각시키기 위해 미디어가 활용하는 일종의 의미화 도구(instrument of meaning)를 말한다. 이런 프레임 요소의 배열을 통해 대상의 특정 의미가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사실 프레임 장치는 미디어 프레임을 담아내는 프레임의 구성 요소(constitutive element of the news frame)라는 점에서 프레임 장치와 프레임 요소라는 두 용어는 개념상 서로 대체가능하다(D'Angelo, 2002). 그러나 이 연구는 분석 차원에서 정치 행위자와 정치 쟁점을 구분하여 각각의 프레임 유형을 추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행위자의 이미지 프레임과 관련된 경우 프레임 장치라는 용어를, 쟁점의 경쟁 프레임과 관련된 경우 프레임 요소라는 용어를 굳이 구분하여 사용한다.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이 탄핵 정국을 프레임 하는 방식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탄핵 정국을 하나의 정치 갈등 현실로 규정한다. 정치 갈등은 정치 쟁점에 대해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정치 엘리트나 정치 집단들이 적절한 수준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시민들의 지지와 후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벌이는 정당화 투쟁을 말한다. 그러나 현대 정치에서 정치 행위자가 희구하는 이런 정당성(legitimation)의 경우, 정치 과정이 매스 미디어의 보도에 의해 중재되고 미디어 조직 또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틀짓기(framing)를 통해 갈등 현실을 재구성함으로써 정당화의 향방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Bennett, 2001; Bennett & Entman, 2001). 즉, 정치 갈등은 미디어의 매개를 통해 의미화 투쟁(struggle over meaning)으로 전개된다는 것이다(Wolfsfeld, 1997). 따라서 탄핵 정국이라는 정치 갈등 현실에 대한 텔레비전 보도는 시민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갈등을 유발하고 정쟁을 구성하는 주된 요소인 정치 행위자(political agency)와 정치 쟁점(political issue)을 집중적으로 프레임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정치 갈등 보도가 행위자와 쟁점으로 집중되는 이유는 미디어가 정치 관련 정보를 개인화(personalization), 극화(dramatization), 분절화(fragmentation), 권위-무질서(authority-disorder)라는 네 가지의 편향에 따라 처리(Bennett, 2001)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 현상을 탈맥락화 하는 개인화·분절화 편향은 행위자에 대한 프레임 집중으로, 정치 갈등에 대한 사회적 흥미를 자극하는 극화·권위-무질서 편향은 정치 쟁점에 대한 프레임 집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 특히 선거 과정에 대한 미디어 프레임 분석 연구들은 대개 행위자(후보자)와 선거 쟁점이 어떻게 프레임 되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한다(McCombs, et al., 1997; 2000).

‘정치 갈등은 정당화를 향한 의미화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미디어가 정치 행위자와 정치 쟁점을 프레임 하여 제시하는 방식은 정쟁의 전개나 결과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갈등의 전면에 나서는 정치 행위자들은 미디어에 의해 특정한 방식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미디어가 다양한 프레임 장치를 동원해 행위자의 이미지를 프레임 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행위자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방식으로, 승리자인지 패배자인지 또는 어떤 이미지로 프레임 되는가에 따라 시민의 동조와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갈등 상황에서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행위자 간의 충돌 접점에 특정 정치 현안이 자리하기 마련이고 이는 미디어에 의해 뉴스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정치 쟁점으로 부각된다. 다시 말해, 갈등 당사자들이 주요 현안을 쟁점화하고 서로 지지와 후원을 획득하려는 정쟁 과정을 미디어는 프레임 요소들을 적절하게 배열함으로써 쟁점별로 서로 경쟁하는 프레임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Wolfsfeld, 1997). 쟁점을 둘러싼 갈등 당사자들의 투쟁은 이제 미디어 프레임을 둘러싼 경쟁(contest over media frames)으로 탈바꿈한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현안 또는 쟁점에 대해 미디어가 특정 정치 집단이나 세력 또는 정파와 공명하는 프레임을 현저하게 강조한다면 시민의 이해와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특정한 쪽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프레임 분석은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연역적 방법은 내용 분석 위한 일종의 변인으로 이미 유형화된 프레임을 사전에 명확하게 설정한 뒤 실제 미디어 텍스트에서 이런 프레임이 얼마나 관찰되는지 규명하는 접근 방식이다. 반면에, 귀납적 방법은 프레임에 대한 다소 느슨한 개념 정의를 기반으로 열린 관점에서 추출 가능한 프레임을 모두 드러내려는 접근 방식을 말한다(Semetko & Valkenburg, 2000). 탄핵 정국이 초유의 정치 사건이라는 점에서 준거로 삼을만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명확하게 정의된 프레임 유형을 미리 설정하기도 곤란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귀납적인 접근법을 적용하여 미디어 프레임과 프레임 장치(프레임 요소)를 찾아내고 분석하였다. 프레임 장치(프레임 요소)와 프레임 추출의 전 과정은 질적 연구의 특성상 철저하게 연구 팀원들의 합의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진행하였다.

본 연구가 초점을 둔 프레임은 크게 두 가지, 즉 주요 정치 행위자와 정치 쟁점에 대한 미디어 프레임으로, 각 프레임을 담는 프레임 장치(프레임 요소)도 함께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프레임 분석팀의 연구자 4명이 방송 녹화 테이프와

대본을 직접 분석하면서 여러 차례의 토론을 통해 수정을 거친 뒤 합의해 가는 방식으로 프레임 장치(프레임 요소)를 추출하였다. 그런 다음, 분석 프로그램별로 1차 분석 단위인 매 아이템 마다 해당하는 프레임 장치(프레임 요소)와 관련된 내용의 언급(utterance)이나 영상의 발생(occurrence)이 얼마나 빈번하게 관찰되는지 분석하고 정리하는 과정과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분석팀 합의를 통해 구성한 프레임 분석 유목은 1차로 프레임 분석팀과 담화 분석팀으로 이루어진 질적 연구팀에서 토론과 수정을 거친 뒤 양적 분석팀을 포함한 연구진 전체 회의에서 再토론과 재수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확정된 프레임 분석 유목에 따라 로그북 유목 및 작성 가이드와 세부 지침서(부록 참조)를 완성하였다. 프레임 분석팀의 연구자를 포함한 신문방송학 전공 전문 코더 9명이 로그북 기입을 담당하였다. 로그북 기입을 위한 훈련 단계부터 로그북 작성 및 프레임 장치(프레임 요소) 관련 유목의 빈도 측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은 코더 간 합의제를 원칙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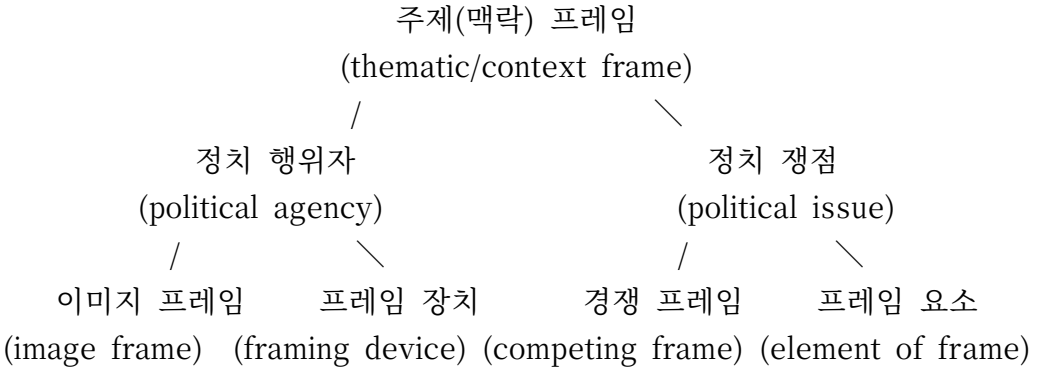
완성된 로그북 입력 자료는 엑셀 파일로 옮겨 프레임 장치(프레임 요소)별로 세부 유목으로 재정리하였다. 모든 세부 유목 역시 일일이 연구자 4인의 합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확정된 세부 유목을 코딩 지침서 삼아 기초 기술 통계 분석을 위하여 SPSS 자료를 입력하였다.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9명과 학부생 1명이 신뢰도 일치를 위한 훈련을 받으면서 직접 코딩을 담당하였다. 프레임 장치(프레임 요소)의 세부 유목은 해당 아이템에서 언급되거나 발생할 때 마다 그 빈도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정치 행위자나 쟁점의 해당 프레임 장치(프레임 요소) 세부 유목의 언급 또는 발생(utterance/occurrence)이 프레임 분석의 2차 분석 단위가 된다. 약 1주일간의 코딩 과정에서 모두 세 차례의 신뢰도 검사를 거쳤으며 최종 코더 간 신뢰도(단순 일치도 기준)는 최소 .83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정치 행위자의 이미지 프레임이나 정치 쟁점의 경쟁 프레임을 결정하였다.

(3) 프레임 분석틀

본 연구는 탄핵 정국에 대한 텔레비전의 보도 프레임을 주요 정치 행위자와 정치 쟁점에 국한해서 찾아내고 방송사별, 시기별, 프로그램별로 프레임 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현저성(salience)을 추적한다. 정치 행위자와 정치 쟁점을 각각 프레임 하기 위해 텔레비전이 활용하는 다양한 프레임 장치나 프레임 요소들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행위자가 묘사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주요 정치 행위자의 이미지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동원하는 프레임 장치들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정치 쟁점의 경우 텔레비전은 어떻게 서로 경쟁하는 프레임을 구축하는지, 그런 프레임을 구축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프레임 요소들을 배열하는지 탐색적으로 분석한다. 그런 다음, 1차 분석 단위가 되는 아이템별로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통해 주제(맥락) 프레임을 귀납적으로 도출한 뒤 정치 행위자와 정치 쟁점이 각기 어떤 맥락에서 프레임 되는지 그 연관성을 검토한다. 즉, 거시적인 주제(맥락) 프레임과 미시적인 이미지 프레임 또는 경쟁 프레임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전체적인 미디어 프레임 분석틀(analytical framework of the media

frame)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그림 3-3-1> 탄핵 정국에 대한 텔레비전 방송 보도의 프레임 분석틀



가. 정치 행위자: 이미지 프레임과 프레임 장치

프레임 장치(framing device)란 특정 대상의 이미지를 프레임을 통해 드러내는 과정에서 프레임 대상을 정의하는 중심 특성(principal defining features of object)을 현저하게 처리하고자 미디어 보도가 활용하는 서술 방식이나 표현 기법 등을 말한다(예를 들어, Pan & Kosicki, 1993). 예를 들어, 선거 과정의 후보자 이미지 프레임 분석 연구들은 대개 미디어 보도가 후보자의 자질, 경험, 인성, 정책 특성 같은 개인 속성(individual attributes)을 부각시켜 이미지를 프레임 한다고 주장한다. 연구자들은 후보자의 이런 인지적 또는 내용적 속성(cognitive/substantive attribute)과 더불어 긍정(지지), 중립, 부정(비판) 같은 정서적 속성(affective attribute)도 구분하여 분석한다(McCombs, et al., 2000). 이런 프레임 장치들의 조합을 통해 대상의 특정 이미지가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선, 특히 정치 행위자(집단)를 보도하는 경우, 이미지를 프레임으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미디어가 그 대상을 정의하거나 또는 두드러지게 표현하기 위해 활용하는 서술 방식이나 표현 기법 등을 말한다. 탄핵 정국 관련 정치 행위자의 이미지 프레임에 대한 분석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미디어 보도가 주로 활용한다고 판단되는 5개의 프레임 장치들을 귀납적 방식으로 추출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행위자 묘사 용어, ② 행위자에 대한 보도 주제, ③ 행위자의 표현적 속성(expressive attribute), ④ 행위자 간의 관계, ⑤ 영상 이미지(영상 기법) 등을 정치 행위자를 묘사하기 위한 프레임 장치로 설정하고 이들을 집중 분석한다. 그리고 이들의 조합이 결과적으로 해당 정치 행위자(집단)의 이미지를 어떻게 재현하는지 그 이미지 프레임을 종합적으로 추출한다.

나. 정치 쟁점: 경쟁 프레임과 프레임 요소

프레임 요소(element of frame)란 보도 대상의 의미를 프레임을 통해 규정짓는 과정에서 미디어 보도가 프레임 대상의 여러 측면(various aspects of object)을 부각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일종의 의미화 도구(instrument of meaning)를 말한다. 이런 프레임 요소들의 배열을 통해 대상의 어떤 측면을 집중 부각시키느냐에 따라 특정 의미가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선, 특히 정치 쟁점을 보도하는 경우, 갈등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거나 대립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경쟁 프레임을 구축하기 위해 미디어가 쟁점의 특정 측면(particular aspects of an issue)을 부각시키는데 활용하는 의미화 도구를 말한다. 예를 들면, 문제에 대한 상황 정의, 인과관계 해석, 책임 귀인, 도덕적 평가, 해결책 제시 등과 같이 특정 사태에 대한 일련의 의미 구성 부분들이 정치 쟁점을 의미화 하는 프레임 요소들이 된다는 것이다(Entman, 1993). 탄핵 정국 보도에 곧바로 적용 가능하게끔 미리 연역적으로 구성된 보편적인 프레임 요소를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귀납적 방법을 통해 분석 대상이 되는 해당 쟁점별로 프레임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추출한 뒤, 이들이 어떻게 적절하게 배열됨으로써 주요 정치 쟁점들이 경쟁적으로 프레임 되는지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귀납적으로 추출한 ① 쟁점의 정의(문제 정의), ② 쟁점의 주제, ③ 쟁점에 대한 입장, ④ 쟁점의 역사적 의미(사례), ⑤ 쟁점의 은유/비유, ⑥ 쟁점의 원인, ⑦ 쟁점의 결과(전망) ⑧ 쟁점에 대한 시민 반응, ⑨ 영상 이미지 ⑩ 쟁점의 해결책(해결 원칙) 같은 프레임 요소를 중심으로 주요 정치 쟁점이 미디어에 의해 어떻게 경쟁 프레임으로 구축되는지 분석한다.

정치 갈등 현실에 대한 경쟁 프레임의 분석 도구(analytical tool)로 일단의 연구자들은 기입 행렬표(signature matrix)를 구성하여 프레임의 의미화를 분석한다(Gamson & Lasch, 1983; Wolfsfeld, 1997). 정치 쟁점의 경쟁 프레임을 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분석 도구는 이들의 아이디어를 빌린 것이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프레임 요소의 배열은 우리나라의 탄핵 정국 보도를 분석하는데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프레임 요소를 귀납적으로 추출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한 기입 행렬표를 구성하여 경쟁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다. 주제(맥락) 프레임

분석 대상이 되는 탄핵 정국 관련 개별 아이템(뉴스 기사, 에피소드, 소재 등)은 주요 정치 행위자나 정치 쟁점을 중심으로 탄핵 정국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한다. 따라서 개별 아이템은 정치 행위자의 이미지나 정치 쟁점을 프레임 하기도 또 이들을 함께 프레임 하기도 한다. 분석 차원에서는 정치 갈등 현실을 구성하는 주된 요

소로 행위자와 쟁점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어떤 경우든 이들은 결국 더 포괄적인 주제 또는 맥락 하에서 텔레비전 보도에 등장한다. 따라서 개별 아이템을 분석 단위로 삼아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통해 이들을 포괄하는 상위 수준의 주제(맥락) 프레임을 추출하고자 했다. 이런 점에서, 주제(맥락) 프레임이란 분석 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사태 전개의 맥락을 파악하는 차원이며 일종의 거대 프레임(macro frame)을 말한다. 반면에 정치 행위자의 이미지 프레임이나 쟁점 관련 경쟁 프레임은 하위 프레임이 된다. 본 연구는 방송사별, 시기별, 프로그램별로 어떤 주제 또는 맥락이라는 거대 프레임이 현저하게 부각되고, 또 주제(맥락) 프레임은 행위자의 이미지 프레임이나 쟁점의 경쟁 프레임들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그 연관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한다.

2) 연구 결과

(1) 주요 정치 행위자의 이미지 프레임

가. 열린우리당의 이미지 프레임

텔레비전 방송의 탄핵 정국 보도는 개혁적 민주 세력, 역부족인 피해자, 동정적이고 약한 여당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열린우리당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개혁적 민주 세력 이미지는 '개혁 세력'이나 '민주대 반민주'라는 직접적인 묘사 용어는 물론, '백범 기념관을 방문한', 정쟁과 거리를 둔 민생 행보를 통한 안정적 정치 세력으로서 야당과의 차별화에 주력', 그리고 야당의 '탄핵안 가결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짓고, 이러한 상황에서 '금배지를 떼고 사퇴서를 쓰는' 장면을 보여 줌으로써 개혁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역부족인 피해자 프레임은 주로 다수의 힘을 앞세운 야당 의원들과 국회 경위들에게 필사적으로 저항하다 '끌려 나가며' '울부짖는' 모습과 '넋을 잃고' 있거나 '무릎을 꿇은' 모습을 통해서 이른바 정신적 여당 의원들이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있다.

<표 3-3-2> 정치 행위자 이미지 프레임: 열린우리당

이미지 프레임	개혁적 민주세력	역부족인 피해자	동정을 유발하는 약자
묘사 용어	개혁세력 금배지 떼고 사퇴서 쓰는 정쟁으로 지새우던 기존의 관행에 회의 정쟁과 거리를 둔 민생행보를 통해 안정적 정치세력으로 야당과 차별화화 하는데 주력하는 민주대 반민주 민주주의 수호하겠다는 민주화 투쟁에 나서겠다, 백범기념관을 방문한 눈물을 흘리며 애국가를 부르는	본회의장 밖으로 끌려나가, 역부족 울분과 통곡 정신적 여당으로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탈진상태 무릎 꿇은 넋을 잃고 처절한 패배 거세게 항의하다 끌려 내려가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노빠 세력의 강력한 지지를 업은 이기지는 못했지만 실질적 여당으로서 안정감 부각에 주력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다,
보도 주제	대야투쟁: 야3당과 대립, 대야 전면 투쟁, 표결을 결사적으로 저지하려는		
	개혁적 민주적 이미지: 백범묘소 참배, 민주주의의 역사를 지키지 못한,		
	탄핵부당성 호소: 여당으로서의 숫적 열세를 가진, 안된다고 소리를 지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가결안에 대한 저항, 분노		
	총선행보: 당사 옮기고 심기일전으로 장외집회 하겠다는, 민생 챙기기에 주력		
표현적 속성	격렬한: 격렬하게 저항하는, 몸을 던지는, 비장한 감성적/감상적: 울분을 터뜨리는, 눈시울을 붉히는 소극적: 나약한, 억압당하는, 피학대자의		
영상 이미지	탄핵안 가결에 항의하는: 경위들에게 끌려 나가는, 국회에서 울부짖는		
	탄핵안 가결 후의 모습: 무릎 꿇고 애국가를 부르는, 서로 껴안고 우는 모습		
	검은 넥타이에 상복차림		
행위자 관계	노대통령과 공조 야3당과 대립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적대		

동정을 유발하는 약자 프레임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참여 정부가 겪어온 과정을 한마디로 '바람 잘 날이 없다'로 갈음하면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실질적인 여당으로 안정감 부각에 주력해 왔던 열린우리당이 이번 탄핵안 가결 국면에서 '이기지는 못했지만' 약자로서나마 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보를 해 왔음을 동정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행위 주체로 등장한 기사에서는 대야 투쟁, 개혁적·민주적 이미지, 탄핵 부당성 호소, 그리고 총선 행보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대야 투쟁 주제를 다

루는 기사에서는 도덕적,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탄핵안 가결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야3당과의 대립이나 표결을 결사적으로 저지하려는 행위들을 중심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 탄핵소추안 가결 강행이 수적인 우세에 의존한 비민주적인 발상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탄핵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입장을 주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탄핵안 가결의 결과를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한 자신들의 과오로 자책함으로써 개혁적·민주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탄핵안 가결이라는 비상 국면에서도 민생 챙기기나 허름한 청과물 시장으로 당사를 옮기는 등 총선 관련 행보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표현적 속성은 탄핵안 가결 국면에서 야당 의원들의 완력에 대하여 비장한 각오로 결사적으로 저항하는 이미지, 저항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임을 깨닫자 울분을 터뜨리거나 눈시울을 붉히는 감성적 이미지, 그리고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억압당하는 피학대자의 소극적 이미지 등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행위 주체로 설정된 기사의 영상 이미지는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에서 국회 경위들에게 끌려 나가거나 무릎 꿇고 애국가를 부르며 서로 껴안고 우는 모습을 반복적인 영상 처리로 보여주었으며, 대야 투쟁 결의와 탄핵 부당성을 호소하는 활동을 빈번하게 보도함으로써 여당이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이미지를 만들기에 노력하는 내용이 부각되었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주로 노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공생적 관계를 모색하거나, 야3당 의원들과 대립적 내지 적대적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다.

나. 한나라당의 이미지 프레임

한나라당의 이미지 프레임은 크게 비개혁적 가해자, 정략적 정치집단, 민의를 외면하여 위기에 빠진 집단으로 정리되었다. 먼저, 비개혁적 가해자 프레임에서는 탄핵안 가결 국면을 '민주대 반민주' 대신 '친노와 반노'로 규정지음으로써 무리한 탄핵안 가결로 이반된 민심을 재결집 시키려는 정략적인 모습으로 비춰진다. '대선 자금과 대선 패배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된', '대청소론', '거대 야당', 그리고 '열린우리당 의원을 봉쇄한 채'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정략적 프레임에서는 '정치적 고사 위기에서', '맞불을 놓으려는', 또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새로운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회심의 승부수가 먹힐지 주목' 등의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으로써 이번 탄핵안 가결이 한나라당의 정략적인 의도에서 기인하였다는 시각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다.

<표 3-3-3> 정치 행위자 이미지 프레임: 한나라당

이미지 프레임	비개혁적 가해자	정략적 정치집단	위기에 처한 민의 외면 집단
묘사 용어	친노 대 반노를 강조하는 대선자금 수사와 대선 패배로 만신창이가 된 대청소론 거대야당 탄핵을 주도한 열린우리당 의원을 봉쇄한 채	맞불을 놓으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사생결단의 장 새로운 불씨를 살려 보겠다는 의석수 계산에만 골몰한 행태 정치적 고사위기에서 빈틈없는 공조 회심의 승부수가 먹힐지 주목	소수파가 반발한 탄핵안 가결 자기쇄신의 계기로 자기희생적 결단이 필요한 부랴부랴 진화 큰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환호나 들뜬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는 탄핵정국의 역풍을 직격으로 맞은
보도 주제	당내갈등: 소장파와 내부갈등 있다, 조건부 탄핵철회 주장, 정체상태에 빠진		
	국민불안 잠재우기: 국정안정에 최대한 협조, 총리에 전폭적 지원		
	탄핵정당성 호소: 법과 민주주의 위반한 노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심판		
	대여공세: 이문열, 탄핵의 원인은 대통령이다, 강금실 장관 문책		
	책임통감: 보수정국이 국민혼란의 책임으로, 승리하긴 했지만 기쁘지 않는		
	정략적 상황대처: 하루 이틀 미적거리던 한나라당도 동참, 반전모색		
	총선행보: 새대표 선출 전당대회 열어, 전당대회 흥행을 위해 노력		
표현적 속성	격렬한: 격렬하게 몸싸움 하는 감성적인: 환호하며 박수치는 적극적인: 위력적인, 가해자의, 지배적인		
영상 이미지	가해자의: 강제력을 행사하는 모습, 여당의원 끌어내는, 경위들과 한 편인		
	담담한: 담담한 표정으로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엄숙하고 굳은 표정		
	밝은 표정: 웃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 주요 당직자 웃는 모습		
	사죄하는: 지도부 머리 숙여 사과		
	자신감: 자신감에 넘치는		
행위자간 관계	노대통령과 대립 민주당과 공조 열린우리당과 대립 행정관료와 대립		

마지막으로, 위기의 민의 외면 집단 프레임에서는 탄핵안 가결이 국민적 민의를 이반한 결과라는 사실을 다양한 묘사 용어를 사용하여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탄핵 정국의 역풍을 직격으로 맞은', 또는 '큰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환호나 들뜬

분위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분위기에서 '자기 쇄신의 계기로' 등의 표현을 통해 정략적인 의도로 발의된 탄핵안이 민의를 외면한 처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나라당 관련 보도 주제의 경우, 당내 갈등에 휩싸이거나 정략적으로 상황을 타개하려고 노력하는 점, 탄핵 정당성을 옹호하고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 등이 부각되었다. 다시 말해, 보도의 한 축은 탄핵안 가결을 두고 벌어진 당의 내홍, 탄핵안 가결로 흉흉해진 국민적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권한대행 전폭 지지 발언, 정국 혼란을 초래한 데에 대한 책임론을 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 축에서는 이번 탄핵안 가결이 법과 민주주의를 위반한 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었다는 논리를 내세워 탄핵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탄핵의 원인을 대통령에게 돌리는 작가 이문열의 발언을 보도하는가 하면, 대여 공세 및 당 내홍을 진정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같이 총선 행보와 관련된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한나라당에 대한 표현적 속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열린우리당과 비슷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당 모두 차분하기보다는 격렬하게,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이며, 소극적이기보다는 적극적인 속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경우 탄핵을 저지하려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완력으로 끌어 내리고, 그들과 감정적인 대치 국면에서 폭력적인 언사와 행동을 사용하며, 끌려 나가지지 않으려는 여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몸부림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가해자로서 적극성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탄핵소추안 가결 당일의 특보·속보는 이러한 사안을 부각시켜 가결 순간의 혼란상을 여과 없이 반복해서 보여줌으로써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탄핵을 강제처리한 가해자라는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다. 이를테면,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강제력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장면이나, 경위들과 함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끌어내는 장면, 그리고 헌정 초유의 탄핵안 가결을 앞두고 한가하게 웃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 등이 강조됨으로써 앞서 말한 세 개의 프레임, 즉 비개혁적 가해자, 정략적 정치집단, 민의 외면 정치집단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결 당일 이후, 탄핵 역풍으로 인해 굳은 표정으로 향후 대책에 분주하거나 지도부가 머리 숙여 사과하는 장면 등이 강조됨으로써 민의를 위반한 정략적 선택의 말로라는 의미를 공고히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행위 주체 간의 관계에서,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되고 있다. 그런데 촛불 시위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행정 관료들과도 대립적인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점도 발견할 수 있다.

다. 민주당의 이미지 프레임

민주당의 경우 한나라당과 비슷한 이미지 프레임이 구축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을 묘사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용어들은 대체로 탄핵 주도 집단, 정략적 정치집단, 민의를 외면해 위기에 빠진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 한나라당과 구별되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노 대통령 출범에 기여했다가 이번 탄핵안을 주도한', '탄핵 정국을 주도한'과 같은 탄핵 주도 세력이라는 사실이 집중적으로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탄핵소추안 발의 및 주도가 도덕적, 법적 정당성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 총선에서 안정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정략적인 의도라거나 탄핵안 발의 자체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점들이 현저하게 부각된다.

<표 3-3-4> 정치 행위자 이미지 프레임: 민주당

이미지 프레임	탄핵 주도 세력	정략적 정치집단	위기에 처한 민의 외면 집단
묘사 용어	노대통령 출범에 기여했다가 이번 탄핵안을 주도한 탄핵안 맨 처음 얘기한 탄핵정국 주도한 진의를 따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정국주도를 위해 몸싸움을 불사했던 탄핵 후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배신의 계절 상황 반전시킬 마지막 카드 나라망치기로 작정	탄핵역풍에 내분까지 침몰 일보직전 지지층 절반이 통째로 옮겨간 나라망치기로 작정 탈당도미노 깊은 정적에 빠짐 역풍을 느낀 듯
보도 주제	당내분 사태: 당지도부는 격분하며 반발했다, 사퇴한 추미애 설득 노력, 탄핵가결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 제기		
	탄핵정당성 호소: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애국 충정에서 나온 결과		
	대행체제 협조: 국정을 적극 도울 것, 총리에 협조		
	총선행보: 추의원이 선대위 맡는 방안을 검토 중, 구원투수론 내세우며 입당		
	대여강경 대응: 노대통령 총선 재신임 발언 선관위에 유권해석 의뢰		
	정략적 행보: 정치적 속셈에서 비롯된 탄핵, 노대통령 출범에 기여했다가 탄핵가결을 주도한		
표현적 속성	격렬한: 격렬하게 몸싸움 하는 감성적: 환호하는, 불안해하는 소극적인: 깊은 정적에 빠진 적극적인: 몰아붙이는, 지배자의		
영상 이미지	담담한: 지도부 회의, 기자회견, 탈당 의원 대 당 지도부		
행위자간 관계	한나라당과 공조 노대통령과 적대 열린우리당과 대립		

보도 주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보도 내용은 한나라당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이번 탄핵안 가결이 정략적 속셈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되면서, 이로 인해 곧바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면서 당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다는 논리적 인과 흐름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이 과정에서 지도부 사퇴론과 이에 대한 지도부의 강한 불만과 반발, 추미애 최고위원의 사퇴와 영입을 둘러싼 내분과 같은 혼란 국면들이 빈번하게 보도되었다. 민주당에 대한 보도 주제는 탄핵 역풍을 뚫고 나가고자 고건 권한 대행 체제에 대한 협조 발언과 함께 탄핵안 가결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애국 충정에서 나온 결과라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한편으로, 그들과 대립각을 이루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노 대통령에 대한 강경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표현적 속성 역시 한나라당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먼저, 여당 의원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소추안을 관철시키려는 의지가 뚜렷하게 부각되었으며, 탄핵안이 가결되자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는 감성적인 면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 하루 후 민주당 지지율의 폭락 소식이 알려지자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반복되는 텅 빈 당사 표정과 지도부의 두문불출 소식은 민주당이 깊은 혼란에 빠졌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행위 주체 간의 관계에서 민주당은 노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과 적대적인 구도로 설정되는 반면, 한나라당과는 공생적인 관계로 그려지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비록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가결을 주도하였지만, 그것이 한나라당과의 전략적 공조 없이는 불가능한 프로젝트이고, 따라서 한나라당의 공조가 탄핵안 가결에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방송 매체는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에게 탄핵 주도 프레임을 더 강하게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위 주체 간의 관계라는 프레임 장치 분석은 이후의 탄핵 역풍이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에게 더 강하게 몰아쳤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비슷한 이미지 프레임이 구축되고 있음에도 민주당에 대해 특별히 눈에 띄는 영상 이미지 프레임 장치는 관찰되지 않았다. 단순히 지도부 회의나 기자회견 등의 일상적인 모습을 중심으로 보여주다가 탄핵 역풍이 불기 시작한 이후 시점부터 의원 탈당 등 극심한 당 내분 사태에 빠진 채 대여 강경 대응을 주장하거나 대행 체제에 적극 협조하면서 탄핵 정당성을 호소하는 장면이 강조되었다.

라. 촛불 시위에 참여한 시민이나 단체의 이미지 프레임(촛불 시위 참여자)

이번 탄핵 관련 보도에서 촛불 시위에 참여한 시민이나 단체 또한 주요 정치 행위자로 빈번하게 등장하였는데, 그 이미지 프레임은 민주주의 수호자, 과격한 행동주의자, 격분하는 항의자로 드러났다. 이들은 탄핵소추안 가결 자체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탄핵안 가결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회 앞으로 모여든 시민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국회 앞을 떠나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 강력한 실천 의지를 드러내었다.

<표 3-3-5> 정치 행위자 이미지 프레임: 촛불 시위

이미지 프레임	민주주의 수호자	과격한 행동주의자	격분하는 항의자
묘사 용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좌시하지 않겠다 밤 10시가 넘게 국회를 떠나지 않는 10차선 왕복도로를 메워 촛불이 물결을 이룬 발 딛을 틈이 없을 정도 100만인 서명운동 15000명 모여 있어 생계를 제쳐두고 밀려들기 시작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촛불을 받쳐 들고 있는 집에서 TV를 보다가 뛰쳐나온 주부	승용차 돌진 울음 섞인 절규를 내뿜는 돌진하다 저지당한 눈물을 흘리면서 실신 울분을 참지 못해 경찰과 마찰 빚기도	거세게 항의, 함성이 높아지고 있다 속이 상해 밀려드는 불안감 서러움에 눈물 흘리는 상당히 격분되고 있음 격분하여 실신하는
보도 주제	탄핵반대: 무리한 법적용이라며 반발, 설마 했던 심정이 당혹감으로 바뀌어		
	대규모 탄핵 반대시위 확산: 7만여 명이 광화문에서 집회, 전국 각 지에서 몰려들어, 속속 국회 앞으로 몰려		
	강력한 실천의지: 국회행진을 저지당하는, 탄핵무효와 민주수호를 외치며 집회에 참가, 시국 선언문을 채택하는 실로 안타깝고 불행한 모습		
	야당비난: 국민 대다수의 의사를 무시한 탄핵소추안 가결		
	평화적·자발적 시위: 문화행사 강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표현적 속성	격렬한: 항의하는, 역동적인 감성적: 울부짖는 적극적: 국회진입을 시도하는		
영상 이미지	심각한: 격한 탄핵반대 연설자, 전경과 시민의 격한 몸싸움		
	많은 사람이 모인: 촛불집회 롱 샷, 촛불집회 위에서 아래로 카메라 이동		
행위자간 관계	경찰과 대립 보수단체와 대립 야3당과 대립		

먼저, 촛불 시위가 본격적으로 이어지면서 생계를 제쳐두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과 아이들, 그리고 집에서 TV를 보다가 뛰어나온 주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평화적 시위라는 면모를 강하게 부각시켰으며, 100만인 서명운동이나 물결을 이루는 촛불 등을 통해 이들의 시위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촛불 시위에 참여한 시민이나 단체는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프레임이 형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탄핵안 가결에 반대하는 시민들 중 일부는 승용차를 몰고 국회로 돌진하거나 울음 섞인 절규를 내뿜는가 하면, 경찰과 심한 마찰을 빚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과격한 행동주의자의 이미지 프레임도 형성되었다. 마지막으로, 탄핵안 가결 주도 세력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며, 밀려드는 불안감과 분노를 표시하는 격분하는 항의자 프레임도 살펴볼 수 있다.

격렬한 탄핵 반대 연설, 전경과 심한 몸싸움을 불사하는 영상이 강조되는 한편으로 평화적이고 자발적으로 대규모 시위에 나서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이 주된 보도 주제를 구성하였다. 탄핵안 가결이 무리한 법적용이라고 주장하며, 참여자들의 이러한 주장이 점점 더 확산되는 국면이 중점적으로 부각되었다. 이 과정에서 탄핵을 가결시킨 야권에 대한 비난, 시국 선언이나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력한 실천 의지 등이 표현되었으며, 탄핵이 무효화 되는 날까지 법테두리 안에서 탄핵 반대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촛불 집회의 성격을 축제나 문화 행사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내용이 주로 보도되었다.

표현적 속성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공조로 인한 탄핵안 가결에 격렬하게 반대하거나 항의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여 울부짖는 격렬하고 감성적인 속성이 강조되는가 하면, 끝내는 국회에 진입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속성이 강하게 부각되었다.

촛불 시위에 참여한 시민이나 단체는 경찰, 야3당, 보수 단체와 대립하는 관계를 보였다. 촛불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경찰과의 대립은 별다른 충돌 없이 평화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었으나, 야3당의 불법 집회 중단 촉구와 촛불 시위 참여자 비하 발언, 곧 홍사덕의 '이태백, 사오정' 발언은 야3당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마. 노무현 대통령/청와대의 이미지 프레임

노무현 대통령(청와대)은 침통한 피해자, 재기 노리는 승부사, 담담한 대응자의 이미지로 텔레비전 보도에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침통한 피해자 프레임을 구성하는 묘사 용어는 '납덩이처럼 가라앉은 청와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 중단은 처음 있는 일', '예상치 못한 큰 충격에 휩싸인', '청와대에서 가만히 지내야 하는' 등이고, 재기를 노리는 승부사 프레임은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니다', '민심의 열풍 기대', '힘들지만 좌절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超강경수로 국면을 역전시킨 특유의 승부수', '겸허하게 국민과 법의 결과를 기다리겠다' 등의 묘사 용어를 통해 추출할 수 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충격에도 '예정된 일정을 소화한', '국정 흐름 놓치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는', '의외로 담담하게 근로자들과 오찬을 나눈'과 같은 용어들은 노 대통령을 담담한 대응자로 프레임하고 있다.

보도 주제에 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탄핵을 받은 것은 아니며, 변화를 위한 진통 등의 탄핵안 가결에 대한 입장, 납덩이처럼 가라앉은 회의를 주재하거나 예정된 일

정을 계획대로 진행시키는 등의 대통령 동정, 그리고 '결코 좌절하지 않겠다',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지 않기 위한 헌재 결정 존중' 등의 청와대 향후 행보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6> 정치 행위자 이미지 프레임: 노 대통령/청와대

이미지 프레임	침통한 피해자	재기노리는 승부사	담담한 대응자
묘사 용어	납덩이처럼 가라앉은 청와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 중단은 처음 참담한 심정 감추지 못하는 깊은 충격 예상치 못한 큰 충격에 휩싸임 청와대에 가만히 지내야 날개를 접은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니다 민심의 열풍기대 힘들지만 좌절, 포기하지 않겠다 정당히 타협하지 않겠다는 소신 초강경수로 국면을 역전시킨 특유의 승부수 겸허하게 국민과 법의 결과 기다리겠다	충격 속 대책을 마련하는 신중해 달라는 예정된 일정을 소화한 당당하게 비쳐진 국정흐름을 놓치지 않고 의외로 담담하게 근로자들과 오찬 평소와 다름없는, 기강잡고, 빈틈없는, 최선 원만한 국정운영 당부
보도 주제	탄핵가결안에 대한 입장: 국민으로부터 탄핵을 받은 것은 아니다, 변화위한 진통		
	동정: 납덩이처럼 가라앉아 회의를 주재하는, 예정된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		
	청와대 향후 행보: 결코 좌절하지 않겠다, 국정혼란 최소화를 위한 헌재결정존중		
	역사적 사례: 박정희, 516 쿠데타로 장악, 닉슨, 워트게이트 사건으로 하야		
표현적 속성	감성적: 가슴이 찡한, 측은한 이성적: 의연한, 법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소극적: 수동적인, 피해자의		
영상 이미지	노대통령 동정: 관저에서 나가는 대통령, 산책하는 대통령, 집무하는 대통령		
	조용한 청와대 풍경: 새벽녘 조용한 청와대 경내, 비서실장 주재 회의		
행위자간 관계	국회와 대립 야3당과 대립 열린우리당과 공조		

특히 대통령 관련 보도는 지금까지 국내외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 예컨대, '박정희 516사태', '최규하 체육관 선거', '신군부 1212사태', '닉슨 워터게이트', '클린턴 성추문', '페루의 후지모리 망명', '인도 와히르 추방' 등의 사건을 비유할 수 있는 역사적 사례로 나열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의 전달이 갖는 의미이다. 즉, 이러한 예들을 사용하여 노 대통령의 탄핵에 법적, 도덕적 정당성을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행적과 비교해 볼 때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을 비롯한 탄핵소추 사유가 그다지 심각하거나 우려스런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예증의 가닥을 잡아나갔다는 것이다.

표현적 속성은 ‘가슴이 찡한’, ‘측은한’, ‘참담한’ 등과 같은 감성적 속성이 주를 이루었고, ‘의연한’, ‘법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과 같은 이성적 속성과 ‘수동적인’, ‘피해자의’ 소극적 속성이 함께 나타났다. 행위자 간 관계에서 노 대통령은 갈등 당사자로서 야3당과 분명한 적대적 관계를 보였다.

탄핵소추안 가결 당일을 제외하고 노 대통령은 대개 집무실에서 한복 차림으로 독서하거나 마우스를 조작하며 컴퓨터 모니터를 보는 모습,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는 장면 등 이미 전형화 된 익숙한 영상 이미지를 통해 등장하였으며, 이런 자료화면은 대통령 동정을 소개하거나 청와대의 향후 행보를 전망하는 보도에서 빈번하게 활용되었다.

바.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미지 프레임

대통령의 권한 정지로 인한 대행 체제라는 비상시국이 전개됨에 따라 고건 총리는 권한대행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책임 막중한 관리자, 안정적인 현상 유지자라는 이미지 프레임이 구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정 초유의 사태에 따라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 전반을 책임져야 하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총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권한 대행이라는 지위와 역할을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거나 추진하기보다 정부가 이미 수립해 놓은 정책이 표류하거나 혼선을 빚지 않도록 관리하는 범위로 제한하는, 이른바 안정적 현상 관리자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동시에 부각된다.

고건 권한 대행에 대한 보도 주제는 ‘국정 안정’이나 다양한 방안과 흔들림 없는 ‘국가 운영’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권한 대행의 역할과 임무의 범위와 성격, 그리고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반응을 지엽적으로 다루고 있다.

표현적 속성의 경우, 사상 초유의 사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차분한 입장이 부각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국정 관리로 탄핵 국면을 이성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 등이 드러났다. 이를 위해 기존에 수립한 정책은 흔들림이나 동요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피력하는 모습이 부각되기도 한다.

권한대행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된 영상 이미지는 거의 대다수가 회의를 주재하거나 인터뷰를 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외에도 차분히 집무를 보는 모습 등이 두드러졌다. 행위 주체 간 관계 역시 거의 대부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7> 정치 행위자 이미지 프레임: 대통령 권한대행

이미지 프레임	책임 막중한 관리자	안정적 현상유지자
묘사 용어	국정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 행사하게 된 총리가 국정운영 대행 무거운 책임감 고민스러운 결정 행정부의 총책임	총리의 권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현상유지적 차원의 권한 대행 안정적 관리자 역할 총리가 국정운영 대행 기존의 계획을 차질 없이
보도 주제	국정운영방안: 국정안정 '최우선' 챙기기,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	
	권한대행 직무수행: 대통령의 모든 권한 행사, 고건총리의 달라진 위상	
	탄핵가결안에 대한 반응: 당혹과 침울한 총리실, 비정상적 헌정사태에 촉각	
표현적 속성	차분한: 예의주시 이성적: 객관적이고 공정한 국정운영 적극적: 흔들림 없는, 철저한	
영상 이미지	사태수습: 담화모습, 인터뷰 모습	
	국정수행: 회의 주재, 차분히 집무 보는	
행위자간 관계	대부분의 행위주체들과 중립적 관계	

사. 야 3 당의 이미지 프레임

야3당에 대한 텔레비전 보도는 긍정적이지 못했다. 특히 정략적 정치집단, 탈법적인 민의 배신자라는 이미지가 강조되었는데, 기습적인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와 국정 협력 의사 표명이라는 초기의 내용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야당 간의 공조를 통해 대여 공세에 나서거나 총선 행보에 상당한 신경을 쓰는 내용이 주로 보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미지 프레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먼저, 정략적 정치집단 프레임에서 사용된 묘사 용어는 '11시 땡 치자 마자', '30분 만에 가결', '가결 직후 곧바로 본회의장 빠져나가', '기습적이고 전광석화와 같은', '군사작전 방불케 하는', '본회의장 일제히 들어와', '당리당략만을 위해', '권력을 나누어 갖는', '도덕적,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민주 질서 기본 망각' 등으로, 매우 다양한 표현을 통해 그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탈법적 민의 배신자 프레임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확보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들을 갈아 치울 수 있고', '최병렬,

조순형, 손을 맞잡고', '재갈을 물린 주역', '국민 배신행위', '국민에게 뺨맞고 강 장관에 화내는 격' 등의 묘사를 통해 주로 참여정부 1년 동안 야당의 행적을 비교적 자세하게 보여준다. 이런 행적은 이른바 국정 발목 잡기의 연장선으로 풀이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

<표 3-3-8> 정치 행위자 이미지 프레임: 야 3 당

이미지 프레임	정략적 정치집단	탈법적 민의배신자
묘사 용어	11시 땡치자 마자 1시간 반이 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30분 만에 가결 가결 직후 곧바로 본회의장 빠져나가 기습적이고 전광석화와 같은 군사작전 방불케 하는 본회의장 일제히 들어와 권력을 나누어 갖는 개헌공조 당리당략만을 위해 정략적 사태 당론으로 탄핵은 가결 기존 이유로 불충분하다고 스스로 자백 도덕적,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민주질서기본망각 절차상의 하자 모양새를 갖춰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확보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들을 갈아 치울 수 있고 최병렬, 조순형, 손을 맞잡고 재갈을 물린 주역 소수에 대한 억누름 국민을 기만 국민배신행위 국민에게 뺨맞고 강장관에 화내는 격 국회의 무능과 국민을 기만한
보도 주제	기습적 탄핵안 가결처리: 기습적, 전광석화로 처리, 30분 만에 가결	
	총선행보: 야당, 민심 되돌리기 안간힘, 각 당, 공천 마무리 세대교체 뚜렷	
	야3당 공조: 개별의견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정략적 정치 행태	
	국정협력 의사표명: 고건 권한대행 입장 난처해지지 않도록 하겠다	
	대여공세: 총선연기론 주장은 모략이라며 부인, 야권, 강장관에 총공세	
표현적 속성	격렬한: 몸싸움을 불사하는 감성적인: 고성을 지르는 적극적인: 가학적인, 공격적인	
영상 이미지	각 당 대표들의 회동	
행위자간 관계	노대통령과 적대 열린우리당과 적대	

보도 주제와 관련해서, 한편으로 야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공고히 하는 '기습적 탄핵안 가결 처리', '개별적 의견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정략적 정치 행태를 주로 다루면서, 다른 한편으로 탄핵안 가결로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 공천 혁명을 통한 세대교체와 같은 총선 행보나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대행 체제에 대한 협조 의사 등을 주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다.

표현적 속성과 관련해서는 앞서 살펴본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 속성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지만, 공격적이고 가학적인 속성들이 더욱 강하게 표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 이미지는 국회에서 몸싸움을 하는 장면 외에 담담하게 각 당의 대표들이 회동을 하는 장면과 탄핵 역풍에 맞서서 대책 회의를 여는 장면들이 대부분을 이루었으며, 대체로 침통한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다. 행위자 간의 관계 역시 앞서 살펴본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갈등의 당사자인 열린우리당이나 노 대통령 진영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묘사된다.

아. 시민의 이미지 프레임

야3당의 반대 축에 주요 정치 행위자로 시민/국민의 이미지가 구축되었다. 텔레비전 보도는 동요하는 피해자, 분기하는 민초로 시민의 이미지를 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시민 대다수는 '가슴 아프고 슬프다', '당혹감과 깊은 슬픔', '망연자실', '불안, 두려움, 긴장', '충격, 분노, 허탈과 안타까움이 교차', '현업에 안정되게 종사하고픈 바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얼떨떨' 등의 묘사 용어를 사용하여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피해자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다.

또한 분기하는 민초라는 이미지 프레임은 '총선 때 두고 보자라며 어금니를 깨물어', '정치권 물갈이 하겠다고 다짐', '젊은 세대들 정치에 보다 적극적이게 된', '분노를 참지 못해',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정치를 개탄', '민생 외면에 대한 분노',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환멸'과 같은 표현을 통해 드러나는데, 야3당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격분을 담아내고 있다. 다시 말해, 야당의 지나친 정치 공세로 인한 당혹감과 충격에서 벗어나 총선 심판론을 제기하고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하는 내용으로 프레임의 초점이 옮겨갔다는 것이다.

시민에 대한 보도 주제에 관해서는, 탄핵안 가결에 따른 당혹감과 놀라움, 가결 주체인 야당에 대한 거센 항의, 정국 불안 야기에 대한 총선 심판론 제기, 탄핵 부당성 호소, 국정 공백과 민생 파탄 우려, 정치권 전반에 대한 비난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시민에 대한 표현적 속성의 경우, 탄핵안 가결에 대하여 국회 화형식이나 분신과 같은 격렬한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가 하면, 분노하거나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하는 시민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거나, 흥분한 나머지 국회에 진입을 하기 위하여 경찰과 맹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등 매우 적극적인 속성들이 강조된다.

<표 3-3-9> 정치 행위자 이미지 프레임: 시민/국민

<table>
<tr><th>이미지
프레임</th><th>동요하는
피해자</th><th>분기하는
민초</th></tr>
<tr><td>묘사
용어</td><td>가슴 아프고 슬프다
당혹감과 깊은 슬픔
망연자실
불안, 두려움, 긴장
충격, 분노, 허탈과 안타까움이 교차
침울한 고향마을 주민
1인 시위 증가
60대 남자 흉기 들고 난동
현업에 안정되게 종사하고픈 바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의심
얼떨떨</td><td>총선 때 두고 보자라며 어금니를 깨물어
정치권 물갈이 하겠다고 다짐
젊은 세대들 정치에 보다 적극적
분노를 참지 못해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정치를 개탄
민생외면에 대한 분노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환멸
야당의 지나친 정치공세에</td></tr>
<tr><td rowspan="6">보도
주제</td><td colspan="2">당혹감과 놀라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시민들, 망연자실한 시민</td></tr>
<tr><td colspan="2">거센 항의: 국민적 합의 없는 수적 싸움의 결과, 전국에서 항의성 분신 잇달아</td></tr>
<tr><td colspan="2">총선심판론 제기: 총선에서 두고 보자며 어금니를 깨무는</td></tr>
<tr><td colspan="2">탄핵부당성 호소: 국회의원 다수의 힘으로 대한민국 비상시국</td></tr>
<tr><td colspan="2">국정공백/민생파탄 우려: 국정공백 우려, 민생외면에 대한 분노</td></tr>
<tr><td colspan="2">정치권 함께 비난: 기득권층의 횡포와 말 아끼지 않은 대통령</td></tr>
<tr><td>표현적
속성</td><td colspan="2">격렬한: 국회화형식
감성적인: 분노하는, 당황하는
적극적: 국회진입시도, 경찰과 몸싸움</td></tr>
<tr><td>영상
이미지</td><td colspan="2">탄핵반대 모습: 항의집회, 불타는 자동차, 오열하는 노사모 회원</td></tr>
<tr><td>행위자간
관계</td><td colspan="2">야당과 대립</td></tr>
</table>

표현적 속성의 연장선상에서, 영상 이미지는 거대한 규모로 항의 집회를 하거나, 불타는 자동차의 모습, 오열하는 노사모 회원들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행위자 간의 관계에서 야3당에 대해 극단적으로 분노하거나 대립각을 세우는 갈등 관계가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자. 기타 정치 행위자의 이미지 프레임

기타 정치 행위자로 헌법재판소(임무 막중한 판결관/해결사, 보수성 향의 조직), 국회(비이성적 정치집단), 박관용 국회의장(무리한 의사 진행자), 행정 관료(긴박해진 업무 수행자, 어수선한 정책 집행자), 보수 단체(탄핵 찬성 집단) 등이 등장하였으나, 앞서 분석한 행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프레임 장치를 동원해 이미지를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헌법재판소**

먼저, 헌법재판소의 이미지 프레임은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상 초유의 탄핵안을 심판할', '국가 중대사의 공은 헌재로 넘어갔다', '국가 운명을 좌우하게 될' 등의 묘사 용어를 주로 사용하여 임무 막중한 판결관 또는 해결사로서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있었고, 재판관들의 임명권자를 나열하는 가운데 '다소 보수적인 헌법재판관', '공익보다 개인의 재산권을 중시한 보수적 판단' 등과 같이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이나 면면들을 강조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보수성 향의 조직임을 현저하게 프레임 하였다. 보도 주제 역시 탄핵안 심리 과정, 원칙 및 절차나 재판관과 관련 개인신상 정보를 소개하거나 그들의 정치적 성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표현적 속성의 경우 차분하고 이성적인 면이 강하게 드러났다. 영상 이미지는 주로 헌법재판소 내·외부 전경을 보여주는 등 자료 화면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표 3-3-10> 정치 행위자 이미지 프레임: 헌법재판소

이미지 프레임	임무 막중한 판결관(해결사)	보수 성향의 조직
묘사 용어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 사상 초유의 탄핵안을 심판할 국가 중대사의 공은 헌재로 넘어갔다 국가운명 크게 좌우 정치적 판단보다는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혼란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해야	보수적인 헌법재판관 다소 보수적인 9명 중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한 이는 아직 없음 공익보다 개인의 재산권을 중시한 보수적 판단 지금까지 보수적인 판단을 내려왔음
보도 주제	심리과정(원칙/절차): 변론재판 거쳐 심판, 전원재판부 열어, 집중심리제	
	재판관 관련 정보: 헌법재판관의 임명배경,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표현적 속성	차분한 이성적	
영상 이미지	헌법재판소 내, 외부 전경을 중심으로(자료화면)	
행위자간 관계	없음	

◆ **국 회**

국회는 비이성적 정치집단이라는 이미지 프레임이 강하게 부각되었다. 국회 묘사 용어를 살펴보면, '개별적 의견이라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한국에 과연 정치란 있는 것인가', '설마 그러랴 했지만' '정치 생명을 건 사생결단을 피할 수 없어', '비리로 점철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다수의 힘으로 대한민국 비상시국'과 같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감정적인 부분에 치우쳐 판단하는 비이성적 집단으로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보도 주제 역시 비리로 얼룩진 국회의원들이 밥그릇 싸움에 집착하는 대결 양상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와 별도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이관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행정적 절차를 다루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 표현적 속성은 탄핵안 가결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탄핵안을 가결한 이유가 매우 감정적인 접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이미지를 프레임하고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점거하고 있던 국회 의장석 주변으로 몰려가자 갑자기 카메라가 흔들리는 등 혼란상을 여과 없이 보여줌으로써 이성이 상실된 감정의 싸움판이라는 영상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탄핵 사안에서 갈등의 주체였던 노 대통령, 열린우리당과 적대적인 관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3-11> 정치 행위자 이미지 프레임: 국회

이미지 프레임	비이성적 정치집단
묘사 용어	개별적 의견이라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한국에 과연 정치란 있는 것인가 설마 그러랴 했지만 정치생명을 건 사생결단을 피할 수 없어 비리로 점철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다수의 힘으로 대한민국 비상시국
보도 주제	파행적 국회운영: 한국에 과연 정치란 있는 것인가, 상생과 화합을 저버린
	탄핵관련 행정절차: 탄핵의결서 헌법재판소 이관, 소추안 헌재 접수
표현적 속성	감성적 적극적
영상 이미지	여당 의원 기습 시 흔들리는 카메라 기법
행위자 간 관계	노 대통령과 적대 열린우리당과 적대

◆ 박관용 국회의장

탄핵안 가결 국면에서 가장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박관용 의장에게는 무리한 의사 진행자라는 이미지 프레임이 구축되었다. 박의장에게 주로 사용된 묘사 용어는 '자위권 발동 운운하면서', '일사천리로 표결 강행', '질서유지권 발동하면서 강행', '한·칠레 FTA 체류 시에는 질서유지권 발동 안 해', '항의하는 열린우리당 의원 강하게 몰아붙여', '여당 의원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무리수를 두지

않았더라면 가결되지 않을 수 있던 사안을 표결을 강행함으로써 파국을 초래했다는 이미지를 구성하였다. 표현적 속성은 적극적으로 표결을 강행하려는 편향적인 이미지가 강조되었으며, 영상 이미지는 여당 의원들이 던지는 집기들을 의식하면서 급하게 탄핵안 가결을 선언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다. 가결 선언 직후에는 국회 경위들의 보호를 받으며 가까스로 국회를 빠져나가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표 3-3-12> 정치 행위자 이미지 프레임: 박관용 국회의장

이미지 프레임	무리한 의사 진행자
묘사 용어	자위권 발동 운운하면서 일사천리로 표결강행 질서유지권 발동하면서 강행 한칠레 FTA 체류 시에는 질서유지권 발동 안 해 항의하는 열린우리당 의원 강하게 몰아 부쳐 여당의원에게 고성을 지르는
보도 주제	사태예방노력: 4당 대표회담 추진, 당초에 정치적 타협 추진
	탄핵안 가결처리: 자위권 발동 경고하는, 고성을 지르는 박의장
표현적 속성	적극적 편향적 강제적
영상 이미지	집기들이 날아다니는 상황에서 탄핵가결안 가결을 선포
행위자간 관계	노대통령 적대 열린우리당과 적대

◆ 행정 관료

행정 관료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은 크게 두 가지, 즉 긴박해진 업무 수행자와 어수선한 정책 집행자다. 먼저, 긴박해진 업무 수행자라는 이미지를 구성하는 묘사 용어로는 ‘경찰, 눈코 뜰 새 없이’, ‘이헌재, 분주하게 움직였다’, ‘외교 라인의 발 빠른 가동’, ‘국정 혼란과 국정 혼란 심화에 심각한 우려’, ‘비상 연락 체계 점검’, ‘비상경계 근무’와 같이 사상 유래 없는 사안에 직면한 정부 부처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거나 비상경계 근무령, 정위치 근무 명령 등을 통하여 사태에 예의주시하는 표정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다음으로, 어수선한 정책 집행자로서 이미지는 ‘일손을 놓고’, ‘착잡한 심정’, ‘큰 충격’, ‘잔뜩 긴장’, ‘갑작스런 통보에 당혹한’, ‘걱정하는’, ‘깊은 유감’, ‘정국 불안이 몰고 올 파장 우려’, ‘북핵문제 등 현안 산적한’, ‘불법 대선 자금 수사 우려’, ‘외교에 다소간의 혼란 불가피’, ‘경제정책이 차질을 빚

지 않을까 우려', '업무가 가중되고' 등의 묘사 용어를 통해 드러난다.

보도 주제와 관련하여,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경제 안정 대책 마련 지시나 금융정책 협의회를 열어 경제 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공직 기강 확립 지시와 전군 경계태세 강화령을 통한 비상사태 대처, 중립적 입장에서 향후 총선 관리 대책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긴박하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비교적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사안이 특수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영상 이미지는 정부 각 부처의 일상적인 사무실 전경을 자료 화면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행위 주체 간 갈등 양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표 3-3-13> 정치 행위자 이미지 프레임: 행정 관료

이미지 프레임	긴박해진 업무 수행자	어수선한 정책 집행자
묘사 용어	경찰, 눈코 뜰 새 없이 이헌재, 분주하게 움직였다 외교라인의 발 빠른 가동 국정혼란국정혼란 심화에 심각한 우려 비상연락체계 점검 비상경계근무	일손을 놓고 착잡한 심정 큰 충격 잔뜩 긴장 갑작스런 통보에 당혹한 걱정하는 깊은 유감 정국불안이 몰고 올 파장 우려 북핵문제 등 현안 산적한 불법 대선자금 수사 우려 외교에 다소간의 혼란 불가피 경제정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 업무가 가중되고
보도 주제	경제안정 대책: 이헌재 부총리 경제안정대책 마련, 금융정책 협의회 열어	
	비상사태 대처: 공직기강 확립지시, 전군에 경계태세 강화, 검문검색 강화	
	총선대책: 중립적 입장에서 유권자 투표 참여, 총선연기 불가능	
표현적 속성	이성적 소극적	
영상 이미지	정부 부처의 사무실 일상적 전경을 보여줌(자료화면)	
행위자간 관계	없음	

◆ 보수 단체

보수 단체는 탄핵소추 환영 집단이라는 한정적인 프레임으로 설정되었다. 이들을

묘사하는 용어 역시 ‘탄핵 찬성 시위를 벌이는’, ‘환호성을 지르며’,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며 해산하는’ 등의 단순한 표현이 대부분이다.

보도 주제 역시 탄핵안 가결 찬성, 환호성을 지르며 결과에 만족해하는, 촛불 시위와 경쟁하여 탄핵 지지 집회를 위하여 세를 결집시키려는 행동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들의 표현적 속성으로는 촛불 시위 참여 시민이나 단체와 대조적으로 비교적 차분하고 소극적인 속성이 강조된다. 영상 이미지 역시 촛불 시위 참여자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엉성하게 피켓을 들고선 사람들’, ‘꽹과리를 치며 즐거워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바스트 샷 중심으로 보여주면서 다소 희화화하는 측면이 엿보인다. 이들은 열린우리당이나 노 대통령과는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진보 단체와는 약한 대립이라는 관계를 설정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표 3-3-14> 정치 행위자 이미지 프레임: 보수 단체(시위)

이미지 프레임	탄핵소추 환영 집단
묘사 용어	탄핵 찬성 시위를 벌이는 환호성을 지르며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며 해산
보도 주제	탄핵 찬성: 탄핵안 가결 찬성、환호성을 지르는、탄핵지지 집회를 위해 세력 결집
표현적 속성	차분한 소극적
영상 이미지	엉성하게 피켓을 들고선, 꽹과리를 치며 즐거워하는 찬탄 시위자들에 대한 바스트 샷
행위자간 관계	진보단체와 약한 대립 열린우리당과 대립 노대통령과 적대

(2) 주요 정치 쟁점의 경쟁 프레임

귀납적 접근법에 따라 추출한 프레임 요소를 바탕으로 기입 행렬표(signature matrix)를 작성하여 경쟁 프레임이 구성되는 정치 쟁점을 조사한 결과, 크게 ① 탄핵소추안 가결, ② 촛불 시위(집회), 그리고 ③ 편향 방송 시비라는 세 가지의 쟁점이 텔레비전 보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가. 탄핵소추안 가결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경쟁 프레임은 아래의 <표 3-3-15>와 같이 구성되었다. 탄핵 정국의 최대 쟁점이었던 만큼 텔레비전 보도에서 추출할 수 있는 프레임 요소는 매우 다양하게 배열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반대하는 세력과 찬성하는 세력간에 문제 정의, 쟁점의 주제, 입장, 은유, 역사적 의미(사례), 영상 이미지, 쟁점의 원인과 결과(전망), 시민 반응과 여론조사 등 모두 10 가지의 프레임 요소에서 대립되는 입장과 관점이 드러났다. 그만큼 미디어 보도는 이 사건의 다양한 측면(various aspects of the issue)을 대비되는 관점에 따라 제시했다는 것이다.

탄핵 반대 진영은 정당성이 결여된 비상시국이라고 사태를 정의한 반면 찬성 진영은 소추안 가결이 국정 파탄에 대한 심판이자 의회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보았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사태 정의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일, 13일에 주로 이루어졌으며 14일 이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문제 정의는 초기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탄핵 반대 진영에 대해서는 세 가지 측면을 주요하게 보도하고 있다. 첫째, '국회 표결에 의한 첫 사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탄핵',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사상 초유의 탄핵안 가결' 등의 헌정사상 처음 있는 치욕스런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둘째, '312쿠데타', '3당이 내각제를 고리한 야합', '국회법을 무시한 폭력적인 공개투표', '국민 대다수가 탄핵안을 반대하는 데에도 탄핵안을 가결', '정당성이 없는 과정', '헌정 유린한 범죄행위', '의회 내란' 등의 표현을 통해 탄핵소추안 가결이 정당성이 결여된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셋째, '국정 공백', '국가 비상시국', '정국 혼란', '경제적 불확실성 최고조', '경제 파탄 가중', '국군통수권 정지' 등을 통해 대통령의 부재로 인한 비상시국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편, 탄핵 찬성 진영에서는 '대한민국 승리', '민심의 결정', '구국의 결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노무현에 대한 구국의 심판' 등 의회 민주주의와 국민의 승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한 문제 정의 측면에서, 탄핵 찬성 진영보다 탄핵 반대 진영의 강조가 더욱 두드러진 경향을 보였다. 특히 정당성을 결여한 상황과 비상시국이라는 정의가 주를 이루었다.

시민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양 진영이 사용한 은유만 하더라도 탄핵 반대 진영은 '의회 쿠데타', '총칼 없는 쿠데타', '민주주의의 대학살', '민주주의를 짓밟는 처사', '군사 정권 후손의 폭거' 등을 사용해 찬성 진영이 '5공 후예들'이라고 공격한다. 또 탄핵소추안 가결이 헌정 중단의 역사적인 사례들인 5.16 쿠데타, 12.12 사태와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찬성 진영은 구국의 결단이며 탄핵에 직면했던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자진 사임했듯이 노 대통령도 이번 기회에 사

임하는 것이 순리라는 암시를 지닌 논리를 편다.

<표 3-3-15>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경쟁 프레임

쟁점 프레임	헌정질서 파괴	헌정질서 수호
문제 정의	· 헌정사상 처음 있는(치욕적인) · 정당성이 결여된 · 비상시국, 대통령 권한정지	· 의회민주주의와 국민의 승리 · 국정파탄에 대한 심판
쟁점의 주제	· 다수 힘 악용한 반민주 세력의 횡포	· 적법하고 민주적인 의회의 의사결정
쟁점에 대한 입장	· 원천무효인 탄핵 반대	· 적법절차 거친 탄핵 찬성
은유/ 비유	· 의회쿠데타 · 총칼 없는 쿠데타 · 민주주의의 대학살 · 민주주의 짓밟는 처사 · 군사정권 후손의 폭거	· 의회민주주의 승리 · 구국의 결단
역사적 의미 (사례)	· 헌정중단 5.16쿠데타,1212사태, 1026사태, 체육관선거, 클린턴 탄핵 부결	· 대통령 하야 닉슨사임
영상 이미지	· 난장판 국회 모습 · 힘없는 소수여당	· 세 과시하는 야당 · 여유로운 야당 지도부
원인	· 야3당의 당리당략, 총선전략 야당의 공조 각 당의 총선전략	· 대통령이 자초 측근비리 사과하지 못해서 선거법위반(선거개입) 정치자금 스캔들 무능(국정부패) 파행적 국정운영 대화거절 총선전략(열우당의 총선전략)
결과 (전망)	· 경제 악영향 · 정국혼란 · 총선 영향	· 진정국면의 도래 · 민주주의 발전계기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계기(조순형)
해결책 (쟁점 해결원칙)	· 원천무효인 탄핵소추 철회	· 헌재 판결 존중하고 기다려야
시민 반응	· 탄핵 반대 분노, 경악, 울음, 정치 불신	· 탄핵 찬성 환호, 박수, 대통령책임론
여론 조사	· 국민의사의 정확한 반영 · 여론조사 조작설 일축	· 여론조사 조작설 제기

사태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관점도 상이하다. 탄핵 반대 진영은 야3당의 당

리당략과 총선 전략에 기인한 무리수가 결국 정국 혼란을 가져와 경제 악영향은 물론 총선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대 진영은 사태의 원인을 '각 당의 당리당략', '거대 야권의 빈틈없는 공조', '국민들 먼저 생각하지 않는 정치형태', '국회의 정치적 판단', '국회의원의 다수의 힘으로', '당리당략에 빠진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최악의 정치 현안', '두당 공조의 파괴력', '무능한 국회의원들의 당리당략적 발생', '야당의 정략적 태도', '정치적 세력간의 갈등', '총선 전략의 일환', '한나라당, 민주당 총선 실시하지 않으려는 전략' 등 야 3당의 당리당략과 총선 전략을 사태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론 분열', '비상 대책 필요' '국정 공백 걱정', '민생 불안', '흔들림 없는 국정 수행해야', '안보 현안 불안' 등 국정 공백과 국정 혼란을 걱정하며 더불어 '경제에 악영향',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경제 침체 장기화', '투자 회복에 부정적 영향',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경제 불확실성 증폭' 등 경제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나아가 '총선 정국 불투명', '총선에 막대한 영향', '총선 올인이 불가피한 상황', '총선이 진흙탕이 되지 않을까 걱정' 등 총선에 미칠 영향 등을 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한 결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찬성 진영은 이번 사태가 무능하고 측근 비리에 둘러싸인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며 탄핵소추안 가결은 자업자득이므로, 조만간 사태가 진정되는 국면이 도래하고 이번 가결이 민주주의의 발전 계기로 승화될 것임을 예상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찬성 진영은 '노 대통령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비리',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대통령 측근 비리',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 '대통령의 파행적 국정 운영', '경제 파탄', '대통령의 유연치 못한 대처', '노 대통령의 탄핵 경고 무시', '야당과 대통령의 갈등' 등 대통령에게 그 원인을 돌리고 있으며, 자업자득이라는 논리와 함께 '열린우리당의 지지 기반 확대' 등의 총선 전략도 원인의 하나라는 의견이 제시된다. 사태의 결과로는 곧 진정 국면이 도래할 것이라는 예견과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한 계기'라며 민주주의 발전 계기로 파악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해결책으로 반대 진영에서는 원천 무효인 탄핵소추를 철회할 것을 주장한다. 반면에, 찬성 진영에서는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태에 대한 시민 반응을 보면, 반대 진영의 시민 반응은 '탄핵 발의 즉각 철회', '탄핵할 자격이 있는가?' '분노', '경악', '감정싸움', '국민이 바라는 것을 알아야', '그릇 싸움', '깡패 집단이 하는 수준', '정치 현실 개탄', '썩고 부패한 정치권', '정치적 술수' 등에서 보듯이 감정적인 반응과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드러난다. 반면, 찬성 진영의 시민 반응은 '환호', '박수', '잘됐다', '피할 수 없었다', '대통령 책임' 등으로 감정적 반응과 더불어 대통령 책임론을 주장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태에 대한 영상 이미지 프레임 요소의 경우, 반대 진영에서는 탄핵 소추안 가결 당시 난장판이 된 국회 모습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울부짖는 모습, 끌려 나가는 모습 등을 집중적으로 드러내었고, 찬성 진영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여유로운 모습, 박수치는 모습, 세 과시하는 모습 등을 부각시켰다. 특히 전체적으로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의 난장판 국회 모습이 가장 많이 보도됨으로써 반대 진영의 이미지를 강하게 구축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

이처럼 사태의 의미 구성과 관련된 여러 측면에서 서로 충돌하는 두 시각은, 탄핵소추안 가결의 본질과 관련하여 반민주 세력의 다수 횡포로 규정하는 반대 진영과 적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밟은 의회의 의사 결정 과정이라고 정의하는 찬성 진영간의 전면적인 프레임 경쟁으로 발현된다. 탄핵소추안 가결 쟁점의 경쟁 프레임은 결국 헌정 질서 파괴와 헌정 질서 수호로 대립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촛불 시위

두 번째로 주목하는 쟁점은 촛불 시위(집회)를 둘러싼 논란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보도량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 가결만큼 다양한 프레임 요소들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찬반 진영간에 프레임 경쟁이 상당히 다양한 의미 구성의 측면에서 의미화 투쟁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탄핵 반대 진영은 '참을 수 없어서', '분노를 참지 못해', '가만히 집에 있을 수 없어', '울분을 참지 못해', '시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사흘째 촛불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 자리를 떠나지 않아', '국민의 저항이 필요한 상태', '촛불 집회에 14만 명 군집 예상', '전국 곳곳에서 규탄 집회가 계획되고', '광화문에 5만 인파 모여'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촛불 시위를 국민적 울분의 발산으로 정의하였다. 반면, 탄핵 찬성 진영은 촛불 집회를 은밀한 배후 세력의 조직적인 동원 행사로 규정하는 대립적인 프레임을 구축한다.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도 커서 탄핵 반대 진영은 성숙한 시위 문화 보장을 주장하는 반면, 찬성 진영은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치를 내릴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탄핵 반대 진영은 기본적으로 '87년 6월 시민 항쟁', '2002년 여중생 추모 집회와 비교', '80년대 민주화 운동과 상황과 비슷' 등과 같이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촛불 시위를 이해하고 또 '문화 행사', '월드컵 거리 응원'과 같은 축제 분위기로 행사의 역사적 의미를 구성한다. 그러나 찬성 진영의 역사적 의미 해석은 특이한 프레임 요소로 나타나지 않았다. 은유 또한 탄핵 반대 진영의 경우 거대한 '촛불의 물결' 같은 도도한 이미지를 강조한다. 하지만 찬성 진영은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 '사오정(사십오세가 정년)'과 같은 표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직장 없고 할 일 없는 사회 주변인들이 주로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으로 애써 그 의미를 깎아 내리는 등 두 진영간의 대비가 돋보인다.

미디어가 활용하는 영상 또한 대조적이다. 탄핵 반대 진영의 경우, 대규모이지만 질서정연하고 평화적인 시위라는 이미지가 강조되었다. 상공에서 찍은 거대한 촛불 물결이나 대규모의 시위대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어린아이, 노인, 젊은 여성들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영상 기법이 빈번하게 동원된다. 탄핵소추안 가결 첫날, 촛불 집회로 이어지기 전의 군중집회에서는 울부짖는 모습, 대중 선동하는 연예인(음성 처리), 노란 점퍼를 입은 노사모 회원들의 모습들을 부각해서 보여주고 있다.

<표 3-3-16> 촛불 시위(집회)에 대한 경쟁 프레임

쟁점 프레임	민주주의 수호	법질서 회복
문제 정의	· 국민적 울분의 발산	· 불법집회
쟁점의 주제	· 정당한 시민권 행사	· 은밀한 배후세력의 조직적인 동원
쟁점에 대한 입장	· 성숙한 시위문화 보장	· 개인숭배의 싹(이문열) · 집회 원천봉쇄 촉구
은유/ 비유	· 거대한 촛불의 물결	· 이태백, 사오정
역사적 의미 (사례)	·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 6월 시민항쟁, 여중생 추모집회 · 축제 문화행사, 월드컵	없음
영상 이미지	· 질서정연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참여자 · 거리 가득 메운 인파, · 평화적인 시위	없음
원인	· 당리당략적 탄핵	· 불순세력의 배후 조종
결과 (전망)	· 이어지는 대규모 집회	· 정국불안
해결책 (쟁점 해결원칙)	· 공식 선거기간 전 종결	· 자진해산 권고

또 평화적인 시위대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어린아이 표정, 어린아이 인터뷰,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찬성 진영의 영상 이미지는 대개 멀리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보수 단체 회원들을 보여주는데 그치고 있다. 역사적 의미와 영상 이미지라는 프레임 장치에서 텔레비전 보도는 탄핵 반대 진영의 입장에 공명하는 의미 구성의 현저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태의 원인과 결과를 두고 탄핵 반대 진영은 ‘국회를 비판’, ‘대통령 탄핵을 규탄’, ‘탄핵에 항의’,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만’, ‘야당의 정치 공세’, ‘불합리하고 몰상식한 야당의 탄핵안 가결’,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사태’, ‘탄핵안 가결에 대한 격한 반대’, ‘기습적이고 전광석화와 같은 탄핵안 가결’, ‘야당의 비이성적 행동’, ‘야당의 불합리한 처사’, ‘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한 반작용’ 등 당리당략적 탄핵에 대해선 대규모의 집회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인과 논리를 주장한다. 그러나 찬성 진영은 불순 세력의 배후 조종이 ‘국정 불안과 경제 불안정’, ‘국정 혼란 및 정국 불안정’ 등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을 야기할 뿐이라는 논리를 강조하는 인과 해석 프레임이 구성된다. 사태 해결을 위해 찬성 진영이 즉각적인 자진 해산을 촉구하는데 비해, 반대 진영은 공식 선거 기간이 시작되면 그만둘 것이라는 자제력을 내세운다는 점이 각각 강조된다.

결국, 촛불 시위를 둘러싸고 정당한 시민권의 행사라는 관점과 은밀한 배후 세력의 조직적인 동원이라는 관점이 서로 대립하는 방식으로 정치 갈등 현실이 재구성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서로 대립하는 경쟁 프레임에 대해선 민주주의의 수호와 법질서 회복으로 각각 쟁점의 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다.

다. 탄핵 관련 방송의 편향성 시비

탄핵 관련 방송은 방송의 편향성 시비 논란을 또 하나의 경쟁하는 프레임들로 구성하였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민주당과 한나라당 관계자가 두 공영 방송사를 차례로 항의 방문하면서 이 문제가 탄핵 정국의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방송을 공격하는 진영은 친노 노선을 견지하는 공영방송의 본분 망각이 과도한 탄핵 방송과 방송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다며 방송사에 항의단을 보내고 편향적인 방송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한 반면, 옹호 진영은 야3당이 문화관광위원회를 개최하여 편향 방송 시비를 가리기로 해놓고도 회의에 불참했다고 비판하면서 방송사 항의 방문은 탄핵 역풍으로 수세에 몰린 야당의 괜한 트집잡기로 방송 흔들기를 통한 야권 압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대립상이 강조된다.

여권은 야권이 제기하는 편향 방송 시비를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규정하며 방송에 대한 야권의 규제 방침을 신군부 세력의 방송 장악이라는 역사적 사례에 견주거나 신 보도지침이라는 은유를 써가며 비판한다. 그러나 편향 방송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은유나 역사적 의미와 관련된 프레임 요소는 관찰되지 않았다.

편향 방송 시비에 관한 영상 이미지는 야당 의원의 항의 방문과 항의하는 야당

의원에 대한 방송사 직원의 반발로 대비되었다. 그러나 그 외의 영상 이미지는 등장하지 않는다.

야권은 방송위원회 심의를 촉구하는 해결책을 주장하며 논란을 벌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쟁점화의 강도가 낮아졌다. 결과적으로 쟁점이 사라져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편향 방송 시비는 공영방송의 본분 망각이라는 방송 공격 진영의 프레임과 야권의 정치 공세라는 방송 옹호 진영의 프레임이 서로 경쟁하면서 탄핵 정국의 갈등을 새 국면으로 전개시켰다. 편향 방송 시비를 둘러싼 이러한 경쟁 프레임은 각각 대여 공세 강화로 정국 돌파책, 야권의 수세 국면 전환책이라는 쟁점 프레임을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17> 편향 방송 시비에 대한 경쟁 프레임

쟁점 프레임	야권의 수세 국면 전환책	대여 공세 강화로 정국 돌파책
문제 정의	· 야당의 트집 잡기	· 공정성을 상실한 방송
쟁점의 주제	· 야권의 정치 공세	· 방송 편향성 제기를 통한 여권 압박
쟁점에 대한 입장	· 언론자유 중대 침해 · 방송옹호 입장	· 과도한 탄핵방송 · 방송사에 대한 불신
은유/ 비유	· 신 보도지침	특이 내용 없음
역사적 의미 (사례)	· 신군부 세력의 방송 장악	특이 내용 없음
영상 이미지	· 항의하는 야당 의원에 대한 방송사 직원의 반발	· 야당 의원의 항의방문
원인	· 야당의 방송사 항의 방문	· 공영방송의 본분 망각
결과 (전망)	없음	없음
해결책 (쟁점 해결원칙)	· 방송 흔들기 중단	· 방송위원회 심의 촉구

(3) 주제(맥락) 프레임의 유형과 변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탄핵 관련 방송의 주제(맥락) 프레임은 크게 7가지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국정 공백 프레임, 권한대행 체제 사태 수습 프레임, 경제적 결과 프레임, 정치적 결과 프레임, 시민 동요 프레임, 시민 저항 프레임, 국면 전환책 프레임이다. 국정 공백 프레임, 권한대행 체제 사태 수습 프레임, 경제적 결과

프레임, 시민 동요 프레임, 정치적 결과 프레임은 모두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에 대한 보도에서 추출되었다. 시민 저항 프레임은 촛불 집회 관련 방송에서, 국면 전환책 프레임은 편향 방송 시비 관련 방송에서 각각 도출되었다.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의 갈등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프레임이 도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각 프레임을 살펴보면, 국정 공백 프레임은 '국가 혼란', '외교 차질 불가피', '정치 현실을 개탄하고 국정 공백을 우려하는 시민들', '정국 불안을 우려하는 시민들', '향후 국정 우려', '국가 비상시국', '국정 운영 차질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계 부처 장관 회의 소집'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권한대행 체제 사태 수습 프레임은 '대국민 담화를 통한 사태 수습 시도', '최대한 빠른 권한대행 업무 시작으로 국정 공백 최소화하겠다는 총리실' 등으로 대표될 수 있다. 국정 공백 프레임은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정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민들의 혼란을 우려해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해가야 한다는 내용과도 연관이 있다. 권한대행 체제 사태 수습 프레임은 대부분 대통령의 권한 정지로 인한 국가 비상시국을 잘 대처하는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안정을 약속하는 이미지를 제공한다. 이런 점에서 두 주제(맥락) 프레임 모두 정국 안정화를 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경제적 결과 프레임과 정치적 결과 프레임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경제적 결과와 정치적 결과를 전망하는 프레임이다. 특히 정치 갈등 문제를 다루는 보도에서 자주 등장하는 경제적 결과 프레임은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 보도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경제 불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탄핵', '경제 불안 가능성', '지역 경제에 악영향 우려', '경제에 악영향' 등으로 대표된다. 정치적 결과로는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측면이 부각되었다. 이 두 주제(맥락) 프레임은 대개 정파간의 대립이나 사회 갈등적인 내용과 연관되므로 부정적인 의미를 구축할 수 있다.

시민 저항 프레임은 대개 촛불 집회 관련 보도에서 대두된 프레임으로 '전국적으로 연일 대규모 촛불 집회'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평화적 시위대'라는 인상을 부각시키는 측면을 중심으로 의미화가 이루어졌다. 이 주제 프레임은 보수 단체 시위 보도에서도 드러나지만 촛불 집회만큼 빈번하지는 않다. 국면 전환책 프레임은 주로 편향 방송 시비 관련 보도에서 도출된 프레임으로 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해 야권과 여권 모두 편향 방송 시비를 하나의 국면 전환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

(4) 방송사별 정치 쟁점에 대한 프레임 요소 분석

탄핵 정국의 정치 행위자와 정치 쟁점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과 경쟁 프레임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프레임 장치(프레임 요소)에서 방송사별 또는 프로그램 유형별로 현저성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양적 분석을 시도한 결과, 정치 행위자에 대한 이미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프레임 장치의 현저성에는 방송사나 프로그램 유형을 막론하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직 정치

쟁점에 대한 방송사별 프레임 요소의 현저성만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가.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프레임 장치의 방송사별 비교

탄핵소추안 가결 쟁점에 대한 주요 프레임 장치 중 문제 정의, 원인, 결과, 입장을 방송3사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방송3사 공히 탄핵 반대 진영의 시각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쟁점을 프레임 하기 위해 이러한 프레임 장치들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문제 정의를 보면, 탄핵 찬성 진영의 측면인 의회 민주주의의 승리는 방송3사 모두 가장 낮게 언급하였다. 한국방송과 서울방송은 국가적 혼란 상태를 탄핵안 가결 상황을 정의하는 1순위로 꼽았으며, 문화방송은 헌정 최초(28.9%)의 사건이라는 측면을 드러내었다. 그 외 정당성 결여, 경제적 불안 상황, 대통령 권한 정지는 방송3사가 비슷한 빈도 분포를 보였다.

탄핵안 가결에 대한 원인으로 방송3사 모두 야3당의 당리당략을 가장 강조하였다. 그 다음으로 대통령이 자초한 일, 총선 전략이 뒤를 이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방송의 경우 대통령이 자초한 일과 야3당의 당리당략 빈도가 46.3%와 49.3%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의 경우 야3당의 당리당략이 더욱 강조된 것을 볼 수 있다. 서울방송은 탄핵안 가결에 대한 책임을 야권과 대통령 양측에 비슷한 비중으로 돌렸던 반면, 문화방송과 한국방송은 책임 귀인을 주로 야권에 돌렸다고 할 수 있다.

탄핵안 가결에 대한 결과 또한 방송3사 모두 탄핵 반대 진영의 관점을 강조하였다. 방송3사 모두 국정 공백과 국정 혼란을 탄핵 정국의 결과로 전망했으며, 탄핵 찬성 진영의 목소리인 진정 국면의 도래와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이 탄핵안 가결에 대한 결과로 총선에 미칠 영향을 강조한데 비해, 서울방송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강조하는 점이 약간의 차이를 이룬다.

탄핵안 가결에 대한 입장은 방송3사 공히 탄핵 반대 목소리를 더욱 반영하였다. 전반적으로 탄핵안 가결 쟁점에 대한 언급의 총 빈도(1808회)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제 정의에서 강조하는 측면이 탄핵안 가결의 결과와도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18> 탄핵안 가결 쟁점에 대한 정의·원인·결과·입장

구 분		KBS	MBC	SBS	합 계
탄핵안 가결에 대한 정의	헌정사상 최초의	85 (11.7)	144 (28.9)	100 (17.1)	329 (18.2)
	정당성 결여	147 (20.2)	93 (18.7)	109 (18.7)	349 (19.3)
	국가적 혼란 상태	256 (35.3)	107 (21.5)	186 (31.8)	549 (30.4)
	경제적 불안 상황	61 (8.4)	41 (8.2)	71 (12.2)	173 (9.6)
	대통령 권한 정지	145 (20)	83 (16.7)	80 (13.7)	308 (17)
	의회 민주주의 승리	32 (4.4)	30 (6.0)	38 (6.5)	100 (5.5)
	소 계	726 (100)	498 (100)	584 (100)	1808 (100)
탄핵안 가결에 대한 원인	대통령이 자초한 일	74 (31.9)	48 (31.8)	75 (46.3)	197 (36.1)
	야3당의 당리당략	115 (49.6)	83 (55.0)	80 (49.4)	278 (51)
	총선 전략	43 (18.5)	20 (13.2)	7 (4.3)	70 (12.8)
	소 계	232 (100)	151 (100)	162 (100)	545 (100)
탄핵안 가결의 결과	국정공백과 국정혼란	215 (58.9)	122 (53.3)	171 (58.4)	508 (57.3)
	경제에 악영향	49 (13.4)	33 (14.4)	72 (24.6)	154 (17.4)
	총선에 영향	85 (23.3)	50 (21.8)	25 (8.5)	160 (18)
	진정국면의 도래	3 (0.8)	8 (3.5)	17 (5.8)	28 (3.2)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	13 (3.6)	16 (7.0)	8 (2.7)	37 (4.2)
	소 계	365 (100)	229 (100)	293 (100)	887 (100)
탄핵안 가결에 대한 입장	탄핵반대	71 (64.0)	86 (62.8)	54 (78.3)	211 (66.6)
	탄핵찬성	40 (36.0)	51 (37.2)	15 (21.7)	106 (33.4)
	소 계	111 (100)	137 (100)	69 (100)	317 (100)

나. 촛불 시위(집회)에 대한 프레임 장치의 방송사별 비교

방송3사의 촛불 집회 이슈에 대한 문제 정의, 원인, 결과, 입장을 살펴보면 방송3사 공히 탄핵 반대 진영의 시각을 부각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문제 정의 보면, 탄핵 반대 진영의 관점을 대변하는 국민적 울분의 발산(85.4%, 85.7%, 55.6%)이 지배적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탄핵 찬성 진영의 관점인 불법 집회(14.6%, 14.3%, 44.4%)는 그 언급의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다만 서울방송의 경우, 탄핵 반대 진영과 탄핵 찬성 진영이 고른 분포를 이루고 있어 상대적으로 편향성 정도가 낮았다고 해석 할 수 있다.

<표 3-3-19> 촛불 집회 쟁점에 대한 정의·원인·결과·입장

구 분		KBS	MBC	SBS	합 계
촛불집회에 대한 정의	국민적 울분의 발산	41 (85.4)	18 (85.7)	15 (55.6)	74 (77.1)
	불법집회	7 (14.6)	3 (14.3)	12 (44.4)	22 (22.9)
	소 계	48 (100)	21 (100)	27 (100)	96 (100)
촛불집회에 대한 원인	당리당략 탄핵 규탄	34 (97.1)	17 (100)	11 (84.6)	62 (95.4)
	불순세력의 배후조종	1 (2.9)	0 (0)	2 (15.4)	3 (4.6)
	소 계	35 (100)	17 (100)	13 (100)	65 (100)
촛불집회에 대한 결과	정국불안	3 (12)	0 (0)	5 (21.7)	8 (11.8)
	이어지는 대규모 집회	11 (44)	17 (85)	17 (73.9)	45 (66.2)
	총선심판	11 (44)	3 (15)	1 (4.3)	15 (22.1)
	소 계	25 (100)	20 (100)	23 (100)	68 (100)
촛불집회에 대한 입장	성숙한 시민 문화보장	12 (92.3)	9 (60)	15 (71.4)	36 (73.5)
	은밀한 배후세력의 조직적인 동원	1 (7.7)	6 (40)	6 (28.6)	13 (26.5)
	소 계	13 (100)	15 (100)	21 (100)	49 (100)

촛불 집회(시위)의 원인으로 방송3사 모두 탄핵 반대 진영의 주장인 당리당략 차원의 탄핵 규탄을 주요하게 언급하였으며, 탄핵 찬성 진영의 주장인 불순 세력의 배후 조종은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다. 문화방송의 경우, 탄핵 반대 진영의 목소리를 거의 드러내지 않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서울방송은 타 방송사에 비해 탄핵 찬성 진영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고 있다. 촛불 집회 이슈에 대한 결과로서 방송3사 모두 탄핵 반대 진영이 예상하는 '이어지는 대규모 집회'를 강조하는데 반해, 탄핵 찬성 진영의 정국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촛불 집회에 대한 입장의 경우, 방송3사 모두 탄핵 반대 진영의 주장인 성숙한 시민 문화 보장을 부각시키고 있다. 문화방송은 은밀한 배후 세력의 조직적인 동원이라는 탄핵 찬성 진영의 주장을 타 방송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빈번하게 언급하고 있다.

다. 편향 방송 시비에 대한 프레임 장치의 방송사별 비교

편향 방송 시비에 대한 문제 정의, 원인, 결과, 입장을 살펴보면 방송3사 공히 탄핵 반대 진영의 프레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정의를 보면, 편향 방송 시비를 야당의 트집 잡기로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우세하다. 편향 방송에 대한 원인으로 야당의 방송사 항의 방문과 공영방송의 본분 망각이 동시에 언급되고 있다. 방송사 간 비교는 어려우나 방송3사 전체적으로 탄핵 반대 진영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편향 방송 결과와 관련된 언급은 찾을 수 없었으며, 편향 방송 대한 입장 역시 양 쪽의 견해가 공히 언급되었으나 방송사 간 비교는 곤란하다. 전체적으로 편향 방송에 대한 경쟁적인 프레임은 구성되었으나 다른 쟁점에 비해 언급 빈도가 낮아 비교와 해석에 주의가 요망된다.

<표 3-3-20> 편향 방송 이슈에 대한 정의·원인·입장

구 분		KBS	MBC	SBS	합 계
편향방송에 대한 정의	야당의 트집 잡기	3 (60)	6 (85.7)	8 (88.9)	17 (81)
	공정성을 상실한 방송	2 (40)	1 (14.3)	1 (11.1)	4 (19)
	소 계	5 (100)	7 (100)	9 (100)	21 (100)
편향방송에 대한 원인	야당의 방송사 항의 방문	2 (66.7)	3 (60)	7 (100)	12 (80)
	공영방송의 본분 망각	1 (33.3)	2 (40)	0 (0)	3 (20)
	소 계	3 (100)	5 (100)	7 (100)	15 (100)
편향방송에 대한 입장	언론자유중대침해	0	5 (25)	1 (10)	6 (18.2)
	방송옹호입장	0	6 (30)	5 (50)	11 (33.3)
	과도한 탄핵방송	2 (66.7)	4 (20)	1 (10)	7 (21.1)
	방송사에 대한 불신	1 (33.3)	5 (25)	3 (30)	9 (27.3)
	소 계	3 (100)	20 (100)	10 (100)	33 (100)

16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촉발된 이른바 탄핵 정국에서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끌었던 이상의 세 가지 정치 쟁점에 대한 프레임 분석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제공한다. 정치 쟁점의 경쟁 프레임을 구성하기 위해 미디어가 동원하는 프레임 요소의 현저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가 관찰할 수 있는 방송사 사이의 미세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상파 방송3사는 대체로 쟁점의 주제나 내용과 관계없이 탄핵 반대 진영에 공명하는 프레임을 강조하는 쪽으로 현실을 재구성하는 보도에 주력했다는 점이다. 미디어 조직의 차이에 관계없이 이른바 미디어 프레임의 공명(resonance of the media frames)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합법적 논쟁의 영역에 위치한 정치 갈등을 매개하는 미디어의 의미화 투쟁은 경쟁 프레임의 발현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쟁점의 다양한 내용과 관계없이 본 연구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미디어 프레임의 일방적인 공명 현상은 단기적으로는 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장기적으로는 방송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방송의 사회적 통합 기능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

라. 주제(맥락) 프레임의 방송사별 비교

마지막으로, 주제(맥락) 프레임의 방송사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방송3사 공히 국정 공백 프레임을 가장 부각시켰으며 그 다음으로 정치적 결과 프레임을 강조하였다. 그 외의 주제 프레임들은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국면 전환책 프레임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시민 동요 프레임의 경우 한국방송이 서울방송과 문화방송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결과 프레임의 경우, 서울방송이 타 방송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표 3-3-21> 주제(맥락) 프레임의 방송사별 비교

구 분		KBS	MBC	SBS	합 계
주제 (맥락) 프레임	국정 공백	274 (38.5)	174 (37.3)	208 (36.2)	656 (37.4)
	권한대행 사태수습	67 (9.4)	61 (13.1)	58 (10.1)	186 (10.6)
	경제적 결과	55 (7.7)	43 (9.2)	80 (13.9)	178 (10.1)
	시민동요	127 (17.8)	44 (9.4)	64 (11.1)	235 (13.4)
	정치적 결과	123 (17.3)	103 (22.1)	118 (20.5)	344 (19.6)
	시민 저항	63 (8.8)	35 (7.5)	43 (7.5)	141 (8)
	국면전환책	3 (0.4)	7 (1.5)	4 (0.7)	14 (0.8)
합 계		712 (100)	467 (100)	575 (100)	1754 (100)

4. 담화분석

1) 연구방법

(1)비판적 담화분석 방법 채택의 배경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3월 12일부터, 방송 3사는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탄핵 관련 정보 및 논평을 제공하였다. 특히, 뉴스를 비롯한 보도 프로그램, 기획 취재 및 심층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심층 분석 보도 프로그램, 아침 및 이른 오후의 정보 제공 프로그램, 그리고 토론 프로그램은 장르의 속성상 탄핵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비판적 담화분석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

들이 직·간접적으로 방송사의 해석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선택된 의제를 최종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은 바로 '언어'이다. 따라서 "어떤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같은 사실을 전달하면서도 언어적 장치의 활용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이야기를 꾸밀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언어적 장치와 활용 방식에 대한 연구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관한 기계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비판적 담화분석'은 언어학적 시각에서 언론 현상을 분석해온 Roger Fowler (1991)의 비판 언어학 모델에 근거하며, 특히 반 다이크(van Dijk)에 의해 많은 뉴스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 같은 분석을 넓은 의미에서 '비판적 담화분석(CDA: critical discourse analysis)'라 지칭한다. 이 모델은 사실 할리데이(Halliday)의 언어 기능 모델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할리데이는 모든 언어가 세 가지 기능, 즉 관념적(ideational), 대인적(interpersonal), 텍스트적(textual)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Fowler는 언어분석에 필요한 네 가지 요소를 추출하였다. 첫 번째는 언어의 관념적 기능의 일부인 '타동성(transitivity)'으로, 이는 전통적 문법에서 말하는 타동성과는 다소 다른 의미이다. 타동성은 문장이 사건이나 상황을 특정 유형으로 표현하는 데에 활용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서 같은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재주이며, 경우에 따라 이 표현 방식에 의해 이데올로기적 유의미성을 가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능동태 문장은 행위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명확한 책임을 암시하지만, 수동태 문장의 경우 행위자를 은폐하는 대신 피동 참여자를 강조한다. "경찰이 총을 쏴서 소년을 죽였다"와 "소년이 총에 맞아 숨졌다"라는 문장의 차이가 한 예로 제시될 수 있다. 신문, 특히 신문의 헤드라인에서는 지면 등의 이유로 수동태를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의미화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두 번째 요소는 어휘 구조(lexical structure)이다. 어휘 구조를 통해 언어는 사물, 개념, 과정, 관계 등의 지도를 그린다. 특정 집단을 '자유 전사'로도 '테러리스트'로도 지칭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어간의 관계도 어휘 구조의 일부이다. '개'를 표현하기 위하여 '개와 고양이'라는 대구를 활용하거나 암시하는지, 아니면 '개와 동물'이라는 전체-부분 관계를 활용하는지에 따라 의미는 상이해진다. '사회주의' 역시 '자본주의'와 한 쌍으로 활용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국주의'의 반대편에 있음을 암시할 수도 있다.

세 번째 요소는 양태(modality)이다. 이는 할리데이가 지칭한 언어의 대인적 기능 중 일부이다. 즉, 개인적 역할과 사회적 관계의 중재 임무를 담당하며, 화자(언어의 주체)의 코멘트나 태도로 간주된다. 양태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진실(truth)양태는 "우리 팀이 이길 것이다"에서처럼 '진실화'하는 방식이고, 의무(obligation)양태는 "너는 자야 한다"에서처럼 당위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허용

(permission)양태는 “~수도 있다”에서처럼 소극적 수준에서 단정하는 방식이며, 호의(desirability)양태는 “네가 틀렸다”에서처럼 평가를 수반한 형용사, 부사 등을 통해 가치 판단하는 경우이다.

파울러가 언급한 마지막 요소는 화행(speech acts)이다. 이는 언어의 대인 기능의 일부로, 개인적 역할과 사회적 관계의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어스틴(Austin), 써얼(Searle) 등의 언어철학자들이 지적했듯이, 언어는 실천이며 행위 양식이다. 즉 말을 통해 무언가를 행동한다. 예를 들어 “부부로 선언한다”라든지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마”라는 말은 사실인지 여부를 물을 수 없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단지 행위의 적절성에 의해 평가될 뿐이다.

이상의 네 가지 요소를 원용하여 언론 현상에 적용한 사례는 많이 있으나 (Graddol and Boyd-Barrett, 1994; Teun van Dijk, 1998; Triandafyllidou, 1995; MacMillan and Edwards, 1999; 김용진, 2002 등), 대부분의 연구는 신문 기사의 분석에 치우쳐왔다. 인쇄 매체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자료 수집이 비교적 용이하고 연구 절차가 단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글로 써진 언어의 경우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구술 언어에 비해 보다 정제되어 있다는 점도 큰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텔레비전이라는 영상매체의 내용물을 분석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앞서 소개한 비판적 담화분석 연구들과는 다소 다를 수밖에 없다. 텔레비전 중 구술 언어는 사실상 매체가 전달하는 수많은 언어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구술 언어 이외의 음향도 하나의 언어 역할을 하며, 조명, 앵글, 카메라 기법 등도 별도의 영상 언어를 구성한다. 화자의 억양이나 발음도 의미 전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모든 부분을 총체적 ‘언어’로 간주하여 분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오히려 원래 파울러의 출발점이었던 문자언어 틀로 돌아가서, 텔레비전이 전달하는 ‘구체적 언어’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이 비판적 담화분석의 목표의식에 부합된다. 즉, 텔레비전을 통해 전달되는 ‘말소리’의 언어적 표현 장치를 분석함으로써 탄핵 관련 텔레비전 보도의 언어적 특성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2) 분석 대상 및 분석 유목

본 연구는 앞서 소개한 모델이나 연구의 틀들을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별도로 진행된 프레임 분석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분석 틀에서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탄핵 관련 방송물에 대한 사회비판적 담화분석은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

우선, 분석의 대상은 조사 대상 기간(3/12~3/20) 중 방송된 보도물, 심층분석보도물, 교양정보물, 토론물의 '사회자' 멘트에 한하기로 하였다. '사회자'란 뉴스의 앵커, 심층분석보도물 사회자, 교양정보물의 MC, 토론물의 진행자를 지칭한다. 분석 대상 프로그램은 3개 주요 방송사의 정규 뉴스 및 특보와 17개 정규 프로그램들이다. 심층분석보도물로는 한국방송의 〈취재파일4321〉, 〈추적 60분〉, 〈미디어포커스〉, 문화방송의 〈시사매거진2580〉, 〈PD수첩〉,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 서울방송의 〈생방송 세븐데이즈〉, 〈뉴스추적〉 등 8개, 교양정보물은 한국방송의 〈생방송 세상의 아침〉, 문화방송의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과 〈생방송 화제집중〉, 서울방송의 〈생방송 모닝와이드〉와 〈생방송 투데이〉 등 5개, 그리고 토론 프로그램은 정규 프로 4개 (〈100인토론〉, 〈생방송 심야토론〉, 〈100분 토론〉, 〈SBS 대토론〉)와 특별 편성된 2개 프로그램 (한국방송과 문화방송 각 한 개)이었다. 이 기간 중 1회 이상 방송된 프로그램의 경우 전일치를 모두 분석에 포함하였다.

파울러가 제시한 네 가지 요소를 활용하여 상기 프로그램의 사회자 멘트를 분석하되, 연구 목적에 부합되도록 일부를 수정하였다. 첫째, 타동성 분석에 있어서는 수동태 활용 방식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피동 참여자가 사람인 경우로 제한되었는데, 이는 사물 주체가 생략된 수동태의 경우 함의가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어휘 구조 분석은 프레임 분석에서 상당 부분 소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셋째, 양태 분석의 네 가지 유형을 모두 살펴보았다. ① 진실 양태가 제시되었는가? - 화자 이외의 행위 주체에 대한 진실 양태가 등장하는지 여부를 보았으나, 그중 평범한 사실을 전달하는 '단순 진실' 형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② 의무 양태가 제시되는가? - 문장의 맥락상 화자의 '적극적 근거성'이 담보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사실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나타내거나 지식을 얻는 방식과 관련된 문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③ 허용 양태가 제시되는가? - 문장의 맥락상 화자의 '소극적 근거성'이 담보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추측, 의심, 개연성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④ 호의 양태가 제시되는가? - 화자의 적극적 '평가'가 개입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넷째, 화행 분석을 통하여 화자의 주장이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모든 사회자 멘트 중 여섯 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포함되는 문장이 있으면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문장 안에 두 개 이상의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고, 문맥상 두세 개 문장을 떼어놓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여섯 가지 항목을 좀더 자세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타동성 : 사회자 멘트 중 피동 참여자가 사람인 수동태 문장이 사용될 경우.

▶ 진실 양태 : (화자가 아닌) 행위 주체에 대한 진실 양태가 등장하는 경우. 예를 들어, “그들은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라는 문장의 ‘분명히’와 ‘~할 것이다’는 진실 양태를 보여주는 요소들이다. 단, 사실에 근거한 단순 진실 (“한국팀이 크게 이겼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적극적 근거성 : 화자의 의도가 개입되어 의무 양태가 등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문법적으로 볼 때, 필연/의무 서법 조동사, 강조 부정 접속사, 강조 순접 연결사가 사용된 경우이며, 맥락상 적극적 근거성이 담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립/대조/양보 연결사나 확신/강조 부사가 사용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해야 한다, ~해야 옳다, 필요하다 (이상 필연/의무 서법 조동사), 결코, 추호도, 아무도 (이상 강조 부정 접속사), 게다가, 더구나 (이상 강조 순접 연결사), ~할망정, 어떻든, 차라리 (이상 대립/대조/양보 연결사), 그야말로, 역시, 하물며 (이상 확신/강조 부사) 등이 적극적 근거성을 보여주는 요소들이다.

▶ 소극적 근거성 : 화자의 의도가 개입되어 허용 양태가 등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문법적으로 볼 때 개연/추측 서법 조동사, 축소 표현, 의심/개연 부사가 사용되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 단, 맥락상 ‘소극적 근거성이 담보되는 경우에 한한다. 예를 들어, “한국팀이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는 소극적 근거성으로 볼 수 있으나 “유가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는 사실에 근거한 표현으로 간주하는 것이 옳다. 예로는 할 것이다, 일 것이다, 듯싶다, 단, 다소, 대개, 아마도, 보편적으로 등을 들 수 있다.

▶ 판단 표현 : 화자의 가치판단이 개입된 호의 양태가 등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옳다, 그르다, 실망스럽다 등의 평가적 동사나 놀랍게도, 유감스럽게도 등의 평가적 부사는 물론 “구렁텅이에 빠졌다”, “날개를 달았다” 등의 비유를 통한 평가적 명사의 사용도 여기에 포함된다.

▶ 주장 : 화자의 주장이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 즉 화행 동사가 사용되는 경우이다. 강조한다, 주장한다, 촉구한다, 권고한다, 경고한다 등을 말하며, 같은 효과를 갖는 화행 부사나 형용사의 사용도 여기에 포함된다.

(3) 발언권 관리 형태 분석

비판적 담화분석과는 별도로, 토론 프로그램에 한하여 진행자의 역할에 대한 보조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토론 프로그램은 형식상 각각의 토론자에게 할당된 토론 시간이 정해져 있고, 토론의 소주제로 미리 구성한 뒤 소주제별로 자연스럽게 진행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토론의 진행자의 공정성이나 프로그램 구성의 기저의 이데올로기를 살펴보는 데에는 보다 심도 있고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토론자의 발언 회수나 시간을 체크하여 분석하는 것은 표면적인 결과만을 산출하여 큰

의미를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데, 그중 하나가 진행자의 토론 발언권 관리 형태 분석이다. 토론 프로그램은 다른 장르와는 달리 진행자의 역할이 정보 제공이나 해설에 있지 않고 정보나 의견의 안내자 역할만을 담당한다. 프로그램의 실질적 주연인 다른 참여자들에게 논쟁거리를 제공하거나 논의 진행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찬반양론이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일 경우, 진행자의 발언권 관리는 매우 중요해진다. 어떤 참여자에게 발언권을 주고 어떤 참여자의 발언을 제지하는가에 따라 프로그램의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언어학의 도구를 활용하여 진행자의 발언권 관리 양식을 분석함으로써 토론자에 대한 진행자의 태도와 치우침의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세부적으로는, 토론 프로그램 진행자의 발언권 관리 양식 중 토론자에게 발언권을 주고 빼앗는 양식을 살펴봄으로써 진행자의 언어를 분석하였다. 토론자의 발언권을 주고 빼앗는 데에는 사회자 외에 토론자들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연구의 목적상 이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오직 토론자에게 사회자가 어떠한 문장 형식이나 비언어적 도구를 활용하여 발언권을 부여하고 또 빼앗는지를 살피는 것을 그 연구 내용으로 한다.

발언권 관리 양식은 발언권을 주는 행위와 뺏는 행위로 나눌 수 있으며, 주는 행위는 다시 개별적 발언권 주기와 집단적 발언권 주기로 구분할 수 있다. ‘개별적 발언권 부여’는 사회자가 토론자에게 명령형이나 청유형의 문장으로 발언권을 부여하는 경우이다. ‘집단적 발언권 부여’는 특정 토론자를 명시해서 발언권을 주지 않고 찬·반 집단 중 하나를 적시하여 그 집단에게 발언권을 부여하는 경우이다. ‘집단적 발언권 부여’의 경우, 토론자를 직접적으로 호명하지 않고 집단 내 자율권을 허용함으로써 암시적으로 그 내부의 가변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발언권 빼앗기 행위 역시 직접적으로 발언권을 빼앗는 경우와 간접적으로 발언권을 빼앗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명시적으로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발언 기회를 봉쇄하는 행위이고, 후자는 명시적이지 않은 말이나 비언어적 표현으로 발언권을 빼앗을 경우이다. 실제로, ‘간접적 발언권 박탈’은 흔히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발언권을 빼앗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회자의 의도로 해석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직접적 발언권 박탈’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토론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와 토론의 주제에서 벗어났다고 진행자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다른 경우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다.

분석 대상이 된 토론 프로그램은 총 6개였다. 전문가를 초빙하여 대담 형식으로 진행한 특집 프로그램은 제외되었고, 탄핵에 대한 분명한 찬·반 토론자가 출연하여 토론을 벌인 프로그램에 제한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여섯 개 프로그램의 진행자 및 토론자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4-1> 토론 프로그램의 진행자 및 출연자

제 목	방송사	방송일	진행자	토론자 (탄핵 찬성)	토론자 (탄핵 반대)
대통령 탄핵, 대한민국 ... (특집)	KBS-1	3/13	송지헌 이규원	노동일, 김용호	김동춘, 김경란
생방송 심야토론	KBS-1	3/13	정관용	송병대, 박상희, 제성호	김부겸, 김수진
생방송 심야토론	KBS-1	3/20	정관용	김영선, 김경재, 서준원	송영길, 노회찬
100인토론	KBS-2	3/14	김주환	이동복, 최한수	김재홍, 조기숙
100분토론	MBC	3/18	손석희	석종현, 이승환	김종철, 김동기
긴급토론 (특집)	MBC	3/12	손석희	김성훈, 강경근	김영래, 이필상, 유창선
SBS대토론	SBS	3/12	염재호	김용균, 최한수, 전여옥	유시민, 김재용, 서영석

(4) 연구 절차

프로그램 사회자 멘트의 비판적 담화분석을 위해, 우선 대상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12일과 13일의 모든 특집 프로그램 및 17개 정규 프로그램이 그 대상이 되었으며, 메인 사회자 이외의 출연진이 발언하는 내용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뉴스에서도 기자의 리포트는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단, 특별 진행을 위해 방송 시간의 상당 부분을 제 3의 사회자가 진행하는 경우,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문화방송의 정규 뉴스에서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문기자(박광온 기자)가 상당 시간 동안 앵커의 역할을 대신하는데, 이 경우 박광온 기자를 일시적 앵커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 첫 번째로 필요한 자료는 분석 대상 프로그램의 스크립트를 만드는 작업이었다. 프로그램 중 일부는 인터넷 등을 통해 스크립트가 이미 나와 있기도 하지만, 특히 12, 13일의 특집 프로그램들은 스크립트를 별도로 만들어야 했다. 언론학 관련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이 참여하여 모든 프로그램의 모든 사회자 멘트를 문자화하였다.

이어서, 해당 프로그램의 사회자 멘트 중 앞서 언급한 여섯 가지 요소가 하나라도 포함된 문장을 별도로 뽑아내어 정리하였다. 준비된 스크립트를 근거로 정리하였으나, 발언의 문맥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동영상을 참고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취지와 분석 틀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연구원 및 보조 연구원 2인이 이 작업을 담당하였다. 엄밀한 기준에 근거하여 통계적 처리를 위한 코딩 작업을 하는 절차는 아니었으므로 코더 간 신뢰 계수를 측정할 필요나 방법은 없었으나,

일관된 작업을 위해 일부 프로그램은 공동 작업으로 정리를 하였고 나머지 프로그램도 연구자 간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환하며 자료를 정리하였다.

자료는 ① 프로그램 제목, 방송사, 방송 시간 ② 화자(사회자) ③ 멘트(문장) ④ 해당 사항(6개 항목 중 하나 이상) ⑤ 기타 주요 사항의 틀로 정리하였다. '기타 주요 사항'에는 언어적 표현의 구체적 도구가 명확할 경우 메모하였고 (예를 들어 '강조 순접 연결사 사용'), 간단한 함의 (예를 들어 '근거가 불분명한 단정')를 함께 기록하였다. 정리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문장이었으나, 분석 단위의 일관성보다는 의미의 파악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 개 이상의 문장을 하나의 케이스로 간주하기도 했다. 반대로, 한 문장에 두 개 이상의 언어 표현 방식이 활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케이스의 수와 활용 항목의 총계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 결과 케이스의 수는 총 609개, 활용 항목의 누계는 900개로 나타났다.

담화 방식의 정리 내용은 크게 3 단계로 나뉘어 분석되었다. 첫째, 여섯 개 항목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찾아냄으로써 전체적 윤곽을 그리는 작업이다. '타동성'이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판단 표현'은 언제 주로 사용되는지 등을 요약함으로써 탄핵 관련 프로그램 사회자 멘트의 전반적 성격을 정리하는 작업니다. 둘째, 제도적 구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는 작업이다. 방송사별 차이, 프로그램 유형(장르)별 차이, 그리고 방송 시기별 차이를 비교하였다. 방송 시기는 특집방송으로 채워졌던 12, 13일과 그 이후(14~20일)로만 구분하여 두 시기를 비교하였다. 셋째, 표현 방식의 결과, 즉 내용상의 특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는 다시 행위 주체별 비교와 이슈별 비교로 구분되는데,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에 관한 언급에서는 주로 어떤 항목이 활용되고 어떤 함의를 드러내는지 찾는 작업이다. 주요 행위 주체로는 정치인(권) 일반, 우리당, 야 3당, 노무현 대통령 및 청와대, 고건 총리 및 정부 관료, 국민(시청자) 일반 등 6 주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탄핵 관련 주제로는 탄핵 가결 과정 및 탄핵 사태, 전망과 예측, 각계의 반응 등 3개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앞서 언급한 대로 토론 프로그램 진행자의 발언권 관리 양식을 분석하였는데, 이 과정은 비교적 단순했다. 화면을 직접 보면서 발언권과 관련된 진행자의 멘트나 제스처를 기록하였고, 누구에게 발언권을 주는지, 혹은 누구로부터 발언권을 뺏는지 정리하였다. 출연한 토론자들은 탄핵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로만 구분하였다. 그 결과 7개 프로그램을 통틀어 발언권 부여 발언은 총 187회, 발언권 박탈 발언은 총 33회 활용되었다. 프로그램 당 평균 30회 이상의 발언권 관리 발언이 행해진 셈이다. 한편, 빈도의 확인 이외에, 발언권 박탈의 이유도 함께 메모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 진행자가 토론자의 발언을 중지시켰는지도 살펴보았다.

2) 연구 결과

(1) 표현 방식에 따른 구분

분석의 틀로 사용한 언어적 표현 기법은 타동성, 진실 양태, 적극적 근거성, 소극적 근거성, 판단 표현, 주장 등 여섯 가지였다. 우선 사용 횟수를 보면, 총 586개 케이스를 통틀어 857회의 언어적 표현 기법이 활용되었다. 그 중 타동성이 29회(3.2%), 진실 양태가 167회(18.6%), 적극적 근거성이 158회(17.6%), 소극적 근거성이 147회(16.3%), 판단 표현이 360회(40.0%), 주장이 39회(4.3%)였다.

물론 여섯 개 표현 기법 중 하나 이상이 활용되었다고 해서 그 표현에 문제가 있다거나 저널리즘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묘사하면서 '아마도'와 같은 의심/개연 부사나 '~듯싶다'같은 개연/추측 서법 조동사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분석 결과로 나온 900회의 표현 기법 그 자체가 문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함축하면서 사용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정확하지 않거나 뚜렷한 근거의 제시가 수반되지 않은 채 진실 양태를 활용했다면, 이는 언어적으로도 잘못된 용례일 뿐 아니라 저널리즘의 기본적 원칙에 어긋난 멘트일 것이다. 판단 표현의 경우, 화자의 평가나 가치판단이 개입되어 있음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보도물에서 피해야 할 표현 기법이다. 그러나 맥락을 무시하고 무조건 판단 표현을 하면 안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의 경기에서 실수를 연발한 특정 선수의 활약상을 '실망스러웠다'고 표현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즉 정확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공감을 만들 수 있는 하자 없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섯 가지 표현 기법이 각각 어떤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었는지 살펴보았다. 계량적으로 쉬이 판단될 수는 없는 문제이므로 적절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두드러진 특성 위주로 요약할 것이다.

가. 타동성

타동성 표현은 주로 문장의 실질적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기술된다. 그리고 그 주체는 대개 '대부분의 사람', 혹은 '전체 국민'을 가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민'을 숨겨진 주어로 암시하면서 실제로는 화자(혹은 방송사)의 입장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예상된다", "우려된다", "관심을 끈다" 등의 문장에서는 예상과 우려와 관심의 주체가 생략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들 문장의 주어가 될 만한 뚜렷한 근거는 없다. 결국 수동태 형식을 빌려 화자의 주장이나 가치 평가를 제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타동성이 사용된 문장은 방송사의 입장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분석 대상 중 타동성이 활용된 문장은 29개(3.2%)로 그리 많지 않았지만 활용되는 맥락은 비교적 일정했다. 향후 정국이나 경제에 대한 예상을 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었는데, “탄핵 이후 총선에 대한 정치권의 대립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3/12, KBS)라든지 “파병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3/13, SBS)가 대표적 사례이다. 이밖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총선 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 탄핵 가결로 인해 경제 회복이 더디어질 것이라는 예상, 대립 국면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 등이 타동성을 활용하여 제시되었다. 뚜렷한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으나 상식적으로 예상 가능한 경우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부정적 예상을 하는 경우 타동성 도구가 자주 활용되었다.

문법상 분명한 수동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용상 수동태의 성격을 띈 문장도 많았다. 주로 주어를 생략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의 경우 사실상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많은 말을 한다”가 축약된 문장이다. 주어를 감춤으로써 얻는 효과는 분명한 수동태 문장과 유사하다. 이 역시 대부분 뚜렷한 근거 없이 미래를 예측하거나 현상을 진단할 때 사용되었다. “~가 아니냐는 풀이도 나오고 있습니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반 국민의 해석인지, 전문가의 해석인지, 아니면 사회자가 소속된 방송사의 기자(들)가 풀이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물론 “왕수석으로 불렸던 문재인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서처럼 특별한 의도나 의미 없이 활용된 수동태 문장도 종종 있었다.

나. 진실 양태

방송 보도가 진실 양태를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경우는 특정 주체나 사물, 개념 등을 객관화시킬 때이다. 가치판단이 개입된 단어가 활용되지 않음으로써 방송사의 주관이 개입된 문장이 아니라고 시청자는 느끼지만, 실상 ‘정의(definition)’나 다름없는 표현을 활용함으로써 주관적 평가를 함축한다. “~에 국민의 이목이 쏠려있습니다”라는 표현은 가치가 개입된 문장이 아니다. 하지만 사실상 국민들이 여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특별한 근거 제시 없이) 강조함으로써 방송사 스스로 정의를 내리거나 주요 논제(agenda)로 설정하게 된다.

분석 대상물 가운데 진실 양태가 사용된 경우는 총 162건(18.9%)이었는데, 활용된 맥락은 대체로 일정했다. 첫째, 근거가 부족한 채 사실을 정의하는 경우이다. “우리의 국가 시스템은 …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저력이 있으니까요”, “나라를 먼저 생각한 사람들은 보통 시민들이었습니다”와 같이 검증될 수 없는 언술을 격려의 차원에서 사용하는 경우이다. 검증이 어려울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논란의 여지가 큰 진실 양태도 종종 발견된다. 대표적인 예로는“(대통령의 권한 이양에 관하여) 외교, 국방.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한국방송, 3/12)라든지 “지금 당장 경제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서울방송, 3/12), 혹은 “가장 고충을 겪는 사람들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치 신인입니다”(문화방송, 3/18)와 같은 멘트가 있었다.

둘째, 일반화를 시도하는 경우이다. “모두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같은 류의 표현인데, 종종 일반화를 넘어 과장 표현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각 가정과 식당 등에서는 가족과 친구 동료 등이 함께 모여서 나라 걱정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문화방송, 3/12), “의회 민주주의의 승리인지 의회 쿠데타인지는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한국방송, 3/17) 등은 내용의 축소, 과장, 왜곡을 피해야 한다는 각 방송사 강령에도 어긋난 사례들이다.

마지막으로, “~이다”의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수식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진실 양태의 효과를 낳는 표현들도 있었다. 부산을 가리켜 “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묘사한다든지, 대전·충남 지역을 가리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곳”이라고 전제한 후 다음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은 앞서 언급한 일반화나 과장의 가능성을 더욱 크게 만드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다. 적극적 근거성

적극적 근거성은 주로 화자가 서술 내용을 강조하고 싶을 때 활용하는 표현 기법이다. 따라서 적극적 근거성의 활용 그 자체가 내용의 왜곡을 불러오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화자의 의도에 따라 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와 “경제 사정도 가뜩이나 어려운데”는 의미상 큰 차이는 없지만 부각되는 정도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탄핵 관련 사회자 멘트에서 적극적 근거성이 활용된 경우 역시 대개 강조를 위해서였다. “곧바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야말로 국론 분열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덜 심각한 상황”, “무엇보다도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표결 과정은 어쨌든 볼썽 사나왔습니다”, “정략적 대결로만 진행됐던 72시간”, “탄핵 정국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내분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까지 조작해서 방송을 하라고 하는군요”, “그 어느 때보다 가열된 여야의 총선 입씨름”, “관심은 온통 여기에 쏠려있습니다”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강조 부정/강조 순접 연결사, 대립/대조/양보 연결사, 확신/강조 부사를 첨가함으로써 서술 내용을 한층 강조하였다.

라. 소극적 근거성

적극적 근거성이 사실의 강조를 위하여 활용되었다면, 소극적 근거성은 개연성을 강조하거나 불확실한 추측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우선, 확실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소극적 단정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재계의 우려가 클 것 같은데”, “이렇다 할 동요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상당한 협의가 있었던 듯”, “이게 바로 우리의 저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등의 멘트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 강조나 단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의 왜곡일 가능성은 없는 표현 기법이지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방송사가 자주 이용해서는 안 되는 기법이기도 한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사실처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은 탄핵 가결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민생을 챙기는데 주력하겠다면서...”라는 멘트는 ‘한나라당이 민생을 강조하는 것은 탄핵 가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상쇄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인가 보다’라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 이 해석은 옳을 수도 그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옳다는 근거나 논리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실 확인이나 진실 검증을 위한 노력 없이 추측성 표현을 남발하는 것은 좋은 저널리즘의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미래에 있을 일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거나 예측할 때 역시 소극적 근거성이 활용되었다. “대치 정국이 쉽게 풀릴 것 같지가 않아요”,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역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일 것 같아요”, “적지 않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탄핵 규탄 집회가 전국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등의 표현이 그 예이다. 그런데, 상식적이거나 확실한 일을 관습처럼 굳이 소극적 근거성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마지막으로, 국민(시청자)에 대한 소극적 권고의 형식으로 소극적 근거성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우리가 ... 냉정하게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든지 “그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같은 경우이다.

마. 판단 표현

판단 표현이란 앞서 설명한 대로 화자의 가치판단이 개입된 호의 양태가 등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평가’를 수반하는 경우인데, 이는 부사나 동사는 물론 명사의 형태로도 활용된다. 화자의 가치가 개입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2003년 개정된 문화방송 방송 강령에도 보도 시사 프로그램의 경우 “기자 개인의 의견을 보도에 삽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한국방송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에도 “의견을 마치 사실인 양 위장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 대상 중 판단 표현이 사용된 경우는 360건으로 상당히 많았다. 물론 이 중에는 문맥상 용인될 수 있는 판단 표현도 적지 않게 있었다.

판단 표현은 말 그대로 특정 사람이나 사물, 사건에 대한 판단이다. 따라서 활용 사례의 특징적인 공통점이나 경향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단, 동일한 서술 대상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된 활용 방식이 발견된다.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는 주로 분노나 울분과 관련된 평가적 형용사가 사용되었고 탄핵안 가결이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주로 당혹이나 혼란과 관련된 표현 기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개별적 대상에 대한 판단 표현의 구체적 내용은 행위 주체나 관련 쟁점에 따른 비판적 담화분석 결과 분석 부분에 별도로 기술하였다.

판단 표현의 사용이 바람직한 저널리즘의 실현에 반드시 장애가 되는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대로, 충분히 용인 가능한 사례들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 반응이 '신중하고 절제된 내용'이었다는 멘트의 경우, 이는 분명 평가가 개입된 경우지만 동시에 미국 반응을 간결하게 요약해서 알려주는 역할도 한다. 따라서 판단 표현의 문제는 맥락의 문제이자 정도의 문제이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분명한 건, 저널리즘 관련 프로그램의 사회자가 멘트를 할 때에는 근거 없는 매도나 감정의 과잉이 있어선 안 된다는 점이다.

바. 주장

마지막으로 주장 표현은 화자가 명시적으로 주장이나 권고, 당부를 하는 경우이다. 보도 프로그램에서는 대부분 터부시되는 표현 기법이지만 교양·정보 프로그램이나 심층 분석 보도 프로그램에선 심심치 않게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고, 탄핵의 경우에서처럼 사회 불안 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보도 프로그램의 사회자도 종종 주장 표현을 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중 명시적 주장이 등장한 경우는 39회였다.

39회의 주장 표현 중 대부분은 국민(시청자)에 대한 당부였다. 유가가 급상승하면 뉴스 앵커도 "에너지를 절약합시다"라는 캠페인성 멘트를 자연스럽게 하듯, 탄핵 가결로 혼란스러워진 상황에서 "동요하지 맙시다"라는 당부를 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모아질 때입니다", "성숙한 시민 의식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제 침착하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혜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등의 멘트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밖에, 불상사 없는 집회를 바란다거나 선거에 꼭 참여하라는 내용 등이 있었다.

국민에 대한 당부 이외에는 아주 산발적으로 정치인들을 향한 직접적 촉구와 미디어 기관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정치인들, 다시 한번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한국방송, 3/14), "각 당이 ... 긍정적인 선거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한국방송, 3/20) 등은 정치인들을 향한, "이럴 때일수록 언론은 갈등의 해소와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합니다"(한국방송, 3/20)같은 멘트는 미디어를 향한 주장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사. 표현 기법 분석 요약

앞서 밝힌 바대로, 900회의 표현 기법이 사용된 609개의 케이스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에서 예시했듯, 문맥을 고려하더라도 공정 보도 및 균형 보도와 관련하여 각 사가 정한 강령이나 가이드라인의 내용에서 상당히 벗어난 경우들 또한 많았다. 다음 <표 3-4-2>는 사회자 멘트의 표현 기법 상의 문제점을 정리한 것이다.

<표 3-4-2> 사회자 멘트의 표현 기법 상 문제점

표현 기법	사용 회수	활용방식	대표적 활용사례	해석
타동성	29회	상식적으로 예상 가능한 경우	“정치권의 대립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뚜렷한 근거 없는 예측을 일반화
		해석의 주체를 불분명하게 표현하는 경우	“분열상을 키우는 선거로 치닿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많거든요”	사회자(방송사) 의견의 간접적 표명
진실 양태	167회	사실에 대한 정의	“지금 당장 경제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거 제시 없는 단정
		(과장된) 일반화	“가족과 친구, 동료 등이 함께 모여서 나라 걱정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근거 제시 없는 일반화/과장
적극적 근거성	158회	의미의 강조	“무엇보다도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평가나 주장에 대한 확신/강조
소극적 근거성	147회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소극적 단정	“재계의 우려가 클 것 같은데...”	뚜렷한 근거 없이 개연성 제시
		조심스러운 전망/예측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뚜렷한 근거 없는 추측
		시청자에 대한 소극적 권유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극적 수준의 주장/촉구/당부
평가 표현	360회	화자의 가치판단이나 평가가 개입된 표현	(주체 및 주제에 대한 표현기법 분석결과 참조)	
주장	39회	국민(시청자)에 대한 당부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모아질 때입니다”	주장/촉구/당부
		정치인 및 언론에 대한 당부	“정치인들, 다시 한번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장/촉구/당부

위의 <표 3-4-2>에서 볼 수 있듯이, 표현 기법과 무관하게 부각되는 문제점은 정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을 하거나 예측을 하는 경우, 그리고 주의 주장을 제시하는 경우이다. 단정이나 예측은 사실 ‘정도’의 문제이다. 단정이나 예측이 포함된 문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극히 상식적이거나 명약관화한 사실일 경우라면 문제 있는 보도 태도라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판단의 주체가 방송사라는 점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 기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주의 주장을 펴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시청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활용인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직접적 주장보다는 정확한 사실과 공정한 논평 그 자체가 더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문화방송 방송 강령도 “논평과 해설은 시·청취자 스스로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확한 사실의 바탕 위에서 합리적 설명이 되도록 한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합시다”와 같은 구체적 방식으로 시청자들에게 권유하는 것은 사회자가 가급적 삼가 해야 할 표현 기법이다.

(2) 언어적 표현 기법의 방송사별 비교

여섯 개 언어적 표현 기법을 방송사별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계량적으로는 다음 <표 3-4-3>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빈도만을 고려했을 때, 방송사 간 두드러진 차별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3-4-3> 언어적 표현 기법의 방송사별 비교 단위 (%)

구 분	타동성	진실 양태	적극적 근거성	소극적 근거성	판단 표현	주장	계
KBS	17 (4.7)	64 (16.9)	70 (18.5)	69 (18.2)	140 (36.9)	19 (5.0)	379 (100.0)
MBC	1 (0.4)	50 (21.6)	40 (17.2)	41 (17.7)	95 (41.0)	5 (2.2)	232 (100.0)
SBS	11 (3.8)	53 (18.3)	48 (16.6)	37 (12.8)	125 (43.3)	15 (5.2)	289 (100.0)
합계	27 (3.2)	162 (18.9)	143 (16.7)	133 (15.5)	356 (41.5)	36 (4.2)	900 (100.0)

세 방송사 모두 판단 표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앞서 언급한 대로 타동성을 활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문화방송은 다른 두 방송사에 비해 진실 양태를 비교적 자주 활용하는 반면 타동성과 주장 표현은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치상으로 드러난 차이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표현 기법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의 문제일 것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같은 표현 기법을 사용한 사례들 간의 심층적인 내용 비교가 필요하다. 즉, 같은 '진실 양태'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 어떤 단어나 표현을 활용하였는지를 비교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비교 결과, 방송사 간의 두드러진 차이를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었다.

첫째,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나 탄핵 사태 그 자체를 묘사한 판단 표현들이다. 국민 반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충격'이나 '당혹'같은 평가적 표현을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것은 세 방송사 모두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그 이외에, 문화방송은 '불안', '분노', '뒤숭숭' 등의 형용사를 추가로 사용하였고 한국방송은 '놀라움', '걱정', '허탈', '안타까움' 등을 더 사용하였다. 화자의 평가가 개입되는 판단 표현상의 차이로 미루어보건대, 한국방송이 바라보는 국민의 반응은 문화방송에 비해 좀 더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판단 표현임을 감안할 때 둘 중 어느 쪽이 더 진실에 가깝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시각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은 분명하다. 탄핵 그 자체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도, 문화방송이 부정적·역동적 함의를 갖는 정의(진실 양태)나 평가(판단 표현)를 더 자주 활용하였다. "설마 그러랴 했습니다마는 … 가결

되었습니다"라든지, "국회 본회의장은 가히 전투 상황이었습니다", "고함과 몸싸움, 오열이 뒤섞였던 그 숨 가빴던 과정", "(탄핵 찬반 시위로) 국회 앞은 하루 종일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등이 그 예이다. 과장을 지양해야 한다는 자사의 강령과도 다소 어긋난 사례로 볼 수 있다. 한편 서울방송은 "지금 당장 경제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사회적인 혼란을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는 등 현실을 비교적 낙관적으로 정의하는 진실 양태 기법이나 소극적 근거성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있어서도 방송사 간 차이가 다소 발견되었다. 문화방송은 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져야 함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적극적 근거성으로 표현한 바 있고, 소극적 근거성을 활용하여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거나 "헌재가 이를 기각할 것"이라고 소극적 단정이나 예측을 하기도 하였다. 반면 나머지 두 방송사는 이에 관한 특별한 표현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셋째, 한나라당에 대한 멘트에 있어서도 비슷한 차별성이 드러났다. 대체로 부정적 형용사를 사용한 점은 세 방송사가 공통적이지만, 한국방송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표현한 야당에 대해 문화방송은 "야당의 지지율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추락한다"거나 "추락이 심상치 않다"고 표현하였다. 한국방송은 야당이 "방송보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방송의 공정성을 트집 잡고 있다", 혹은 "엉뚱하게 방송에게 화풀이를 하고 나섰다"라고 표현한 데 반해 문화방송은 야당이 "언론을 탄압하려는 작태를 보였다"거나 "국민의 뜻을 겸허히 살피기는커녕 방송을 공격했다"는 보다 평가적 정도가 심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넷째, 위의 <표 3-4-3>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방송과 서울방송은 주장 표현이 문화방송에 비해 많았다. 이는 국민(시청자)에 대한 당부가 비교적 많았기 때문이다. 냉정을 되찾고 차분한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캠페인성의 발언이 문화방송에서는 드물게 등장했다.

이상의 비교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3-4-4>와 같다.

<표 3-4-4> 각 방송사별 언어적 표현 기법 상 특성 비교

비교 근거	방송사	표현기법 사례	해 석
탄핵에 대한 국민 반응	KBS	“충격과 허탈에 빠져있습니다” “국정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정적인 표현
	MBC	“충격과 함께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탄핵은 말이 안된다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보다 역동적·부정적 표현
	SBS	“아직까지 사회적인 혼란을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극적인) 낙관적 정의
헌법재판소의 판결	MBC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한다고 보는데” “헌법재판소도 탄핵을 기각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일단 가능한 것 같은데”	신속한 기각에 대한 소극적 단정 및 예측
야 3당 관련	KBS	“이번 탄핵 정국 방송과 관련해 야당의 불만이 높습니다마는” “야권과 일부 언론들이... 방송의 공정성을 계속 트집잡고 있습니다” “야당과 일부 보수신문에서는 ... 방송이 여론을 조작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완곡한 방식으로 진실양태나 판단표현기법 활용
	MBC	“야당이 정부를 밀어주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진작에 그랬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야당의 지지율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언론을 탄압하려는 작태를 보였습니다” “(야당을 가리키며) 저렇게 막말을 하면서 화면까지 조작해서 방송을 하라고 하는군요... 무슨 5공때인줄 아시는 모양입니다”	가치판단(평가적 수준)의 정도가 강한 표현기법 활용
(대국민) 주장	KBS, SBS에 비해 MBC가 ‘캠페인성 발언’의 횟수가 적음		

<표 3-4-4>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는, 언급된 특성이나 사례가 해당 방송사 보도 태도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3개 방송사 간에 뚜렷하게 드러난 차별성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확대해석하기는 곤란하다. 탄핵에 대한 국민 반응의 경우 3사를 막론하고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표현이 ‘충격’과 ‘당혹’이었음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 외에 특징적으로 사용된 표현 기법들을 위에 정리한 것이다.

3개 방송사의 특성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결과를 요약하면, 문화방송이 한국방송이나 서울방송에 비해 평가적인 표현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탄핵 가결에 대한 국민 반응이건 야 3당에 대한 표현이건, 좀더 감정적이고 역동적인 표현을 상대적으로 자주 사용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도

근거가 충분치 않은 단정이나 예측을 함으로써 문제점을 드러냈다. 반면 국민(시청자)에 대한 당부나 권고를 명시적으로 드러낸 표현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3) 언어적 표현 기법의 프로그램 장르별 비교

분석 대상이 된 프로그램을 크게 뉴스, 토론, 심층분석보도물, 정보교양물로 구분할 때, 언어적 표현 기법 차이는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났다. 아래 표는 빈도를 정리하여 비교한 결과이다.

<표 3-4-5> 언어적 표현 기법의 프로그램 장르별 비교 단위(%)

장 르	타동성	진실 양태	적극적 근거성	소극적 근거성	판단 표현	주장	계
뉴스	19 (3.6)	106 (20.0)	69 (13.0)	81 (15.3)	244 (46.0)	11 (2.1)	530 (100.0)
토론	5 (5.4)	16 (17.2)	22 (23.7)	24 (25.8)	17 (18.3)	9 (9.7)	93 (100.0)
심층분석 보도	2 (1.6)	20 (16.3)	35 (28.5)	14 (11.4)	44 (35.8)	8 (6.5)	123 (100.0)
정보교양	3 (1.9)	25 (16.2)	32 (20.8)	28 (18.2)	55 (35.7)	11 (7.1)	154 (100.0)
합 계	27 (3.2)	162 (18.9)	143 (16.7)	133 (15.5)	356 (41.5)	36 (4.2)	900 (100.0)

가. 뉴 스

사실 보도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는 뉴스의 경우, 심층분석보도물이나 정보교양물과는 표현 기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직접 기사를 전달하는 기자가 아니라 앵커의 멘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여섯 개 항목에 포함되는 문장 자체가 총 방송 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위 표를 보면, 적극적 근거성과 주장 표현이 다른 장르에 비해 적게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당위성을 주창하는 멘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사회자의 역할이 이질적인 토론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비교하자면, 심층분석보도물과 정보교양물에서는 화자의 명시적 주장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뉴스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단, 다른 장르에 비해 진실 양태 방식을 다소나마 자주 활용했음을 알 수 있는데, 단순한 사실 전달형 문장을 위주로 하는 뉴스 앵커 멘트의 특성상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인다.

반면 판단 표현을 활용한 경우가 높게 나타난 점은 탄핵 가결 직후 사건의 충격을 드러내기 위한 평가적 표현이 잦았다는 사실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처음 이틀 동안에는 특보 형식의 뉴스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건에 대

한 정보 제공을 위주로 해야 하는 보도물이 평가적 의미가 담긴 수식어를 빈번하게 사용했다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나. 토　론

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다른 장르에 비해 소극적 근거성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장르적 특성상 진행자가 소극적인 표현, 예를 들면 "~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판단 표현이 두드러지게 적은 이유 역시, 최대한 기계적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토론 진행자 입장에서 가치관이 개입된 발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토론 진행자의 또 다른 특성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발언권 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아래 별도의 순서에서 분석 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다.

다. 심층분석보도물

심층분석보도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적극적 근거성이 빈번하게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려는 장르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작', '과연', '역시', '그 누구도' 등의 확신/강조 부사 및 강조 부정/순접 연결사를 상대적으로 자주 활용하였다. 특히 뉴스에 비해 적극적 근거성 활용 빈도가 크게 잦았다는 점은 〈추적 60분〉, 〈미디어포커스〉, 〈PD수첩〉,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 류의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뉴스와의 차별성을 반영하고 있다.

라. 정보교양물

양적 비교를 보여주는 위의 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교양정보물이 타 장르에 비해 크게 다른 점 하나는 '국민'을 상당히 자주 언급한다는 점이다. "많은 국민들이 당황하고 계시다"든지, "국민들 마음이 참 무겁기 그지없다"든지, "가장 고통 받는 사람이 바로 국민입니다"라든지, "국민들도 성숙된 모습으로 … 힘써야겠습니다"라는 멘트가 상당히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다. 정보·교양 프로그램의 성격상 사회자가 시청자를 향해 직접 편하게 이야기하는 형식을 따른다는 점, 그리고 뉴스나 심층분석보도물에 비해서는 무겁지 않게 진행을 한다는 점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마. 프로그램 장르별 표현 기법 분석 요약

다음의 <표 3-4-6>은 이상의 언어적 표현 기법을 프로그램 장르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3-4-6> 프로그램 장르별 언어적 표현기법상 특성 비교

장 르	특 성	해 석
뉴스	적극적 근거성 및 판단 표현이 적음	다른 장르에 비해 의견 표명보다는 사실전달에 치중
	진실 양태 활용 빈도가 높음	
토론	소극적 근거성의 잦은 활용	토론 진행상의 특성
	판단 표현의 빈도가 낮음	가치판단 개입의 최소화
심층분석보도물	적극적 근거성 활용 빈도가 높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확신/강조 빈도가 다른 장르에 비해 많음
정보교양물	국민(시청자)을 향한 주장이 많음	시청자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적 당부/요구가 상대적으로 많음

위의 <표 3-4-6>은 탄핵에 대한 방송 보도의 특성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사실상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같은 사회자라 하더라도, 뉴스 앵커는 비교적 사실 전달에 치중하고 시사다큐와 같은 심층분석보도물 사회자는 강조부사를 자주 사용하며 정보교양물 사회자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화행동사 활용이 잦다는 점 등은 장르 특성상 어느 정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결과는 상대적 비교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뉴스가 다른 장르에 '비해' 판단 표현이 적다는 점을 보여줄 뿐, 절대적 수치가 적거나 가치판단의 정도가 용인될 정도 이하라고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표현 기법별 특성 비교나 뒤에 제시될 행위 주체별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4) 언어적 표현 기법의 시기별 비교

분석 대상이 된 텔레비전 방송 시기는 9일이지만, 탄핵안이 가결된 후 특집방송이나 속보로 채워졌던 처음 이틀(3월 12, 13일)과 나머지 일주일 사이에는 언어 표현 기법에서도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

<표 3-4-7> 언어적 표현 기법의 프로그램 방송 시기별 비교 단위(%)

방송시기	타동성	진실양태	적극적 근거성	소극적 근거성	판단표현	주장	계
12-13일	17 (3.6)	98 (20.1)	58 (12.3)	88 (18.7)	196 (41.6)	14 (3.0)	471 (100.0)
14-20일	12 (2.8)	69 (16.1)	100 (23.3)	59 (13.7)	164 (38.2)	25 (5.9)	429 (100.0)
합계	27 (3.2)	162 (18.9)	143 (16.7)	133 (15.5)	356 (41.5)	36 (4.2)	900 (100.0)

앞의 <표 3-4-7>에서 발견되는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첫째, 첫 이틀 동안에는 판단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는 점, 둘째, 첫 이틀 이후에 적극적 근거성의 활용 빈도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 셋째, 탄핵 가결 직후보다는 그 이후가 주장 표현의 활용 빈도가 더 많았다는 점이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4-8> 방송 시기별 언어적 표현기법상 특성 비교

특 성	해 석
시간이 갈수록 판단 표현 활용빈도 감소	감정적·평가적 형용사 사용이 적어짐
시간이 갈수록 적극적 근거성 활용빈도 증가	메시지 강조를 위한 수식어 사용이 늘어남
시간이 갈수록 주장 활용빈도 증가	대 국민 캠페인성 당부가 많아짐

첫 이틀 동안 상대적으로 판단 표현이 자주 활용된 이유는 탄핵안 가결이라는 엄청난 사안이 생기고 각계의 반응도 정제되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충격', '허탈', '당혹', '혼란', '분노', '착잡' 등의 평가적 형용사는 장르를 불문하고 첫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와 같은 감정적 표현들은 감소하였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 적극적 근거성이 늘어난 것은 단신 위주의 속보가 사라지고 다소 심층적인 취재나 해설의 비중이 커지면서, 확신/강조 부사의 사용이 늘어난 탓으로 보인다. 주장 표현이 늘었다는 사실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 가능하다. 혼란한 상황의 묘사에 치중하던 방송사들이 적극적으로 안정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펼치면서 자연스레 권고나 당부의 의미가 내재된 화행동사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언어적 표현 방식의 행위 주체별 비교

가. 정치인 총칭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을 묶어서 지칭하는 경우,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언어 표현 방식은 판단 표현이다. 판단 표현은 화자의 가치 평가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이다. 따라서 분석 대상이 된 프로그램의 사회자들이 정치인 일반에 대해서는 가치 개입된 표현들을 자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대개 부정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16대 국회를 '도덕성이 결여된 집단'으로 표현(한국방송 3/12)한다든지, "(이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폄하(한국방송, 3/14)하고, 정국 혼란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국방송, 3/15) 비판한다.

“(정치인들 중) 어느 누구도 국민의 뜻을 묻지 않는다”고 단정(문화방송, 3/14)하기도 한다. 혹은 국민이나 민심을 무시하다가 낭패를 보고 있다는 의미의 표현도 종종 등장한다. “민심 우습게 알던 정치인들도 이번에 민심 무서운 것 실감하고 있을 겁니다”라는 멘트(문화방송, 3/16)가 대표적이다. 반면 긍정적 함의를 띄는 판단 표현은 주로 수습을 위한 노력이나 전망에 적용된다. ‘타협의 의지’를 보인다고 평가(한국방송 3/18)하는 경우인데, 빈도에 있어서는 극히 적었다.

정치인 일반을 지칭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현 정국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도 부정적 판단 표현이 자주 등장하였다. ‘대립’, ‘대치’, ‘갈등’, ‘회오리’, ‘소용돌이’, ‘폭풍’, ‘파국’, ‘격랑’, ‘혼돈’, ‘만신창이’ 등이 현 정국을 지칭하는 대표적 용어들이다. 한편, 화행동사를 사용하여 명시적 주장을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특히 뉴스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성격상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교양 정보 프로그램이나 심층분석보도 프로그램에서는 종종 주장이나 권고, 촉구 등이 등장했는데, 정치인에 대한 주장은 주로 냉정함이나 안정을 찾으라는 내용이거나 민의에 귀 기울이라는 상식적 수준의 권고였다.

나.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이나 소속 의원들을 특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멘트의 경우, 크게 두 종류의 내용으로 나뉜다. 탄핵 가결 직후에는 분노를 의미하는 판단 표현이 가장 자주 활용되다가 시간이 갈수록 만족이나 오만을 의미하는 판단 표현 및 진실 양태가 빈번하게 활용되었다. 특히 탄핵이 가결된 당일, 방송사들은 분노, 망연자실, 비통, 울분 등의 평가적 형용사들을 활용하여 열린우리당을 묘사하였다.

탄핵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고조되면서 열린우리당의 지지도가 올라가자, 방송사들의 표현은 ‘크게 고무된 모습’(서울방송, 3/13)이나 ‘여유 있는 모습’(문화방송, 3/15)으로 바뀌었다. 동시에, 부정적 성격의 판단 표현으로 당내 상황을 묘사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잡음이 불거진다’거나 (문화방송, 3/18) ‘곤혹스러운 처지’ (문화방송, 3/19)라고 평가하는 경우이다.

다. 야 3 당

한나라당, 민주당, 그리고 자민련에 대한 사회자 멘트 중 가장 빈번하게 활용된 언어 표현 방식 역시 판단 표현이었는데, 탄핵 가결 과정과 방송의 편향성 논란에 있어서는 부정적 평가가 개입된 표현이, 역풍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이 빈번하게 활용되었다. 탄핵 가결을 ‘밀어붙였다’거나 야 3 당의 ‘치밀한’ 공조가 있었다는 표현은 평가적 동사나 형용사의 활용 사례이며, “방송의 공정성을 계속 트집 잡고 있다”(한국방송, 3/18), “엉뚱하게 방송에게 화풀이를 하고 나섰다”(한국방송, 3/20), “국민의 뜻을 겸허히 살피기는커녕 방송을 공격한다”(문화방송, 3/19)는 표현은 공정성 논란과 관련된 판단 표현의 예이다. 한편

탄핵 역풍에 대한 야 3당의 반응을 묘사하는 데에는 '당황', '당혹', '비상', '초조', '휘청', '절박', '충격', 등의 평가적 형용사가 이용되었고, 특히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경악하고 있다"면서(서울방송, 3/17) 스스로의 평가를 강조하기도 했다.

진실 양태를 통해 야 3당을 묘사한 경우, 초기에는 긍정적 정의가 이루어진 경우도 종종 있었다. "국정 불안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다"거나 (문화방송, 3/12), '민생을 챙기기 위한 모색'(문화방송, 3/13), '역풍을 우려한 조심스러운 반응'(한국방송, 3/12)을 이야기할 때 그러하다. 물론, 진실 양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특정 정의를 내리거나 당연시하는 경우가 많기 마련이다. "(야당이) 이번 총선을 친노 대 반노의 구도로 몰고 가고자 하고 있고 탄핵 추진도 그런 생각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문화방송 3/16)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긍정적인 정의를 내린 이후 판단 표현이 부가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부정적 이미지를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다. 야 3당이 국정을 걱정하는 모습을 진실 양태로 설명한 후, "왜 이제야 보게 됐는지 … 아쉬운 모습입니다"(문화방송, 3/13)라고 덧붙인 사례를 들 수 있다.

라. 노무현 대통령/청와대

다른 행위 주체들에 대해서도 그러했듯,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도 평가적 부사나 형용사, 명사가 포함된 판단 표현이 다수였다. 그러나 정작 그 내용은 침통함, 담담함, 분주함이라는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수식어가 혼재되어 있다. 같은 상황의 같은 인물에 대해서 이렇듯 상이한 수식어가 부여될 수 있다는 점이야말로 이들 판단 표현에는 어느 정도 화자의 가치가 개입되어 있음을 반증한다.

탄핵 가결 직후에는 '침통', '망연자실', '당혹', '충격', '사면초가' 등 유사한 성격의 단어들, 혹은 '담담'하다는 표현이 주를 이루었고,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국정 운영 대책 마련이나 헌재 심판에 대비하여 분주하게 (혹은 긴박하게) 움직인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 판단 표현이 다소 과하게 드러난 사례로는 대통령이 치명상을 입었다면서, 설령 헌재가 탄핵안을 부결시켜서 직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 정상적 국정 운영이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언급(한국방송, 3/13)이 있다.

한편 소극적 근거성을 통해 앞날에 대한 조심스런 전망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소극적으로나마 긍정적 예측을 한 사례가 있다.

마. 고건 국무총리(권한대행) 및 행정 관료

고건 총리와 정부(행정 관료)가 관련된 문장의 주요 언어 표현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진실 양태를 활용하여 정부당국의 안정적 자세와 능력을 당연시하고 강조하는 경우이다. 국민(시청자)들이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을 다소나마 해

소시키고자 하는 방송사의 의도로 보인다. 정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불안 요인을 해소시키는데 노력 중”(한국방송, 3/13)이라거나 “우리의 국가 시스템 그리고 우리의 경제 운영 시스템이 이 정도의 충격은 충분히 흡수할 수가 있고 또 소화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한국방송, 3/13)는 강조,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흔들림 없는 정부당국의 국정 운영 자세’(한국방송, 3/12)이라는 정의는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방송사별 비교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이러한 멘트들은 대개 탄핵 가결 이후 초기에 한국방송을 통해 집중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이 부각된다.

둘째로, 정부당국은 물론 고건 총리 개인에 대한 판단 표현 역시 긍정적 평가를 보탠 멘트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부가) 비교적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서울방송, 3/13), “충격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펴고 있다”(문화방송, 3/13) 등과 같은 멘트들인데, 주로 ‘안정’, ‘신속’, ‘성실’, ‘긴박함’과 관련된 평가적 형용사가 다수 활용되었다.

세 번째로, 정부에 대해서도 ‘당황’이나 ‘충격’ 등을 의미하는 판단 표현이 종종 적용되었다. 그러나 빈도수에서 두드러질 정도는 아니었으며, 특히 3월 14일 이후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정부 부처가 충격에 휩싸였다거나, 총리실도 당혹해 한다거나, 외교통상부가 ‘당혹과 우려’를 나타냈다거나, 공무원들의 분위기도 술렁이고 있다는 등의 표현이 그 예이다.

정부당국을 다룬 멘트 중 유독 부정적 함의를 갖는 표현은 주로 촛불 집회에 관련된 사안들이었다. 불법 집회냐 문화 행사냐 사이에서 정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든지, 각료 중 하나인 강금실 장관이 반발과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여기에 포함된다.

바. 시민/국민/시청자

가장 많이 언급되면서도 정작 실체가 불분명한 행위 주체가 바로 ‘국민’이다. 국민이자 시청자인 이 집단은 방송사의 편의에 따라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방송사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합리화하기 위하여 종종 국민 개념을 악용한다는 점이다. 특히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각 방송사들이 지방 분위기를 듣는다는 이유로 ‘국민’의 목소리를 상당히 자주 화면에 담았다. 부산, 광주, 대전 등을 순차적으로 훑으면서 국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보여주었으나, 이를 보여주고 연결하는 사회자(앵커)의 ‘국민’에 대한 언급은 정작 뚜렷한 근거를 갖기 않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에 대한 멘트 중 가장 보편적인 언어 표현 방식은 다른 주체들과 마찬가지로 판단 표현이었다. 특히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와 같은 표현은 탄핵안 가결 직후 몇 일간 무수하게 등장했다. ‘충격’, ‘당혹감’, ‘허탈감’, ‘우려’,

‘불안’, ‘회의’, ‘절망’ 등의 평가적 표현들이 주를 이루었다. 다소 다른 분위기의 표현으로는, ‘격렬’이나 ‘요동’ 등이 국민을 묘사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그러나 다른 행위 주체들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은 진실 양태 및 주장이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역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상황을 단순하게 정의하는 방식이 국민들에게 자주 적용된 셈이다. “(국민들은) 충격을 털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서울방송, 3/13), “(고건 총리의 담화문 직후) 다소 안심이 된다는 반응을 내비쳤습니다”(한국방송, 3/13), “충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한국방송, 3/13) 등의 예에서 보듯, 안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근거 없는 단정의 방식으로 드러나곤 하였다. 이 같은 진실 양태가 정작 사실은 아니라는 점은, 며칠이 지나서까지 같은 방송사에서 “국민들의 가슴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라는 전혀 다른 진실 양태 문장이 등장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까닭을 단순히 앵커가 다르다는 사실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뉴스 리포트의 내용에 따라 습관적으로 앵커 멘트가 구성되다 보니, 안정을 강조하는 리포트 앞에는 이미 혼란이 없어진 양 멘트를 구사하고, 어수선함을 보여주는 리포트 앞에는 아직 혼란이 팽배한 양 멘트를 구사하는 것이다. 앵커가 저널리스트로서의 능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한 멘트를 할 필요가 있다.

‘국민’에 관한 진실 양태 표현의 또 다른 문제점은 종종 과도한 일반화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마치 전 국민이 탄핵 가결에 대해 흥분하거나 걱정하는 집단으로 단정하는 진실 양태가 빈번하게 등장하였으며, “많은 국민들은 탄핵 소추안 철회와 대통령의 유연한 사태 수습을 요구했지만 결과는 파국이었습니다”(한국방송, 3/14)나 “지금 여론은 (헌재 결정을) 빨리 하라는 것이죠”(문화방송, 3/13)같은 멘트는 여론조사 결과에 의존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단순 사실 형태의 문장이 아님은 분명하다. “우리 국민들은 다 지켜볼 겁니다”(문화방송, 3/16)라든지 “그래서 국민들은 묻습니다. 그런 국회가 과연 우리 국민을 이렇게 혼란과 분열에 빠뜨릴 자격이 있느냐고 말이죠”(서울방송, 3/14)와 같은 경우는 국민의 이름을 빌어 화자의 의도를 전달하는 전형적이 예로 볼 수 있다.

주장 표현이 자주 등장한 것도 국민과 관련된 두드러진 양상이다. “모두들 차분하게 ...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 질서를 잃지 않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집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 각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침착하고 현명한 대응이 어느 때봐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 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등은 모두 국민(시청자)들에게 사회적 안정을 위해 애써달라는 명시적 당부나 권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같은 주장 표현이지만 다소 예외적인 예로는 “많은 목소리들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한국방송, 3/20)가 있었다. 한편, 주장 표현은 종종 진실 양태나 적극적 근거성, 소극적 근거성과 함께 사용되면서 그 의미를 강조하기도 한다. “우리 국민은 저력이 있으니까요”, “냉정을

되찾아 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등의 멘트를 예로 들 수 있다.

사. 행위 주체별 표현 기법 분석 요약

탄핵과 관련된 행위자이면서 방송 보도를 통해 자주 언급된 주체를 여섯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방송 보도에 나타난 각각의 특성보다 중요한 것은 여섯 주체 간의 상호 비교일 것이다. 아래의 <표 3-4-9>는 각 행위 주체별 표현 기법 분석 결과를 비교, 요약한 결과이다.

<표 3-4-9> 언어적 표현 기법의 행위 주체별 분석 요약

행위주체	활용방식	대표적 활용사례	해석
정치인 총칭	부정적 함의의 판단표현	"헌정사상 최악의 국회"	정치인 모두를 한 집단으로 묶어 부정적으로 가치판단
열린우리당	'분노'를 나타내는 판단표현	"비통함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탄핵 가결 직후에는 감정적 평가 형용사 위주였으나 점점 중립적 내지 부정적 가치판단이 늘어남
	'여유', '만족'을 나타내거나 부정적 함의가 있는 판단표현 및 진실양태	"야당에 대한 여론의 역풍을 내심 반기고 있지만" "잡음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야 3당	부정적 함의의 판단표현	"탄핵안을 밀어붙혔다" "방송의 공정성을 계속 트집잡고 있다"	힘을 과시하고 정당하지 못한 집단으로 묘사하는 한 편, 긍정적, 중립적 정의도 종종 있음
	양면적 성격의 진실양태	"국정불안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다" "친노 대 반노의 구도로 몰고 가고자..."	
노대통령 / 청와대	중립적 판단표현	"침통한 분위기..." "담담한 모습"	여러 가지 의미의 평가적 형용사 사용됨
고건총리 /행정관료	긍정적 성격의 진실양태	"불안요인을 해소시키는데 노력중" "흔들림 없는 정부당국의 국정 운영자세"	안정적 함의를 가진 표현 자주 사용
	긍정적 함의의 판단표현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충격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펴고 있다"	
국민/ 시청자	'충격'을 나타내는 판단표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격과 관련된 표현이 다수이나 안정을 찾아간다는 (근거가 부족한) 표현도 점차 많아짐. 안정을 위한 명시적 당부나 권고의 메시지 자주 활용됨
	'안정'을 강조하는 진실양태	"일상으로 돌아가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과도한 일반화를 유도하는 진실양태	"가족과 친구, 동료 등이 함께 모여서 나라 걱정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당부 의미를 담은 주장	"국민들이 나서서 ...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위의 <표 3-4-9>에서 보듯, 정치인을 총칭할 때에는 일관되게 부정적 표현이, 고건 국무총리나 정부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긍정적 표현이 등장하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할 만한 표현 기법이 등장하지 않았다. 물론 표에 제시된 사례 이외의 많은 표현들이 있으나,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부각되는 표현 기법들을 종합한 결과 이와 같은 분석이 가능했다. 따라서 방송 보도에 등장하는 행위 주체 중 특별히 주목할 만한 대상은 열린우리당, 야 3당, 그리고 국민(시청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과 야 3당의 비교는 그 자체로도 의의가 있다.

탄핵이 가결된 직후, 열린우리당에 대한 방송의 초기 묘사는 분노, 비통, 울분 등이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특히 문화방송은 그 표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했다. 반면 한나라당을 위시한 야 3당에 대해서는 무소불위의 힘, 음모적 치밀함, 오만함 등이 집중적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여유', '고무' 등과 더불어 '잡음', '곤혹' 등의 판단 표현이 함께 활용되었던 데 비해 야 3당에 대한 표현이 '당황', '초조', '절박', '휘청', '경악' 등으로 바뀌었다. 탄핵 가결 직후에 열린우리당에 부여되었던 많은 감정적 표현들이 야 3당으로 옮겨간 형국이다. 양 집단에 대해 가치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냉철한 정보 위주의 보도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듯 보인다.

국민(시청자)에 대한 묘사는 사실상 정치인 전체와의 대조, 그리고 고건 총리 및 행정부와의 비교를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부정적 의미의 정치인 반대에 서서 피해당하고 불안해하는 국민의 모습이 있고,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고건 총리 및 행정부에 화답하는 차분한 국민의 모습이 있다. 이 사이에서 방송 매체는 어느 한 쪽을 과도하게 과장하거나 명시적인 당부를 부과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면만을 강조하기 위해 작위적인 대조와 과장이 이루어진 것이다. 정확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송이 말 없는 '국민'을 자신들의 필요나 목적에 따라 마음대로 활용하는 폐습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6) 언어적 표현 방식의 탄핵 관련 주제별 비교

앞에서는 사회자 멘트 중 나타나는 언어적 표현 기법을 행위 주체별로 비교했다면, 여기서는 멘트 중 나타나는 주요 주제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9일간의 방송을 통해 등장한 주제는 수없이 많겠으나, 가장 자주, 그리고 중요하게 다루어진 주제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탄핵이 가결된 과정 및 탄핵 가결이라는 사건 그 자체에 대한 멘트이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50여분에 걸쳐 일어난 사건, 그리고 그 직전과 직후의 상황을 어떤 기법을 통해 묘사했는지,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건 그 자체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보도록 하겠다. 둘째, 탄핵안 가결 이후에 대한 전망과 예측을 하는 경우이다. 법적 문제에서부터 경제적 여파, 총선 관련 예상 등 다양한 소주제를 포함하는 주제이다. 세 번째로는 탄핵안 가결에 대한 각

계의 반응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보도록 하겠다. 특히 여야 정치권과 국민의 반응에 대하여 어떤 언어적 표현 방식이 주로 활용되었는지 정리할 것이다.

가. 탄핵 가결 및 탄핵 사태

탄핵 가결 과정에 대한 멘트에서는 '대립'과 '폭력'을 강조하는 판단 표현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었다. 다른 표현 기법이 사용되더라도 이 평가적 표현을 보조해주는 정도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극심한 대치 끝에 통과되었다"는 멘트는 비교적 온건한 표현이었다. '사생결단의 저지', '생사를 건 난투극', '국론 분열의 현장', '폭력으로 얼룩진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등의 표현이 부여되었고, "가히 전투 상황이었다"거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에서처럼 평가적 명사를 활용한 비유도 종종 등장하였다. 그냥 "볼썽 사나왔다"는 표현도 사용되었다. 그밖에 두드러지게 등장한 언어적 표현 기법은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반면 탄핵 사태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 표현보다 진실 양태가 더 자주 활용되었다. 탄핵 가결은 사실상 "지난 1년 동안 진행되어온 여야의 대립이 가져다준 필연적인 결과"(서울방송, 3/17)라는 멘트는 원인에 대한 화자의 정의로 볼 수 있다. "원초적으로는 민주당 분당 사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한국방송, 3/12)이나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모두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합니다"(한국방송, 3/17)라는 멘트는 적극적/소극적 근거성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진실 양태를 활용한 문장이다. 탄핵 사태를 '세계적 망신'으로 정의한 경우도 진실 양태와 판단 표현이 중첩되어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나. 전망과 예측

탄핵 가결의 즉각적 여파는 앞서 반복해서 언급한 '혼란' 이미지로 요약된다. 표현 기법으로는 판단 표현이 압도적이다.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에 휩싸인' 등의 표현을 통해 탄핵의 혼란스러운 여파를 묘사하였다. 정국이 더욱 갈등 국면으로 나아가리라는 예측도 동반되었다. "(여야의) 갈등은 더욱 첨예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각 당은 총선 승리에 더욱 사활을 걸 것으로 보여" 등 소극적 근거성을 이용하여 갈등을 예측하는 경우가 많았다.

'혼란'이 있는 만큼 반대 개념인 '안정'도 함께 강조되었다.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정부당국이 흔들림 없는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멘트 (진실 양태)나 정부는 경제부터 챙겨야 한다는 멘트 (주장 표현)가 여기에 속한다. 또한, 실제로 사회나 경제, 그리고 사람들이 점차 안정을 찾고 있다는 (혹은 찾았다는) 멘트 역시 진실 양태를 활용한 안정 지향적 표현으로 해석된다.

미래에 대한 전망 역시 '우려'와 '의무'라는 대조적 개념으로 요약된다. 국정 혼란은 물론, 경제, 외교, 남북 관계 등에 대해 걱정하는 멘트가 지배적인데, 이와 같은

메시지는 대개 진실 양태 기법을 통해 전달된다. ‘의무’는 안정의 회복을 위해 정치인과 국민이 모두 냉정을 찾아야 한다는 멘트인데, 이는 거의 주장 표현을 통해 전달된다. 결국 여파 및 전망에 대한 사회자 멘트는 상황의 혼란함과 안정의 희구, 미래에 대한 우려와 국민의 의무로 요약될 수 있으며, 각각을 강조 표현하기 위하여 판단 표현, 진실 양태, 주장 표현 등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각계의 반응

탄핵안 가결 직후 가장 빈번하게 보도된 것이 바로 국민의 반응이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앞서 행위 주체별 비교에서 언급했듯이 ‘충격’과 ‘당혹’으로 요약된다. 이밖에 ‘허탈’, ‘우려’, ‘불안’, ‘회의’, ‘절망’ 등의 다소 정적인 평가적 표현들과 ‘격렬’, ‘요동’ 등의 동적인 평가적 표현들이 국민 반응을 묘사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물론, ‘일상으로 돌아간 차분한 모습’에서처럼 정 반대의 판단 표현도 적지 않게 사용되었다.

방송사들이 탄핵 사태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충격과 당혹’으로 보도했다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실망과 비판’으로 묘사하였다. 특히, 항의 집회를 보도하면서 이와 같은 묘사들이 많았다. 비판적 판단 표현이나 진실 양태를 활용, 국민들의 분노를 강조한 것이다. “이른바 넥타이 부대와 아줌마 부대도 대거 참여해 정치권을 성토했습니다”라든지 “먹고 살기 바빠서 정치에 무관심했던 세대가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열린우리당과 야 3당의 반응에 대한 보도 역시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분노하고 망연자실한 모습’이 열린우리당의 첫 반응이었다면, 야 3당의 초기 반응은 ‘(역풍에 대한) 우려’와 ‘(방송 보도에 대한) 비판’으로 요약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양 진영에 대한 정의 방식은 각각 ‘여유’와 ‘당황’으로 바뀌어 나갔다는 점도 반복할 필요가 있다.

각 당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을 하나로 묶어 탄핵 사태에 대한 반응을 묘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주로 총선과 관련된 보도들인데, “총선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면서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와 같은 판단 표현/진실 양태가 대표적 사례이다. 이밖에 재계나 외국의 반응 역시 보도물의 주요 주제였으나, 주로 ‘우려’와 ‘기대’가 병존하는 기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라. 탄핵 관련 주제별 표현 기법 분석 요약

프로그램 사회자 멘트의 주제 세 가지를 선정하여 각각에 대한 표현 기법을 정리한 결과, 다음의 <표 3-4-10>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3-4-10> 언어적 표현 기법의 주제별 분석 요약

주 제	사 례	표현 기법
탄핵 가결 및 탄핵 사태	'생사를 건 난투극', '폭력으로 얼룩진' "지난 1년 동안 진행되어온 여야의 대립이 가져다준 필연적인 결과" '세계적 망신'	폭력성을 강조하는 판단 표현과 근거가 충분치 않은 진실 양태를 활용
전망과 예측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지금부터 차분하고 냉정하게..."	'혼란'과 '안정'이라는 대조적 판단 표현의 병용; 그리고 '우려'와 '의무'에 관한 진실 양태 및 주장
각계의 반응	(국민) '충격과 당혹', '실망과 비판' (각 당) '분노', '여유', '당황' (정치권) "총선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면서"	판단 표현이 대부분. 감정적 평가적 형용사를 빈번하게 사용

주제를 막론하고, 가장 주목되는 언어적 표현 기법은 판단 표현이다. 화자의 평가가 개입된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활용되어야 하는 기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표에서 보듯, 각 주제에 대해 판단 표현이 중요하게 활용되었다. 탄핵 가결은 특히 감정이 과잉된 판단 표현이 많았다. 이성적 정보 전달보다는 감정적 공감을 기도한 보도 양태로 보인다. 앞일에 대한 전망 역시 마찬가지이다. 예측이라는 점 때문에 소극적 근거성 역시 자주 활용되었으나, 여기서도 주목할 부분은 과도한 평가적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의미적으로 대조적인 '혼란'과 '안정'을 각각 상징하는 판단 표현을 동시다발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화자의 가치판단조차 모순되게 전달했다고 볼 수 있다.

각 계의 반응을 보도하는데 있어서도 판단 표현이 자주 사용되었는데, 내용상으로도 지적할 만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우선 국민의 반응이 거의 일반화되어 '사태에 대한 당혹감'과 '정치권에 대한 성토'로 반복, 강조되었다. 다양한 반응을 이성적으로 보도하는 대신, 감정적 반응을 똑같이 감정적으로만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열린우리당과 야 3당의 반응 역시 지나치게 판단 표현에 의존하였다. '분노한 여당'과 '오만한 야당'의 구도 속에서 다양한 표현이 적용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여유있는 여당'과 '당황하는 야당'의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구도는 정확한 정보 전달에 의해서가 아닌 화자의 가치가 개입된 단어들을 사용하여 만들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7) 토론 진행자의 발언권 관리 양식 분석

비판적 담화분석의 결과와는 별도로, 앞서 밝힌 대로 토론 프로그램 진행자의 발언권 관리 양식을 분석하였다. 탄핵에 대해 찬성하는 토론자와 반대하는 토론자에게 각각 얼마나 많은 발언권을 주거나 빼앗는지 세었는데, 우선 발언권을 부여한 방식을 프로그램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4-11> 토론 진행자의 발언권 관리 양식 (발언권 부여)

발언권 양식 / 프로그램명	개별적 발언권 부여		집단적 발언권 부여		계		비고
	찬성집단	반대집단	찬성집단	반대집단	찬성집단	반대집단	
KBS 특집토론	14 (7)	14 (7)	0	1 (0.5)	14 (7)	15 (7.5)	찬성 2인 반대 2인
KBS 심야토론(1)	24 (8)	18 (9)	8 (3.6)	5 (2.5)	32 (10.6)	23 (11.5)	찬성 3인 반대 2인
KBS 심야토론(2)	14 (4.6)	13 (6.5)	4 (1.3)	2 (1)	18 (6)	15 (7.5)	찬성 3인 반대 2인
KBS 100인토론	14 (7)	11 (5.5)	0	0	14 (7)	11 (5.5)	찬성 2인 반대 2인
MBC 100분토론	4 (2)	5 (2.5)	0	0	4 (2)	5 (2.5)	찬성 2인 반대 2인
MBC 긴급토론	4 (2)	10 (3.3)	0	0	4 (2)	10 (3.3)	찬성 2인 반대 3인
SBS 대토론 이것이 여론이다	10 (3.3)	8 (2.6)	3 (1)	1 (0.3)	13 (4.3)	9 (3)	찬성 3인 반대 3인
계	84 (4.9)	79 (4.9)	15 (0.9)	10 (0.6)	99 (5.8)	88 (5.5)	찬성 17인 반대 16인

· 단위 : 건수 (괄호 안은 1인당 평균 건수)

우선, 한국방송의 두 토론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적극적으로 발언권을 관리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손석희가 진행을 맡은 문화방송의 두 프로그램은 발언권 부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아래 표에 다시 나오겠으나, 발언권 박탈 역시 같은 경향을 보였다. 발언권을 주거나 빼앗는 과정에 진행자가 적극적으로 나서는지 여부는 프로그램의 기획 방향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표 3-4-11>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찬·반 양 집단에게 엇비슷한 발언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일인당 평균 발언권 부여 횟수를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시청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한 집단의 토론자가 몇 명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적 발언 횟수를 따지게 된다.

그러나 토론 진행자가 발언하고 있는 출연자의 말을 제지하는 발언권 박탈의 회수를 보면 해석은 다시 달라진다. 아래의 <표 3-4-12>에서 보듯, 발언권 박탈의 회수 역시 탄핵 찬성 집단이 더 많기 때문이다.

<표 3-4-12> 토론 진행자의 발언권 관리 양식 (발언권 박탈)

발언권 양식 / 프로그램명	직접적 발언권 박탈		간접적 발언권 박탈		계		비고
	찬성집단	반대집단	찬성집단	반대집단	찬성집단	반대집단	
KBS 특집토론	1 (0.5)	0	0	0	1 (0.5)	0	찬성 2인 반대 2인
KBS 심야토론(1)	6 (2)	1 (0.5)	0	0	6 (2)	1 (0.5)	찬성 3인 반대 2인
KBS 심야토론(2)	11 (3.6)	2 (1)	0	0	11 (3.6)	2 (1)	찬성 3인 반대 2인
KBS 100인토론	1 (0.5)	2 (1)	1 (0.5)	0	2 (1)	2 (1)	찬성 2인 반대 2인
MBC 100분토론	2 (1)	3 (1.5)	0	0	2 (1)	3 (1.5)	찬성 2인 반대 2인
MBC 긴급토론	0	0	0	0	0	0	찬성 2인 반대 3인
SBS 대토론 이것이 여론이다	1 (0.3)	1 (0.3)	1 (0.3)	0	2 (0.6)	1 (0.3)	찬성 3인 반대 3인
계	22 (1.3)	9 (0.6)	2 (0.1)	0 (0.0)	24 (1.4)	9 (0.6)	찬성 17인 반대 16인

· 단위 : 건수 (괄호 안은 1인당 평균 건수)

<표 3-4-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찬성 집단이 발언하고 있던 중 진행자가 발언을 제지한 경우는 총 24회였던데 반해 반대 집단의 발언이 제지된 경우는 총 9회에 불과했다. 이를 발언권 부여 횟수와 함께 고려한다면, 탄핵 찬성 집단은 총 75회(99-24)의 발언권을 더 가졌고 반대 집단은 총 79회(88-9)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일인당 발언권 부여 횟수는 각각 4.41회와 4.94회로 두 집단이 거의 비슷하지만 반대 집단에게 다소 더 많은 발언권이 갔다고 볼 수 있다.

프로그램별로 보면, 3월 20일에 방송된 <KBS 심야토론>(7:13)과 <MBC 긴급토론>(4:10)이 탄핵 반대자에게 다소 더 기회를 준 셈이고, <SBS 대토론>(11:8)이 찬성자에게 조금이나마 더 기회를 준 셈이다. 그러나 그 차이가 진행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문제 삼을 만큼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 대신 지적할 만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볼 때 탄핵 찬성 집단에 대해 발언권도 많이 주고 뺏기도 많이 했다는 점이다. 주제에서 일탈되거나 시간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발언권을 박탈하였다가, 추후 보상의 의미로 발언권을 추가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덧붙여, 발언권의 관리 양식 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부분은 발언권 박탈이 어떠한 이유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유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첫째, 정해진 시간을 초과한 경우; 둘째, 주제에서 벗어난 발언을 하는 경우; 셋째, 동일한 논증을 반복하는 경우 등 세 가지가 있다. 발언을 박탈하기 위해서 진행자가 사용하는 언어는 명령형, 청유형, 의문형 등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한다. 아래의 표는 발

언권 박탈 사례들을 정리한 결과이다.

<표 3-4-13> 발언권 박탈 방식의 유형

프로그램명	유 형	찬 성	반 대
KBS 특집토론			
KBS 심야토론(1)	동어반복		저희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그런 말씀이 벌써 여러 차례 나왔는데요.
	주제일탈	박상희 의원 그 말씀은 이따가 기회를 드릴께요.	
	시간초과		좋습니다. 김부겸 의원
	발언정리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그런 차원에서 협조하시겠다 그 말이시지요?	
KBS 심야토론(2)	시간초과	너무 민감한 내용... 말씀들이 기신데요. 좀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주제일탈	됐습니다. 이따가 하십시오	
	주제일탈	자 두 분 다 그만하시지요.	
KBS 100인토론	주제일탈		그 얘기는 넘어가시구요...
	시간초과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김재홍 교수께 마지막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MBC 100분토론	시간초과		짧게 좀 해주실건가요.
	시간초과	정리해 주시죠.	
MBC 긴급토론			
SBS 대토론 이것이 여론이다	주제일탈		예, 이 앞으로의 정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시간초과	에 알겠습니다 ...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표 3-4-13>에서 보듯 방송사나 토론자에 무관하게 다양한 유형의 언어적 통제가 사용되었다. 토론에서는 각 토론자에게 공평한 시간 분배를 원칙으로 삼고 있고 또 각각의 소주제에 배당된 시간이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 초과로 인한 발언권 빼앗기는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동일 논증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자의 주관적 판단이 지나치게 개입된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발언을 중단시키거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토론의 공정성을 평가할 때 중요한 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발언권 관리 양식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단순 횟수만을 세어 양적 비교를 하기보다는 전후 맥락을 파악하여 어떠한 유형의 문장이 사용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심층적일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공정성만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해당 사례의 횟수를 세어 비교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제 4 장 요약 및 논의

1. 연구 결과 요약

1) 저녁 종합 뉴스 분석

(1) 뉴스 주제

방송사별 탄핵 뉴스 주제를 분석해 보면, ① 탄핵 가결 과정에 대한 보도와 이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반응을 의미하는 '탄핵 정치 과정' 관련 뉴스가 전체 기사의 20.2%에 달했다. ② 탄핵 가결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대책에 대한 보도는 전체 기사의 16.7%였다. ③ 탄핵 정치과정에 대한 시민의 반응과 대중 집회, 그리고 여론의 향배 등에 대한 뉴스인 '시민 여론 반응' 관련 뉴스는 20.5%에 해당됐다. ④ 탄핵에 대한 경제계 반응 및 외국 뉴스의 논평 등을 포함한 뉴스는 전체의 13.1%에 달했다. ⑤ 마지막으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지 다룬 뉴스가 전체 기사의 11.3%에 이르렀다.

탄핵 관련 보도를 재분류해서 방송사별로 재분석해 보면, 시민 여론 반응과 전문가 반응에서는 방송사별 차이성이 드러나는 것을 확인했다. 즉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은 서울방송에 비해 시민 여론 반응 관련 주제를 많이 다룬 반면에 서울방송은 다른 방송에 비해 전문가 반응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다루었음을 발견했다.

(2) 기사의 갈등성

탄핵 관련 방송 보도가 전반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갈등의 견지에서 탄핵 문제를 다루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를 얻었다. 즉 전체 977개의 탄핵 관련 뉴스 아이템 가운데 약 16.4%인 160건에 해당하는 뉴스만이 탄핵을 '갈등적 이슈'로 다루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는 방송 뉴스가 전반적으로 탄핵 사안을 충분히 '갈등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탄핵 관련 뉴스를 '갈등적 이슈'로 다루는 데 있어서 방송사별 차이가 특히 '탄핵 정치과정' 관련 뉴스와 '시민 여론 반응' 관련 뉴스의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뉴스 가운데 한국방송이 상대적으로 탄핵 뉴스를 갈등적으로 다룬 비율이 높았으며, 문화방송과 서울방송은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았음을 발견했다.

기사의 갈등성을 파악함에 있어서 개별적인 뉴스 아이템 내부에서 이슈를 갈등적

으로 다루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사 묶음'을 기준으로 기사의 갈등성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 201개의 '기사 묶음' 가운데 49.8%가 탄핵을 갈등적 이슈로 다루었으며 나머지 50.2%는 갈등적인 관점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뉴스의 주제적 흐름 속에서 보면 탄핵 관련 뉴스의 절반 정도가 갈등적으로 다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기사의 심층성

사회적 갈등 뉴스는 심층적으로 보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탄핵 관련 방송 뉴스 보도는 심층성의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발견했다. 탄핵 관련 뉴스 아이템 가운데 심층적인 분석과 논평을 포함하지 않은 단순 보도가 전체의 67.1%인 656 아이템을 차지했다. 보다 심층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을 더한 기사는 8.5%인 83건, 그리고 가장 심층적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과 과정에 대해 원인과 영향에 대한 분석을 부가한 기사가 24.4%인 238개에 머물렀다. 전반적으로 심층적이지 못한 보도를 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방송의 경우 다른 방송사에 비해 탄핵 관련 기사를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사의 심층성은 뉴스 주제별로 보아 '시민 여론 반응' 관련 뉴스일 경우와 '전문가 반응' 관련 뉴스일 경우 더욱 강조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했다.

(4) 크로마키와 자막의 사용

탄핵 관련 방송 뉴스에서 사용된 크로마키와 자막에서 공정성 확보가 매우 미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크로마키를 담고 있는 뉴스 아이템 가운데 탄핵 반대 진영의 주장 요지를 전달하는 크로마키가 13.8%였지만 찬성 진영의 주장 요지를 제시하는 경우는 4.7%로 탄핵 반대 진영의 주장 요지가 반핵 찬성 반대 진영의 주장 요지보다 거의 3배나 더 보도됐다. 즉 탄핵 관련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방송 뉴스에 전반적으로 탄핵 반대 진영의 목소리가 탄핵 찬성 진영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반영된 것이 확인된 셈이다.

이러한 크로마키의 사용의 편향성은 또한 방송사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문화방송의 경우 탄핵 반대 진영의 주장 요지를 제시한 경우가 19.6%로 다른 방송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한국방송과 서울방송은 각각 11.2%와 10.6%로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크로마키 사용에 있어서의 불공정함은 뉴스가 방송된 시점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안이 가결된 12일(토) 뉴스 속보와 정규 뉴스의 경우에는 탄핵 반대 진영과 찬성 진영의 주장 요지가 각각 11.1%와 3.7%였지만, 13일 이후에는 16.9%와 6.9%였다.

자막의 사용에도 공정한 자막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자막을 사용한 461개의 뉴스 아이템 가운데 약 30.2%가 탄핵 반대 진영의 주장 요지를 담은 자막을 포함했으며 이보다는 적은 전체의 약 19.1%만이 탄핵 찬성 진영의 주장 요지를 담은 자막을 이용했다. 특히 문화방송의 경우 전체 자막을 보낸 뉴스 아이템 중 12.1%의 탄핵 찬성 진영의 주장 요지를 담은 자막을 내보낸 데 반해서, 한국방송과 서울방송은 20.9%와 25.9%가 탄핵 찬성 진영의 주장 요지를 담은 자막을 더 많이 방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 화면과 기사의 일치

탄핵 관련 뉴스의 경우에 시각적 정보(화면)와 청각적 정보(기사 내용)의 불일치가 두드러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시각적 정보를 제공했던 뉴스 아이템 가운데 2.2%인 21건의 아이템에서만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화면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인터뷰의 수

탄핵 방송 뉴스에서 공정성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터뷰의 사용, 특히 인터뷰 대상의 성격의 편향성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탄핵 관련 뉴스의 전체적인 공정성을 알아보기 위한 방편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인터뷰’와 ‘탄핵에 반대하는 인터뷰’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았는지 분석한 결과, 탄핵 반대 진영의 인터뷰 개수가 뉴스 아이템 당 평균 .51개, 탄핵 찬성 진영의 인터뷰 개수가 평균 .32개로 탄핵 반대 진영의 인터뷰 개수가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시민 여론 반응’ 관련 뉴스에서 탄핵 반대 진영과 찬성 진영의 인터뷰 수가 큰 차이를 보였다. 즉 탄핵 반대 진영의 인터뷰는 평균 1.01개였지만, 탄핵 찬성 진영의 인터뷰는 평균 .26개로 거의 4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를 방송사별로 보면, 한국방송의 경우 탄핵 반대와 찬성 진영의 인터뷰 수가 각각 .95대 .32개로 3배 차이를, 문화방송의 경우 1.24대 .29개로 약 4배 이상 차이를, 서울방송의 경우 .79대 .15개로 5배 이상 차이를 각각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민 여론 반응과 관련된 기사의 경우 방송 3사 모두, 탄핵 반대 진영의 인터뷰 개수가 탄핵 찬성 진영의 인터뷰 개수에 비해 3배 내지 5배나 차이가 났다.

방송사별 탄핵 찬반 인터뷰의 수의 차이는 또한 탄핵 정국의 진행에 따라 달리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즉 탄핵이 가결된 12일(금) 방송의 경우 모든 방송사의 뉴스가 탄핵 반대 진영의 인터뷰의 수가 탄핵 찬성 진영의 인터뷰의 수보다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탄핵 반대 진영과 찬성 진영의 인터뷰 수의 차이는 13일 이후 18일까지 뉴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다.

(7) 인터뷰의 대상과 성격

인터뷰의 주요 대상을 보면, 여권 정치인 다음으로 많이 인터뷰에 등장한 집단이 시민들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체 인터뷰를 담고 있는 뉴스 아이템 가운데 54.4%가 여권 정치인을 다루었고 46.7%에서 시민을 인터뷰 대상으로 다루었다. 그런데 이러한 인터뷰 대상별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주제가 바로 시민에 대한 인터뷰였다. 문화방송의 경우 전체 뉴스 아이템 가운데 61.3%가 시민 인터뷰를 포함시켰지만 한국방송과 서울방송은 이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시민 인터뷰를 포함했다.

인터뷰의 내용과 관련해서 중요한 발견 가운데 하나는 인터뷰 대상에 따라 인터뷰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의 경우는 주로 정보적이거나 분석적인 성격이었다. 하지만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보면, 주로 평가적이거나 심지어 감정적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8) 기자의 리포팅

탄핵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바가 기자의 논평의 공정성 여부이다. 탄핵 관련 기사의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자 리포팅 자체에 기자의 주관적 논평이 있었는지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전체 977건의 뉴스 아이템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254개 아이템에서 기자의 논평이 발견되었다.

탄핵 관련 방송 뉴스에 포함된 기자의 논평은 대체로 '균형적이거나' 또는 '양시양비론적인' 성격을 띠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전체 기자의 논평이 포함된 뉴스 아이템 가운데 극소수인 3.9%의 경우에만 특정 정파에 기우는 논평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러한 불공정한 논평은 모두 탄핵 반대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평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불공정한 논평의 방송사별 차이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2)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 분석

(1) 프로그램의 주제 분포

방송사별 탄핵 관련 주제 분포를 보면 방송 3사가 공통적으로 탄핵 가결 과정에 4분1 정도의 시간을 할애한 가운데,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이 시민 반응과 여론 동향에 상당 부분 방송 시간을 할애한 반면, 서울방송은 야권 등 정치권 반응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탄핵 반대와 찬성 시위의 구성 분포 면에서 방송 3사 모두 편향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3사는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 시위를 모두 16건의 아이템에 걸쳐 취급한

반면에 탄핵 찬성 시위는 문화방송의 1건을 제외하고는 아이템 단위에서 전혀 방송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프로그램의 구성 형태

서울방송의 프로그램은 리포트 형식(90.5%)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은 프로그램 내 아이템 약 40% 이상을 대담과 논평, 그리고 리포트 후 대담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공통 현상을 보였다.

프로그램 별로 구성 형태를 비교해 보면, 문화방송의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이 14건의 아이템 가운데 11건(78.5%)을 '리포트 후 기자들 간 대담' '대담과 논평' 등 대담과 논평을 위주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의 언론 비평 프로그램인 <미디어 포커스>는 9건의 아이템 가운데 6건(66.7%)을 '리포트 없는 대담과 논평'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료 화면의 구성

방송사별로 문화방송이 탄핵 가결 장면을 전체 프로그램의 41%에 걸쳐 사용해 한국방송(18.8%)과 서울방송(27.0%) 보다 자주 탄핵 장면을 방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은 화면 없이 대담이나 토론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비율이 전체의 53.1%에 달했고 문화방송은 37.0%, 이에 비해 서울방송은 7.9% 그쳐 자료화면 없는 프로그램 구성을 지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 반대와 찬성 시위 장면의 구성 비율 면에서 방송사들이 눈에 띄게 탄핵 반대 시위 장면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 3사들은 촛불 시위와 탄핵 반대 시위 장면을 66건 (25.8%)의 아이템에서 사용한 반면에 탄핵 찬성 시위 장면은 12건(4.7%)의 아이템에서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앵커 멘트의 편향성

방송 3사 통틀어 탄핵 중립적인 앵커 멘트가 116건으로 80.6%의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탄핵 반대 멘트는 27건(18.8%)이었고, 탄핵 찬성을 두둔하는 멘트는 서울방송의 단 한건만 발견되었다. 방송사별로 문화방송의 앵커 멘트 42건 가운데 탄핵 반대를 두둔한 발언이 20건(47.6%)인 반면, 탄핵 찬성 앵커 멘트는 전혀 없었다. 앵커 멘트 편향 기법에서 문화방송의 편향적인 앵커 멘트 가운데 70% 이상이 윤색적인 형용사를 사용하거나 주관적인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됐다.

프로그램별로는 문화방송의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이 앵커 멘트 11건 모두를 탄핵 반대를 두둔하는데 할애하고 탄핵 찬성에 관한 멘트는 전혀 하지 않는

편향성의 문제를 드러냈고, 편향 기법도 80%가 윤색적인 형용사나 주관적인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5) 리포트의 편향성

방송사별로 문화방송 리포트의 21.5%와 한국방송의 리포트의 12.7%가 탄핵 반대를 두둔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두 방송사는 탄핵 찬성을 두둔하는 리포트를 전혀 방송하지 않았다. 서울방송은 51건의 리포트 모두 탄핵 반대와 찬성의 방향성이 없이 중립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별로는 문화방송의 <신강균의 뉴스 서비스 사실은>이 11개 리포트 모두 탄핵 반대를 두둔하는 경향을 보였고 탄핵 찬성을 두둔하는 리포트는 전무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프로그램은 리포트의 편향 기법도 편향적인 리포트 가운데 72%가 윤색적인 형용사나 주관적인 감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출연자 발언의 편향성

출연자의 편향성을 방송사별로 비교해 보면, 한국방송이 63명의 출연자가 나와 22명(34.9%)이 탄핵 반대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였고, 문화방송은 29명의 출연자 중에 12명(41.4%)이 탄핵 반대를 두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방송은 자사 기자 4명이 출연하여 어느 쪽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방송3사의 96명의 출연자 가운데 탄핵 찬성을 두둔하는 발언은 한국방송에 출연한 한 사람의 출연자 밖에 없었다.

프로그램별로는 문화방송의 <신강균의 뉴스 서비스 사실은>의 출연자 8명이 모두 탄핵 반대를 두둔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 가결 다음날 방송된 한국방송의 <탄핵 정국 국민에게 듣는다>와 <대통령 탄핵 -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두 프로그램에 출연한 57명 가운데 22명(39%)이 탄핵 반대를 두둔하는 경향을 보였고 단 한명만이 탄핵 찬성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7) 인터뷰의 편향성

탄핵 반대와 찬성을 두둔하는 인터뷰 구성을 방송사별로 비교해 보면, 한국방송은 반대와 찬성이 44.4% 대 15.5%, 문화방송은 45.4% 대 32.2%, 그리고 서울방송은 41.8%대 36.2%로 방송사 간 차이를 보였다.

프로그램별로는 한국방송의 특집 <대통령 탄핵-대한민국 어디로 가나>와 <탄핵 정국 국민에게 듣는다>의 인터뷰 구성이 각각 반대와 찬성 31건 대 1건과 29건 대 4건으로 편향을 보여 탄핵 사태 초반 한국방송의 불공정 편향 시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의 <미디어 포커스>는 반대와 찬성이 7건 대 0건, 문화방송의 <신강균의 뉴스 서비스 사실은>은 반대와 찬성이 9건 대 2건으로 상대적

인 편향을 보였다.

(8) 보도의 심층성과 공정성

아이템의 전개 방식에 따라 방송사별로 보도의 심층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서울방송이 보도(31.7%)와 보도 분석(54.0%)에 주로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고,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은 보도 분석 논평(KBS 17.8%, MBC 22.8%)과 논평(KBS 33.7%, MBC 12.7%)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별로는 서울방송의 <세븐데이즈>와 문화방송의 <화제집중>과 한국방송의 <추적 60분>이 프로그램 아이템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사건 발생의 보도에 치중한 반면, 보도제작국 프로그램인 문화방송의 <신강균의 뉴스 서비스 사실은>과 한국방송의 <미디어 포커스>, 서울방송의 <뉴스추적> 등은 분석과 논평을 자주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터뷰 수준에서의 심층성 분석은 방송사별로 한국방송이 평가적인 인터뷰가 전체 인터뷰의 75.8%를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화방송은 다른 방송사에 비해 감정적인 인터뷰(23.8%)를 자주 사용하는 특성을 보였다. 서울방송은 평가적인 인터뷰(51.7%)와 분석적인 인터뷰(31.0%)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템 전개 방식과 인터뷰 수준에서 탄핵 관련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은 상당 부분 심층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탄핵 방송과 관련해서 방송의 건전한 여론 형성 기능을 방해한 것은 보도의 심층성의 빈곤이나 결여가 아니었다. 오히려 방송의 공정성 원칙의 궤도에서 벗어나 버린 방송의 심층성이라는 것이 자칫 방송을 주관적 독단의 함정으로 빠뜨려 버릴 수 있음을 탄핵 방송의 사례가 새삼 상기시키고 있다. 방송이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 섣불리 나서서 주관적 판단을 내려 버린 뒤 단호하게 어느 한편을 비방하기 시작하는 그 대목에서 여론의 소통의 경로는 차단된다. 그 순간 시민의 언론 자유를 재현할 책무를 지닌 언론의 역할은 사라지게 되고, 사회적 쟁점에서 다른 편에 선 정치 세력과 시민은 소외되며, 방송은 불공정 편향 시비에 휘말려 신뢰를 상실하고 표류한다.

3) 프레임 분석

(1) 주요 정치 행위자의 이미지 프레임

탄핵 정국이라는 정치 갈등 상황을 보도하는 방식에서 텔레비전 방송은 주요 정치 행위자의 이미지 프레임을 통해 열린우리당, 촛불 시위대/참여 시민단체, 노무현 대통령(청와대), 시민/국민을 한 축에 두고 이들에게 동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한나라당, 민주당, 야3당, 박관용 국회의장,

보수 단체를 다른 축에 두고 이들에게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는 대립 구도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중재하는 충격 완화 집단 또는 위기 사태의 해결사로서 중립적인 이미지의 고건 총리, 행정 관료, 헌법재판소를 위치 지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열린우리당과 노 대통령은 이번 탄핵안 가결 국면에서 힘없는 약자로 묘사된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수적인 우세를 견지한 힘 있는 강자의 모습으로 프레임 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촛불 시위대/참여 시민단체는 힘없는 약자인 열린우리당과 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프레임 된 반면, 보수 단체 시위는 힘 있는 강자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탄핵안 가결을 적극 지지하는 세력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시민들과 촛불 시위는 비교적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활동상으로 보도된 데 비해, 보수 단체 시위는 단순히 탄핵 지지 의견을 밝히거나 시위 사실 자체의 전달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프레임을 통해 이미지가 구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보수 단체 시위에 대한 영상 이미지도 차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탄핵 반대 시위에 대해서는 촛불을 들고 흔들며 즐거워하는 시민들의 다채로운 표정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거나, 때로는 롱샷으로 때로는 클로즈업 기법을 통하여 시각적 효과가 큰 장면들을 구성한 반면, 보수 단체 시위에 대해서는 단순한 바스트 샷이나 피켓을 들고 엉성하게 군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치고 있었다.

한편, 박관용 국회의장은 이번 탄핵안 가결의 숨은 주역으로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편승한 편향적이고 강제적이며 무리한 의사 집행자로 프레임 된 반면, 고건 권한대행과 행정 관료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국정 운영 방침을 제안하거나 시의적절한 경제 및 정국 안정 방안을 내놓음으로써 탄핵안 가결을 통해 조성된 위기 정국을 관리해야 하는 숨은 일군으로서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이분법적 구조는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대해 설정된 프레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국회는 비이성적인 구성원들이 절차와 대화를 중시하지 않는, 원칙 없는 조직으로 프레임 된 반면,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비이성적으로 꼬아놓은 어려운 매듭을 풀 수 있는 원칙과 절차가 분명한 조직으로 프레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요 정치 쟁점의 경쟁 프레임

프레임 요소를 바탕으로 경쟁 프레임이 구성되는 정치 쟁점을 조사한 결과, 크게 ① 탄핵소추안 가결, ② 촛불 시위(집회), 그리고 ③ 편향 방송 시비라는 세 가지의 쟁점이 텔레비전 보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먼저,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프레임 요소는 매우 다양하게 배열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만큼 미디어 보도는 이 사건의 다양한 측면(various aspects of the issue)을 대비되는 관점에 따라 제시했다는 것이다. 문제 정의에 있어 탄핵

반대 진영은 정당성이 결여된 비상시국이라고 사태를 정의한 반면, 찬성 진영은 소추안 가결이 국정 파탄에 대한 심판이자 의회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보았다. 탄핵 찬성 진영보다 탄핵 반대 진영의 강조가 더욱 두드러진 경향을 보였다. 시민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양 진영이 사용한 은유의 경우, 반대 진영은 '의회 쿠데타'라고 공격하고, 찬성 진영은 ‘구국의 결단’이라는 주장을 한다. 사태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관점도 상이하다. 반대 진영은 야3당의 당리당략과 총선 전략에 기인한 무리수가 결국 정국 혼란을 가져와 경제 악영향은 물론 총선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반면, 찬성 진영은 이번 사태가 무능하고 측근 비리에 둘러싸인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며 탄핵소추안 가결은 자업자득이므로, 조만간 사태가 진정되는 국면이 도래하고 이번 가결이 민주주의의 발전 계기로 승화될 것임을 예상한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해결책으로 반대 진영에서는 원천 무효인 탄핵소추를 철회하는 것을 주장하며, 찬성 진영에서는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탄핵 사태에 대한 시민 반응을 보면, 반대 진영의 시민 반응은 감정적인 반응과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반면, 찬성 진영의 시민 반응은 감정적 반응과 더불어 대통령 책임론을 주장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태에 대한 영상 이미지 프레임 요소는 반대 진영에서는 탄핵 소추안 가결 당시의 난장판이 된 국회 모습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울부짖는 모습, 끌려 나가는 모습 등을 집중적으로 드러내었고, 찬성 진영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여유로운 모습, 박수치는 모습, 세 과시하는 모습 등을 부각시켰다. 특히 전체적으로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의 난장판 국회 모습이 가장 많이 보도됨으로써 반대 진영의 이미지에 도움을 주는 바탕을 구축했다.

이처럼 사태의 의미 구성과 관련된 여러 측면에서 서로 충돌하는 두 시각은, 탄핵소추안 가결의 본질과 관련하여 반민주 세력의 다수 횡포로 규정하는 반대 진영과 적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밟은 의회의 의사 결정 과정이라고 정의하는 찬성 진영간의 전면적인 프레임 경쟁으로 발현되었다.

두 번째 쟁점은 촛불 시위(집회)를 둘러싼 논란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보도량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 가결만큼 다양한 프레임 요소들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찬반 진영간에 프레임 경쟁이 꽤 다양한 측면에서 전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 반대 진영은 촛불 시위를 국민적 울분의 발산으로 정의하는 반면, 탄핵 찬성 진영은 은밀한 배후 세력의 조직적인 동원 행사로 사태를 바라본다는 대립적인 프레임을 구축하였다.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도 커서 반대 진영은 성숙한 시위 문화 보장을 주장하는 반면, 찬성 진영은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치를 내릴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탄핵 반대 진영은 기본적으로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촛불 시위를 이해하고 또 축제 분위기로 행사의 역사적 의미를 구성하고 있다. 촛불 시위대에는 대규모이지만 질서정연하고 평화적인 시위라는 이미지가 강조되며 특히 어린아이, 노인, 젊은 여성들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영상 기법이 빈번하게 동원된다. 이런 점에서, 역사적 의미와 영상 이미지라는 프레임 장치에서 텔레비전 보도는 탄핵 반대 진영의 입장에 공명하는 의미 구성의 현저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태의 원인과 결과를 두고 탄핵 반대 진영은 당리당략적 탄핵에 대해선 대규모의 집회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인과 논리를 주장하는데 반해, 찬성 진영은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을 야기할 뿐이라는 논리를 강조하는 프레임이 구성된다. 사태 해결을 위해 찬성 진영이 즉각적인 자진 해산을 촉구하는데 비해, 반대 진영은 공식 선거 기간이 시작되면 그만둘 것이라는 자제력을 내세운다는 점이 각각 강조된다. 결국, 촛불 시위를 둘러싸고 정당한 시민권의 행사라는 프레임과 은밀한 배후 세력의 조직적인 동원이라는 프레임이 서로 대립하는 방식으로 정치 갈등 현실이 재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탄핵 관련 방송은 편향 방송 시비 논란을 또 하나의 경쟁하는 프레임들로 구축하였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민주당과 한나라당 관계자가 두 공영 방송사를 차례로 항의 방문하면서 이 문제가 탄핵 정국의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여권은 야권이 제기하는 편향 방송 시비를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규정하며 방송에 대한 야권의 규제 방침을 신군부 세력의 방송 장악이라는 역사적 사례에 견주거나 新보도지침이라는 은유를 써가며 비판한다. 그러나 편향 방송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은유나 역사적 의미와 관련된 프레임 요소는 관찰되지 않았다. 결국, 편향 방송 시비는 공영방송의 본분 망각이라는 방송 공격 진영의 프레임과 야권의 정치 공세라는 방송 옹호 진영의 프레임이 서로 경쟁하면서 탄핵 정국의 갈등을 새 국면으로 전개시켰다.

(3) 주제(맥락) 프레임의 유형과 변화

탄핵 관련 방송의 주제(맥락) 프레임은 크게 7가지로 부각되었다. 탄핵 소추안 가결 과정과 관련된 보도에서 국정 공백 프레임, 권한대행 체제 사태 수습 프레임, 경제적 결과 프레임, 시민 동요 프레임, 정치적 결과 프레임이 추출되었고, 촛불 집회 관련 보도에서 시민 저항 프레임이, 그리고 편향 방송 시비 관련 보도에서 국면 전환책 프레임이 각각 도출되었다.

국정 공백 프레임은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정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민들의 혼란을 우려해,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해가야 한다는 내용과도 연관이 있다. 권한대행 체제 사태 수습 프레임은 대부분 대통령의 권한 정지로 인한 국가 비상시국을 잘 대처하는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안정을 약속하는 이미지를 제공한다. 이런 점

에서 이상의 두 주제(맥락) 프레임 모두 정국 안정화를 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경제적 결과 프레임과 정치적 결과 프레임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정치적 결과와 경제적 결과를 전망하는 프레임이다. 정치 갈등 문제를 다루는 보도에서 자주 등장하는 경제적 결과 프레임은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 보도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탄핵 정국이 경제 불안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치적 결과 프레임은 총선에 미칠 영향을 언급하는 측면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주제(맥락) 프레임은 대개 정파간의 대립이나 사회 갈등적인 내용과 연관되므로 부정적인 의미를 구축할 수 있다.

시민 저항 프레임은 촛불 집회 또는 보수 단체 시위 관련 보도에서 대두된 프레임으로 대부분 연일 대규모로 일어나는 촛불 집회가 평화적인 시민권의 행사라는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단체 시위 보도에서도 드러나지만 촛불 집회 보도만큼 다양하지 못하다.

국면 전환책 프레임은 주로 편향 방송 시비 관련 보도에서 도출된 프레임으로 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해 야권과 여권이 모두 편향 방송 시비를 하나의 국면 전환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4) 방송사별 정치 쟁점에 대한 프레임 요소 분석

탄핵 정국의 정치 행위자와 정치 쟁점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과 경쟁 프레임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프레임 장치(프레임 요소)에서 방송사별 또는 프로그램 유형별로 현저성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양적 분석을 시도한 결과, 정치 행위자에 대한 이미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프레임 장치의 현저성에는 방송사나 프로그램 유형을 막론하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직 정치 쟁점에 대한 방송사별 프레임 요소의 현저성만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정치 쟁점의 경쟁 프레임을 구성하기 위해 미디어가 동원하는 프레임 요소의 현저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방송사 사이의 미세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상파 방송3사는 대체로 쟁점의 주제나 내용과 관계없이 탄핵 반대 진영에 공명하는 프레임을 강조하는 쪽으로 현실을 재구성하는 보도에 주력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4) 담화분석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담화분석을 통해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사회자의 탄핵 관련 멘트에 어떠한 언어적 활용 장치들이 사용되며, 그 결과적 의미는 어떠한지 분석해 보고자 했다. 그 결과를 ① 표현 방식에 따른 비교, ② 방송사별 비교, ③ 프로그램 장르별 비교, ④ 시기별 비교, ⑤ 행위 주체별 비교, ⑥ 주제별 비교로 나누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마지막에는 토론 프로그램 사회자의 발언권 관리 양식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1) 표현 방식에 따른 구분

분석의 틀로 사용한 언어적 표현 기법은 타동성, 진실 양태, 적극적 근거성, 소극적 근거성, 판단 표현, 주장 등 여섯 가지였다. 이 여섯 개 표현 기법 중 하나 이상이 활용되었다고 해서 그 표현에 문제가 있다거나 저널리즘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분석 결과로 나온 900회의 표현 기법 그 자체가 문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함축하면서 사용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타동성 표현은 주로 문장의 실질적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기술되는데, 그 주체는 대개 '대부분의 사람', 혹은 '전체 국민'을 가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동태 형식을 빌려 '국민'을 숨겨진 주어로 암시하면서 화자의 주장이나 가치 평가를 제기하는 것이다. 뚜렷한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으나 상식적으로 예상 가능한 경우, 특히 부정적 예상을 하는 경우 타동성 도구가 자주 활용되었다.

진실 양태의 경우 특정 주체나 사물, 개념 등을 객관화시킬 때 방송 보도가 이를 많이 사용하였다. 가치판단이 개입된 단어가 활용되지 않음으로써 방송사의 주관이 개입된 문장이 아니라고 시청자는 느끼지만, 실상 '정의(definition)'이나 다름없는 표현을 활용함으로써 주관적 평가를 함축한다. 근거가 부족한 채 사실을 정의하는 경우와 일반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로, 적극적 근거성은 주로 화자가 서술 내용을 강조하고 싶을 때 활용하는 표현 기법이다. 따라서 적극적 근거성의 활용 그 자체가 내용의 왜곡을 불러오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화자의 의도에 따라 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탄핵 관련 사회자 멘트에서 적극적 근거성이 활용된 경우 역시 대개 강조를 위해서였다.

넷째, 소극적 근거성은 개연성을 강조하거나 불확실한 추측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확실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소극적 단정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는 강

한 단정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의 왜곡일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사실처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한 표현 기법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 미래에 있을 일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거나 예측할 때 역시 소극적 근거성이 활용되었다.

다섯째로, 판단 표현은 '평가'를 수반하는 경우인데, 화자의 가치가 개입된 경우이다. 분석 대상 중 판단 표현이 사용된 경우는 상당히 많았다. 판단 표현은 말 그대로 특정 사람이나 사물, 사건에 대한 판단이므로, 활용 사례의 특징적인 공통점이나 경향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단, 동일한 서술 대상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된 활용 방식이 발견된다.

마지막으로 주장 표현은 화자가 명시적으로 주장이나 권고, 당부를 하는 경우이다. 분석 대상 중 주장이 포함된 사례의 대부분은 국민(시청자)에 대해 안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당부였다. 산발적으로 정치인들을 향한 직접적 촉구와 미디어 기관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2) 언어적 표현 기법의 방송사별 비교

여섯 개 언어적 표현 기법을 방송사별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계량적으로 빈도만을 나타낸 표만을 보면 두드러지는 방송사 간 차별성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수치상으로 드러난 차이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표현 기법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의 문제일 것이다.

3개 방송사의 특성을 상대적으로 내용 비교한 결과를 요약하면, 문화방송이 한국방송이나 서울방송에 비해 평가적인 표현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탄핵 가결에 대한 국민 반응이건 야 3당에 대한 표현이건, 좀더 감정적이고 역동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도 근거가 충분치 않은 단정이나 예측을 함으로써 문제점을 드러냈다.

(3) 언어적 표현 기법의 프로그램 장르별 비교

분석 대상이 된 프로그램을 크게 뉴스, 토론, 심층분석보도물, 정보교양물로 구분할 때, 언어적 표현 기법 상의 차이는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이는 탄핵에 대한 방송 보도의 특성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사실상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같은 사회자라 하더라도, 뉴스 앵커는 비교적 사실 전달에 치중하고 시사 다큐멘터리와 같은 심층분석보도물 사회자는 강조 부사를 자주 사용하며 정보교양물 사회자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화행동사 활용이 잦다는 점 등은 장르 특성상 어느 정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결과는 상대적 비교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뉴스가 다른 장르에 '비해' 판단 표현이 적다는 점을 보여줄 뿐 절대적 수치가 적거나 가치판단의 정도가 용인될 정도 이하라고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4) 언어적 표현 기법의 시기별 비교

분석 대상이 된 텔레비전 방송 시기는 9일이지만, 탄핵안이 가결된 후 특집방송이나 속보로 채워졌던 처음 이틀(3월 12, 13일)과 나머지 일주일 사이에는 언어 표현 기법에서도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 적극적 근거성이 늘어난 것은 단신 위주의 속보가 사라지고 다소 심층적인 취재나 해설의 비중이 커지면서, 확신/강조 부사의 사용이 늘어난 탓으로 보인다. 주장 표현이 늘었다는 사실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 가능하다. 혼란한 상황의 묘사에 치중하던 방송사들이 적극적으로 안정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펼치면서 자연스레 권고나 당부의 의미가 내재된 화행동사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언어적 표현 방식의 행위 주체별 비교

탄핵과 관련된 행위자이면서 방송 보도를 통해 자주 언급된 주체를 여섯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정치인 일반의 경우는 부정적 함의를 포함하는 판단 표현이 많이 사용되었고, 열린우리당은 '분노'를 나타내는 판단 표현과 '여유', '만족'을 나타내거나 부정적 함의가 있는 판단 표현 및 진실 양태가 두드러졌다. 그에 비해 야 3당은 부정적 함의의 판단 표현과 양면적 성격의 진실 양태를 사용하였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는 중립적 판단 표현으로 기술하였고,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과 행정 관료에 대해서는 긍정적 성격의 진실 양태와 긍정적 함의의 판단 표현을 사용하였다. 국민에 대하서는 '충격'을 나타내는 판단 표현과 '안정'을 강조하는 진실 양태, 과도한 일반화를 유도하는 진실 양태, 그리고 당부의 의미를 담은 주장을 주로 사용하여 보도하였다.

열린우리당과 야 3당의 비교를 보면, 열린우리당에 대한 방송의 초기 묘사는 분노, 비통, 울분 등이었던데 비해 한나라당을 위시한 야 3당에 대해서는 무소불위의 힘, 음모적 치밀함, 오만함 등이 집중적으로 부각되었던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여유', '고무' 등과 더불어 '잡음', '곤혹' 등의 판단 표현이 함께 활용되었던 데 비해 야 3당에 대한 표현이 '당황', '초조', '절박', '휘청', '경악' 등으로 바뀌었다. 탄핵 가결 직후에 열린우리당에 부여되었던 많은 감정적 표현들이 야 3당으로 옮겨간 형국이다.

(6) 언어적 표현 방식의 탄핵 관련 주제별 비교

방송 보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주제를 세 가지에 대한 멘트를 분석하여 각각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탄핵 가결 과정 및 탄핵 사태, 탄핵안 가결 이후에 대한 전망과 예측, 탄핵안 가결에 대한 각계의 반응 등 세 주제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분석한 결과, 주제를 막론하고 가장 주목되는 언어적 표현 기법은 판단 표현이었다. 탄핵 가결 과정은 특히 감정이 과잉된 판단 표현이 많았으며, 앞일에 대한 전망 역시

마찬가지였다. 더구나 의미적으로 대조적인 ‘혼란’과 ‘안정’을 각각 상징하는 판단 표현이 동시다발적으로 활용되었다.

각 계의 반응을 보도하는데 있어서도 판단 표현이 자주 사용되었는데, 내용상으로도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국민의 반응은 ‘사태에 대한 당혹감’과 ‘정치권에 대한 성토’로 일반화되었고, 열린우리당과 야 3당의 반응 역시 ‘분노한 여당’과 ‘오만한 야당’의 구도 속에서 지나치게 많은 판단 표현이 사용되었다. 정확한 정보 전달에 의해서가 아닌 화자의 가치가 개입된 단어들을 사용하여 여야 구도를 묘사하였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7) 토론 사회자의 발언권 관리 양식

토론 프로그램의 사회자가 누구에게 발언권을 부여하고 누구로부터 박탈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탄핵 찬성과 반대 집단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발언권 부여 횟수에서 박탈 횟수를 빼어 비교했을 때, 탄핵 찬성 집단은 총 75회의 발언권을, 반대 집단은 총 79회의 발언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 차이가 진행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문제 삼을 만큼 크다고 보여 지지는 않는다. 대신, 탄핵 찬성 집단에 대해 발언권도 많이 주고 뺏기도 많이 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 연구 결과에 관한 논의

연구진은 불과 2달이 채 안 되는 짧은 연구 기간에 실로 방대한 분량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분석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3월 12일과 13일의 뉴스 특보·속보, 14일부터 7주일간의 정규 저녁 뉴스, 시사·교양·정보·토론 프로그램 등 6개 장르, 17개 종류의 프로그램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 프로그램의 길이는 모두 96시간에 이르렀고, 이를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의 수만도 모두 201개(67개 x 3개 연구팀)에 달했다. 이러한 방대한 분석 작업을 위해 6명의 전문 연구진(저널리즘 전공 교수 및 각 방법론에 지실한 교수), 6명의 연구 조교(석사·박사 과정), 20명의 훈련받은 전문 코더(주로 대학원 학생 및 일부 학부생)가 참여했고, 특히 보고서 작성을 위한 마지막 1주일간은 수면 부족에 시달릴 만큼 시간과의 싸움을 벌였다.

연구 결과를 마무리할 때까지 연구진의 뇌리 속에는 줄곧 떠나지 않았던 하나의 화두가 있었다. 그것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중대 사태에 직면하여 한국의 TV방송이 그들의 존재 조건의 하나인 ‘국민의 알권리’[2]를

2)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알권리’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인 동시에 청구권적 기본권이고, 나아가 현대 사회가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이행해 감에 따라 ‘생활권적’ 기본권의 성질까지도 획득해 나가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90헌마133 결정).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현행 방송법 제 6조 4항은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

위해 관련 정보와 견해를 공정하게 보도했는가 하는 질문이다. 분석 결과는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도 공정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의 방송사는 모두 공정성과 관련해서 스스로 지키겠다고 스스로 만든 규정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방송은 왜 스스로 만든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가? 한국의 방송 언론인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이슈의 기본적 성격을 잘못 파악한 것이 아닌가 하고 우리는 추론한다. 탄핵안 가결을 둘러싼 갈등을 합법적 논쟁의 영역에 속하는 제도권 정치집단 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일탈적 행위로 보았거나 그렇게 보고자 했다고 추론하는 것이다. 국·내외의 무수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일탈 영역(sphere of deviance)과 합의의 영역(sphere of consensus)에 속하는 이슈의 보도에는 공정성 규범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나, 합법적 논쟁의 영역(sphere of legitimate controversy)에 속하는 이슈의 보도에는 공정성 규칙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책과 법안을 둘러싼 의회 내의 정치집단 간의 정치적 갈등, 공직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당 간의 정치적 경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법적 논쟁의 영역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회 갈등으로 꼽히고 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의 절차적 적법성에는 하자가 없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TV방송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일탈적 행위로 성격을 파악한 증거는 연구 결과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예컨대 탄핵 반대 진영의 의견이 찬성 진영의 견해보다 훨씬 더 많이 보도된 양적 편향도 그렇지만, 탄핵 반대 진영의 '의회 쿠데타'와 찬성 진영의 '의회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경쟁 프레임 구도 하에 하위 프레임으로 탄핵 주도 세력을 '非개혁적 가해자', '정략적 정치집단', '위기의 민의 외면 집단'이라고 부정적으로 틀짓기를 한 반면, 탄핵 반대 세력을 '개혁적 민주 세력', '역부족인 피해자', '민의를 대변하는 약자'로 국민의 동정을 유발하는 틀짓기를 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영상 이미지도 대립적 경쟁 프레임의 구도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행위 주체로 등장하는 기사의 영상은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에서 국회 경위들에게 끌려 나가거나 무릎 꿇고 애국가를 부르며 서로 껴안고 우는 모습을 반복적인 영상 처리로 보여주었고, 또 대야 투쟁 결의와 탄핵 부당성을 호소하는 활동을 빈번하게 보도함으로써 탄핵 반대 세력의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내용을 부각하는 등 탄핵 반대 진영의 영상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한나라당을 포함한 탄핵 찬성 집단의 영상은 힘을 사용하여 탄핵안을 강제 처리한 가해자라는 이미지가 강조되고

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명문화 하고 있다.

있다. 이를테면,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강제력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장면, 또는 국회 경위들과 함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끌어내는 장면, 그리고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안 가결을 앞두고 한가하게 웃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 등이 강조됨으로써 앞서 말한 세 개의 프레임, 즉 非개혁적 가해자, 정략적 정치집단, 민의를 외면하는 정치집단의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한국의 TV방송은 약자와 강자의 대립 구도를 설정해 놓은 후에 '억울한 약자'의 프레임과 '부당한 강자'의 프레임을 대비시켜 놓고 전자를 두둔하는 방향으로 전체 프레임을 구성하였다. 약자를 개혁 및 민주 세력으로 묘사하여 이들에게는 긍정적 프레임을 부여한 반면, 강자에게는 반개혁 및 非민주 세력으로 규정하여 부정적 프레임이 돋보이게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약자의 분노를 촉발하는 프레임을 양산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인터넷 영역에서도 이러한 '약자 분노 프레임'이 모든 주요 사이트를 지배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사이트를 통해 확산되었던 메시지는 '강자에 대한 저항', 곧 '촛불 시위에의 참여 촉구'였기 때문이다. 탄핵 관련 TV방송의 프레임 분석은 방송과 인터넷 간의 프레임 공명 현상이 여론의 변화와 군중의 동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를 분석해 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탄핵 방송에 대한 프레임 분석의 중대한 성과는 귀납적 프레임 분석에 의거하여 도출된 행위 주체 및 쟁점별 프레임들을 다차원적으로 해석했을 뿐 아니라 프레임의 빈도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질적 분석 방법과 양적 분석 방법을 통합하는 '종합적' 프레임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엄청난 분량의 자료에서 프레임을 뽑아낼 뿐 아니라 프레임의 분포를 계량화시켰던 이런 작업은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연구기법이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는 대단히 크다고 하겠다.

비대칭적인 프레임은 비판적 담화분석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언어적 표현 방식을 행위 주체별로 비교해 보면, 열린우리당에 대한 탄핵안 가결 초기의 방송 묘사는 분노, 비통, 울분 등이었던데 비해, 한나라당을 위시한 야 3당에 대해서는 무소불위의 힘, 음모적 치밀함, 오만함 등이 집중적으로 부각되었던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는 '여유', '고무' 등의 판단 표현이 활용되었던 데 비해, 야 3당에 대한 판단 표현은 '당황', '초조', '절박', '휘청', '경악' 등으로 바뀌어 탄핵 찬성 진영이 궁지로 몰리고 있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는 데서도 재삼 확인된다.

프로그램 사회자의 멘트를 분석한 결과 사회자는 가치판단과 평가를 개입시키는 멘트를 종종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야 3당을 언급할 때 부정적 평가가 개입된 멘트를 많이 사용했다는 결과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결과 또한 프레

임 분석이나 양적 내용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방송 프로그램 사회자가 탄핵과 같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를 다루면서 정파적으로 비칠 수 있는 가치 개입적 표현 기법을 쓴다는 것은 공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특정한 정파에 “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말은 피한다”는 방송사 자체의 윤리 강령을 위반한 것도 문제이며, 이런 성향이 점차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도 우려할만한 현상이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과장하거나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멘트도 좋은 저널리즘의 조건에 위배되는 사항이었다. 사실 확인이나 진실 검증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무책임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국민들을 정서적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충격’, ‘당혹’, ‘절망’, ‘격렬’, ‘요동’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사회자는 국민들을 과도하게 걱정하거나 흥분한 집단으로 묘사하였다고 하겠다. 이런 분석 결과는 사회자가 방송의 상업주의와 선정주의에 편승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자가 시청자를 향해 ‘무엇을 해야 한다’식으로 주장하는 멘트에도 국민을 등장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을 나타나 방송을 계몽의 도구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규 뉴스와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 공히 탄핵 반대 진영과 찬성 진영에 대한 양적 편향은 크로마키, 자막, 인터뷰 수 및 인터뷰 내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리고 크로마키와 자막 사용에 있어서의 편향성은 ‘시민 여론 반응’과 관련된 기사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정규 뉴스의 경우 탄핵 반대 진영의 주장이 담긴 크로마키는 33.8%인 반면, 찬성 진영의 것은 2.1%로 무려 15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방송사 간의 차이도 심하게 나타났는데, 문화방송의 크로마키는 53.7%가 탄핵 반대 진영의 주장 요지를 담고 있는데 반해, 단 2.4%만이 탄핵 찬성 진영의 주장 요지를 담고 있었다. 이에 비해 한국방송과 서울방송의 경우 각각 24.7%와 29.2%의 크로마키 사용이 탄핵 반대 진영의 주장 요지를 보도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중립적인 크로마키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로마키와 자막 사용의 심한 편향성은 이론적으로 중요한 함의가 있다. 기사 텍스트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는 반드시 텍스트의 모든 문장을 다 듣고 난 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시청자는 크로마키 또는 앵커의 소개 멘트만 듣고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기사 방향을 이해한다. 신문의 표제와 소제목과 유사한 역할이다. 다시 말해 TV뉴스의 크로마키와 자막은 특정 기사가 보도하는 대상인 현실과 정치 지도자 및 그 정책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점화 효과(prime effect)를 일으킨다. 크로마키와 자막이 시청자의 현실인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각 방송사는 크로마키와 자막 처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살펴본 대로 이들 자체 규정은 거의 지켜지

지 않았다. ‘시민 여론 반응’ 관련 뉴스에서는 탄핵 반대 진영과 찬성 진영의 인터뷰 수도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즉 탄핵 반대 진영의 인터뷰 수는 기사 당 평균 1.01개였지만, 탄핵 찬성 진영의 인터뷰는 평균 .26개로 거의 4배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크로마키와 자막, 인터뷰 수에서의 편향성이 ‘시민 반응 여론’ 주제에 더 심하게 나타난 것은 방송사의 보도 방향이 시민의 반응을 동일시한다는 측면에서, 나아가 상호 입장을 보강하는 시너지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함의를 지닌다.

정규 뉴스를 보도하는 앵커의 멘트나 기자의 리포트에서는 전체 977건의 기사 가운데서 탄핵 반대 진영에 대한 편향이 발견된 것은 앵커 멘트가 5건, 기자 리포트가 15건에 불과해 상당히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의 앵커 멘트와 기자 리포트는 상대적으로 심한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앵커 멘트의 경우 탄핵 반대 진영을 두둔하는 멘트가 찬성 진영을 두둔하는 멘트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방송사별로는 문화방송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문화방송 앵커 멘트의 47.6%가 탄핵 반대 집단을 두둔한 반면, 찬성 집단을 두둔한 멘트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 리포트에서도 3개 방송 모두 탄핵 반대 집단을 두둔하는 리포트가 찬성 집단을 두둔하는 리포트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여기서도 문화방송이 한국방송과 서울방송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별로는 연구진이 나중에 통계 처리상의 편향(bias)를 줄이기 위해 극단적 사례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통계 처리를 했을 정도로 ‘신강균의 뉴스 서비스 ...’은 그 정도가 심했다. 문화방송의 전체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의 리포트 가운데서 21.5%(KBS는 12.7%)가 탄핵 반대 진영을 두둔하는 리포트를 보도한 반면에 ‘신강균....’에서 방송된 11건의 리포트는 한 건도 빠짐없이 탄핵 반대를 두둔한 리포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탄핵 반대와 찬성의 일방적인 불균형은 앵커 멘트에서도 11 대 0으로 확인됐고, 출연자의 성향에서도 8 대 0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의 편향성은 그나마 탄핵 반대와 찬성이 9 대 2로 나타났다. 극단적 편향성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탄핵 과정에서 나타났던 한국 TV 방송의 편향성 수준을 3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첫째는 절제적(unobtrusive) 편향으로 공정성 규범을 의식하고 절제한 흔적이 보이나 자체의 공정성 규칙을 어느 정도 어긴 것으로 나타난 편향을 말한다. 여기에는 정규 뉴스 프로그램 가운데 ‘탄핵 정치 과정’으로 분류된 기사의 처리에서 심하지 않게 편향성이 나타난 기사가 포함된다. 두 번째는 일탈적(deviant) 편향으로 방송사 스스로 지키겠다고 스스로 만든 공정성 규범을 심하게 일탈한 기사와 프로그램들이다. 정규 뉴스 프로그램의 ‘시민 반응 여론’ 관련 기사에서 크로마키, 자막, 인터뷰 수가 심하게 편향성을 보인 기사가 포함되고, 시사·정보·교양 프로

그램의 앵커 멘트, 기자 리포트, 인터뷰에서 심한 편향성을 보인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셋째는 파괴적(subversive) 편향으로 '신강균의 뉴스 서비스...' 같이 극단적인 편향성을 드러낸 기사와 프로그램들이 포함된다. 우리가 이렇게 명명한 것은 '신강균....'과 같은 일방적 편향성은 그들이 스스로 만든 공정성 규범의 토대마저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탄핵 관련 이슈의 처리에 있어서 비록 탄핵 반대 진영을 두둔하는 기사와 프로그램이 탄핵 찬성 진영을 두둔하는 기사와 프로그램보다 비대칭적으로 많았던 것은 이 연구의 다양한 방법론에 의해 확인 됐지만, 기사와 프로그램의 더 많은(majority) 내용은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으로 코딩하기 어려운 중립적인 의견과 정보로 채워졌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국 TV 방송의 미래에 희망을 발견한다. 이것은 한국의 TV방송과 그 종사자들이 모두 정파적 이해관계에 함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 중에는 저널리즘의 원칙과 규범을 지키기 위해 불리한 여건과 분위기 속에서도 끈질기게 노력하는 기자와 PD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방증 하는 것이다.

연구를 끝내면서 우리는 공정성 문제를 다시 한번 반추해 본다. 사실 한국사회에서 공정성 논란은 주로 선거 보도에서 첨예화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벤치마킹 하려는 서구 선진국은 물론이고 가까운 일본만 해도 선거 과정 또는 선거가 끝난 후에 언론의 보도 공정성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했던 적은 없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사회의 공정성 논란은 본말이 전도된 후진적이며 소모적인 논제이다. 공정성 문제는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 사회에서 주로,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치열하게 논의되어 온 주제다. 이처럼 후진적이며 소모적인 주제에 관한 논의는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특히 主정보원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굳힌 TV뉴스의 사회적 위상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무엇이 좋은 방송 뉴스이냐, 다시 말해 방송 저널리즘의 질을 제고하는 문제가 중점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방송은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활동한다. 때문에 공정성이 훼손될 여지는 언제나 존재한다. 따라서 공정성 또는 객관성에 대해 회의를 품는 비판은 여러 측면에서 정당하다. 공정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오만하고 自己過信的이며 동시에 自己欺瞞的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스스로 공정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일수록 그러한 한계를 극복할 가능성이 많을 지도 모른다(Lichtenberg, 1991).

진실에 이르는 길은 험난하다. 때로 언론 보도의 편향성은 명백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유래하기도 하고, 보다 구조적인 이념적 성향에서 비롯되기도 한

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한 공정성의 가치와 그 가능성, 이 두 가지를 가정하지 않고는 곤란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할뿐이다.

저널리즘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건전한 문제의식과 의지를 갖고 끈질긴 탐사 노력을 해본 언론인이라면, 공정성은 세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만들고 만들어 가야 할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에 동의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정성은 형이상학이 아니라 실천적 규범인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국민의 主정보 매체로서,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서 TV저널리즘의 질을 그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제고하는 대승적 차원의 논의에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도 공정성 논란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다.

■ 참 고 문 헌 ■

BBC (1987). *Fairness and Impartiality in Political Broadcasting*. London: BBC.

Bennett, W. L. & Entman, R. M. (2001). *Mediated politics: Communication in the future of democra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Bennett, W. L. (2001). *News: The politics of illusion* (4th ed.). New York: Addison Wesley Longman.

Cohen, A., Adoni, H. & Bantz, C. (1990). Social Conflict and Television News. London: Sage Publications.

D'Angelo, P. (2002). News framing as a multiparadigmatic research program: A response to Entman. *Journal of Communication, 52(4)*, pp.879-888.

Dahrendorf, R. (1959).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Entman, R. M. (1993). Framing US coverage of international news: Contrasts in narratives of the KAL & Iran air incid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pp.6-27.

Fiske, J., (1993) *Power plays, power works*. London: Verso.

Fowler, Roger (1991). *Language in the news: Discourse and ideology in the press*. London: Routledge.

Gamson, W. A. & Lasch, K. E. (1983). The political culture of the social welfare policy. In S. E. Spiro & Y. Yuchtman-Yaar (Eds.). *Evaluating the welfare state: Social and political perspectives*. New York: Academic Press.

Gamson, W. A. & Mogdiliani, A. (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A constructioni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 pp.1-37.

Garnham, N., (1992). "The media and the public sphere". In C. Calhoun, (Ed.), *Habermas and the public sphere*. Cambridge: MIT press.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Berk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Hallin, D. (1886). *Uncensored War: The Media and Vietna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Hallin, D. (1986). The uncensored war: the media and vietnam.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Hallyday, M.A.K. (1978). *Language as social semiotic: the social interpretation of language and meaning*. London: Edward Arnold.

Keane, J., (1995a)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Public sphere". *The Communication Review* 1(1), 1-22.

Lee, M.W. (1986). Social Conflict in TV News: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Unpublished Dissertation.

Lichtenberg, J.(1991), "In Defence of Objectivity", in J. Curran & M. Gurevitch(Eds.), *Mass Media and Society*, London: Edward Arnold, 216-231.

MacMillan, K and D. Edwards (1999). "Who killed the Princess? Description and blame in the British press,". *Discourse and Society*, 1(2): 151-174.

Mander, M. (Ed.)(1998). Framing Friction: Media and Social Conflict. Urbana Champaign: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McCombs, M., Llamas, P., Lopez-Escobar, E., & Rey, F. (1997). Candidate images in Spanish elections: Second level agenda setting effect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4*, pp.703-717.

McCombs, M., Lopez-Escobar, E., & Llamas, P. (2000). Setting the agenda of attributes in the 1996 Spanish general elec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50(2),* pp.77-92.

Mellucci, A., (1989) *Normads of present*, London: Hutchinson.

Newhagen & Levy(1998). The future of journalism in a distributed communication architecture. In Bordon, D. & Harvey, K.(Eds.). *The Electronic Grapevine*. 9-21.

Pan, Z. & Kosicki, G. M. (1993). Framing analysis: An approach to news discourse. *Political Communication*, *10*, pp.59-79.

Riff, D, Lacy, S. & Fico, F. (1998). Analyzing Media Messages. Lond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Scheufele, D. (1999). Framing as a theory of media effects. *Journal of Communication, 49(1),* pp.103-122.

Semetko, H. A. & Valkenburg, P. M. (2000). Framing European politics: A content 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50(2),* pp.93-109.

Stein, M. L., & Paterr, S. F.(1998). *The news writer's handbook: An introduction to journalism*. Ames: Iowa State Univ. Press.

Triandafyllidou, A. (1995). "The Chernobyl accident in the Italian press: a media storyline". *Discourse and Society,* 6(4): 517-536.

Tuchman, G. (1978). *Making news*. New York: Free Press.

van Dijk, Teun A. (1988). *News as Discours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van Dijk, Teun A. (1998). "Opinions and ideologies in the press". In Bell and Garrett, *Approaches to Media Discourse*. London: Blackwell, pp.21-63

Wolfsfeld, G. (1997). *Media and political conflict: News from the Middle Eas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용진 (2002). “한국과 미국의 신문사설 텍스트 비교: ‘근거성’ 표현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7권 1호, pp.119-149.

주창윤 (2000). “북한관련 보도의 반성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남북화해시대 통일을 위한 방송의 역할. 2000년 8월, 한국언론정보학회.

이민웅 (1997).

◆ 부 록 1 ◆

▣ 저녁 종합뉴스 분석용 코드북 ▣

정규 저녁 9시 뉴스 및 특보·속보 내용 분석 Code-Book

V1. 기사 ID (처음으로 코딩한 기사는 001)

1 2 3

☐☐☐

V2. 어느 방송사의 뉴스인가?

4

☐ 1) KBS1 2) MBC 3) SBS

V3. 방송 날짜?

5 6 7 8

☐ ☐☐ ☐ 요일: 1)일 2)월 3)화 4)수 5)목 6)금 7)토

월 날짜 요일

V4. 기사 순서: 처음부터 몇 번째

9 10 11

☐☐☐

V5. 기사 길이(앵커 멘트 포함)

12 13 14

☐☐☐ 초

V6. 기사의 주제 영역

15 16

☐☐

1) 탄핵과정
2) 탄핵에 대한 정치권 반응(종합)
3) 탄핵에 대한 여권 대응
4) 탄핵에 대한 야권 대응
5) 정부 대응
6) 시민 반응
7) 외국 반응
8) 경제계 반응
9) 여론동향
10) 촛불 시위/ 반탁 시위
11) 찬탁 시위
12) 헌재 판결 관련 보도
13) 총선에 대한 영향
14)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V7. 정치적 갈등 기사로 처리 여부(기사 내용이 갈등적 요소를 담고 있느냐의 여부)

17
[ ]
1) 있다(갈등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거나, 당연한 것으로 처리된 것도 포함. 예컨대 이해관계자의 고발·고소에 의한 검찰 수사 또는 법원 판결
2) 없다.

☞ **코딩 가이드 참고할 것**(어떤 기사가 탄핵 또는 탄핵 관련 이슈를 둘러싼 찬·반 진영의 주장을 취급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그 기준이 된다).

V8. 크로마키 처리 여부 및 내용

18
[ ]
1) 탄핵 반대 진영의 주장 요지가 크로마키로 처리
2) 탄핵 찬성 진영의 주장 요지가 크로마키로 처리
3) 어느 일방의 주장 요지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4) 크로마키 처리 없음

V9. super(자막) 처리 여부 및 내용(복수의 자막 있을 수 있음)

19 20 21 22
[ ][ ][ ][ ]
1) 탄핵 반대 진영의 주장 요지가 자막으로 처리
2) 탄핵 찬성 진영의 주장 요지가 자막으로 처리
3) 어느 일방의 주장 요지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4) 자막 없음

V10. 화면과 기사 내용의 주제영역 일치 여부

23
[ ]
1) 탄핵 관련 동영상 없음 (현장 사진 또는 앵커 얼굴만 사용)
2) 자료 화면의 주제 영역과 기사의 그것이 거의 일치
3) 자료 화면의 주제 영역과 기사의 그것이 다소 일치 하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화면이 아닌, 유사 영역의 화면)
4) 거의 일치하지 않음
(외신 기사인데 촛불 시위 화면,
국내 경제 기사인데 탄핵 시위 장면 등)

V11. 화면과 기사 내용이 거의 일치하지 않을 경우(복수 코딩 가능)

24 25 26
[ ][ ][ ]
1) 탄핵 가결안 국회통과 장면(박관용 의장, 한나라당 의원 중심)
2) 탄핵 가결안 국회통과 장면(열린우리당 중심)
3) 탄핵 가결안 국회통과 장면(기타 장면: 한나라당 의원 모습 등)
4) 촛불 집회 장면(탄핵 반대 진영 화면)
5) 촛불 집회 장면(탄핵 찬성 진영 화면)
6) 탄핵 반대 기자회견
7) 탄핵 찬성 기자회견
8) 외신의 풋티지
9) 기타(구체적으로)_____

V12. 기사의 취재 경로(복수 코딩 가능: 주요한 것부터 번호 기입)

27 28 29
[ ][ ][ ]
1) 공식 발표 내용(보도 자료, 인터뷰, 기자회견, 기자 간담회 포함)
2) 회의, 집회, 행사의 내용

□□□ 3) 공식 발표 내용 + 추가 취재
4) 회의, 집회, 행사의 내용 + 추가 취재
5) 독자적인 취재(기획 취재 및 인터뷰 포함)
6) 현장 사건(발생)
7) 기타(국제 뉴스, 확인 불가능 포함)

V13. 기자 리포트의 성격 (기사 처리의 심층성을 보기 위한 것)

30
□ 1) 사건(발생) 과정--사실 보도
2) 사건(발생) + 원인(분석)
3) 사건(발생) + 원인(분석) + 영향(분석)
4) 사건(발생) + 원인(분석) + 논평(주관적 평가)
5) 사건(발생) + 원인(분석) + 영향(분석) + 논평(주관적 평가)

☞ 분석은 사실에 근거한 의미부여 및 범주화 작업
논평(해석)은 사실적 근거 제시 없는 주관적 평가, 코딩 가이드 참고할 것.

14. 기사에서 말하거나 인용된(인터뷰 된) 취재원의 수
(일명 Accessed Voices: Sound-Bite와 직접 인용 포함)

31 32 33
□□□ 31→탄핵 반대 진영 목소리(인터뷰 or 직접인용)의 수
32→탄핵 찬성 진영 목소리(인터뷰 or 직접인용) 수
33→중도적 입장의 목소리(인터뷰 or 직접인용) 수

V15. 탄핵 반대 진영 및 탄핵 찬성 진영의 주장이 보도된 길이(단위: 초)

34 35 36 37 38 39
□□ □□ □□ 34, 35→ 1) 탄반 진영의 주장이 보도된 길이
36, 37→ 2) 탄찬 진영의 주장이 보도된 길이
38, 39→ 3) 중도 집영의 주장이 보도된 길이

V16. 기사에서 말하거나 인용된(인터뷰 된) 취재원의 성격(직업 및 지위)
(4명까지 기입)

40 41 42 43 44 45 46 47
□□ □□ □□ □□ □□

(1) 정치인 - 여당
(2) 정치인 - 야당 - 한나라당(국회의장)
(3) 정치인 - 야당 - 민주당
(4) 정치인 - 야당 - 기타
(5) 정치인 - 민노당
(6) 정부 인사 - 대통령, 총리, 장관
(7) 정치 인사- 고위 공무원(차관 포함)
(8) 전문가 - 교수, 연구원, 정치 평론가
(9) 전문가 - 판사, 변호사 등 법조계
(10) 전문가 - 기업인, 경제인
(11) 검찰, 경찰(law enforcer)
(12) 언론인 - 자사
(13) 언론인 - 타사
(14) 언론인 - 언론유관단체
(15) 언론인 - 방송인/연예인
(16) 이익집단 - 시민운동 단체
(17) 이익집단 - 노동계
(18) 이익집단 - 종교단체
(19) 일반시민(학생 포함)
(20) 기타

V17. 취재원의 말이나 인용된(인터뷰 된) 내용의 성격
(V16에서 기록된 최대 4명까지 인터뷰에 대해 차례로 내용 성격 확인)

48 49 50 51

1) 주로 정보적 성격
2) 주로 분석적 성격(사실에 근거한 분석)
3) 주로 평가적 성격(사실의 제시 없는 평가)
4) 주로 감성적(정서적) 성격

V18. 보도 기자의 분석 및 논평(평가) 여부

52

1) 있다. 2) 없다.

V19. (보도 기자의 분석 및 논평(평가)이 있을 경우) 그 방향은?

53

1) 탄핵 반대 진영 및 열린우리당을 편드는 분석(사실에 근거한 의미부여)
2) 탄핵 찬성 진영 및 한나라당을 편드는 분석(사실에 근거한 의미부여)
3) 탄핵 반대 진영 및 열린우리당을 편드는 논평
(사실적 근거 제시 없는 주관적 평가)
4) 탄핵 찬성 진영 및 한나라당을 편드는 논평
(사실적 근거 제시 없는 주관적 평가)
5) 균형있는 논평

V20. 기사 전체의 편드는 기법(복수 코딩 가능)
(V20에서 편드는 경우에만)

54 55 56

1) 윤색적인 형용사, 부사, 동사의 사용
2) 기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섞인 표현
3) 역사적 사례(교훈) 또는 캐치프레이즈의 사용
4) 다른 사람의 말, 글을 인용하여 편들기
5) 바람직한 규범적 가치에 호소
6) 명백하게 드러난 앵커의 얼굴 표정
7) 기타 (구제적으로)_____

Coding Protocol(Coding Gide)

V1 : 코딩 순서대로 번호를 준다.
V2 : 어느 방송사의 TV뉴스 프로그램인지 그 이름을 찾아 그 번호를 기입한다.
V3 : (03)월 (12)일 (6)금요일처럼 두 칸, 두 칸, 한 칸씩 기입한다.
V4 : 맨 처음 보도되는 기사로부터 순서대로 코딩.
V5 : 길이를 초 단위로 재서 기입.
V6 : 기사의 주요 주제에 대해서 결정
V7 : 정치적 갈등 기사로 처리 여부

☞ 사회 갈등의 개념적 의미 및 정치적 갈등 기사의 코딩은 **아래의 설명을 참조**.

*** 개념적 정의:**
여기서 갈등은 사회적 갈등을 의미하는데, 사회적 갈등이란 “둘 이상의 사회 집단이나 그 집단의 대표가 양립할 수 없는(incompatible) 목적, 또는 같은 목적이라도 서로 다른 성취 수단을 놓고 벌이는 분쟁”을 의미한다.

*** 조작적 정의:**
1) 사회 갈등은 희소한 자원, 사회적 지위, 권력, 정책 그리고 기타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둘러싼 양립할 수 없는 이해관계로부터 발생한다(원인 또는 목적).
2) 사회 갈등은 이해 당사자(opponents) 사이의 행위와 대항 행위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다(과정).
3) 사회 갈등 행위는 상대방의 파괴, 손상, 무력화, 좌절화를 통해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희생 위에 목적을 달성하고자하는 행위를 포함하는데 이러한 행위에는 폭력의 행사, 고소, 고발과 같은 행동뿐만 아니라 분노의 표시, 비난, 고함과 같은 표현적 행위도 포함된다(행위의 특성).
4) 사회 갈등은 항상 사회적 영향을 수반한다(사회적 영향력).

*** 사회 갈등 기사:**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 갈등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 갈등이 TV뉴스 보도에서 갈등 기사로 취급하느냐의 여부이다. 산업사회의 대표적인 갈등은 노사 갈등과 정치 집단 사이의 권력(선거) 및 공공 정책을 둘러싼 정치 갈등이다. 물론 노사 갈등이 정치 갈등 기사로도 취급된다. TV뉴스가 정치적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당사자들(opponents)의 찬반 주장을 보도함으로써 이슈를 갈등적으로 처리했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어떤 정치적 이슈가 갈등적으로 처리되며, 어떤 이슈가 전혀 갈등이 없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처리되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갈등 기사가 어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보도되는 지도 알 수 있다. 지금 한국의 경우 TV뉴스는 정치적 갈등 기사의 처리에 있어서의 편향성을 가장 비판받고 있다. 다시 말해 정치 기사의 공정성 문제인 것이다.

*** 정치 갈등 기사의 코딩 기준 :** 어떤 기사가 탄핵 및 탄핵 관련 기사를 처리함에 있어서

탄핵 반대 주장과 탄핵 찬성 주장을 취급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그 기준이 된다.
V8 : 사실상 크로마키에 기록될 수 있는 문자의 수는 워낙 제한되어 있어서(8자 내외) 탄핵 반대 진영과 찬성 진영의 주장을 모두 요약하기는 쉽지 않으나 크로마키는 앵커의 소개 멘트, 신문의 경우 헤드라인과 소제목처럼 점화(priming) 효과를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V9 : 자막 내용이 갈등 당사자의 대표적 주장을 얼마나 잘 요약하고 있느냐 하는 질적인 측면이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자막 처리 여부와 그 내용의 방향성에 것만 코딩하고, 질적인 측면은 담론 분석에서 살펴본다.

V10 : 기사 내용의 주제 영역과 화면의 주제의 일치를 따져야 한다. 즉 기사 내용은 경제기사인데 경제와 관련 없는 다른 화면이 자료로 사용되면 '거의 일치 하니 않는 것'이 된다.

V11 : 화면이 기사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화면의 내용. (복수 코딩 가능)
제시된 지문 가운데 없는 것은 기타에 넣고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

V12 : 탄핵 보도의 경우 대부분이 유목 3)번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단신 처리 등 몇 가지 다른 경우수가 있을 수 있음으로 유목을 세분화했음.

V13 : 기사가 내용적으로 얼마나 심층성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임.

V14 :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 가운데 육성이 녹화되어 보도되는 경우도 있고(예컨대 탄핵안 통과 당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응 보도, 또는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이 촛불시위에 참여한 사람이 모두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발언의 보도 등), 그리고 이런 발언에 대한 반응을 기자가 인터뷰하는 경우도 있음으로 육성이 녹화되어 보도되는 취재원의 수를 모두 포함합니다.

V15 : 각 개별적인 인터뷰나 인용의 길이를 초단위로 기입함. 100초가 넘는 경우는 없을 것.

V16 : 기사에 육성이 보도되는 취재원의 직업 및 직위로 복수 코딩 가능.

V17 : 여러 유목에 걸치는 경우 발언 또는 인터뷰 내용이 어느 쪽의 비중이 더 큰지를 판단하여 코딩.

V18 : 분석과 논평을 구분하는 일이 중요하다. 분석은 사실에 대한 의미부여 및 범주화(categorization) 작업을 의미하고 논평(해석)은 규범적 가치에 따라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을 의미한다(Silverstone, 1994). 예컨대 '국회의 탄핵 결의안 통과'에 관한 보도의 경우, 분석은 '검찰의 대선 자금 수사 결과가 밝혀지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00%에서 00%로 하락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로 통과시킨 다수당의 횡포'라는 언급은 그마마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의미 분석에 해당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의회 쿠데타를 감행한 것'라는 언급은 논평(해석)에 해당된다. 논평은 사실적 근거의 제시가 없는 주관적 평가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의회 쿠데타를 자행한 것’이라는 언급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를 어겼다는 사실적 근거 및 쿠데타의 법률적 성립 조건 등 사실적 근거의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논평이 된다. 만약 이 경우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를 어겼다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 후 그렇게 규정했다면 그것은 분석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으로 그 때는 의논하도록 합시다.

V19 : 현저한 경우에만 코딩할 것

V20 :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에 해당하는 것에 한해서 기입할 것.

◆ 부 록 2 ◆

▣ 시사·교양·정보프로그램 분석용 코드북 ▣

탄핵관련 시사·교양·정보 프로그램 내용 분석 Code-Book

(분석 단위: 프로그램 내 아이템 - 전체 프로그램 흐름에서 주제와 구성 면에서 분리 가능한 아이템, 뉴스 프로그램에서 뉴스 한 꼭지와 대등한 개념으로 간주)

V1. 아이템 ID

(□ □ □)

V2. 어느 방송사의 프로그램인가?

1) KBS1 2) MBC 3) SBS 4) KBS2

V3. 프로그램 이름 (에피소드가 속한 프로그램 이름)

□□

(1) KBS-2TV '생방송 세상의 아침
(2) MBC-TV '생방송 아주 특별한 이침'
(3) SBS-TV '생방송 모닝와이드

(4) KBS1TV '미디어 포커스'
(5) MBC-TV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

(6) KBS 1TV '취재파일 4321'
(7) MBC-TV '시사매거진 2580'
(8) SBS-TV '뉴스추적'

(9) KBS-2TV '추적 60분'
(10) MBC-TV 'PD수첩'
(11)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

(12) KBS-1TV 'KBS 일요스페셜'
(13) MBC-TV 'MBC스페셜-이제는 말할 수 있다'
(14) SBS-TV '생방송 세븐데이즈'

(15) MBC-TV '생방송 화제집중'
(16) SBS-TV '생방송 투데이'
(17) KBS-2TV '시사투나잇'
(18) KBS 특별기획 '탄핵정국 국민에게 듣는다.'
(19) KBS 특집 대통령탄핵-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V4. 방송 날짜?

□ □□ □
(월/날짜/ 요일)

요일 1)일 2)월 3)화 4)수 5)목 6)금 7)토

V5. 아이템의 주제는?

□□

1) 탄핵과정 및 쟁점
2) 탄핵에 대한 정치권 반응(종합)
3) 탄핵에 대한 여권 대응
4) 탄핵에 대한 야권 대응
5) 정부 대응
6) 시민 반응(여론조사 결과 보도 포함)
7) 외국 반응
8) 경제계 반응
9) 여론동향
10) 촛불 시위/ 반탁 시위
11) 찬탁 시위
12) 헌재 판결 관련 보도
13) 총선에 영향
14) 탄핵 보도에 대한 보도 및 논평
99)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V6. 아이템의 길이(앵커 멘트 포함)

(□ □ □ 초)

V7. 아이템의 처리 형식

□□

1) 앵커 보도
2) 앵커의 코멘트
3) 앵커 + (기자) 리포트
4) 앵커 + (기자) 리포트 + 기자 대담
5) 앵커 + 기자 대담
6) 앵커 + 외부인사 대담
7) 앵커 + 리포트 + 외부인사 대담
8) 앵커 + 기자 + 외부 인사 대담
9) 앵커 + 리포트 + 기자 + 외부인사 대담
10) 기자 + 기자 대담
11) 기자 + 외부 인사 대담
12) 기자 리포트만
13) 만평
14)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V8. 아이템의 전개 성격

1) 사건(발생) 과정
2) 사건(발생) + 원인(분석)

3) 사건(발생) + 원인(분석) + 영향(분석)
4) 사건(발생) + 원인(분석) + 논평(주관적 평가)
5) 사건(발생) + 원인(분석) + 영향(분석) + 논평(주관적 평가)
6) 사건(발생) + 논평 (주관적 평가)
7) 사건(발생) + 결과 + 논평(주관적 평가)
8) 결과 + 논평(주관적 평가)
9) 논평(주관적 평가)

V9. 어떤 자료 화면들로 구성되어 있나? (인터뷰 제외, 복수의 화면 종류는 3개까지 코딩)

V9_1 □□ **V9_2** □□ **V9_3** □□

(1) 탄핵 가결 국회 장면 (박관용 중심, 야당 의원 모습)
(2) 탄핵 가결 국회 장면 (열린당 중심)
(3) 탄핵 가결 국회 장면 (기타)

(4) 촛불시위 장면
(5) 탄핵 반대 시위 장면
(6) 탄핵 찬성 시위 장면
(7) 탄핵 반대 기자회견
(8) 탄핵 찬성 기자회견

(9) 취재원이 있는 건물의 외형
(10) 화면 없음 (V13으로)
(11) 노무현 자료화면
(20) 기타(구체적으로) _____

V10. 앵커 멘트의 성격
(기자가 리포트 도입 부분 또는 종료 후에 코멘트하는 경우도 앵커멘트로 코딩한다)

□□

1) 분석 및 논평 없이 사실만 보도
2) 사실 + 사실에 근거한 의미 분석
3) 사실 + 탄반/탄찬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된 논평(주관적 평가)
4) 사실 + 탄핵 반대 두둔 논평(주관적 평가)
5) 사실 + 탄핵 찬성 두둔 논평(주관적 평가)
6) 사실 없는 탄핵 반대 두둔 논평
7) 사실 없는 탄핵 찬성 두둔 논평
8) 사실 없는 찬반 균형/ 또는 무관한 논평
9) 없음 (V16으로)

V11 앵커 멘트의 편향성 (주관이 섞이거나, 편향적 표현 및 분석, 편향적 인용)

1) 탄핵 반대 진영 및 여당(열린우리당)을 편드는 멘트
2) 탄핵 찬성 진영 및 여당(한나라당 등)을 편드는 멘트
3) 방향성 없다(균형적인 언급 또는 객관적 사실 소개)

V12 앵커의 편드는 기법(복수 코딩 가능)

V12_1 □□ **V12_2** □□ **V12_3** □□

1) 윤색적인 형용사, 부사, 동사의 사용
2) 앵커의 주관적인 감정이 섞인 표현
3) 역사적 사례(교훈) 또는 캐치프레이즈의 사용

4) 다른 사람의 말, 글을 인용하여 편들기
5) 바람직한 규범적 가치에 호소
6) 명백하게 드러난 앵커의 얼굴 표정
7) 기타 (구제적으로)_____

V13. 리포트의 성격

1) 사건(발생) 과정--사실 보도
2) 사건(발생) + 원인(분석)
3) 사건(발생) + 원인(분석) + 영향(분석)
4) 사건(발생) + 원인(분석) + 논평(주관적 평가)
5) 사건(발생) + 원인(분석) + 영향(분석) + 논평(주관적 평가)
6) 기자 리포트 없음

V14. 리포트의 방향성

1) 탄핵 반대 진영 및 여당(열린우리당)을 편드는 경향
(특히, 방향성을 가진 리포터의 주관적인 코멘트가 있는 경우)
2) 탄핵 찬성 진영 및 야당(한나라당)을 편드는 경향
(특히, 방향성을 가진 리포터의 주관적인 코멘트가 있는 경우)
3) 방향성 없다 (객관적 사실 소개)

V15. 리포터의 편드는 기법(복수 코딩 가능)

V15_1 □ V15_2 □ V15_3 □

1) 윤색적인 형용사, 부사, 동사의 사용
2) 앵커의 주관적인 감정이 섞인 표현
3) 역사적 사례(교훈) 또는 캐치프레이즈의 사용
4) 다른 사람의 말, 글을 인용하여 편들기
5) 바람직한 규범적 가치에 호소
6) 명백하게 드러난 앵커의 얼굴 표정
7) 기타 (구체적으로)_____

V16. 리포트의 취재 경로(복수 코딩 가능)

V16_1 □ V16_2 □ V16_3 □

1) 공식 발표 내용(보도 자료, 인터뷰, 기자회견, 기자 간담회 포함)
2) 회의, 집회, 행사의 내용
3) 공식 발표 내용 + 추가 취재
4) 회의, 집회, 행사의 내용 + 추가 취재
5) 독자적인 취재(기획 취재 및 인터뷰 포함)
6) 현장 사건(발생)
7) 기타(국제 뉴스, 확인 불가능 포함)

V17. 출연자 (종합구성 프로그램에 나오는 출연자)의 신분 (복수 코딩 가능 6개까지)

V17_1 □□ V17_2 □□ V17_3 □□
V17_4 □□ V17_5 □□ V17_6 □□

(1) 정치인 - 여당
(2) 정치인 - 야당 - 한나라당 - 국회의장 포함
(3) 정치인 - 야당 - 민주당

(4) 정치인 - 야당 - 기타
(5) 정치인 - 민노당
(6) 정부 인사 - 대통령, 총리, 장관
(7) 정치 인사- 고위 공무원(차관 포함)
(8) 전문가 - 교수, 연구원, 정치 평론가
(9) 전문가 - 판사, 변호사 등 법조계
(10) 전문가 - 기업인, 경제인
(11) 검찰, 경찰(law enforcer)
(12) 언론인 - 자사
(13) 언론인 - 타사
(14) 언론인 - 언론유관단체
(15) 언론인 - 방송인/연예인
(16) 이익집단 - 시민운동 단체
(17) 이익집단 - 노동계
(18) 이익집단 - 종교단체
(19) 일반시민(학생 포함)
(20) 기타

(99) 출연자 없음

V18. 출연자 발언의 방향

V18_1 □ V18_2 □ V18_3 □
V18_4 □ V18_5 □ V18_6 □

1) 탄핵 반대 진영 및 여당(열린우리당)을 편드는 경향
(특히, 방향성을 가진 주관적인 코멘트가 있는 경우)
2) 탄핵 찬성 진영 및 야당(한나라당)을 편드는 경향
(특히, 방향성을 가진 리포터의 코멘트가 있는 경우)
3) 방향성 없다 (객관적 사실 소개)

V19. 출연자 발언의 수준은?

V19_1 □ V19_2 □ V19_3 □
V19_4 □ V19_5 □ V19_6 □

1) 주로 정보적 성격
2) 주로 분석적 성격 (사실에 근거한 분석)
3) 주로 평가적 성격 (사실의 제시 없는 평가)
4) 주로 감정적(정서적)인 성격

V20. 인터뷰의 유무

1) 있음
2) 없음

V21.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인터뷰(interviewee)의 수

V21_1 →탄핵 반대 진영 Interviewee의 수 ( )
V21_2 →탄핵 찬성 진영 Interviewee의 수 ( )
V21_3 →중도적 입장의 Interviewee의 수 ( )

V22. Interviewee의 성격(직업 및 지위) (복수코딩 가능 6개까지)

V22_1 □□ V22_2 □□ V22_3 □□
V22_4 □□ V22_5 □□ V22_6 □□

(1) 정치인 - 여당
(2) 정치인 - 야당 - 한나라당 - 국회의장 포함
(3) 정치인 - 야당 - 민주당
(4) 정치인 - 야당 - 기타
(5) 정치인 - 민노당
(6) 정부 인사 - 대통령, 총리, 장관
(7) 정치 인사- 고위 공무원(차관 포함)
(8) 전문가 - 교수, 연구원, 정치 평론가
(9) 전문가 - 판사, 변호사 등 법조계
(10) 전문가 - 기업인, 경제인
(11) 검찰, 경찰(law enforcer)
(12) 언론인 - 자사
(13) 언론인 - 타사
(14) 언론인 - 언론유관단체
(15) 언론인 - 방송인/연예인
(16) 이익집단 - 시민운동 단체
(17) 이익집단 - 노동계
(18) 이익집단 - 종교단체
(19) 일반시민(학생 포함)
(20) 기타

V23. 인터뷰의 길이 (복수코딩 가능 6개까지)

V23_1 □□초 V23_2 □□초 V23_3 □□초
V23_4 □□초 V23_5 □□초 V23_6 □□초

V24. 인터뷰 내용의 성격(복수코딩 가능 6개까지)

V24_1 □ V24_2 □ V24_3 □
V24_4 □ V24_5 □ V24_6 □

1) 주로 정보적 성격
2) 주로 분석적 성격 (사실에 근거한 의미 부여)
3) 주로 평가적 성격 (사실적 근거 제시 없는 평가)
4) 주로 감정적(정서적)인 성격

V25. 인터뷰의 방향성 (복수코딩 가능 6개까지)

V25_1 □ V25_2 □ V25_3 □
V25_4 □ V25_5 □ V25_6 □

1) 탄핵 반대 진영 및 여당(열린우리당)을 편드는 멘트
2) 탄핵 찬성 진영 및 야당(한나라당)을 편드는 멘트
3) 방향성 없다(객관적 사실을 소개)

Coding Protocol(Coding Gide)

V1 : 코딩 순서대로 번호를 준다.
아이템은 전체 프로그램 흐름에서 주제와 구성 면에서 분리 가능한 아이템을 추출한다. 뉴스 프로그램에서 '뉴스거리' 한 꼭지 개념과 대등한 수준에서 추출한다.

V2 : 어느 방송사의 TV뉴스 프로그램인지 그 이름을 찾아 그 번호를 기입한다.
V3 : 프로그램 이름을 찾아 그 번호를 기입한다.
V4: (03)월 (12)일 (6)금요일처럼 두 칸, 두 칸, 한 칸씩 기입한다.
V5 : 맨 처음 분류된 아이템 부터 순서대로 주제별 코딩.
V6 : 아이템의 길이를 초 단위로 재서 기입. 앵커멘트 부분도 포함시킨다.
V7 : 아이템의 처리형식: 앵커, 리포트, 대담자 등의 출연여부 등을 파악하여 기입한다.
V8 : 전개형식 - 아이템의 처리 내용의 수준을 단순 리포트에서 논평까지 순차적인 수준에서 파악하여 기입한다.
V9 : 자료화면 - 인터뷰를 제외한 자료화면의 종류를 기입한다. 복수 자료화면이 사용되었을 경우는 3개까지 복수 코딩한다.
V10 : 앵커멘트 - 기자가 리포트 도입 부분 또는 종료 후에 코멘트하는 경우도 앵커멘트로 코딩한다. 이 경우 사실상 기자가 앵커 역할을 또는 더블 앵커이기 때문이다.
V11 : 앵커멘트의 편향성 - 주관이 섞이거나, 편향적 표현 및 분석, 편향적 인용 등이 있는 경우 코딩한다.
V12 : 앵커멘트의 편향기법 - 현저한 편들기 기법을 확인 하고 중요한 것부터 차례로 코딩한다.
V13 : 분석과 논평을 구분하는 일이 중요하다. 분석은 사실에 대한 의미부여 및 범주화(categorization) 작업을 의미하고 논평(해석)은 규범적 가치에 따라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을 의미한다(Silverstone, 1994). 예컨대 '국회의 탄핵 결의안 통과'에 관한 보도의 경우, 분석은 '검찰의 대선 자금 수사 결과가 밝혀지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00%에서 00%로 하락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로 통과시킨 다수당의 횡포'라는 언급은 그마마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의미 분석에 해당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의회 쿠데타를 감행한 것'라는 언급은 논평(해석)에 해당된다. 논평은 사실적 근거의 제시가 없는 주관적 평가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의회 쿠데타를 자행한 것'이라는 언급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를 어겼다는 사실적 근거 및 쿠데타의 법률적 성립 조건 등 사실적 근거의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논평이 된다. 만약 이 경우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를 어겼다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 후 그렇게 규정했다면 그것은 분석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으로 그 때는 의논하도록 합시다.
V14 : 리포트의 편향성 - 주관이 섞이거나, 편향적 표현 및 분석, 편향적 인용 등이 있는 경우 코딩한다.
V15 : 리포트의 편향기법 - 현저한 편들기 기법을 확인 하고 중요한 것부터 차례로

코딩한다.

V16 : 복수 코딩 가능

V17 : 한 아이템내의 출연자를 6건까지 복수 코딩.

V18 : 출연자 발언의 방향 - 주관이 섞이거나, 편향적 표현 및 분석, 편향적 인용 등이 있는 경우 코딩한다.

V19 : 출연자 발언의 수준 - 출연자 발언의 심층성을 알아 보기 위한 것이다.

V20 : 인터뷰 유무

V21 : 탄핵 찬반 인터뷰 수: 아이템내 인터뷰들의 성격을 파악 탄핵 찬성과 반대, 중립으로 나눠 빈도를 기입한다.

V22 : 인터뷰 지위: 복수 코딩

V23 : 인터뷰 길이: 초단위로 계산

V24 : 인터뷰 수준: 인터뷰의 심층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V25 : 인터뷰 방향성: 주관이 섞이거나, 편향적 표현 및 분석, 편향적 인용 등이 있는 경우을 고려하여 코딩한다.

◆ 부 록 3 ◆

▣ 프레임 분석용 코딩 가이드 ▣

프레임 분석을 위한 로그북 가이드

1. 아이템 ID
(001부터 시작한다)

2. 어느 방송사의 뉴스/프로그램인가?
1)KBS1 2)MBC 3)SBS 4)KBS2

3. 방송 날짜는?
○월 ○일 ○요일
월/일, 1)일 2)월 3)화 4)수 5)목 6)금 7)토

4. 프로그램명(아이템이 속한 프로그램 이름)

1) KBS1 특집(3.12-13)	2) MBC 특집(3.12-13)	3) SBS 특집(3.12-13)
4) KBS1 9시 뉴스	5) MBC 9시 뉴스	6) SBS 9시 뉴스
7) KBS1 미디어 포커스	8) MBC 신강균의 사실은	9) KBS1 취재파일 4321
10) MBC 시사매거진 2580	11) SBS 뉴스추적	12) KBS2 추적 60분
13) MBC PD수첩	14)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5) KBS1 KBS일요스페셜
16) MBC MBC스페셜	17) SBS 생방송 세븐데이즈	18) KBS2 생방송 세상의 아침
19) MBC 아주특별한아침	20) SBS 생방송 모닝와이드부	21) MBC 생방송 화제집중
22) SBS 생방송 투데이		

5. 기사 제목
("super" 로 판단한다. “super"가 없는 경우에는 요약해서 제목을 적는다.)

6. 기사 내용
(앵커, 기자, 리포터의 멘트를 중심으로 요약한다. 뉴스에서는 앵커의 멘트가 중요.)

[**주의 사항**: 8번에서 행위주체 복수체크 가능, 9-11번은 행위주체 별로 묘사용어, 이미지, 주제를 적어야 한다. 12번은 행위주체의 수와 관계의 수가 항상 같지는 않다. 행위주체와 정보원을 혼동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심의할 것인가에 대한 기사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나오고, 헌법학자들의 인터뷰도 함께 나온다. 이때 헌법학자들은 정보원이고 이 기사의 행위주체는 헌법재판소인 것이다. 한명의 행위주체를 다루고 있어도 그 행위주체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묘사한 경우가 있으면 관계에 적는다. 예를 들어, 열린우리당의 상황을 보도하는 기사에서 열린우리당이 야3당의 회의 결과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멘트가 있다면 행위주체는 열린우리당, 관계는 열린우리당와 야3당의 대립적 관계로 설정할 수 있다.]

8. 행위주체(아이템에서 다루는 주요 주체를 의미한다. 복수체크 가능)

1) 열린우리당 - 국회의원	2) 한나라당 - 국회의원	3) 민주당 - 국회의원
4) 자민련 - 국회의원	5) 보수우익단체	6) 촛불시위 참여 시민단체
7) 헌법재판소	8) 국회	9) 노무현 대통령/청와대
10) 고건국무총리(권한대행)	11) 박관용 국회의장	12) 행정관료
13) 언론사	14) 시민/국민	15) 야3당

9. 행위주체 묘사용어

(8번에서 지정된 행위주체를 묘사한 용어를 쓴다. 명사(대상자를 지칭하는 용어), 형용사, 동사 등, 예: 차떼기당, 탈환, 울부짖는, 항의했습니다. 등)

10. 행위주체 이미지(복수체크 가능)

** 코딩 실시후, 귀납적으로 관찰된 것을 중심으로 재분류 하여 보충할 것이다.

(번호에 체크하고 특징적으로 묘사된 단어가 있으면 적는다.)

1) 격렬한 ( ) 2) 차분한 ( )

3) 감성적/감상적 ( ) 4) 이성적 ( )

5) 소극적 ( ) 6) 적극적 ( )

7) 기타 ( )

11. 행위주체에 대한 주제

(행위주체에 대해 주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적는다. 귀납적으로 관찰된 것을 중심으로 재분류 할 것이다.)

12. 행위주체간 관계

(행위주체들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적는다. 귀납적으로 관찰된 것을 중심으로 보기를 추출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열우당과 한나라당의 적대적 관계, 대통령과 열우당의 우호적 관계, 촛불시위 단체와 보수우익단체와의 투쟁적 관계,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공조적 관계 등)

13. 행위주체에 대한 영상이미지

(특징적인 영상기법을 기록한다. 예를 들어, 카메라를 흔드는 기법, 슬로우비디오 등 "튀는" 영상기법을 포착한다.)

[** 주의 사항 : 14, 15, 16, 17, 18, 19번은 반드시 아이템에서 언급된 경우만 적는다. 예를 들어, 이슈의 원인을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코더가 판단 혹은 추론하여 적지 않도록 한다.]

14. 아이템에서 다루는 이슈

(이슈와 내용을 구분한다. 이슈는 competing하고 controversial 한 것으로 한정한다. 보기 외에 이슈로 보이는 것이 있으면 기타에 적는다.)

1) 국회 탄핵안 가결 과정
2) 촛불집회 3) 보수단체 집회
4) 헌법재판소 심의 5) 편향방송 시비
6) 기타 ( )

15. 이슈에 대한 상황정의

(이슈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기록한다.)

16. 이슈에 대한 역사적 의미

(이슈와 관련된 역사적 의미에 대한 언급을 기록한다.)

17. 이슈의 원인

(이슈의 원인으로 언급된 것을 기록한다.)

18. 이슈의 결과

(이슈의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언급된 것을 기록한다.)

19. 시민 반응

(번호에 체크하고 묘사된 단어도 적는다. 예를 들어, 탄핵반대의 입장에 체크하고, 경악, 충격, 분노 등의 사용된 단어를 적으면 된다.)

1) 탄핵 반대 ( ) 2) 탄핵 찬성 ( )

3) 중립 ( ) 4) 모두의 잘못 ( )
5) 관심 없다 ( ) 6) 기타 ( )

20. 여론조사 결과 보도를 어떻게 보도하나?
(여론조사 보도의 특징적인 부분을 기록한다. 귀납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재분류 한다.)

21. 외신의 반응(번호에 체크하고 묘사된 단어도 적는다)
1) 놀랄만한 일이다 ( )
2) 한국의 상황이 걱정된다 ( )
3) 자국과의 관계에 별다른 영향 없을 것이다 ( )
4) 타국의 정치적 문제라 언급할 것이 없다 ( )
5) 기타 ( )

22. 영상이미지
(아이템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영상이미지를 기록한다. 예컨대, 촛불집회 장면에서 아기안고 있는 부부, 탄핵 가결안 과정에서 들려나가는 열린우리당 의원 등)

****비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어떠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코더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록한다. 최종 프레임 판단에 도움이 되기 위해 기술해 둔다.)

◆ 부 록 4 ◆

▣ 비판적 담화분석용 코딩 가이드 ▣

MBC 정규뉴스 담화분석을 위한 코딩북

◎ MBC뉴스데스크 (MBC) - 12, 13일은 별도 분석

◎ 3/14 (일) 21:00

해당사항	문장	화자
판단표현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이 본격적인 민생현안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최일구
소극적 근거성	정부부처와 공기업들에 대한 인사도 무기한 연기될 전망입니다. 일부 기관장은 당분간 공석이 불가피해 업무차질이 예상됩니다.	최일구
진실양태	노무현 대통령이 재판에 직접 출석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최일구
판단표현	노대통령 측도 헌재 심판에 대비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일구
적극적 근거성	민주당은 탄핵 후유증으로 내분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최일구
적극적 근거성	야당에 대한 여론의 역풍을 내심 반기고는 있지만	최일구
적극적 근거성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광온
판단표현	청와대와 총리실의 역할조정에 미묘한 구석이 많습니다.	박광온
판단표현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스러운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 어려운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광온

◎ MBC뉴스데스크 (MBC)

◎ 3/15 (월) 21:00

해당사항	문장	화자
판단표현	야당의 지지율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근거성	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탄핵이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은 70%가 훨씬 넘었습니다.	
판단표현	한나라당도 물론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근거성 판단표현	특히 수도권지역 의원들은 탄핵 역풍의 피해자가 바로 자신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 MBC뉴스데스크 (MBC)

◎ 3/16 (화) 21:00

해당사항	문장	화자
판단표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노 대통령의 총선과 재신임 연계발언을 탄핵사유에 추가하겠다고 나서서 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일구
소극적 근거성	박영선 열린우리당 대변인의 활약에 맞불을 놓으려는 듯 한나라당이 방송인 출신 전여옥 씨를 대변인으로 영입했습니다.	박광온
진실양태	야당은 이번 총선을 친노 대 반노의 구도로 몰고 가고자 하고 있고 탄핵추진도 그런 생각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박광온

◎ MBC뉴스데스크 (MBC)

◎ 3/17 (수) 21:00

해당사항	문장	화자
판단표현	...탄핵 규탄 촛불집회에 대해 경찰이 오늘 문화행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판단표현	이른바 탄핵 역풍을 맞고 있는 야당들은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그 사정이 절박합니다.	
판단표현	강금실 장관이 탄핵소추안을 17대 국회에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강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진실양태	법과 절차 그리고 다수결 원칙이 소수에 대한 억누름이나 오만으로 비쳐질 때 이것을 행사한 쪽이 위기를 맞는다는 것이 우리 현대사의 교훈입니다.	박광온

◎ MBC뉴스데스크 (MBC)

◎ 3/18 (목) 21:00

해당사항	문장	화자
소극적 근거성	...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견해인데, 그러나 최종 결정은 역시 노 대통령 본인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판단표현 진실양태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가장 고충을 겪는 사람들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치신인입니다.	
판단표현 소극적 근거성	... 열린우리당 안에서 후보 선정과 관련한 잡음이 점점 불거지고 있습니다. 좋은 조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 MBC뉴스데스크 (MBC)

◎ 3/19 (금) 21:00

해당사항	문장	화자
판단표현 소극적 근거성 주장	...탄핵반대 촛불집회가... 열립니다. ...탄핵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모쪼록 불상사 없기를 바랍니다.	
판단표현	의원직 총사퇴를 선언했던 열린우리당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 야당은 뭘 망설이냐며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판단표현 진실양태	탄핵정국의 격랑에 휩쓸려서 선거가 실종됐습니다. ...아직 선거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판단표현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과 수도권에 출마하는 신인 후보들이) 지도부의 각성을 요구하는 건데, 위기의식이 심상치 않습니다.	박광온

◎ MBC뉴스데스크 (MBC)

◎ 3/20 (토) 21:00

해당사항	문장	화자
진실양태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대통령 탄핵안을 철회하는 방안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선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판단표현	탄핵역풍 속에 내분까지 겹쳐서 민주당은 침몰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기타 프로그램 담화분석을 위한 코딩북

◎ 아주 특별한 아침 (MBC)

◎ 3/15 (월)

해당사항	문장	화자
판단표현	전국이 탄핵정국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였습니다.	이재용
소극적 근거성	정치권에서도 끝까지 꺼내지 말았어야 하는 말이 탄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윤영
소극적 근거성	어려울수록 뭉치고 이겨내는 지혜 이게 바로 우리 국민의 저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용

◎ 아주 특별한 아침 (MBC)

◎ 3/16 (화)

해당사항	문장	화자
소극적 근거성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재용

◎ 아주 특별한 아침 (MBC)

◎ 3/17 (수)

해당사항	문장	화자
적극적 근거성	탄핵정국 엿새째 이제 차분하게 나라의 장래를 걱정해야 할텐데.	이재용

◎ 아주 특별한 아침 (MBC)

◎ 3/18 (목)

해당사항	문장	화자
진실양태	저희 언론이 사회적인 갈등을 보도함에 있어서 중심을 잡아감에 위해서 회의도 하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있어서 노력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래요.	이재용

◎ 생방송 화제집중 (MBC) - 12일치는 별도 정리 / 18, 19일은 해당사항 없음

◎ 3/15 (월)

해당사항	문장	화자
진실양태 소극적 근거성	국민들이 충격과 허탈감 많이들 갖고 계신데. 아직까지 많이 누그러지진 않은 것 같아요.	
진실양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국민입니다.	
진실양태 주장	국회가 거듭날 수 있는 바로 그날(선거일)입니다.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극적 근거성	아무래도 국민들이 답답한 모양이예요.	

◎ 생방송 화제집중 (MBC)

◎ 3/16 (화)

해당사항	문장	화자
진실양태	일단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다 지켜볼겁니다. 그 탄핵 심판과정도 다 지켜볼꺼구요.	
판단표현	요즘 하도 나라가 어수선하고 정치권이 어지럽다보니까 국민들 정신건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판단표현	정말 요즘 탄핵정국으로 인해서 국민들 마음 어수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장	선거일정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텐데. 여러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 생방송 화제집중 (MBC)

◎ 3/17 (수)

해당사항	문장	화자
판단표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때문에 아직도 정말 많은 분들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판단표현 소극적 근거성	그 여파가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꽤 오래갈거 같거든요.	
적극적 근거성	정치인들도 정말 많이 반성하셔야 되구요.	

◎ MBC시사매거진2580 (MBC)

◎ 3/14 (일) 21:45~22:35

해당사항	문장	화자
판단표현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최형문
적극적 근거성 진실양태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국민의 뜻은 묻지 않았습니다.	최형문
판단표현 진실양태	권력만 바라보는 그들만의 싸움터에서 국민은 단지 구경꾼이었을 뿐입니다.	최형문
진실양태	탄핵정국 속에 치러질 이번 총선은 결국 이 두 세력간에 누가 우위를 점할지를 결정짓는 대회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태원
판단표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질주하는 탄핵정국 속에 묻혀 버린 사태의 발단, 그 공방을 원점에서 뒤 쫓아봤습니다.	권순표

◎ PD수첩 (MBC)

◎ 3/16 (화) 23:15~00:15

해당사항	문장	화자
판단표현	헌정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16대 국회 막바지에 벌어진 일입니다.	
판단표현	국민의 7할은 탄핵은 말이 안된다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근거성 적극적 근거성 적극적 근거성 적극적 근거성	정치인들 말로는 탄핵이 국민의 명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머리 속에 국민이 얼마나 자리잡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 근거성 진실양태	정치인 중 국민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죠. 이번 탄핵 국면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실양태	탄핵 안이 가결된 후에 탄핵 사유가 타당하냐 논란이 많죠	
적극적 근거성 적극적 근거성 적극적 근거성	정치인들, 민감한 사안일수록 생각이 다른 민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하는데 이번에 과연 그러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판단표현 적극적 근거성 판단표현 소극적 근거성	정치인들 말끝마다 민심민심 합니다만은 정치인이 민심을 잘못 읽으면 국민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이번 탄핵정국이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판단표현 소극적 근거성	민심 우습게 알던 정치인들도 이번에 민심 무서운 것 실감하고 있을 겁니다.	
적극적 근거성 적극적 근거성 진실양태	민주주의 제대로 되려면은 정치인들 역시 국민 무서운 것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는 모양입니다.	

◎ MBC백분토론 (MBC)

◎ 3/18 (목)

해당사항	문장	화자
진실양태	이거(헌재 최종결정의 시기)는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손석희
진실양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는 내용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칫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논란이 많아서	손석희
소극적 근거성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경제파탄 이런 세 가지가 중요한 발의 사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선거법 위반 문제 같습니다.	손석희
판단표현	더욱더 관심들이 많이 쏠려 잇고 그 관심을 압박으로 느끼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 의견수렴에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손석희

◎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 (MBC)

◎ 3/19 (금) 23:15~24:05

해당사항	문장	화자
적극적 근거성 판단표현	이들(한나라당-민주-자민련 3당)은 그런 국민의 뜻을 겸허히 살피기는커녕 방송을 공격하고 여론조사 조작설을 흘리고 있습니다.	신강균
진실양태	이번 탄핵을 계기로 촉발된 시민들의 자발적인 항거 모임.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지요?	신강균
판단표현 적극적 근거성 소극적 근거성	저렇게 막말을 하면서 화면까지 조작해서 방송을 하라고 하는군요. ... 무슨 5공 때인 줄 아시는 모양입니다.	신강균
판단표현	언론을 탄압하려는 저런 작태에 대해서 같은 언론사가 동조하고 나섰는데요.	신강균
판단표현 소극적 근거성	군사독재시절 방송과 신문이 유달리 질서와 안정을 자주 강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때는 반드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짓밟는 세력의 폭거가 함께 했던 걸로 저와 여러분은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강균
주장	국민여러분 헌법이 보장한 여러분의 권력행사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월 15일 총선에서 여러분의 권력을 반드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강균

KBS 정규뉴스 담화분석을 위한 코딩북

◎ 뉴스 9 (KBS-1) - 12, 13일은 별도 분석

◎ 3/14 (일) 21:00-22:00

해당사항	문장	화자
타동성	야권 3당이 이번 주에 열기로 합의한 임시국회를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판단표현 적극적 근거성	고 건 총리가 본격적인 국정운영에 나서기는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권한을 과연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적극적 근거성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반대하는 집회가 계속됐습니다.	
판단표현	탄핵 반대 집회에는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판단표현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야 3당이 언론, 특히 방송 보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론조사 조작설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판단표현	탄핵소추안 가결은 야권 3당의 치밀한 공조로 가능했습니다	
판단표현 판단표현	연일 거세지는 탄핵 역풍 속에 각 당은 총선전략의 방향잡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판단표현 적극적 근거성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총선 정국에서 무엇보다 큰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극적 근거성	헌재의 결정 못지않게 총선 정국을 뒤흔들 수 있는	
판단표현	...협박 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 뉴스 9 (KBS-1)

◎ 3/15 (월) 21:00-22:00

해당사항	문장	화자
적극적 근거성 진실 양태	탄핵소추 가결 이후 사흘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론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적극적 근거성 진실 양태	열린우리당은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반면 두 야당은 역풍을 맞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동성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적극적 근거성 판단표현 판단표현	민주당은 특히 탄핵 역풍이 연쇄 탈당사태로 이어져 비상이 걸렸습니다	
타동성	지도부 사퇴를 촉구한 쇄신파 일부 의원도 탈당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진실양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는 또 당내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극적 근거성	야 3당이 요구한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타동성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3년 전 헌재가 발간했던 탄핵 심판제에 관한 연구 논문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판단표현	유권자의 표심이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판단표현	이번 탄핵정국 속에서 엉뚱한 피해를 보고 있는 당이 바로 민주노동당입니다.	

◎ 뉴스 9 (KBS-1)

◎ 3/16 (화) 21:00-22:00

해당사항	문장	화자
판단표현	강금실 법무장관의 탄핵소추 취하 발언이 두 야당의 집중 성토를 받았습니다.	
적극적 근거성	탄핵사유 추가와 탄핵소추안 취하가 과연 가능한지, 법조계의 논쟁을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적극적 근거성	일단은 열린우리당쪽으로 쏠리고 있는 양상이지만 총선까지는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 뉴스 9 (KBS-1)

◎ 3/17 (수) 21:00-22:00

해당사항	문장	화자
판단표현	한나라당에서 오늘 한때 탄핵소추 철회논란으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판단표현	이런 분위기속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두 야당은 연일 강금실 법무장관을 맹공격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근거성	이번 탄핵 정국 방송과 관련해 야당의 불만이 높습니다마는 오히려 방송사가 기계적 중립에 빠져서 사실을 왜곡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 뉴스 9 (KBS-1)

◎ 3/18 (목) 21:00-22:00

해당사항	문장	화자
진실양태	헌재의 오늘 첫 평의를 놓고 볼때 탄핵심판 결정이 총선전에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판단표현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비하하는 말을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판단표현	야권과 일부 언론들이 탄핵 정국 방송과 관련해 방송의 공정성을 계속 트집잡고 있습니다.	
적극적 근거성 판단표현	게다가 방송위원회 입장까지 왜곡해 보도하자 방송위가 해당 신문에 엄중 항의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판단표현	지금은 많이 평상심으로 돌아갔지만 그 충격의 여파는 정치권을 지금도 뒤흔들어놓고 있습니다.	
판단표현	무엇보다도 다행스러운 일은 국가위기관리 체계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 뉴스 9 (KBS-1)

◎ 3/19, 3/20은 해당사항 없음

KBS 기타 프로그램 담화분석을 위한 코딩북

◎ 생방송 세상의 아침 (KBS-1) - 19일은 해당 없음

◎ 3/15 (월) 07:00~09:00

해당사항	문장	화자
적극적 근거성 진실양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주말에 특히 전국이 시끄러웠습니다	1
판단표현 판단표현	다행히도 술렁거림은 잦아들고 있습니다.	1
주장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모든 분위기를 수습하는데 이 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1
판단표현	탄핵 무효를 외치고 나섰던 시민들의 목소리도 드높았구요,	1
소극적 근거성	정치권은 또다른 후폭풍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1
판단표현 판단표현 소극적 근거성	한심한 정치권과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볼 수 있는 주말이 아니었는가 싶은데요	2
판단표현 소극적 근거성	국정 혼란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모습은 그대로 인 것 같습니다.	1
진실양태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 냉철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일 것입니다.	1
판단표현	국민들의 뜻이 이렇게 깊습니다.	
주장	무엇이 국민의 뜻이고 나라를 위한 길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2
판단표현	정말 동물들보다도 못한 행태를 보였다고 생각해요	1
진실양태	국민들은 국회에 대한 분노와 허탈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1
적극적 근거성 소극적 근거성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문제 인거 같습니다.	1

◎ 생방송 세상의 아침 (KBS-1) - 19일은 해당 없음

◎ 3/16 (화) 07:00~09:00

해당사항	문장	화자
판단표현 소극적 근거성	다행스럽게도 정국은 수습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판단표현	총선연기론에 쐐기를 박기위해서 참 애쓰는 모습이 보여요.	2

◎ 생방송 세상의 아침 (KBS-1) - 19일은 해당 없음

◎ 3/17 (수) 07:00~09:00

해당사항	문장	화자
적극적 근거성 소극적 근거성	... 헌정사상 유래가 없는 일인데다가 탄핵 관련 법률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 이런 논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2
적극적 근거성	탄핵 취하 논란까지 지금 일고 있죠.	1
판단표현	갈수록 어려워지는군요.	1
판단표현	법률문제로 들어가니까 참 어려워지는군요.	1

◎ 생방송 세상의 아침 (KBS-1) - 19일은 해당 없음

◎ 3/18 (목) 07:00~09:00

해당사항	문장	화자
판단표현	이런 논의가 야당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
적극적 근거성 적극적 근거성 적극적 근거성 판단표현 적극적 근거성 판단표현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서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게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아주 싸늘한 반응이 나왔어요. 심지어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냉랭한 분위기였다구요.	2
소극적 근거성	정치권에서는...타협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않나 싶습니다.	1
적극적 근거성 판단표현 적극적 근거성 소극적 근거성	정말 걱정이 되는 건 정치인들의 정치성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마찬가집니다. 어디서도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2
판단표현	타협과 절충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정말 절실합니다.	2
판단표현	정치는 전쟁이 아니다 라는 말씀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1
주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성숙된 모습으로 총선까지 치를 수 있도록 힘써야겠습니다.	2
주장	온 국민의 관심이 이곳에 쏠리는 만큼 신중하고 정확한 판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극적 근거성	노무현 대통령의 출석 문제에.. 그렇다고 완전 불출석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죠. 여지는 남아있다는 얘기죠.	1
진실양태	(헌재의 최종결론이) 언제 나오느냐에 관심이 쏠리는데 이게 총선구도에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2

◎ 100인토론 (KBS-2)

◎ 3/14 (일) 23:10~24:30

해당사항	문장	화자
적극적 근거성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런 탄핵정국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그리고 이러한 탄핵정국의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판단표현	정말 오늘 나와주신 100인 토론석 여러분들 발언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아주 논리정연하게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김주환
진실양태 진실양태	국론 분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국민들은 여러 가지 혼돈에 빠져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김주환
판단표현	여기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논점이 될 것 같은데요. 야당이 탄핵안을 가결하고 의결하기까지 그 과정이... 적법한 것이었는가...?	김주환
진실양태	많은 국민들이 어쩌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 탄핵이 과연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김주환
적극적 근거성 적극적 근거성 적극적 근거성	우리나라 정치사를 쭉 돌이켜보면요... 그런데 한번도 탄핵에까지 이르지 않았는데 왜 하필이면 이번에는 탄핵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	김주환
적극적 근거성	탄핵 소추 의결하기 전에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반대가 더 많은 게 이미 드러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위해서 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조해서 탄핵이 여론에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행했을까요.	김주환
적극적 근거성	(조기숙에게) 여야의 총선전략이 충돌해서 탄핵을 낳게 됐다. 이런데 과연 총선전략, 이것이 전부일까요.	김주환
소극적 근거성	(조기숙에게) ...음모론이라고 할까요... 야당이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좀 그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김주환
진실양태	이제 토론을 점차 정리해야 되는데,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이 향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정치권이, 국민들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야 되는가...	김주환
판단표현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탄핵의결이 이루어진 직후에 우리나라 국민의 술소비량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김주환
주장	정치인들 다시 한번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
판단표현 주장 주장	그리고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습니다. 이 정도 위기쯤 잘 극복하리라 생각하시고, 오늘밤 술 너무 많이 들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김주환

◎ 취재파일4321 (KBS-1)

◎ 3/14 (일) 21:30~22:10

해당사항	문장	화자
판단표현	많은 국민들은 탄핵 소추안 철회와 대통령의 유연한 사태수습을 요구했지만 결과는 파국 이였습니다.	구본국
진실양태 적극적 근거성	탄핵 소추안 발의에서부터 가결까지 정략적인 대결 로만 진행됐던 72시간의 과정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구본국
진실양태 적극적 근거성	승자는 웃고 패자는 울고.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총선만을 염두에 둔 그들만의 싸움이었습니다.	구본국
진실양태	이제 국민은 그들을 심판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본국
진실양태	열쇠는 국민이 쥐고 있습니다.	박성래
소극적 근거성	한 달 뒤 총선에서 표출될 국민들의 판단도 헌재의 결정만큼이나 우리 정치사에 큰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석
진실양태	국민들은 심판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현석

◎추적 60분 (KBS)

◎ 3/17 (수) 23:00-24:00

해당사항	문장	화자
적극적 근거성	드디어 그동안 염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영돈
판단표현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생사를 건 난투극은 불과 50여 분만에 다수야당의 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영돈
판단표현 주장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께서 느끼실 그 느낌, 그 아픔이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이영돈
소극적 근거성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말이죠	이영돈
소극적 근거성	12일 새벽 기습상황은... 지금 보니까... 야당이 사전에 표결을 위해서 통로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였나 보여지는 데요	이영돈
소극적 근거성	여전히 탄핵사유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것같은데요	이영돈
적극적 근거성	이번 대통령의 탄핵은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모두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영돈
적극적 근거성 진실양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과연 의회 민주주의의 승리인지 의회쿠데타인지는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이영돈
주장	... 국민들이 보다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사회로 발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영돈

◎ KBS 미디어포커스 (KBS)

◎ 3/20 (토) 21:30-22:10

해당사항	문장	화자
판단표현 소극적 근거성	헌정초유의 대통령탄핵이 가져온 엄청난 파장은 쉽사리 가라앉을 것 같지 않습니다.	김신명숙
판단표현 주장	탄핵의 여파는 대립과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럴때일수록 여론은 갈등의 해소와 또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김신명숙
타동성	왜 신문이나 방송 모두 탄핵의 법리적 타당성을 짚는데 소홀했는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김신명숙
타동성	각 신문이나 방송에서도...엄청난 보도량으로..그런데 이런 보도들에서도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는 지적이죠?	김신명숙
적극적 근거성 판단표현 적극적 근거성 판단표현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또 불리한 위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작 그 역풍의 근거, 원인을 방송 탓으로 돌렸는데요. 또 거기에다가 일부 언론이 그런 주장에 동조를 하고 나섰죠?	김신명숙
판단표현 타동성 소극적 근거성	정치권에 대한 시민적 저항이 불붙고 있습니다만, 이제 잘못하면 언론에 대한 시민적 저항도 크게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네요.	김신명숙
판단표현 판단표현 판단표현	거대야당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후 여론의 역풍이 불자 엉뚱하게 방송에게 화풀이를 하고 나섰습니다.	김신명숙
판단표현	일부 보수신문들도 방송이 혼란을 부채질하고 민중소요를 선동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신명숙
판단표현 적극적 근거성 판단표현 적극적 근거성	하지만 세계적 망신이 된 이번 탄핵사태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됐고 또 탄핵을 부추긴 숨은 주역은 과연 누구일까요	김신명숙

해당사항	문장	화자
판단표현 적극적 근거성	야당과 일부 보수신문에서는 ... 방송이 여론을 조작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론을 제대로 살펴서 탄핵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김신명숙
판단표현	탄핵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17대 총선은 다가오고...	김신명숙
적극적 근거성 소극적 근거성	정책적 차별성이란 점에서 눈여겨 보아야할 진보정당들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신명숙
주장	이제라도 우리 언론이 정쟁중심보도에서 정책중심보도로 방향을 바꿔서 유권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신명숙
판단표현 적극적 근거성 소극적 근거성	'바보들은 항상 남의 탓만 한다.' 지난해 화제가 되었던 한 책의 제목인데요. 탄핵 역풍을 방송 탓으로 돌리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역시 명언인 것 같습니다.	김신명숙

◎ 생방송 심야토론 (KBS 1)

◎ 3/20 (토), 23:00-24:50

해당사항	문장	화자
소극적 근거성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 이번 탄핵 이후에 민심변화가 중차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관용
판단표현 소극적 근거성	사실 한나라당, 지금 상황이 그렇게 여유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정관용
적극적 근거성 진실양태	자민련도 상당히 충격을 받고 계신 상태인데,	정관용
소극적 근거성	민주노동당도 이번 사태의 여파로 지지도가 상당히 추락했다가 조금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정관용
진실양태	오늘 제목이 급변하는 민심인데, 방청객들께서 바로 그 민심을 대변하시는 분들이시니까요.	정관용
소극적 근거성	국민과 민심은 사실 정형화된 한쪽이 아니라 다양한 것이 다 함께 들어있는 그런 것일텐데,	정관용
적극적 근거성 판단표현	제가 듣기에는 다섯 분 모두가 상대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악의적 용어로 규정하는 경우가 다 있습니다.	정관용
주장	좀 각 당이... 자신의 장점을 내세우는 이런 긍정적인 선거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정관용
소극적 근거성 판단표현	오늘 우리 토론에서도 보면 그것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만 하네요.	정관용
타동성	이번 선거가 ...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악의와 증오를 키우는 우리의 갈등을, 분열상을 키우는 그런 선거로 치닿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많거든요.	정관용
판단표현 적극적 근거성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번 탄핵안 가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그러나 야당에 대해서는 비판하시는 분들 또한 계실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번 탄핵안 가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지만 열린우리당 잘한 것 없다. 열린우리당 지지율 높아졌다고 좋아하지 말아라 이렇게 꾸짖는 분들 또한 많을 겁니다.	정관용
판단표현	바로 이런, 어찌보면 좀 회색처럼 보이는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있는 그런 사회가 좀 성숙된 사회가 아닌가.	정관용
주장 주장	... 그런 많은 목소리들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너무 증오와 악의를 서로가 키워가는 그런 선거가 안 되기만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정관용

SBS 정규뉴스 담화분석을 위한 코딩북

◎ 8시 뉴스 (SBS) - 12, 13일은 별도 분석

◎ 3월 14 (일) 20:00

해당사항	문장	화자
소극적 근거성	일단 내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태도가 앞으로 금융시장 안정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적 근거성 판단표현	국정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노대통령의 입장에도 적지않게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적극적 근거성	대통령과 국회, 어느 한 쪽에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헌재의 고민이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타동성	노대통령의 영원한 동지이자 최측근으로 청와대 왕수석으로 불렸던 문재인 전 민정수석이	
판단표현 타동성	향후 남북회담 일정이 삐걱거리지는 않을런지 우려의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실양태	탄핵 가결의 후유증이 가장 심각한 곳은 민주당입니다.	
소극적 근거성	당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 내분이 재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판단표현 판단표현	탄핵안 가결로 여론의 역풍에 휘말려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 8시 뉴스 (SBS)

◎ 3월 15일 20:00

해당사항	문장	화자
진실 양태	대통령 탄핵의 잘 잘못도, 총선의 결과를 재신임과 연계하겠다는 대통령의 뜻도 모두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판가름나게 되었습니다.	
판단표현	저희 SBS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탄핵안 가결이 열린우리당에는 날개를 한나라당과 민주당에게는 쇳덩이를 달아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판단표현 판단표현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금 빗나간 계산으로 초조합니다...탄핵안 가결 후폭풍에 휘청이고 있는 두 야당	
적극적 근거성 진실양태	반면 열린우리당은 여유있는 모습입니다.	
판단표현 진실양태	고건총리가 ... 잇따라 어려운 정치적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회시정연설로 한차례 진통을 겪은데 이어서 이번에는 사면법 거부권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판단표현 판단표현	국민들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로 쏠리면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사이버 공방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 8시 뉴스 (SBS)

◎ 3월 16일 20:00

해당사항	문장	화자
판단표현	(촛불시위에 대해) 참여민주주의인가, 불법집회인가? 어제는 불법집회로, 또 오늘은 문화행사로 정부의 입장도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진실양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이 발언이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위법논란을 함께 불러 일으켰습니다.	
진실양태 타동성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장관들에게 각별한 말조심을 당부했습니다. 분란을 일으킨 강금실 법무부장관을 지칭한 것이 아니냐는 풀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판단표현 적극적 근거성	칼날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여야가 이번엔 방송 보도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판단표현	탄핵 사유를 덧붙이겠다는 야당의 주장이 새로운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적극적 근거성 소극적 근거성	역시 뚜렷한 법 규정이 없어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치열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판단표현 진실양태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분할 구도는 과연 이번 총선으로 인해서 깨질 수 있을 것인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린우리당이 전국적으로 고른강세를 보이면서 이런 질문이 총선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적극적 근거성 소극적 근거성	그 어느 때보다 가열될 것으로 보이는 여야의 총선 입씨름, 그 선봉에 두 여성이 마주 섰습니다.	
판단표현 판단표현 판단표현 판단표현 판단표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노골적인 선거 행보가 세간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각종 장미빛 공약을 남발하고 당적 바꾸기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 8시 뉴스 (SBS)

◎ 3월 17일 20:00

해당사항	문장	화자
판단표현	한나라당 일각에서 탄핵 철회를 검토해보자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총선을 의식한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의 정치적인 제스처의 성격이 짙습니다.	
적극적 근거성	... 탄핵 철회 주장, 과연 법적으로는 가능한 일일까요? 이미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공을 국회가 다시 거둬 들일수는 있는 것인지,	
판단표현 소극적 근거성	거센 탄핵 후폭풍에 당혹해하던 야권이 강금실 법무장관의 '탄핵취하' 발언을 두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노무현 코드를 견제해보겠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판단표현	탄핵 심판의 진행속도는 정치권의 입장에서 볼 때 그야말로 눈썹이 타들어갈만큼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 8시 뉴스 (SBS)

◎ 3월 18일 20:00-21:00

해당사항	문장	화자
적극적 근거성 소극적 근거성 판단표현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재판관들 앞에 직접 나설 것인가? 가능성은 일단 낮아보이지만 매사에 선을 분명히 하는 노 대통령의 스타일을 감안할 때 전격적인 출석의 가능성도...	
적극적 근거성 적극적 근거성	헌재는 총선일정을 일절 고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오히려 온통 여기에 쏠려있습니다.	
소극적 근거성	그러나 탄핵 역풍에 놀란 탓인지 노 대통령의 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판단표현 판단표현 타동성	탄핵정국의 후폭풍 속에 휘청이고 있는 한나라당이 전당 대회와 대표 경선으로 반전의 돌파구를 찾느라 애쓰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18일)도 내홍이 계속되는 모습이어서 회심의 승부수가 제대로 먹혀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8시 뉴스 (SBS)

◎ 3월 19일 20:00-21:00

해당사항	문장	화자
판단표현	현재 공개변론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측의 고민이 깊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갈 것인지, 아닌지.	
판단표현 진실양태	탄핵안 가결 직후,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약속을 지키자니 총선 국고보조금도 못 받고 아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없던 일로 하자니 변명이 궁색하기 때문입니다.	
소극적 근거성	이번 탄핵심판의 변론과정도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8시 뉴스 (SBS)

◎ 3월 20일 20:00

해당사항	문장	화자
적극적 근거성 적극적 근거성	도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도록 하는 힘은 무엇일까,	
적극적 근거성 적극적 근거성	탄핵 철회언급이 벌써 두번째인데 당 지도부는 무시하는 분위기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적극적 근거성 적극적 근거성	강 장관은 ... 정작 본인도 문재인 청와대 수석을 만난 사실 때문에 다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SBS 기타 프로그램 담화분석을 위한 코딩북

◎ SBS 모닝 와이드 (SBS) - 13일치는 별도 정리

◎ 3/15 (월) 06:00-08:30

해당사항	문장	화자
진실양태	탄핵안 가결 충격이 좀처럼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홍지만
적극적 근거성 적극적 근거성	심지어는 차량을 몰고 와서 국회로 돌진하는 일도 있었지요. 분신을 기도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2
진실양태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 사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홍지만
주장	조금 진정하시고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홍지만
소극적 근거성	봄은 왔는데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봄을 느끼기엔 좀 먼 것 같습니다.	홍지만
적극적 근거성 판단표현 소극적 근거성	그렇지 않아도 경제도 안 좋았죠,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있어서 지난 겨울 상당히 추웠는데 이번 탄핵으로 도로 꽁꽁 마음이 얼어붙어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홍지만
적극적 근거성 소극적 근거성	봄기운을 느낄 수 있게 우리 모두 좀 현명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지만

◎ SBS 모닝 와이드 (SBS)

◎ 3/16 (화) 06:00-08:30

해당사항	문장	화자
적극적 근거성 판단표현 진실양태	불법 대선 자금에 대통령 탄핵까지 여야 각 당은 시계제로. 이미 폭풍 속에 진입해 있습니다.	1
타동성 진실양태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
판단표현 판단표현 판단표현	탄핵안을 밀어부쳤던 야당은 탈출구 찾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
판단표현	경찰이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다행히 충돌은 없었습니다.	2
판단표현	지난 주 탄핵안 가결 여파로 우리 금융시장이 참 걱정이 됐었는데, 어제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죠?	2
적극적 근거성 진실양태	금융시장이 안정되었다니까 다행이긴 다행인데, 정치권과 국민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닌데, 이 안정세가 계속 유지될까요,	1
진실양태 주장	탄핵 정국이 사이버 공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소신껏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정도를 넘는 것은 자제해야겠습니다.	2

◎ SBS 모닝 와이드 (SBS)

◎ 3/17 (수) 06:00-08:30

해당사항	문장	화자
판단표현 판단표현	탄핵안 가결 이후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는데,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이 두 당이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경악스러워하고 있습니다.	1
판단표현	민주당이 혹독한 탄핵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
판단표현	국내에서는 시국이 어지럽고 어수선한데	1

◎ SBS 모닝 와이드 (SBS)

◎ 3/18 (목) 06:00-08:30

해당사항	문장	화자
타동성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앞으로 얼마나 빨리 심판이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
진실양태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다는 장관들의 발언이 연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2
적극적 근거성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초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열린우리당은 지지율 급등의 역풍을 우려하며 집안단속에 나섰습니다.	1
판단표현	탄핵 역풍에 휘청거리는 한나라당은 전당대회와 대표경선을 통한 난국 타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

◎ SBS 모닝 와이드 (SBS)

◎ 3/19 (금) 06:00-08:30

해당사항	문장	화자
판단표현	어제 헌법재판소는 개소이래 가장 긴장된 하루를 보냈습니다.	1
소극적 근거성 소극적 근거성	노대통령의 출석여부에 대해서 여야 각 정당은 그저 대통령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할지 아니면 불리할지 선뜻 계산이 서지 않는 듯 합니다.	1

◎ SBS 모닝 와이드 (SBS)

◎ 3/20 (토) 06:00-08:30

해당사항	문장	화자
적극적 근거성 판단표현 판단표현	열린우리당이 허름한 건물로 당사로 옮기더니 이번에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들판에 나앉았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겠죠.	2
적극적 근거성 판단표현	조순형 대표마저 당을 기울어 가는 배에 비유하는 것이 민주당의 현실정입니다. 이 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1
판단표현	민주당의 추미애 상임중앙위원이 당 지도부에 사퇴의사를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2

◎ 생방송 투데이 (SBS) - 16, 17, 18일 방영분은 해당 사항 없음

◎ 3/15 (월) 18:20-19:05

해당사항	문장	화자
진실양태	대통령 탄핵 가결이후에 찬반 집회가 여기저기서 열리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영아
주장	더이상의 국론분열이나 갈등이 없이 하루 빨리 나라 전체가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아
진실양태 적극적 근거성 판단표현 적극적 근거성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이런 일까지 겹쳐서 참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	이창섭
판단표현 진실양태	이럴 때일수록 자기의 일을 꿋꿋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덕분에 나라가 안정되는 건데.	이창섭
소극적 근거성	이 설교수님이 정답을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이창섭
주장	... 전부 다 자제하면서 큰 혼란 없이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섭
진실양태	우리 국민은 저력이 있으니까요	최영아

◎ SBS 세븐 데이즈 (SBS)

◎ 3/14 (일) 22:55-23:55

해당사항	문장	화자
소극적 근거성	탄핵안이 통과된 순간...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도, 지지하지 않았던 분도 아마 그 순간만은 비슷한 심정이셨을 것입니다.	임성훈
진실양태 판단표현 적극적 근거성	정말 더 이상 국민 못해먹겠다 그렇게 한탄하는 분들도 많았구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어쩌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는지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성훈
판단표현 판단표현	폭력으로 얼룩진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임성훈
판단표현 판단표현 적극적 근거성	독재정권, 군사정권 시절에도 우리는 국회가 탄핵안을 밀어붙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성훈
적극적 근거성 판단표현	16대 국회는 사실 탄핵정국 이전부터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임성훈
판단표현 진실양태	... 국민들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묻습니다. 그런 국회가 과연 우리 국민을 이렇게 혼란과 분열에 빠뜨릴 자격이 있느냐고 말이죠.	임성훈
소극적 근거성 주장 주장 주장	이제 이 혼란을 극복해야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몫인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냉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을 국민 여러분이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한 달 후에 각자의 소중한 한 표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치인들을 일깨워야 할 것입니다.	임성훈

◎ 생방송 투데이 (SBS)

◎ 3월 19일 18:20-19:05

해당사항	문장	화자
진실양태 판단표현	근데 그동안처럼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보인 적이 있을까. 머 가는 곳마다 정치 얘기. 찬반을 떠나서. 참 대단히 뜨거운 일주일을 보냈는데.	이창섭
적극적 근거성	정치권에서는 이분들을 정당의 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모두들 또 여성분들이예요. 남성분들도 하기 힘든데.	이창섭

◎ 뉴스추적 (SBS)

◎ 3/17 (수) 23:00-24:05

해당사항	문장	화자
판단표현	2004년 3월 고함과 욕설 육탄전으로 얼룩졌던 이곳 민의의 전당에는 무거운 정적감만 감돌고 있습니다.	임성환
판단표현 판단표현 진실양태	전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탄핵 소용돌이에 휘말린 채 국민들은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적극적 근거성 진실양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정치적 사건이라기보다는 지난 1년 동안 진행되어온 여야의 대립이 가져다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조성원
진실양태 판단표현 적극적 근거성 판단표현 진실양태	탄핵을 주도한 야3당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높습니다. 그런가하면 국론은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끝내 막지 못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임광기
적극적 근거성 주장	최종 심판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무엇보다도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기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김경희
적극적 근거성	헌법재판소는 여야의 정략적인 논리나. 이해득실을 따져서 공정하고 가능한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임광기
판단표현 판단표현	국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일꾼들이 서로 싸우는 바람에 엉뚱하게도 주인인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성환
적극적 근거성 적극적 근거성	그렇다면 이제 주인인 국민들이 냉정하게 결단을 내려야합니다	임성환
판단표현 진실양태	그 결단은 다가오는 17대 총선에서 거짓된 일꾼들을 솎아내고 제대로 된 일꾼들을 뽑는 준엄한 심판으로 표출될 것입니다.	임성환

◎ SBS 대토론 이것이 여론이다 (SBS)

◎ 3/19 (금) 23:15-24:45

해당사항	문장	화자
진실양태	충격과 혼란 속에서 여러 가지 착잡한 심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하루를 보낸 우리는...	염재호
판단표현	마주 달리는 두 대의 기차가 충돌할 것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던 국민들이...	염재호
소극적 근거성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적 실익들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은 있을 것입니다.	염재호
타동성 소극적 근거성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인들에 대한 자성론도 지적이 될 수 있구요.	염재호
진실양태	...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의 편 가르기 구조가 심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도 상당히 큰 문제...	염재호
판단표현	비장한 상태에서 양쪽 측들이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키고...	염재호
적극적 근거성 타동성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해법이 찾아지지 않는다는 것도 또한 발견을 했습니다.	염재호
.주장	... 이제 총선까지 남은 30여 일 동안에 우리 국민들은 더욱더 냉철하고 신중한 가운데서 현명한 선택을 하실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염재호